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7 권

제 1 장 영웅대회(英雄大會)

장무기는 양소 등을 이끌고 공문, 공지 등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하산했다. 팽화상은 오행기를 철수시켰다. 거목기와 후토기는 소림사로부터 약 오 리쯤 떨어진 곳에 십여 개의 천막을 치고 중인이 편히 휴식을 취하게끔 했다.

장무기는 마음이 무거웠다. 명교에는 양소와 외조부보다 무공이 더 고강한 사람이 없으니, 설령 범요와 위일소가 나선다 해도 오늘과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금강복마권을 파괴할 수 있는 고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팽화상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넌지시 입을 열었다.

"교주, 장진인을 모셔오면 어떨까요?"

장무기는 망설였다.

"만약 태사부님이 하산하여 나를 도와주신다면 금강복마권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태사부님이 나서게 되면 자연히 무당과 소림 사이에 금이 갈 테니 태사부님께서 윤허를 하지 않을 것이오. 게다가 태사부님은 비록 무학이 노화순청(爐火純靑)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워낙 고령이신지라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천정이 벌떡 일어나 광소를 터뜨렸다.

"하하핫.....! 장진인이 하산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좋은 생각이군.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는 입을 크게 벌린 채 갑자기 굳어졌다.

군호들은 그가 갑자기 광소를 날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는 것을 보자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양소가 얼른 입을 열었다.

"은형, 장진인께서 하산하실 것이라 생각하오?"

그는 거듭 물었으나 은천정은 돌처럼 굳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장무기가 흠칫 놀라 그의 맥을 짚어보니 뜻밖에도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알고보니, 그날 광명정에서 육대문파의 고수들과 고군분투하여 이미 원기가 크게 손상된 데다가 조금 전에 도난을 상대하느라 다시 모든 기력을 쏟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그는 진기가 고갈되는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장무기는 그의 시신을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은야왕도 달려와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을 했다. 군호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주위는 삽시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며칠 동안 군호들은 은천정의 장례를 치르느라 분주했다. 각 문파와 각 방회에서도 소식을 전해 듣고 조문객이 쇄도했다. 공문과 공지 등도 직접 찾아와 제를 올렸으며, 이어 서른 여섯 명의 승인을 보내 은천정을 위해 초도법사(超渡法事)를 하게끔 했다. 그러나 서른 여섯 명의 승려가 염불의 몇 귀절을 읊기도 전에 은야왕이 곡상봉(哭喪棒)을 휘둘러 그들을 몰아내 버렸다.

주전도 한쪽에서 욕설을 터뜨렸다.

"소림의 땡중들아, 언젠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장무기는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다. 그는 양소, 팽화상, 조민 등과 수차에 걸쳐 대책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조민은 도액 삼승에게 십향연근산을 전개하자고 제의했으며, 녹장객과 학필옹을 불러와 장무기를 돕겠다고 자처했지만 장무기와 양소는 그 방법을 채택할 수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 단오절이 되자, 장무기는 교중들

을 이끌고 소림사에 당도했다. 소림사 후전에는 각처의 영웅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각처의 무림 인물 중엔 진짜 사손과 원한이 있어 순전히 사손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도 있었고, 혹은 오로지 도룡도에 욕심이 있어 보도를 손에 넣고 무림지존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도 많았다. 또한 어떠한 자들은 누구와 원한이 있어서 이 기회에 결판을 내려고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구경하러 온 사람이 가장 많았다.

소림사에서는 백여 명이나 되는 사미승으로 하여금 참석하는 무림 인물들을 접대케 했다.

무당파에서는 단지 유연주와 은이정 두 사람만 보내왔다. 장무기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장삼봉의 안부를 물었다.

"송청서와 진우량의 소식은 모르느냐?"

유연주가 낮은 소리로 장무기에게 묻자, 장무기는 그 동안의 사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장무기는 이번에 송원교와 장송계가 오지 않은 것은, 송청서와 진우량이 찾아와 또 무슨 간계를 쓸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연주는 송원교가 직접 자기의 독자 송청서가 역모에 가담한 사실을 듣고 상심을 하며 식음을 전폐하여 몸이 무척 허약해졌고, 또한 사부님께 심려를 끼칠까 봐 보고도 못 드리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는 얘기까지 해주었다.

장무기는 걱정이 되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송사형께서 참회를 하고, 어서 발리 송사백님의 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유연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그놈이 막칠제를 살해했으니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는 분에 못 이겨 이를 갈았다.

점점 더 많은 무림 인물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날 금강복마

권을 공격하던 하간쌍살과 청해파 검객들도 모두 참석했다. 화산파, 공동파, 곤륜파에서도 모든 고수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아미파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다.

장무기는 내심 주지약을 볼 수 있기를 바랬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면 그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자 장무기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무척 후회스러웠다.

명교의 교중들은 서쪽의 한 편전에 안내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른 무림 인물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명교 교중들이 무림 영웅들과 원한 관계가 많아 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싸움이 붙어 대회를 열지 못할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정오 무렵, 소림사의 사미승들은 군웅들을 모두 산 오른쪽에 있는 광장으로 안내했다. 이 광장은 원래 소림사 승려들이 채소를 심는 밭이었으나 지금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천막이 쳐져 있었다.

군호들은 사미승을 따라 각자 자기의 자리에 앉았다. 각파의 인원수에 따라 크고 작은 천막에 안내된 것이다.

팽영옥은 광장에 모인 무림 영웅들 중에서도 걸출한 인물들의 내력을 장무기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대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평소 강호에 나타나지 않고 은거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한둘씩 모두 나타났다.

팽영옥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 명교의 교중들을 제외하고도 사천 육백 명이 넘는 것 같았다. 장무기와 양소는 대회에 참석한 자들이 친구보다는 적이 더 많자 매우 걱정이 되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소림승들이 차례로 나와 원(園), 혜(慧), 상(相), 장(莊) 글자의 서열대로 군웅쪽을 향해 인사를 했다. 맨 나중에 공지신승이 나타났고, 그의 뒤에 아홉 명의 달마당의 노승들이 따라나왔다.

공지신승은 광장의 중앙으로 걸어나와 합장을 하고는 염불을 외우고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많은 천하 영웅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은 소림사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사의 방장사형께서 갑작스럽게 병이 나셔서 여러 영웅호걸들과 만나 뵙지 못하는 것을 대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장무기는 내심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날 공문대사께서 외할아버지 영전에 조의를 표할 때만 해도 얼굴에 조금도 병색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력이 심후한 노승이 갑자기 병을 앓다니 혹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

사방을 살펴봐도 원진과 진우량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세 노승에게 원진의 간계를 폭로한 것에 대해 소림사에서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군. 공문대사가 갑자기 병이 생겼다는 것이 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대회는 남송 말기에 곽정과 황용 부부가 차례로 대승관과 양양에서 천하 군호들을 초청하여 몽고의 침략에 대해 상의를 하기 위해 대회를 연 이후로, 근 백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처음으로 이런 영웅대회가 열린 것이다. 사실 강호의 일대 성사라 할 수 있는데 주최자인 주인공이 갑자기 병이 생겼다니, 참석한 무림 인물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공지신승이 다시 말했다.

"오늘 여기 모인 것은 금모사왕 사손이 무림에 화를 몰고 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다행히 폐파에 붙잡혀 소림사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각계의 무림 지사와 의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본시 생기기를 우수에 찬 얼굴인데, 지금은 더 맥없이 말을 하고 나서는 곧바로 합장을 하고 뒤로 물러섰다.

동남쪽에서 몸집이 건장하고 수염이 많이 난 한 사람이 일어나 사방을 훑어보았다. 그의 부리부리한 눈매는 매우 위엄이 있어 보였다.

팽영옥은 이 사람이 바로 산동의 노권사(老拳師) 하주(夏胄)라고 장무기에게 얘기해 주었다.

이윽고 그 자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사손 같은 나쁜 자를 귀사에서 체포했다니 무림에 큰 복을 내리셨소. 그런데 공문, 공지신승께서는 너무 겸손한 것이 아니오? 그런 악인을 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여 없앨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영웅호걸들이 모두 모였으니, 이 대회를 도사대회(屠獅大會)라고 칭하고 사손의 살을 찢어 모두 한 입씩 뜯어 먹읍시다. 그리고 그의 피를 마시며 무고하게 그에게 당한 친구들의 원수를 갚읍시다."

하주도 그의 친형이 사손의 손에 죽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을 오직 사손을 찾아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제의가 나오자 여러 곳에서 수백 명이 그의 뜻에 찬성하며 빨리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다.

이 혼란 속에서 어디선가 음산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손은 명교의 호교법왕인데 소림에서 만약 명교가 두렵지 않았다면 벌써 그를 죽였을 것이오. 뭣하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겠소? 내가 보니 하형은 정말 멍청한 것 같소. 내가 한 마디 권하겠는데 일찌감치 몸조심이나 하시게."

컸다 작았다 괴기한 말투였으나 모두의 귀에는 자세히 들렸다. 모두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보았지만 도대체 누구인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주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취불사(醉不死) 사도(司徒) 친구요? 사손은 나의 형을 죽인 원수요. 대장부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오. 소림 고승들은 어서 사손을 끌어내시오! 노부가 단칼에 그를 죽일 것이오. 마교 교중들은 얼마든지 나 산동 하씨를 찾아오시오!"

사람들 숲에서 다시 그 자의 음산한 웃음과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형, 무림지존이라는 도룡도가 사손의 손에 들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오. 소림파에서 사손을 잡았으니 그 보도를 뺏지 않을 리가 있었겠소? 소림파에서는 사손을 죽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소? 여보시요, 공지대사! 더 이상 어물쩡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도룡도나 꺼내 놓고 모두 한 번 구경이나 하게 하는 것이 어떻소? 소림파는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무림의 우두머리였는데, 그 보도가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오? 무림의 지존은 여전히 소림사가 아니오!"

팽영옥이 낮은 소리로 장무기에게 설명해 주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취불사 사도 천종(醉不死 司徒 千鍾)이라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여 사부도 없고 제자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파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누구와도 별로 싸우지 않아 누구도 그의 진짜 무공 실력을 모릅니다. 항상 비꼬아 가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말에는 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따라서 외쳤다.

"일리가 있습니다. 도룡도를 꺼내 오시오! 구경이나 한 번 합시다."

공지는 느릿느릿하게 해명을 했다.

"소림사에는 도룡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승도 평생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그런 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대회장은 갑자기 술렁이며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이 대회가 도룡도와 관련있다고 짐작했는데, 공지신승이 없다고 부인하자 모두 천만 뜻밖이 아닐 수가 없었다.

공지신승 뒤에 선 아홉 명의 노승들은 모두 빨간색 가사를 걸치고 있었다.

군웅들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 중 한 노승이 앞으로 두 걸음 걸어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도룡도는 원래 사손이 갖고 있었지만, 폐파에서 그를 잡았을 때는 이미 그 칼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소. 본사 방장께서 그 칼의 행방이 무림의 대사라 생각하시고 알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사손은 끝내 고집을 피우며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연 것은 첫째, 사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의논할 목적이었고, 둘째는 바로 여러 영웅호걸들에게 도룡도의 행방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든 행방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군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취불사 사도 천종이 또다시 이상한 말을 꺼냈다.

"무림에 백 년 동안 전해내려 온 말 중에, 무림지존인 도룡도가 천하를 호령하면 어느 누가 감히 거역하겠느냐고 했소. 그러나 의천이 없는데 또 누가 감히 그와 맞서겠느냐고 했소. 도룡도 외에 의천이 있다는 얘긴데, 이 의천보검은 듣기로는 원래 아미파에서 갖고 있었다고 했소. 그런데 서역의 광명정에서의 일전을 치른 후 그만 행방이 묘연해졌다는데 오늘 이 영웅대회에 아미파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했단 말이오?"

그러자 만장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때 한 사미승의 외침이 들려왔다.

"개방의 사방주께서 개방의 장로들을 인솔하고 도착했습니다."

장무기는 사방주란 세 글자에 어리둥절해 했다.

'아니 개방의 사방주는 이미 원진의 손에 죽은 지 오래전 일인데, 또 누가 사방주라는 건가?'

"어서 모셔라."

공지신승은 개방이 강호의 제일 큰 방화라 직접 나가 영접을 했다.

곧이어 한 패거리가 광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 행색이 남루한 남자들이었다. 근래에 개방의 세력이 전과 같이 그렇게 흥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호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군호들은 감히 그들을 경시하지를 못했다. 대부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장무기는 맨 앞에서 걸어오는 두 늙은 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전공장로와 집법장로였다. 그 뒤에는 뜻밖에도 열두세 살쯤으로 보이는 못 생긴 여자 아이가 뒤따랐다. 하늘로 치솟은 콧구멍, 그리고 큰 입에 두 개의 덧니가 튀어나온 바로 사화룡의 딸 사홍석이었다.

그녀는 손에 개방 방주의 신물인 타구봉을 들고 있었다. 그 뒤엔 장봉용두, 장발용두가 있었고 그 뒤에는 서열에 따라 팔대장로, 칠대제자, 육대제자가 줄줄이 걸어들어왔다. 이번에 참석한 개방 제자들 중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자는 육대제자들이었다.

공지신승은 어린 여자 아이가 타구봉을 들고 있자 도대체 누가 방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합장을 하며 인사를 올렸다.

"개방 군웅들의 왕림을 소림승 모두를 대표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군웅들이 모두 일어나 답례를 하고 나자 이번에는 전공장로가 일어섰다.

"사 전방주께서 불행하게도 그만 돌아가셔서 여러 장로들이 의논한 바, 사방주님의 딸인 사홍석 소녀를 방주로 추대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개방의 새로운 방주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으로 사홍석을 가리켰다. 공지신승과 군웅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호에서 말하기를 명교, 개방, 소림파를 따질 때, 교문으로서는 명교를 첫째로 꼽고 방회로는 개방이 으뜸이고 무학문파로서는 소림을 첫째로 꼽았다. 명교에서는 스물 몇 살밖에 안 되는 장무기라는 소년을 교주로 앉혀 모두가 신기해서 혀를 내둘렀는데, 또다시 개방에서 이런 어린 계집아이를 방주로 추대했다니, 개방장로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왕년에 황용이 어린 소녀 적에 개방 방주가 된 선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홍석보다는 나이가 많았었다.

공지신승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래도 결례를 할 수 없어서 합장을 하며 인사를 했다.

"소림문하 공지, 사방주께 인사올립니다."

사홍석도 간단하게 읍을 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폐방 방주께서 아직 나이가 어려 모든 방무(幇務)는 잠시 저와 집법장로 두 사람이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배이신 공지신승께서 이렇게 예를 갖춰 주시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겸양의 말을 마치자 사미승이 개방 일행들을 한 천막으로 안내하여 자리에 앉혔다. 개방의 인원수가 많아 한참 지나서야 모두 착석을 했다.

장무기가 그들을 보니, 개방 제자들은 모두 검은 리본을 달고 매우 비분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그 중 어떤 제자들은 뒤에 매단 포대자루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개방에서는 무슨 큰 결심을 하고 온 것이 틀림없었다.

장무기는 내심 한결 마음이 놓였다.

양좌사가 장무기에게 속삭이며 말했다.
"우리의 든든한 호수들이 왔군요."
그러자 전공, 집법 두 장로는 사홍석을 데리고 명교 교주들이 모인 천막으로 걸어왔다.
전공장로는 포권의 예를 갖추고 말했다.
"장교주, 금모사왕이 모함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 개방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린 오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루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신 우리 사방주의 원수도 갚을 것입니다. 우리 개방 전체는 모두 장교주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장무기는 황급하게 일어나 답례를 했다.
전공장로의 음성은 매우 우렁찼는데, 대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개방 제자들은 모두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명교 장교주의 호령이라면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군웅들은 모두 크게 놀라워했다.
"아니 언제부터 개방이 명교와 한통속이 됐지?"
강호에 별로 나타나지 않던 극소수 외엔 모두 명교와 개방이 지금까지 서로 대립하며 싸워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방은 광명정 싸움에도 참여하여 쌍방 모두 큰 피해를 입었었고, 맨 나중에 광명정을 공격한 개방 제자들은 모두 전사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공장로가 공공연하게 장교주의 호령을 따르겠다느니, 사방주의 원한을 갚겠다느니 운운하자 군웅들은 모두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전공장로는 다시 뒤로 돌아서서 크게 외쳤다.

"개방은 소림파와 지금까지 아무런 원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방은 항상 소림을 존중해 왔습니다. 물론 작은 시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방에서는 언제나 참고 양보를 하며 절대로 소림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화룡 방주 이하 모두는 소림 사대신승의 높으신 덕망을 존경해 왔고, 사대신승께서는 무학을 연마하는 모든 무림지사들의 모범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그리고 사방주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휴양을 겸한 은둔생활을 하며 수십 년 동안을 강호에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소림고승이 그분을 살해했는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회장에서는 어! 하고 놀라움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공지신승마저도 금시초문이었다.

전공장로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여러 영웅호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지신승에게서 모든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방주께서 도대체 무슨 원한을 사서 소림고승에게 사방주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인과 딸까지도 모두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림파는 지금까지 무림의 태산북두로 군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어거지를 쓰겠습니까? 그러니 귀사의 고승 한 분과 속가제자 한 명만 대질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소.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오."

"좋소."

순간 전공장로는 입을 딱 벌리고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지신승은 깜짝 놀라 그의 오른팔을 잡아 보니 이미 맥박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장로! 장로!"

공지신승은 당황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전공장로의 얼굴을 쳐다보니, 두 눈썹 중간에 극독이 담긴 암기로 보이는 검은 반점이 박혀 있었다.

"여러분 모두는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개방장로께서 극독의 암기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소림파에서 이런 악랄한 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오."

개방에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수십 명이 전공장로 쪽으로 달려갔다. 장발용두가 품 속에서 자석을 꺼내 전공의 눈썹 사이에 갖다 대자 쇠털처럼 가느다란 강침이 딸려 나왔다.

공지신승의 말대로 소림이 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개방에서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밝은 대낮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히 누가 이런 암기로 기습했고, 또한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니,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집법장로를 비롯한 개방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짐작했다.

'전공장로가 남쪽을 향해 서 있었으니 암기는 분명 남쪽에서 날아온 것이 틀림없고, 때마침 햇빛에 눈이 부시고 전공장로께서 너무 격분하였었기 때문에 가느다란 암기가 날아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장로들의 노기띤 매서운 눈초리가 공지신승의 뒤로 쏠렸다. 그의 뒤에 있던 아홉 명의 빨간색 가사를 걸친 노승들은 맥이 풀린 채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황의 승려들이 나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엔 회색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나열해 있었는데 어느 누가 암기를 발사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범인은 분명 소림승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집법장로는 갑자기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래도 공지대사께서는 오해라고 하시겠소? 지금 똑똑히 봤으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소?"

성격이 급한 장발용두는 철봉을 쳐들며 외쳤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림파와 끝장을 내고 말 것이다!"

요란한 병기소리와 함께 개방 방중들은 대회장으로 몰려갔다. 그러자 공지신승은 안색이 창백해져서 뒤를 돌아보며 소림승들을 향해 물었다.

"달마 노조께서 서쪽에서 여기에 오셔서 본파를 창업하신 후로 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역대의 승려들께서는 모두 계율을 지키고 불도를 닦았소. 물론 호신용으로 무학을 연마했지만 강호의 영웅호걸들과 내왕을 하면서 절대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방장사형과 나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간파하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소림승들을 일일이 노려보았다.

"이 독침을 누가 발사했는지 어서 자백해라. 대장부는 자기가 저지른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느니라."

그러나 수백 명이나 되는 소림 승려들 중에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개중에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을 외는 승려도 있었다.

장무기는 갑자기 한 가지 지나간 일이 떠올랐다. 옛날에 어머니 은소소가 아버지 장취산의 차림새를 하고 독침으로 소림승을 살해하여 아버님이 누명을 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천응교의 은침은 이 강침과 모양이 완전히 틀리고 독성도 전혀 달랐다.

전공장로의 죽은 모습으로 보아 그 독은 서역에서 나는 심일도(心一跳)라는 독충인 것 같았다. 심일도란 독충은 독이 사람의

피와 섞일 때 중독자의 심장이 몇 번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린다.

장무기는 이미 사화룡이 원진의 손에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소림사에 원진의 패거리가 매복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전공장로를 죽인 것은 원진이라고 밝히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모두들 전공장로를 쳐다보느라 암기를 발사한 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장봉용두가 크게 외쳤다.

"사방주를 죽인 범인이 누구라는 것은 개방의 수만 명 되는 제자들 중에 모르는 제자가 없는데, 너희들이 수만 명을 모조리 죽일 수 있겠느냐? 사화룡 방주를 죽인 화상놈은 바로 원진이다......"

갑자기 장발용두가 철봉을 쳐들고 뛰어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순간 탱! 탱!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두 개의 강침을 막아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디서 강침이 날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장발용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라 햇빛에 파란 빛이 번쩍이자 재빨리 그것을 막아냈던 것이다. 한 발만 늦었어도 장봉용두는 필경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어느새 공지신승은 달마당 노승들의 뒤로 달려갔다. 팍!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공지신승은 왼쪽에서 네 번째에 서 있는 노승을 걷어차며 뒷덜미를 움켜쥐었다.

"공여(空如), 너였구나! 너도 원진과 한통속이 되어 버렸느냐?"

공지신승이 오른손으로 공여의 승의를 찢자 옷이 찢겨지면서 그 속에 강철로 만든 작은 원통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원통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탄력 장치가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모두는 깜짝 놀라며 그 자의 짓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철로 만든 통에는 탄력 장치가 되어 있으니 발사하는 자는 손

도 들 필요없이 품 속에서 기관만 누르면 독이 묻은 강침을 발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서로 가까이 서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암기를 발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장봉용두는 비분이 치솟아 철봉으로 공여의 머리통을 마구 후려쳐서 즉사시켜 버렸다.

공여의 신분은 사대신승과 동배인 터라 배분이나 무공이 모두 높은 노승이지만, 공지대사에게 뒷덜미를 잡혀 움쭉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철봉이 덮쳐오는 것을 두 눈뜨고 보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작살당한 것이다. 또 한번 군웅들의 놀라움이 터져 나왔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도 않고 죽이다니, 정말 성미도 급한 사람이군!'

공지대사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 보았다.

바로 이 혼란한 때에 갑자기 장외에서 네 명의 여승이 손에 불진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들어왔다.

"아미파 주지약 장문인께서 문하제자들을 이끌고 소림 방장 공문대사를 참견하러 왔소"

공지대사는 공여의 시신을 내려놓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를 마중 나갔다. 남은 달마당의 여덟 명의 노승들도 그의 뒤를 따라 걸어나갔다. 그들은 마치 조금 전의 참극을 본 적이 없다는 듯 침착한 표정들이었다.

네 명의 여승은 먼저 인사를 하고 난 후 다시 뒤로 돌아갔다. 표연히 들어왔다가는 어느새 물러나 버렸다. 네 여승의 동작은 하나로 묶은 듯이 통일되어 있었다. 더구나 그들의 발걸음은 흐르는 물과도 같았고 하늘의 구름과 같이 경쾌했다.

장무기는 주지약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슬쩍 조민을 쳐다보니 마침 조민도 자기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그녀는 입을 삐쭉거리며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이 꼭 자기를 경멸하는 인상처럼 느껴졌다. 장무기를 조소하는 것인지 주지약의 허세를 경멸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 진의를 알 수 없었다.

아미파 여협들은 개방과 같이 무질서하게 대회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공지대사가 군승들을 이끌고 마중나오자 그제서야 대열을 지키고 들어왔다. 팔구십 명이나 되는 여승들은 모두 일률적으로 노란색 승복을 입고 있었고, 그 중 태반은 머리를 완전 삭발한 여승들이었다. 일부분의 소수만 노년에 중년 그리고 묘령의 여자들이었다.

여제자들이 모두 걸어들어오자 일장여 거리나 되는 뒤에 청색 장삼을 입은 절세 미인이 천천히 걸어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다름아닌 아미파 장문 주지약이었다.

장무기는 핼쓱해진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자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웠다. 장무기의 뒤에는 이십여 장이나 뒤떨어져 이십여 명의 남제자들이 노란색 장포를 입고 매우 점잖게 걸어들어왔다. 어느 문파 어느 무림 인물도 이렇게 질서 있고 웅장하지는 못했다.

남제자들의 손엔 모두 크고 작은 나무상자들이 들려 있었다. 백여 명의 아미파 제자들 중에 병기를 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무기를 모두 이 나무상자에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군웅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미파에게 내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미파는 소림파에 대한 예절이 상당하군."

무기를 보이지 않는 것은 소림파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표현이었다.

아미파 제자들이 모두 천막에 들어가 자리에 앉고 나자, 장무기는 그들 앞으로 걸어가 주지약을 향해 길게 읍을 하며 수줍은 듯이 말했다.

"주사매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십여 명의 아미 제자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노기 찬 얼굴로 장무기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주지약은 장무기에게 가볍게 답례를 하며 말했다.

"천만의 말씀, 그 동안 별일 없으셨는지요?"

아무런 표정도 없는 그녀의 얼굴로 보아 기뻐하는지 노기를 띠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도무지 그녀의 심중을 헤아릴 수 없어 몹시 난처해 했다.

"지약, 그날은 의부님을 구출하려는 마음이 조급해 그만 대례를 치루지 못했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 어쩔 줄 몰랐소."

"듣자 하니 사대협께서는 소림사에 감금당하셨다는데, 훌륭하신 무공을 지닌 장교주께서 이미 구출해 내셨겠지요?"

그 말에 장무기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소림사 고승들의 무공이 심후해 그들과 겨뤘지만 명교에서 벌써 일장을 졌습니다. 그 싸움에서 불행하게도 나의 외조부님을 잃었습니다."

"일세의 영웅이신 은노인 어른을 잃으셨다니 안타깝군요."

그녀는 조금도 희노의 빛을 내색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그녀가 말할 때마다 웬지 무안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서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결혼식 날에 자기가 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조민을 따라가 버렸으니, 그 때의 주지약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다. 오늘 자기가 당하는 무안은 그날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잠시 후에 의부님을 구출할 때, 왕년의 정을 생각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반 년 동안 무공에 있어서 큰 진보가 있었다. 그날 결혼

식장에서 훌륭한 무공을 지닌 범우사마저도 주지약의 단 일 초식에 뒤로 밀려났고, 하마터면 각파의 장기를 고루 익힌 주지약에게 목숨마저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백당, 역삼랑 부부를 살해한 날도 그랬었고..... 아무튼 아미파 장문직에 오르는 인물에게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내려온 무공비급이 있는 모양이었다.

'주지약은 총명해서 멸절사태보다도 더 무공이 훌륭해. 만약 주지약이 나와 합심을 한다면 금강복마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장무기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지약,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소."

주지약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장교주, 말씀 삼가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로 손짓을 하면서 다시 말했다.

"당신 이리로 와서 우리 사이를 장교주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자 뒤에서 한 털보가 걸어와 포권의 예를 올리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장교주, 그 동안 안녕하셨소?"

목소리를 들으니 송청서인 것 같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송청서가 틀림없었다. 늙고 추한 모습으로 자기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변장한 사나이는 송청서가 틀림없었다.

"송사형님이셨군요. 그 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송청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 보면 모두 장교주의 덕입니다. 결혼식 날 장교주께서 갑자기 후회하고 파혼하지만 않았다면....."

"파혼이라구요?"

장무기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이 아름다운 인연은 모두 장교주의 덕택이었

소."

순간 장무기는 벼락을 맞은 듯이 멍청히 서 있기만 했다. 그는 앞이 캄캄해지며 시끄러운 소리가 귓전을 마구 울리고 있었다. 그는 무슨 말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자기의 팔을 잡으며 말하는 것이 들려오고 있었다.

"교주님, 어서 돌아가시지요."

장무기가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니, 한림아가 자기의 팔을 잡고 있었다. 한림아는 비분에 찬 얼굴로 주지약에게 말했다.

"주낭자, 우리 교주께서는 대인대의한 영웅입니다. 그날의 조그마한 오해로 이런 놈에게 시집을 가다니 흥.....!"

한림아는 송청서에게 마음껏 욕설을 퍼부으려고 했지만, 주지약의 체면을 봐서 꾹 참고 말았다.

장무기는 물론 조민에게 깊은 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주지약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 그날 의부님을 구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민을 따라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주지약의 성격이 온순하므로 솔직하게 그녀에게 사실대로 사정을 고백하면 그녀가 용서해줄 것으로 믿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지약이 홧김에 송청서와 결혼을 하리라곤 정말 몰랐다. 지금 장무기의 신정은 광명정에서 그녀에게 일검을 찔린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장무기가 뒤돌아보니 주지약이 손을 흔들자 송청서가 득의양양해 하며 그녀의 옆에 걸어와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웃는 듯 말 듯하면서 장무기에게 말했다.

"결혼식 때 모두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청첩장을 많이 돌리지 못했는데, 언제고 찾아오셔서 술이나 한 잔씩 나눕시다."

"고맙소."

그러나 장무기는 목이 메여 이 세 마디도 제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림아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교주님, 이런 사람과는 말대꾸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 하! 하!"

"한형, 그날 같이 오십시오."

한림아는 퉤! 하고 침을 뱉었다.

"말 오줌을 마시면 마셨지 너 같이 재수 없는 놈의 술은 안 마신다!"

장무기는 탄식을 하며 한림아의 팔에 끌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바로 그 때 장봉용두는 한 소림승과 격렬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장무기와 주지약, 그리고 송청서, 한림아는 서북쪽 한 귀퉁이에서 말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주의하지 못하고, 모두 개방과 소림파의 논쟁만 듣고 있었다.

명교의 천막에 돌아와 자리에 앉은 장무기는 마음이 산란하여 정신이 집중되지 않았다. 희미하게 빨간색 가사를 걸친 소림승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원진사형과 진우량이 본사에 없다는 말을 귀방에서는 믿지 않을 것이고, 귀방의 전공장로께서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었지만 대신 폐파의 공여사숙이 죽지 않았소? 그런데 또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원진과 진우량이 여기에 없다니 우리가 수색해 보기 전엔 절대 믿지 못하겠소!"

장봉용두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자, 소림승은 냉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각하께서 본사를 수색하겠다니 너무 자신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오? 아마도 개방에는 그런 실력이 없을 줄 아오."

"흥, 개방을 우습게 보는군. 그럼 내가 먼저 한 수 가르쳐 줄까?"

"천여 년 동안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소림사엘 찾아왔었지만,

조상들의 자비심 덕택인지는 몰라도 소림사는 여전히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소."
 두 사람의 입씨름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곧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으나, 옆에 앉은 공지대사는 조금도 그들을 말리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갑자기 사도 천종의 음양괴기한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 이렇게 많은 영웅들께서 소림에 모였지만, 어떤 분들은 멀리 천리 밖에서까지 오셨는데 개방의 복수극을 구경하러 온 것이 되어 버렸군."
 그러자 하주가 또 말했다.
 "맞어, 개방과 소림의 원한은 잠시 제쳐놓고 먼저 사손 그놈을 처단하는 일을 결론내야지."
 장봉용두의 노기띤 음성이 튀어나왔다.
 "말조심 하시오! 금모사왕 사대협은 명교의 사대법왕 중의 한 분인데 함부로 부르다니!"
 "흥! 명교를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난 두려워하지 않아. 사손같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을 무슨 영웅 협사라고 부르는가....."
 양소가 대회장으로 들어와 포권의 예를 취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소인은 명교의 광명좌사올시다. 이 자리에서 천하영웅들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폐파의 사사왕께서 왕년에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에 많은 잘못이....."
 "흥!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말 몇 마디에 다시 살아날 건가!"
 "강호를 돌아다니는 우리는 항상 칼에 피를 묻히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든 몇 사람의 인명은 살해했을 것이오. 무공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살상을 했을 것이고, 무공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고 꼭 자기의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

면 아마 이 대회장에 모인 수천 명의 영웅 호걸들은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죽었을 겁니다. 하주 영웅께 묻겠는데, 당신은 평생 한 사람이라도 죽인 적이 없소?"

사실 이때는 천하가 대란하여 사방이 소란해 죽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세상이었다. 손에 조금도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은 소림파나 아미파의 극소수의 승려들 외엔 몇몇 사람들만 손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산동의 호걸 하주도 성격이 포악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양소의 말에 그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물론 좋은 사람은 죽여선 안 되고 나쁜 자들은 마땅히 죽여야지. 그러나 사손은 명교의 다른 마두들과 똑같이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천 갈래 만 갈래 찢어 그놈의 살을 씹어 먹고 싶은 심정이다. 흥! 양가야, 보아하니 너도 별로 좋은 놈이 아닌 것 같구나."

하주는 명교에 무공이 높은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형의 원수를 갚으려면 명교와 일전을 치루지 않을 수가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말로서도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

"하주 네놈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

갑자기 명교의 천막에서 째지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하주가 그곳을 쳐다보니 깡마른 얼굴에 입이 뾰쪽하게 생기고 얼굴이 얼마나 하얀지 핏기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주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교의 마두라면 나쁜 놈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옆에 있던 사도 천종이 다시 끼어들었다.

"하형, 어찌 저분도 못 알아보시오! 저분은 명교의 사대법왕 중의 한 분인 청익복왕올시다."

"픽! 흡혈 마귀이군."

순간 눈앞에 무엇이 번쩍이더니 어느새 위일소는 하주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십여 장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새 위일소가 눈깜짝할 사이에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새 위일소는 이미 하주의 뺨을 네, 다섯 차례나 후려치고 다시 팔꿈치로 하주의 아랫배를 내리 찍은 것이다.

하주의 무공도 실은 보통이 아니었다. 위일소가 만약 그와 실력대로 싸운다면 그와 오십여 초식이 지나야 이길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위일소의 경공은 실로 귀신과 같아 상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미 그를 제압한 것이다.

군웅들이 모두 놀라 외치는 사이에 명교의 천막 속에서 또 한 명의 흰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의 신법은 번개와 같은 위일소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랐다.

그는 하주의 앞에 오자 재빨리 포대를 풀어 그 속에 하주를 쳐넣고 어깨에 메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군웅들은 그가 바로 포대화상(布袋和尙) 설불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 하! 그래 너는 좋은 놈이냐? 집에 돌아가서 이 화상이나 삶아 먹어 버려야지!"

그는 하주를 어깨에 메고 가볍게 천막으로 걸어갔다.

하주에게도 십여 명의 친구와 제자가 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고 두 사람의 몸놀림이 너무나 번개 같아 그를 도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명교의 천막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은 후에야, 그들은 무기를 뽑아 들고 천막 앞으로 모여 가 사람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쳤다.

설불득은 포대자루의 끈을 조금 풀면서 웃으면서 말했다.

"어서들 자리에 돌아가 앉지 못하겠는가! 대회가 끝나면 풀어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포대자루에다 오줌을 싸 버릴

것이야.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그는 그러면서 허리띠를 푸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십여 명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그러나 그들은 명교 인물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설불득이 실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기들의 무력으로는 절대로 그를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만약 설불득이 진짜로 오줌을 싸댄다면 하주는 모욕을 못 참고 자살해 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군웅들은 놀라면서도 한편 우습기도 했다. 그들은 사손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 구경하러 모인 것인데, 지금 명교의 두 호걸의 실력을 보자 오늘 이 대회에는 흉조가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손을 죽인다 해도 필시 이 대회장은 피로 사방을 물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두 겁을 먹고 두려움에 싸였다.

그러자 사도 천종이 한 손에 술잔을 들고 한 손엔 주호로를 들고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며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오늘 좋은 구경거리가 생기겠군. 한쪽에선 사손을 죽이자 하고 한쪽에선 살리자 아우성들이지만, 사손이 진짜로 소림사에 있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일이야."

"내 생각엔 공문대사께서 금모사왕 사손을 모시고 나와 모두에게 구경이나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소? 그리고 나서 양쪽이 자기의 실력대로 한번 겨루게 하는 것이 어떻소?"

그의 제의에 반 이상이 좋다고 외쳐댔다.

'사사왕의 원수들이 워낙 많아 명교와 개방이 힘을 합친다해도 천하 영웅들과 싸울 처지가 못 된다. 그러니 도룡도로 주의를 돌리게 해서 서로 다투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양소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한 것은 첫째 금모사왕과 각기 은원이 있어서 오신 것이고, 둘째는 아마 도룡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싶어서일 것이오. 만약 사도 선생의 말대로라면 대회장은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그럼 도룡도는 누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오?"

그 말에 모두는 수긍이 갔다. 이 수천 명 중에서 진짜 사손과 원한이 있는 사람은 불과 백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무림지존이라는 네 자를 듣자 마음이 술렁거렸다.

이때 검은 수염의 노인 하나가 일어나 물었다.

"양좌사께서 도룡도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몰라 지금 공지선사에게 물어볼까 합니다."

공지대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군웅들은 모두 속으로 불만을 품었다. 대회의 주최자인 공문방장은 아프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고, 공지신승은 흐리멍텅한 태도이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 갈색 장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지신승이야 모른다고 하지만 사사왕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니오? 어서 그를 불러내 그에게 물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모두 자기 실력으로 겨루고 나서 누구의 무공이 진짜 천하제일인지 가려내서 무림지존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칼이 누구의 손에 있든 그 무림지존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어떻소? 나중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 뒤에 가서 불복하는 자가 생기면 모두 힘을 합쳐 공격합시다. 자, 내 의견이 어떻소?"

이 자는 바로 그날 밤 금강복마권을 공격하던 청해파 세 고수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을 장무기는 알고 있었다.

사도 천종이 반대하며 나섰다.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소."

"아니, 무엇이 좋지 않다는 거요? 그래 각하께서는 무술을 겨루지 말고 주량을 겨루자는 거요? 누구든 술에 쓰러지지 않는 자가 무림지존이 되자는 거요?"

장내엔 폭소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괴상한 소리로 비꼬았다.

"그거야 물론 겨룰 필요도 없이, 무림지존은 취불사 사도 선생의 것이 되는 게 뻔한 일이지."

사도 천종은 표주박에서 술 한잔을 따뤄 마신 후 정색을 하며 말했다.

"천만에 말씀. 주림지존이라면 나 취불사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만, 무림지존이라면 내가 어찌 감당하겠소?"

그리고는 청포 대한에게 물었다.

"각하께서 정 그런 의견이시라면, 무학에 있어서는 물론 입성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소생은 눈이 어두워 아직까지 각하의 존함을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청해파의 엽장청(葉長靑)이라 하오. 주량이나 광대노릇이라면 가히 각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공이라면 당신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었다. 사도 천종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청해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엽장청? 그 이름도 금시초문이군."

모두는 취불사 노인이 보통 담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엽장청 한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해파까지 모욕을 하다니, 저 노인 뒤에는 무슨 든든한 후원이라도 있는가 보군. 아니면 청해파와 무슨 철천지 원한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조금 전에 그가 한 그 두 마디만으로도 청해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 사도 천종이라는 위인을 아는 사람은 그의 뒤에 아무도 없고 또한 청해파와도 아무런 원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평소에도 성격이 오만하여 큰소리치기를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물론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다.

엽장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미 살기가 차 있었다.

"청해파와 본인은 본시 이름이 없어서 각하께서 물론 못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예를 겨루는 것도 불만이고 술내기도 불만이니, 도대체 각하의 뜻은 뭣이오?"

"하! 하! 술이라면 내가 천하무적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지. 왕년에 내가 제남부(濟南府)에서....."

그가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려고 하자 사람들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취불사, 여기서 술주정하지 마시지! 당신의 엉터리 같은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

또 누군가가 뒤따라 외쳤다.

"도대체 사손과 도룡도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자 또 누군가가 외쳤다.

"공지선사, 당신은 오늘 이 대회의 주최자인데 우리에게 쓸데없이 여기서 시간을 소비하게 하다니, 어떻게 된 거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디씩 터뜨렸다.

사방에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자 사도 천종은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강릉부 흑풍채(江陵府 黑風菜) 사두목, 너무 성미가 급하군. 아무리 당신의 흑사장(黑沙掌)이 무섭다 해도 천하의 영웅들을 모조리 눕히진 못할 거야. 그리고 파양호 수저 금오후(水低 金熬候) 형제, 사사왕께서는 수륙 양쪽 무공이 모두 능하시고 더구나 명교 그쪽엔 자삼용왕까지 계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악어가

감히 용왕의 상대가 되겠는가? 또 청양산 오삼랑(靑陽山 吳三郞) 당신은 검을 쓰고 있는데, 당신이 도룡도를 얻게 된다 해도 사용할 줄 모를 텐데 무슨 성미가 그렇게 급한가?"

사도 천종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듯하지만 남보다 특출한 데가 있었다. 그는 견문이 넓고 또한 귀도 밝아 그 많은 사람들 숲에서 한 말을, 그는 일일이 누가 말했고 또 그 자의 이름까지 일일이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런 재주에 군웅들은 모두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공지대사 뒤에 앉아 있던 한 노승이 일어나 말했다.

"소림파에서 이 대회를 주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방장께서 병환이 있어서 참석 못한 것을 여러분께서 용서하십시오. 사실 사손과 도룡도에 관한 두 사건을 하나로 생각하고 한꺼번에 처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노승의 의견은 조금 전에 청해파 엽시주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도룡도를 그분의 처리에 맡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장무기는 팽영옥에게 지금 말한 자의 이름을 물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노승은 광명정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만안사에 붙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지대사의 말을 항상 가로막는 것을 보니 소림사에서 지위가 매우 높은가 봅니다."

조민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십중팔구 원진과 그 일당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문대사가 이미 원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지대사께서는 반도(叛徒)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저렇게 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팽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주의 추측이 매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림사의 고수들은 구름떼와 같이 많은데 원진이 공공연하게 반란을 일으키다니, 너무 방약무인인 것 같습니다."

"원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며 왔습니다. 처음엔 명교를 와해시키려고 했고, 다음엔 개방을 손에 넣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아마 소림방장의 자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조민이 다시 말을 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장무기가 다시 말했다.

"소림파 하면 무림에서 제일가는 문파인데 장문 방장에서 더 이상 또 뭐가 있소?"

조민이 다시 받았다.

"무림지존이 있잖아요? 소림파의 장문 방장보다 더 높지 않아요?"

"아니, 그럼 무림지존이 되려고 한다는 거요?"

"장공자, 주낭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더니 그만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요. 머리가 둔해진 것을 보니....."

그 말에 장무기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을 했다.

'장무기, 절대로 남녀의 사사로운 정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의부님을 구출하러 온 것을 잊어서는 안돼.'

그는 정신을 바짝 치리고 내심 생각을 굴렸다.

'오늘 이 대회도 원진이 뒤에서 주최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필시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다.'

"민매(敏妹), 원진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소?"

"원진은 어떤 간계도 짜낼 수 있는....."

주전은 지금까지 두 사람이 낮은 소리로 주고 받는 대화만 듣고 있다 드디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군주 아씨의 지모도 원진에 비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군."

조민은 가볍게 웃었다.

"과찬의 말씀을....."

"과찬이 아니라....."

팽영옥이 주전을 나무랐다.

"군주 아씨의 말씀을 들어보게 말 좀 막지 마시오."

주전은 화를 버럭 냈다.

"팽형이나 먼저 내 말을 막지 마시오."

팽영옥은 웃으며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 주전과 입씨름을 해봤자 하루 온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은 뻔한 일이다.

"왜 또 말하지 않으시오?"

"나보고 주형의 말을 막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그렇지만 이미 내 말을 막지 않았소?"

"그럼 다시 말씀하시오."

"뭐라고 말했는지 잊어 먹었는데....."

조민이 가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엔 원진이 오로지 소림방장이 되려고 했다면 천하 영웅들을 여기까지 초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대협께서 이미 그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데 뭣하러 무술을 겨루게 하고 내놓겠습니까? 무공이라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장공자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진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절대로 무예를 겨뤄 당신이 무림지존이 되게끔 선심을 쓸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대협과 도룡도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까?"

장무기, 팽영옥, 주전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소?"

이때 마침 양소가 장무기 옆으로 걸어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원진 그놈이 철저하게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

주전은 참지 못하고 또 말을 가로막았다.

"원진은 본교의 앙숙이고 군주 아씨도 우리의 앙숙이었소. 두

사람 모두 계략이 뛰어났는데 서로 비슷한 점이 많군요."
 양소가 크게 나무랐다.
 "또 쓸데없는 소리를!"
 "아니에요....."
 조민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주선생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진이라면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요? 첫째는 공문방장으로 하여금 청첩장을 돌려 군웅들을 소림사로 오게끔 하는 겁니다. 공문방장께서는 불법을 심해한 분이라 본시 자비로운 성품이고 거기다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게다가 공견, 공성 두 신승의 핑계를 대면 사형제의 의리로서도 당연히 승낙을 할 것이고, 또한 소림사에서 사대협을 죽이게 되면 명교의 철천지 원한을 맺게 됩니다. 소림파의 힘으로는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명교를 막아내기 힘드니 책임을 천하 영웅들에게 전가하여 명교가 천하 영웅들을 일일이 상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모두 그녀의 말에 수긍이 갔는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대회에는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사대협과 도룡도를 미끼로 하여 군웅들이 서로 싸움에 말려들게 부추기는 겁니다. 명교는 필시 군웅들과 적이 되어 결국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장무기도 그 말에는 수긍이 갔다.
 "바로 그거야. 그 점은 나도 생각했었소. 그렇지만 의부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은혜,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의 깊은 우정, 어찌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를 구출하지 않고 앉아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외조부님을 잃었으니, 원진이 어디엔가 숨어서 기뻐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조민이 다시 말을 이었다.

"끝까지 싸우다 보면 무공 제일이라는 칭호는 장교주께서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소림파에서는 장교주에게 축하를 보내고 장교주에게 사대협을 넘겨 주겠다고 하면서 직접 뒷산에 올라가 사대협을 모셔가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모두 뒷산으로 가서 장교주 혼자서 금강복마권과 맞서게 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장교주를 도우려고 하면 원진의 패거리들은 무공 제일의 칭호를 얻은 것은 장교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돕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장교주께서는 무공 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 진력을 다 했으므로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해도 이미 많은 내력과 신공을 소비하고 난 뒤인데, 어떻게 다시 세 노승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대협을 구출하기는커녕 소나무 사이에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한 일이죠. 그런 뒤에야 무공 제일이라는 칭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들은 군웅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조민의 말은 틀림없는 말이었다.

장무기는 성격이 고집스러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사손을 구출해 내려고 할 것이 분명했다. 자기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덤벼들 것이 분명하므로 원진은 바로 그런 그의 성격을 간파하고 장무기를 죽음 속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조민은 긴 탄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명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진은 다시 간계를 부려 공문대사를 혹사시키고 그 누명을 공지대사에게 덮어씌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그로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다만 증거만 꾸며 대면 소림파에서도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의 패거리들이 일어나 그를 추대하면 그는 순조롭게 소림방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호령에 따라 군웅들은 모두 명교를 협공하여 일거에 명교를 섬멸해 버릴 것이고, 그럼 천하제일의 무공이라는 칭호는 자연히 원진에게 돌

아가고 도룡도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또한 나타난다 해도 천하에 그 사실이 다 알려질 것이고 그 주인은 당연히 소림방장인 원진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도 누가 감히 그에게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조민의 음성이 매우 낮아 천막 한쪽에 앉은 사람만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전은 옳거니! 하면서 자기의 넓적다리를 쳤다.

"옳거니! 바로 그런 큰 음모가 숨어 있었다."

그의 음성이 너무 커 대회장의 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그들의 눈초리는 모두 명교의 천막 쪽으로 쏠렸다.

사도 천종이 물었다.

"무슨 음모라는 거요? 노부가 들어서는 안 되오?"

주전이 그의 말을 받았다.

"얘기해 줄 수 없네. 노부가 지금 이간질을 해서 천하 영웅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찌 폭로하겠는가?"

사도 천종은 가볍게 웃었다.

"훌륭한 생각이군. 그런데 어떤 이간질을 꾸미려고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없소?"

주전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떤 음모인가 하면, 도룡도가 지금 노부의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누구든 무공이 제일 높은 자에게 도룡도를 드리겠소!"

"좋은 계책이군. 그런 뒤에 또 어떻게 할 거요?"

조민은 장무기와 서로 마주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하고 아무런 친교도 없는 이 술주정꾼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군.'

주전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도룡도는 무림지존이라는 도호를 갖고 있는데, 누군들 그것

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 대회장엔 붉은 피로 물들 것이 아니오? 그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오."
이 말을 들은 군웅들은 모두 간담이 써늘했다. 장난기 섞인 말인 것 같지만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공동파 이로(二老)인 종유협이 일어나 입을 열었다.
"주선생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도룡도에 욕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칼 하나로 인해 목숨을 잃고 심지어는 전 파문이 섬멸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 생각엔 무예로 친구를 사귀고 절대로 살상을 하지 않고 승패를 가리는 것이 서로 원한을 사지도 않을 테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소?"
광명정 싸움에서 장무기는 원한 대신 덕을 베풀어 칠상권으로 당한 종유협의 내상을 치료해 주고 또다시 만안사에 잡혀간 그를 구출해 주었다. 그래서 공동파에서 이번에 소림사에 온 목적은 명교를 돕기 위해서였다.
사도 천종은 또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키도 큰 사람이 겁은 무척 많군. 그래 그런 무예를 겨루는 방법이 무슨 재미가 있겠소?"
공동파의 사로 상경지가 노기띤 음성으로 말하였다.
"너 같은 술주정꾼을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주정꾼이 주정 좀 한 것뿐인데 무슨 화를 그렇게 내시오? 공동파의 칠상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 알고 있소. 소림 공견신승이 바로 그 칠상권을 맞고 죽지 않았소? 나 같은 이 늙은 주정꾼은 공견신승의 상대도 안 되는데."
군웅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주정꾼이 너무 겁없이 좌충우돌이군. 공동파에 시비를 걸더니 다시 소림파까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군. 저런 식으로 살면서 이 나이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종유협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소생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파에서 두 명의 고수를 대표로 뽑아서 무예를 겨루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어느 파든 제일 무공이 높은 문파에게 사대협과 도룡도를 맡기는 겁니다."

군웅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대찬성을 했다.

장무기는 유심히 공지대사 뒤에 서 있는 소림 승려들을 살폈다. 그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조민이 원진의 간계를 간파하고 군웅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살상을 하게끔 하는 계책이 쓸모없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얼굴이 하얗고 수염이 조금 난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나 금접선(金摺扇)을 부채질하며 매우 의젓하게 말하였다."

"그렇소. 그렇게 합시다."

군웅들이 그의 말에 찬성을 보냈다.

다시 사도 천종의 날카로운 음성이 튀어나왔다.

"노형의 인물은 정말 영준하시군요. 말소리를 들으니 상남 형양부(湘南 衡陽府)의 구양형(歐陽兄)인 것 같군요."

그는 부채를 접으며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생올시다."

"구양형께서도 나와 같이 어느 방회에도 속하지 않은 외로운 사람이지요. 난 호주가이지만 당신은 호색가이니 우리 두 사람이 주색파(酒色派)를 만들어 천하 영웅들과 한번 겨뤄 보는 게 어떻겠소?"

"하! 하! 하.....!"

군웅들은 모두 크게 웃고 말았다.

사도 천종의 순간적인 농담은 대회장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대회장의 살벌한 분위기를 많이 해소시켜 주었다.

팽영옥은 이 백면의 중년 남자를 장무기에게 소개했다.

"저자는 이름이 구양목지(歐陽牧之)라고 합니다. 첩을 열 두 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무공은 매우 높지만 강호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종일 여자들 숲에서 지냅니다."

구양목지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과 문파를 창립한다면 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술을 댈 수 없소. 여러분께서 무예를 겨루시려면 나이가 지긋하고 덕도 많은 뿐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한 분을 공증인으로 추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아무런 말썽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천종이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졌는지 이겼는지는 자신이 알 텐데, 어찌 그런 어거지를 쓸 사람이 있겠소?"

종유협이 다시 일어섰다.

"그래도 공증인을 추대하는 것이 좋겠소. 소림에서 주최하셨으니 공지대사는 자연적으로 공증인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천종이 설불득의 포대자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산동의 대협 하주 노영웅을 천거하겠소."

설불득은 그 말에 포대자루를 사도 천종을 향해 던졌다.

"자, 공증인 받아라!"

사도 천종은 표주박을 떨어뜨리고 포대자루를 받아 안고 끈을 풀었다. 그러나 설불득의 결박은 독특했고, 그리고 그 끈은 금사와 고래 심줄을 섞어 만든 것이라 사도 천종이 아무리 힘을 써도 풀리지 않았다.

설불득은 크게 웃으며 앞으로 달려나가 왼손으로 자루를 들어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꾸물꾸물 하고 나더니 다시 앞으로 돌려 포대자루를 몇 번 돌리자 끈이 풀렸다. 그가 푼 포대를 거꾸로 들자 하주가 굴러 떨어졌다. 사도 천종이 얼른 그의 혈도를 풀었다.

하주는 한참을 어둠 속에서 갇혔다 갑자기 밖으로 나오자 눈이 부셨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자 창피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단검을 뽑아 들고 자기의 목을 찌르려 했다.

순간 사도 천종이 재빨리 그의 단검을 빼앗아 버렸다.

"승패는 병가지상사가 아니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때 사람들 숲에서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가 크게 외쳤다.

"포대자루에서 나온 저 사람은 공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소. 나는 장백산의 손 영감을 천거하겠소!"

그러자 다시 어느 중년 부인이 말했다.

"절동쌍의(浙東雙義)의 명성이 강남에 떠들썩한데, 그 두 형제야 말로 정직하고 사심이 없어서 공증인으로서는 안성마춤이요."

모두 한 마디씩 하자 순식간에 십여 명의 이름이 나왔다. 모두 강호에서 덕망이 높은 호걸들임엔 틀림없었다.

갑자기 아미파에서 한 늙은 여승이 한 냉랭한 음성으로 말했다.

"무슨 공증인이오! 그런 것은 하나도 필요없소!"

그의 음성은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모두는 그의 내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도 천종이 또 말을 받았다.

"어째서 필요없는지 사태(師太)께서 말해 보시오!"

"두 사람 중에 살아남는 자가 승자고 죽는 자는 패자가 되는 거요. 공증인은 바로 염라대왕이요."

그녀의 이 몇 마디 냉랭한 말투에 모두는 간담이 써늘했다.

"무예로 친구를 사귀는데 서로 무슨 큰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사를 걸고 할 필요가 있겠소? 출가인들은 자비심이 바탕이라고 하는데 사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부처님께서 노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소."

"다른 사람과 말을 함부로 하는것은 상관없지만 아미파 제자들

앞에서는 좀 예절을 지켜 줘야겠네."

사도 천종은 다시 술 한 잔을 따뤄 마시면서 말했다.

"무서운 아미파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대장부는 여자와 싸우지 않고 훌륭한 술꾼은 여승과 싸우지 않는다."

말을 마친 그는 여전히 술잔을 입가에 갖다 댔다.

그러자 갑자기 휙! 휙! 하고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며 두 개의 작은 염주알이 날아와 하나는 술잔을 명중시켰고, 한 알은 표주박을 명중시켰다. 다시 한 알이 날아오더니 그의 가슴을 명중시켰다. 염주알마다 꽝하는 소리를 내면서 술잔과 표주박은 가루가 되고, 사도 천종의 가슴에도 큰 구멍을 냈다.

그는 그 터지는 힘에 뒤로 밀려 넘어졌으며 옷에 불이 붙고 있었다. 하주가 재빨리 달려가 불을 껐지만 그러나 사도 천종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얼굴엔 아직 웃음을 짓고 있었다. 세 알의 염주가 얼마나 빨리 날아와 터졌는지 사도 천종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청천 벽력과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군웅들 중엔 견문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아무도 이렇게 빠르고 무서운 암기를 본 적이 없었다.

주전이 외쳤다.

"아니, 이게 무슨 암기지?"

양소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서역의 대식국(大食國)의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화약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서 이런 암기를 만들어 냈다는군. 이것을 벽력뢰화탄(霹靂雷火彈)이라고 하는데, 속에 강력한 화약을 넣고 거기다 강력한 탄력의 장치로 발사하는 것인데, 아마 저것이 바로 그 벽력뢰화탄일 거야."

하주는 불에 탄 사도 천종을 안고 크게 외쳤다.

"이 사도형께서 말은 좀 함부로 해도 마음은 아주 착해 평생 나

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영웅들이 모였으나 누구든 사도형께서 악행을 저지른 일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오!"
군중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주는 다시 노여승을 향해 비분강개하며 외쳤다.
"아미파라면 의협이 있는 명문정파인데 이런 잔인한 암기를 사용하다니, 무림에서 아무리 강자가 승자라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요? 사태의 이름을 알고 싶소."
"내 이름은 정가(靜迦)요. 자루에서 나온 대협께서는 삿대질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나 하가의 무예가 정순하지 못해 명교의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은 나의 재주가 부족한 탓이오. 그러나 평생의 의협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 정가사태, 당신의 이런 잔인한 행동은 귀파의 조사 곽양 곽여협에게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오?"
곽양의 이름이 나오자 아미파 제자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정가사태는 두 눈을 치켜뜨며 외쳤다.
"본파 조사의 이름을 감히 네가 함부로 부르는 것이냐?"
"아미파 제자들이 이런 불의한 행동으로 조사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곽여협이 아니라 당년에 그렇게 잔인한 멸절사태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소.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함부로 죽였는데 너희 장문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다니, 이후 아미파가 여전히 강호에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또 다시 헛소리하면 저 술주정뱅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하주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세 발짝 나서며 다시 말했다.
"아미파에서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천하 영웅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군웅들과 아미파 제자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눈초리가 주지약에게 쏠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

덕이고 있었다.

순간 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정가의 손에서 벽력뢰화탄이 날아가 하주의 가슴과 아랫배에 각기 구멍을 내고 그의 옷에 불이 붙어 버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굴하지 않고 숨이 이미 끊어졌어도 쓰러지지 않고 사도 천종의 시신을 안고 뻣뻣이 서 있었다. 군웅들은 모두 멍청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잠시 후, 소란이 일기 시작하더니 모두들 아미파의 만행을 나무랐다.

위일소와 설불득이 서로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두 사람은 하주의 시신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었다. 이윽고 설불득이 말하였다.

"이런 의협심이 강한 하 노영웅을 못 알아보고 조금 전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둘은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두 사람이 서로의 빰을 후려쳤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빰이 부어올랐다. 그들은 두 구의 시체에 붙은 불을 끄고 명교의 천막으로 안고 들어갔다.

장무기는 주지약이 갑자기 이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변한것이 마음 아팠다. 군웅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이에 주지약이 송청서의 귀에 대고 뭐라고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송청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천천히 대회장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풍류대회를 열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악기를 두드리고 시를 짓자는 대회가 아니고 무예를 겨루는 대회인 이상 살상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하 노영웅께서 사도선생이 평생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본파의 정가사태에게 훈시를 했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본파에게 불만을 터뜨렸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무예를 겨루기 전에 먼저 상대의 덕행이나 품행을 미리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착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 나쁜 사람은 아무렇게나 죽여도 된다 그겁니까?"

군웅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만약 도룡도를 덕이 높은 사람만이 차지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예를 겨루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산동에 있는 공자를 모신 분묘에 가서 도룡도를 그분의 후손에게 바쳐 버립시다. 그러나 지금 무예를 겨루자는 말이 나온 이상 죽느냐 사느냐 그것뿐이지, 무고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옳소, 창칼에는 눈이 달리지 않았소. 그리고 이미 보복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소?"

유연주와 은이정은 송청서의 말소리를 들을수록 송청서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얼굴에 짧은 수염에다 말끝마다 본파 본파, 하고 아미파 남제자로 자처하자 두 사람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연주가 일어나 그에게 물었다.

"각하의 성함을 알고 싶소."

송청서는 이사숙(二師叔)의 위풍에 눌려 그만 겁을 먹고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유이협께서 이 무명 후배의 이름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연주는 날카롭게 외쳤다.

"각하께서 말끝마다 무예라고 하는데, 아마 무학에 조예가 깊은 모양이군요. 나의 사부께서 소시적에 귀파의 곽여협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서 무당 제자들은 절대로 아미파 제자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훈시가 있으셨소. 그래서 소생이 다시 한 번 묻겠는

데, 각하께선 진짜 아미파 제자요? 도대체 이름이 뭐요? 사내 대장부가 감출 필요가 뭐가 있소?"

주지약이 가볍게 불진을 흔들며 말했다.

"유이협, 당신을 속이지는 않겠소. 이 사람은 바로 본좌의 부군이고 이름은 송청서라 하오. 원래는 무당파 출신이지만 지금은 이미 아미파로 전입했소. 유이협께서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본좌에게 하시오."

그녀의 음성은 청랑(淸朗)하면서도 얼음과 같이 차가웠다. 거기다 선녀와 같은 청려한 용모에 대회장의 수천 호걸들은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송청서가 자기 얼굴에 묻힌 가짜 수염을 떼어 버리자 순간 그는 영준한 청년으로 변했다. 그것을 본 군웅들은 모두 마음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군."

유연주는 송청서가 막칠제 성곡을 죽인 죄행이 생각나자 비분하여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는 근래에 와서 나이가 들어 수양도 그만큼 깊어져, 마음속으로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초리 만큼은 번개와 같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송청서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송청서는 마음 속으로 큰 죄를 저지른 것에 가책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주지약이 말했다.

"송청서께서 무당에서 탈퇴하고 아미에 투신한것을 오늘 천하의 영웅들 앞에서 정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유이협님, 장진인께서 옛정을 생각하여 무당의 제자가 본파의 적으로 맞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그 어르신네의 의기(義氣)라 할 수 있겠지만, 무당파의 위명을 보전하기 위한 총명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은이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더니 손으로 주지약

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낭자, 당신이 어렸을 때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사부님이 구해서 아미의 문하로 천거하였소. 우리 사부님은 은혜를 베푸셔도 보답하는 걸 바라지 않고 계시지만, 오늘 당신이 말한 건 마치 우리 무당파는 낭득허명(浪得虛名)하여 아미파의 여러 여협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 같소. 당신은..... 그렇게 해도 우리 사부님께 미안한 감이 들지 않소?"

그러자 주지약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당칠협이 위진강호한 건 제각기 진재실학(眞才實學)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송대협께선 제 시아버님이신데 본좌가 어찌 여러분들에게 감히 낭득허명(浪得虛名)이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무당과 아미 양파는 각기 다른 무예를 전수받았기에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다는 건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죠. 옛날에 장진인은 본파의 곽조사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나중에 본좌가 장진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서로 비겨 버리면 우린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유이협님, 은육협님, 무당 제자와 아미파가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규칙은 지금부터 없었던 일로 합시다."

광장 주위에 있는 목붕(木棚)에서 군웅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 젊은 장문인의 말투는 마치 아미파가 무당파를 꼭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인 것 같군. 유이협의 내공과 외공은 이미 등봉조극(登峯造極)에 도달해서 당세에 그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아미파는 그 무서운 암기를 믿고 강호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생각이란 말인가!"

은이정의 감정은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막상 일곱째 아우인 막성곡의 참사가 떠오르자 그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청서.....청서 넌.....넌 뭣 때문에 너의.....너의 칠숙(七叔)을 살해....."

칠숙(七叔)이란 말을 하더니 그는 갑자기 목을 놓아 울고 말았다. 그러자 군웅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무당육협의 명성으로 어찌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유연주가 다가가서 은이정의 오른팔을 움켜잡고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천하의 영웅 여러분, 불행하게도 송청서란 반역 제자가 생겼습니다. 본인의 일곱째 아우인 막성곡은 바로 이 반역....."

순간 갑자기 휙휙! 하며 두 번 소리가 나면서 벽력뢰화탄 두 알이 매우 무섭게 허공을 가르며 유연주의 흉구로 발사해 갔다.

장무기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덮쳐가서 구출하려 했지만, 그 뢰화탄은 너무나 빠르게 날아갔다. 더구나 그는 사전에 아미파가 갑자기 도습하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해서 그의 신법이 아무리 빨라도 이미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은 유연주도 몹시 뜻밖이었다. 만약 몸을 기울여서 피한다면, 그 뢰화탄이 날아와서 많은 개방의 제자들을 다칠 것 같았다. 그가 잠시 생각하는 사이에 뢰화탄 두 알은 이미 차례로 발사해 왔다.

그러자 유연주는 쌍장을 돌리며 태극권 중의 일초인 운수(雲手)를 전개했다. 쌍장으로 발사해온 벽력뢰화탄 두 알의 급경(急勁)을 모두 와해시켜서 살며시 손바닥에 받쳐올렸다. 이때 그의 쌍장은 위를 향해서 반듯이 가슴 앞에 받쳐져 있었고, 뢰화탄 두 알은 그의 장심에서 매우 빠르게 회전하였다.

그러자 군웅은 일제히 일어나면서 수천 개의 눈빛을 일제히 그의 두 손바닥에 집중시켰다. 사람들의 심장은 마치 전부 멈춰지

면서 이 살아 있는 듯한 뢰화탄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였다.

이 태극권 중의 유경(柔勁)은 천하 무학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무공이다. 유연주는 수년 동안 이 무공을 부지런히 연마하였으므로 이미 장삼봉의 진전(眞傳)을 깊이 터득하였다. 방금 사도 천종과 하주가 차례로 이 뢰화탄에 맞아서 죽은 것을 보았기에 이 탄은 물건에 닿으면 즉시 폭발하면서 위력 또한 굉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에 하는 수 없이 평생의 절학으로 막아보자는 모험을 한 것이다.

과연 예상했던 대로 유능극강(柔能克剛)했다. 뢰화탄 두 알은 그의 장심에 있는 유경에 제압되어 마치 한 조각 끈끈한 물건 사이에 빠진 것처럼단지 급회전만 할 뿐 폭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휙! 휙! 하며 두 번의 소리가 들리더니 아미파에서 다시 두 알의 뢰화탄을 그에게 발사했다.

은이정은 사형의 곁에 서 있다가 얼른 쌍장을 휘둘러서 뢰화탄을 받으려 했다. 막상 손과 뢰화탄이 맞닿으려는 순간 태극권 중의 람작미식(攬雀尾式)을 전개하면서 뢰화탄을 살며시 휘어잡았다. 발은 금계(金鷄)가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왼발은 땅에 딛고 오른발은 들어올렸다. 그리고 전신을 마치 팽이처럼 급회전시켰다.

유연주는 장심으로 경력을 분산했고 은이정은 공중에서 경력을 분산시켰다. 물론 무공에선 은이정이 뒤졌으나 보기엔 그가 급회전하는 심법이 훨씬 더 멋지게 보였다. 그가 삼십 여 바퀴를 돌았을 때 사면팔방에서 우뢰같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뢰화탄의 경력도 몹시 약해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휙휙!.....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뢰화탄 여덟 알이 그들에게 날아갔다. 그러자 유연주와 은이정은 일제히 소리를 외치며 각자 수중에 있던 뢰화탄을 밖으로 던졌다.

무당의 제자들은 접기타기(接器打器)란 절기를 지니고 있어서 적의 암기를 받아낸 후 다시 되돌려 발사할 땐 하나로 둘을 맞출 수 있고 또 둘로 셋을 칠 수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이 던진 뢰화탄 네 알이 서로 부딪치면서 상대편의 여덟 알의 뢰화탄을 한꺼번에 적중시켰다. 그러자 광장에서 펑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자욱하더니 초황화약(硝黃火藥) 냄새가 코를 진동했다.

유, 은 두 사람은 뢰화탄을 던지고 나서 재빨리 몸을 솟구치더니 십여 장 뒤로 물러났다. 행여나 아미파에서 다시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자 화산파의 목붕에서 체격이 우람한 자가 일어서면서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아미파는 남과 무공을 겨룰 때 항상 이처럼 의다위승(倚多爲勝)합니까?"

이 자는 바로 화산이로의 하나인 고노자(高老者)였다. 왕년에 광명정에서 하태충 부부와 연수하여 장무기하고 싸웠던 사람이다.

아미파의 정가가 말했다.

"무공지도(武功之道)는 천태만상하기에 강한 자는 승리하게 되고 약한 자는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책을 읽는 선비도 아닌데, 매사에 규칙과 도리를 따진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도리와 규칙이 있겠습니까?"

장무기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그래서 목붕에서 나오더니 아미파의 앞으로 다가가서 주지약에게 말했다.

"지약,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미안하오, 송사형이 막칠숙님을 해친 일은 아무래도 끝을 맺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차라리 송사형이 유이숙과 은육숙을 따라 무당으로 돌아가서 송대백님에게 사죄하는 게 옳은 것 같소."

그러자 주지약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교주, 예전에 난 당신이 호한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비겁한 소인이구료. 대장부는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오. 당신이 막칠협을 해쳤으면서 뭣 때문에 죄를 송청서에게 덮어씌우려 합니까?"

장무기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 당신은 내가 막칠숙님을 해쳤다고 했소? 다.....당치도 않소."

"무당 막칠협을 해친 일은 모두 조정의 여양군주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오. 당신은 왜 그녀를 불러내서 천하의 영웅들하고 대질하지 않는 것이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민매는 육대문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장안에 그녀의 원수가 어쩌면 우리 의부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어찌 그녀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아, 그날 혼례 중에 내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다.'

장무기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돌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아미파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명교의 장교주가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소인인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의 벽력뢰화탄의 무서움을 보더니 꽁무니를 빼려 하는구나."

장무기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구태여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돌아볼 것 없다. 아미파에서 어떠한 모욕을 하더라도 난 달게 받아야 하다.'

그러자 등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장무기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고 명교의 목붕으로 돌아갔다.

양소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벽력뢰화탄은 잔재주에 지나지 않는데 뭐 그리 대단하다는 것이냐? 무당이협을 어찌하지 못했으면 자연히 장교주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 아미파에게 우리 명교의 기계(器械)를 한 번 구경시켜 주겠다!"

이윽고 왼손을 흔들자 한 백의 동자가 두 손으로 작은 목가(木架) 한 개를 바쳤다. 목가 위에는 오색 깃발이 십여 개가 꽂혀 있었다. 양소는 백기 하나를 뽑아서 밖으로 던지자, 광장 한가운데로 날아가더니 땅에 꽂혔다.

바로 이때, 양소의 뒤에 있는 한 사람이 화전(火箭) 한 자루를 얼른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자 공중에서 한 줄기 흰 연기가 발산되었다. 순간 발걸음소리가 들리면서 머리에 흰 띠를 두른 명교의 교도들이 급히 광장 안으로 달려왔다. 모두 오백명이고 사람마다 활에 화살을 장진했다.

획획.....! 하며 소리가 나더니 오백자루의 화살은 질서정연하게 백기의 주위에 꽂히면서 원을 하나 형성했다. 바로 오경초가 통솔하는 예금기의 사람들이었다.

군웅들이 미처 갈채를 보내기도 전에 예금기 교도들은 등에 있는 표창을 뽑아서 앞으로 열 걸음쯤 달려가더니 일제히 표창을 던졌다. 그러자 오백자루의 표창은 일제히 화살의 원안으로 꽂혔다. 그들은 바로 또 열 몇 걸음을 달려가더니 허리춤에 있는 짧은 도끼를 뽑아 들었다. 순간 군웅들의 눈앞에 빛이 번뜩거리면서 오백자루의 짧은 도끼는 일제히 땅에 찍히며 한 개의 원을 형성했다. 도끼, 표창, 화살 세 가지 병기는 세 개의 원을 형성하였고 전혀 뒤섞이지 않았다. 제아무리 무공이 하늘에 달한다 해도 이 천 오백 개의 길고 짧은 병기가 협공하게 되면 순식간에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양소가 흰 깃발을 들어올리며 뒤로 몇 번 흔들었다. 그러자 예금기의 오백명 교도는 화살과 표창, 도끼를 뽑아들고 명교의 목

붕 앞으로 달려와서 장무기에게 인사를 하고는 즉시 광장 밖으로 달려갔다.

양소가 파란 깃발을 던지니 흰 깃발 옆에 꽂혔다. 그러자 광장 옆에는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들리면서 오백명 거목기 교도들이 머리에 파란 띠를 두르고 열 사람마다 거대한 나무토막을 하나씩 들고 재빨리 달려왔다. 나무 토막의 무게는 하나가 천 근 이상은 되었고 나무에는 철구(鐵鉤)가 장치되어 있어서 각자 철구 한 짝을 움켜잡고 매우 질서있는 걸음으로 달려왔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더니 오십 개의 거목들은 동시에 손에서 벗어났다. 높은 것도 있었고 낮은 것도 있고 왼쪽으로 던진 것도 있었고 오른쪽으로 던진 것도 있었다. 그러나 거목이 날아간 것마다 상대편의 거목 한 개씩에 정확하게 맞부딪쳤다.

순간 펑펑.....! 하는 거대한 소리가 끊임없이 나더니 오십 개의 거목은 스물 두쌍으로 나눠져서 서로 맞부딪쳤다. 거목기의 이러한 진법은 공성전법(攻城戰法)에서 연화(演化)한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자가 거목을 들고 성문을 부딪쳐서 세게 치게 되면 아무리 견고한 성문이라도 거목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살붙이로 된 몸이 이 많은 거목의 충격을 받으면 어찌 살아 남을 수가 있겠는가!

양소는 파란 깃발을 흔들어서 거목기에게 물러나라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오른손을 휘두르더니 빨간색 작은 깃발 하나를 광장 안으로 던졌다.

그러자 파란 띠를 두른 명교의 교도들은 일제히 물러나더니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열화기 오백명 교도들이 재빨리 장안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손에 있는 분통(噴筒)을 한 차례 분사(噴射)하자 광장의 중심에는 온통 새까만 주유(綢油)가 살포되었다. 열화기 장기사가 손을 휘둘러서 유황화탄을 한개 던지자 즉시 불꽃이 일면서 활활 타올랐다.

명교총단이 있는 광명정 부근에는 석유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서 밤낮으로 기름이 뿜어 나왔다. 열화기 사람들은 등에 쇠상자를 짊어지고 있었으며 상자 안에는 석유가 가득 담겨 있었다. 기름을 뿜어 내서 연소를 시키니 사람의 힘으론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열화기가 물러가고 나서 양소가 검은 깃발을 다시 던지자 머리에 검을 띠를 두른 홍수기 휘하에 있는 오백명 교도들이 급히 광장으로 들어갔다. 이 홍수기가 지닌 물건들은 모두 이십부(部)의 수룡(水龍)과 분통, 제통(提桶) 같은 물건도 있었다. 앞에 있는 열 사람은 목차(木車) 열대를 끌고 있었다. 장기사 당양이 명령을 내리자 목차를 열고 이십마리의 굶주린 늑대를 꺼내었다. 늑대들은 온갖 사나운 짓을 하며 광장에서 포효하더니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람을 물으려 했다.

군웅들은 몹시 의아했다. 도대체 이 사나운 늑대들과 홍수라는 두 글자가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그러자 당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물을 뿌려라!"

순간 도질분통(陶質噴筒)을 들고 있던 백명의 교도가 백줄기의 수전(水箭)이 사나운 늑대의 몸으로 일제히 발사했다. 그러자 군웅들은 한 차례 신 냄새를 맡게 되었다. 이십마리 사나운 늑대는 수전을 맞고 즉시 쓰러지면서 울부짖었다. 눈깜짝할 사이에 가죽이 파열되며 살이 썩으면서 한 덩어리의 숯탄처럼 변해 버렸다.

홍수기가 발사한 수전은 몹시 독한 부식 약수였다. 이 약수는 유황과 초석(硝石) 등 약물에서 뽑아내어 만든 것이다.

군웅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모두 기절초풍했다.

'저 약수를 만약에 늑대들에게 발사하지 않고 내 몸으로 발사했다면, 지금쯤 아마.....'

양소는 검은 깃발을 흔들어서 병사를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다

시 노랑색 작은 깃발을 하나 던졌다. 그러자 머리에 노랑색 띠를 두른 명교교도들 한 패가 광장안으로 걸어왔다. 각자는 손에 쇠삽을 들고 있었고 모래와 석회를 한 수레씩 밀고 있었다.

사람 수는 금, 목, 수, 화 사기보다 훨씬 작은 백 명뿐이었다. 이 백명은 큰 원을 하나 형성하면서 동시에 삽을 들고 땅으로 힘껏 후려쳤다. 그러자 갑자기 꽝! 하며 거대한 소리가 나면서 광장중심이 밑으로 푹 꺼지면서 직경 삼, 사장이나 되는 큰 구멍이 하나 생겼다. 곧이어 큰 구멍의 주위에 있는 흙이 들썩거리더니 머리에 철모를 쓰고 손엔 쇠삽을 들고 있는 장정들이 하나하나 뛰쳐나왔다. 사백명 장정이 갑자기 지하에서 불쑥 나오자 군웅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일제히 소리를 외쳤다.

이 사백명 교도들은 벌써 먼 곳으로부터 땅굴을 파서 광장중심으로 와 있었다. 그들은 큰 굴을 파서 판자와 나무로 지탱하며 그 안에 숨어 있었다. 후토기 장기사 안원이 호령을 하자 사백명 교도들이 동시에 나뭇 가지를 끌어내는 바람에 지면 전체가 밑으로 꺼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하에 있던 교도들이 바로 흙을 헤치며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늑대 시체, 석유, 초토 등이 일제히 지하로 떨어졌다. 백명 교도는 쇠삽을 휘둘러서 큰 구멍의 위를 세 번 후려쳤다. 만약 사람이 구멍 안으로 바진 후 다시 밖으로 뛰쳐 나오려 하면 이 백자루의 쇠삽을 맞고 다시 빠져 버릴 것이다.

그들은 수레에 실었던 석회, 모래, 자갈을 구멍으로 쏟았다. 순식간에 큰 구멍과 수백 개 작은 구멍을 전부 메꾸어 버렸다. 오백 자루의 쇠삽이 여기저기서 재빨리 움직이는 모양은 실로 장관이었다. 장기사가 명령을 하달하자 오백명 교도들은 일제히 장무기에게 인사를 했다.

양소는 병사들을 거두어 들이고 나서 작은 깃발이 꽂혀 있는 목가를 뒤에 있는 동자에게 넘겨 주더니 냉랭하게 주지약을 바라보

면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무언의 뜻은 몹시 명백했다.

"너희 아미파에 있는 백여 명쯤 되는 남녀 제자가 어찌 수천이나 되는 우리 명교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느냐?"

광장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공지의 뒤에 있던 노승 한 명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방금 명교에서 보였던 진법(陣法)이 도대체 쓸모가 있는지는 우리가 원수장군이 아니고 또 배운 게 손오병법(孫吳兵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전이 소리쳤다.

"쓸모가 있고 없고를 알아보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오, 소림사에서 승려들을 파견하여 실험해 보면 금방 알게 될 것이오."

그 노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오늘 개최한 것은 천하의 영웅대회라서 각문 각파의 깊은 무학의 수위(修爲)를 관람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전에 몇 분 시주님의 말대로 각자 무공을 겨뤄서 무예가 제일 높은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조한 것은 단타독투(單打獨鬪)입니다. 의다위승(倚多爲勝)이란 규칙이 있다는 말은 무림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양목지가 말했다.

"무림에는 의다위승(倚多爲勝)이란 규칙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벽력뢰화탄, 독화, 독수 같은 물건은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 노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출장하여 무예를 겨루는 사람은 암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암기에다 독약, 독물을 첨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도습을 가하면 그건 대회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필

히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자를 공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군웅 중 반수 이상은 좋다고 외치면서 모두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을 했다.

공동파의 당문량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든 연거푸 두 번 승리하면 필히 퇴장하여 휴식을 취해서 내력 원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싸우게 되면 아무리 통천의 재주가 있다 해도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길 수 없을 것이오. 그리고 각문, 각파, 각방, 각회에서 만약에 이미 두 사람이 패했으면 다시 사람을 파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수천 명 영웅이 전부 한 번씩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삼개월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을 것이오. 소림사에 양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모자랄 것이오. 그러면 소림사는 백 년이 지나도 원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오."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자 팽영옥이 웃으며 말했다.

"당노삼(唐老三)의 말투는 오늘 공동파가 우리를 꼭 돕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주님 말고 또 어느 분이 출전하겠습니까?"

그러자 주전이 말했다.

"교주님, 주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공이 뛰어나지 못해서 나가봐야 창피만 당할 겁니다."

장무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양좌사, 범우사, 위복왕, 포대대사, 철관도장 여러분은 각기 절예(絶藝)를 지니고 있어서 모두 출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범우사의 무학이 제일 박대해서 상대의 어떤 가수(家授)든 그는 모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범우사를 출전시키는 게 옳은 것 같다.'

"여러 형제분들은 어느 누가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

좌사는 절 따라서 금강복마권을 공격하였고, 위복왕과 포대대사는 하주를 생포하였기에 모두 힘을 허비했습니다. 이번에 본좌는 범우사를 출전시키겠습니다."

범요는 몹시 기뻤다. 이윽고 몸을 굽히며 말했다.

"명령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명교의 군웅은 범요의 무공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자 조민이 말했다.

"범대사님, 제가 한 가지만 당신에게 부탁하겠는데 들어 주시겠습니까?"

"군주님의 명인데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림의 공지대사와 당신의 감정은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먼저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승패는 실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를 이긴다 해도 당신은 지칠대로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자 범요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공지신승은 이름을 떨친 지 수십 년이 되었다. 비록 보기에는 항상 이마를 찌푸리고 얼굴은 울상이라 단명요절할 상(相)이지만 사실은 내공과 외공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범요도 잘 알고 있었다.

조민이 말했다.

"당신은 될 수 있으면 그와 약속을 미리 하세요. 훗날 다시 대도의 만안사에 가서 단둘이 승부를 가리기로 말입니다."

그러자 양소와 범요는 일제히 말했다.

"묘책입니다. 묘책입니다."

이때 각처에 있는 목봉에선 각 문파 방회의 군웅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자기 파에서 출전할 사람을 선택하고 있었다. 몇 군데에서는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며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범요는 주붕(主棚)으로 다가가서 공지에게 포권의 예로 인사하며 말했다.

"공지대사, 당신은 만안사에 다시 한 번 갈 담력이 있습니까?"

공지는 <만안사>란 말을 듣자 얼굴에 있는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면서 몹시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뭣 때문이오?"

"우리 두 사람은 만안사에서 원한을 맺었으니 당연히 만안사에서 해결해야 할 게 아닙니까? 만약에 대사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금년 팔월 중추절에 소인이 만안사에서 대사의 절예를 몇 수 가르침 받을까 합니다."

공지도 범요의 무공을 몹시 꺼렸다. 더구나 사(寺) 중에 마침 큰 변고가 있기 때문에 실로 범요와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자 즉시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좋소. 금년 팔월 중추절에 만안사에서 만납시다."

범요는 포권의 예로 인사하고 나서 즉시 물러갔다. 그가 칠, 팔 보(步)쯤 걸어가자 공지가 천천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범시주, 오늘 당신은 금모사왕을 구출하려는 일념으로 나와 싸우는 것을 꺼리는 것이죠?"

범요는 멈칫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속으론 이 화상이 결국은 자기 마음을 간파했음을 알았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서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난 당신을 이길 자신이 없소이다."

공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납(老衲)도 시주를 이길 자신이 없소이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는 모두 영웅중영웅(英雄中英雄) 호한석호한(好漢惜好漢)의 감정이 생겨났다.

제 2 장 장무기와 주지약의 고수정심(고수정심)

광장의 사람들이 차츰 조용해지자 공지의 뒤에 있던 그 달마당 노승이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여러 영웅께서 의논하여 약정한 규칙대로 무예를 겨루게 될 겁니다. 허나 도창권각(刀滄拳脚)에는 눈이 없습니다. 설령 인명 피해가 나더라도 절대로 탓하지 않고 하늘의 뜻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느 문파든 방회든 최후의 승자가 무공이 최고로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사손과 도룡도를 모두 차지하는 겁니다."

장무기는 이마를 살짝 찌푸렸다.

'저 화상은 행여나 남이 독수를 가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군. 더구나 각파가 서로 원한 관계를 깊게 맺지 않을까 봐 안달이니 공견, 공문 같은 신승들의 자비로운 심성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구나.'

이미 약정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승리하면 필히 퇴장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니 먼저 겨루든 늦게 겨루든 별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자 바로 여기저기서 출장하여 도전하는 자가 있었다. 삽시간에 광장에는 여섯 사람이 세 쌍으로 나눠서 겨루고 있었다.

조민은 만안사에서 육대문파의 절예를 습득했지만 아직은 수위(修爲)가 얕았다. 그러나 식견은 이미 보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무기와 범요의 중간에 서서 조그만 소리로 그 육인의 무공을 논의하고 또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한다고 예측했는데, 뜻밖에도 아주 정확했다.

차 한잔 끓이는 시간쯤 지나자 세 쌍 중에서 이미 두 쌍은 승부를 가리고 한 쌍만 여전히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승자에게 도전하는 자가 있어서 여전히 여섯 사람이 세 쌍으로 나눠서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 출장한 두 쌍은 각각 병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계속 접전하게 되자 십중팔구는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해야만 승패를 가릴 수 있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이처럼 서로 싸우게 되면 각문, 각파들은 필히 화기(和氣)를 상하게 될 것이다. 어느 일파든지 상대방에게 패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니 훗날 필히 보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죽이고 죽는 엄청난 재화(災禍)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순간 장안에는 화산파의 왜로자(矮老者)가 개방의 집법장로의 일장을 얻어맞고 입에서 선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자 화산파의 고로자(高老者)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구린내나는 거지놈아. 썩은 거지놈아.....!"

이윽고 그는 몸을 튕겨나오면서 개방의 집법장로에게 도전하려 했다. 그러자 왜로자가 그의 팔을 나꿔채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사제, 넌 그의 적수가 못 되니 우린 당분간 이 비분을 참기로 하자."

고로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적수가 안 돼도 싸우겠습니다."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사형의 무예와 자기의 초수가 같더라도 수위는 사형이 깊었다. 게다가 사형이 패했으니 자기도 패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마지못해 왜로자에게 끌려가며 쉴새없이 욕을 퍼부었다. 끝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목붕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그 집법장로는 다시 매화도의 장문인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연거푸 두 번 승리하게 되자 개방 방주들의 우뢰같은 박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퇴장했다.

이처럼 왔다갔다하며 광장에서는 두 시간 정도의 무예가 겨루어

졌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자 출전하는 사람의 무공도 점점 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웅심발발(雄心勃勃)해 했지만 남들의 무공을 보게 되자 그제서야 자기가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고수들은 섣불리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패(申牌) 시각이 되자 개방의 장발용두가 출장하여 상서배교중의 팽사랑에게 도전했는데, 팽사랑은 크게 망신을 당했다. 팽사랑은 그와의 대결에서 배심이 길게 찢어지자 부끄럽고 창피해서 재빨리 퇴장했다. 그러자 장발용두는 아미파의 군중을 바라보며 냉소를 지었다.

"여자들이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도검이나 암기에 의지하는 것뿐이죠. 그래도 이분 팽사랑께서 이 정도까지 무공을 연마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지약이 조그만 소리로 송청서에게 몇 마디 말을 하자 송청서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느린 걸음으로 출장해서 장발용두에게 포권하며 말했다.

"용두대형,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겠소."

장발용두는 송청서를 보자 순간 울화가 치밀어서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다.

"이 간적(奸賊) 같은 송가놈아! 네가 진우량의 명을 믿고 우리 개방에 잠입해서 사방주님을 살해한 일은 당연히 네놈도 책임을 한몫 져야 한다. 오늘 네놈은 아직도 나를 쳐다볼 낯이 있는 거냐?"

그러자 송청서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호에는 적의 소굴로 잠입하여 기밀을 염탐하는 일은 매우 흔한 것이오. 다만 너희 거지떼들은 눈이 멀어서 송대야의 본래 면목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탓하거라!"

"넌 네 친아버지의 무당파까지도 배반했으니 무슨 일인들 못 하

겠느냐? 네놈은 부친에게 불효를 했으니 훗날 처자에게도 불의를 하게 될 것이다. 아미파는 너의 손에 꼭 망조가 들 것이다!"

송청서는 화가 나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버렸다.

"이제 다 지껄였느냐?"

장발용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훗! 하며 일장을 후려쳤다. 송청서는 몸을 돌리며 피하더니 손을 되돌려서 살며시 한 번 휘둘러 아미파의 금정면장(金頂綿掌)으로 대항했다.

장발용두는 그가 개방에 잠입하여 많은 사람을 기만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출수한 초수마다 모두 살수를 전개했다. 이미 죽을 각오로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 보통 무예를 겨루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장발용두가 개방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방주와 전공, 집법 두 장로의 다음이니 그의 조예는 실로 대단했다. 송청서는 무당파 제삼 대 제자 중에서도 특출한 인물이었지만 처음으로 아미파의 금정면장을 맞이하였기에 아무래도 장법 중의 정미오묘한 변화를 숙달되게 전개할 수 없었다.

그는 사,오십 합의 접전을 벌이고 나자 이미 위험한 처지에 놓여졌다. 하는 수 없이 무당파의 면장으로 상대방의 초수를 분해하였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무공이며 게다가 이십여 년 동안 연마하였기에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고 위력 또한 대단히 강했다. 아미파의 금정면장과 외관상은 비슷한 게 있었으나 운경척초(運勁拓招)하는 법문은 전혀 달랐다. 은이정은 쳐다볼수록 울화가 치밀어서 끝내 고함을 쳤다.

"송청서, 네 녀석은 정말 낯도 두껍구나. 넌 무당을 반출(反出)하였는데 어찌 무당의 무공으로 목숨을 구하려 하느냐? 네놈은 아버지를 배신해 버렸는데 어찌 네 아버지가 전수해 준 무공은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자 송청서는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다.

"무당파의 무공이 뭐가 대단합니까? 자 똑똑히 보시오!"

왼손을 갑자기 장발용두의 눈앞에서 상권하구(上圈下鉤) 좌선우전(左旋右轉)하며 연거푸 칠,팔 가지의 모양으로 변하더니, 불쑥 오른손을 내뻗자 푹!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섯 손가락이 장발용두의 뇌문(腦門)에 똑바로 삽입되었다. 방관하는 군웅들이 멈칫하는 순간 그가 다섯 손가락을 피범벅이 된 채 들어올리자 장발용두는 뒤로 나자빠지면서 즉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송청서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당파에 이런 무공이 있소?"

군웅(群雄)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개방에서는 동시에 여덟 명이 달려가더니, 두 명은 장발용두의 시신을 일으켜 세우고 나머지 여섯 명은 일제히 송청서에게 덤벼들었다. 이 여섯 명은 모두 개방의 호수였으며 더구나 그 중의 네 명은 병기를 들고 있었으니 삽시간에 송청서는 다시 위험한 처지에 놓여졌다.

공지대사의 뒤에 있던 한 비대한 화상이 큰 소리로 호통쳤다.

"개방 제군(諸君)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 영웅대회의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오!"

그러자 집법장로가 소리쳤다.

"여러분은 잠시 물러나시오. 본좌가 장발용두의 복수를 갚아 주겠소!"

개방의 제자들은 뒤로 물러나면서 장발용두의 시신을 들고 목붕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모두 화난 얼굴로 송청서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비록 무예를 겨룰 때 살생하게 되어도 탓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 송가란 놈의 출수는 너무나 악랄했다.'

방관하는 군웅들은 모두 이같은 생각을 했다.

이때 장무기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직 조민 어깨에 찍힌 다섯 개 조인(爪印)과 그날 밤 오두막집에서 두백당 부부가

횡사한 장면들이었다. 이윽고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양좌사, 어째서 아미파에 이런 사악한 무공이 있을까요?"

양소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속하(屬下)는 이런 무공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파의 창파사조인 곽여협의 별명이 <소동사(小東邪)>라 부르니 무공에 약간씩 사기(邪氣)가 서려 있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송청서는 이미 집법장로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집법장로는 신형이 왜소하였기에 행동이 엄청나게 민첩했다. 열 손가락이 마치 갈고리와 송곳처럼 변하면서 응조공(應爪功)으로 송청서와 대항했다. 아마 그도 지공(指功)이 전문 분야라 같은 방법으로 송청서의 천령개에다 다섯 구멍을 찍어서 장발용두의 복수를 갚아 줄 속셈이었다.

송청서는 처음엔 여전히 금정면장으로 그와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접전이 깊어지게 되자 집법장로는 대갈일성하며 왼손의 다섯 손가락을 송청서의 뇌문에 걸쳐놓게 운경하여 투입하려 했다. 그러자 송청서는 재빨리 오른손을 뻗었다. 순간 푹!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섯 손가락은 이미 집법장로의 후관(喉管)을 조단(爪斷)하였다. 집법장로는 앞으로 쓰러지면서 왼손의 다섯 손가락은 땅에 삽입되었다. 순간 피바다를 이루며 숨이 끊어졌다.

주지약이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여덟 명의 아미파 여제자가 각각 장검을 쳐들고 몸을 날려서 나갔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등을 서로 맞대며 사방을 호위하더니 송청서를 중간으로 몰아넣었다. 만약 개방이 다시 다가와서 싸우게 되면 즉시 패싸움으로 돌변하려는 상황이었다. 순간 달마당 노승 한 명이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나한당의 삼십 육명 제자들은 듣거라."

손뼉을 세 번 치자 노란 도포를 걸친 삼십 육명 소림승이 앞으

로 날아나왔다. 십 팔명의 손에는 창장을 들고 있었고 십 팔명의 손에는 계도(戒刀)가 들려있었다. 마치 진법(陣法)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광장의 각처로 흩어지더니 엄밀하게 주위를 지키고 섰다.

그 노승이 말했다.

"공지사숙님의 법지에 따라 나한당의 삼십 육명 제자들은 영웅대회의 규칙을 감관(監管)할 것이다. 오늘 대회에서 무예를 겨룰 때 만약 시중기과(恃衆欺寡)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바로 천하무림의 공적이다. 우리 소림사는 주인의 입장으로 필히 공도(公道)를 유지해야만 한다. 삼십 육명 제자들은 정신 바짝차려서 감시해라! 만약 규율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사살하여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삼십 육명 소림승은 일제히 대답하고 나서 주의깊게 광장의 중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자 개방의 제자들은 비록 모두 격분되어 있어도 감히 함부로 앞으로 다가가서 출수하지 못했다. 단지 큰 소리로 욕을 퍼부으면서 집법장로의 시신을 들고 내려갔다.

조민은 조그만 소리로 범요에게 말했다.

"고대사님, 아미파에게 저러한 절초(絶招)가 있을 줄은 정말 뜻밖입니다. 그날 만안사에서 멸절사태가 죽음을 무릅쓰고 출탑하여 무예를 겨루지 않았던 것은 아마 바로 이 절초 때문이었을 겁니다."

범요는 고개를 흔들며 이 일초의 해결법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장무기에게 말했다.

"교주님, 속하에게 한 가지 무공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쌍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왼손의 식지와 오른손의 식지를 뻗어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하며 매우 유연하게 연속 일곱 번을 움직였다. 이윽고 그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

다.

"저의 양팔이 이처럼 연거푸 공격하는 것은 오직 그 녀석의 팔을 나꿔채서 내력을 운출하여 그 녀석의 팔 관절을 진단(震斷)시키려는 겁니다. 그의 지력이 아무리 무서워도 다시는 그 기술을 전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장무기는 양손의 식지를 뻗어서 좌구(左鉤) 우탑(右搭)하며 말했다.

"그가 지력으로 당신의 팔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오."

범요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제가 금나수로 그의 손목을 나꿔채고 십 팔로(路) 원앙연환퇴(鴛鴦連環腿)로 그의 하반신을 걷어찰 겁니다."

"팔십 일초의 맹공을 퍼부어서 그가 숨돌릴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 두 사람은 네손가락으로 공격하고 후퇴하면서 대단히 빠른 공수를 펴보였다. 그러자 범요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교주님의 그 몇 초는 실로 엄청나게 신묘합니다. 저 녀석은 지력만 강할 뿐 무공은 대수롭지 않아서 이 몇 초는 절대로 전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장무기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가 이 삼초를 전개하지 못한다면 범우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윽고 장무기는 왼손의 식지로 두 번 원을 그리더니, 갑자기 오른손 식지가 원을 관통하여 범요의 손가락을 끌어잡으며 미소를 지을뿐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범요는 멈칫하면서 매우 기뻐했다.

"교주님의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속하는 매우 탄복했습니다. 이 사초는 속하의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 주셨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교주님을 스승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 태사부님께서 전수하신 태극권 중의 <난환결(亂環訣)>이랍니다. 요지(要旨)는 왼손으로 그린 몇 개의 원에 있습니다. 저 송가란 자가 비록 무당의 출신이지만 이렇듯 정미한 신법은 깨우치지 못했을 겁니다."

범요에게는 이미 송청서를 제압하는 확신이 생겼지만 송청서는 이미 연속 두 번을 승리하였기에 규칙대로 퇴장하여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그러니 필히 그가 다시 출장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그에게 도전해야만 했다.

조민은 빙그레 웃으며 매우 기쁜 표정으로 옆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무기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소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민매, 무슨 일로 이처럼 유쾌합니까?"

조민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범우사에게 전수한 이 몇 초 무공은 단지 송청서의 팔을 진단(震斷)하도록 했습니다. 뭣 때문에 그에게 그 송가란 자를 죽일 수 있게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송청서가 많은 불의를 행하였으나 그래도 제 대사백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 대사백님이 직접 처분하는 게 옳을 것 같소. 내가 만약에 범우사를 시켜서 그의 목숨을 앗아 버리면 얼마나 대사백님에게 미안한 일입니까?"

"당신이 그를 죽여 버리면 주낭자는 과부가 됩니다. 당신이 다시 그녀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허락해 주겠소?"

조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딴 마음을 먹을 때 그녀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가슴에 다섯 개 구멍을 찍어낼 거예요."

장무기가 범요와 조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송청서는 이미 여덟 명의 아미파 여제자의 호위를 받으며 목붕으로 되돌아갔다. 군웅들은 방금 그가 다섯 손가락으로 살인하는 그 두 판의 광경을 보게 되자 섬 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다.

잠시 후 송청서는 표연히 출장해서 포권을 하며 말했다.

"소인은 휴식이 끝났습니다. 또 어느 분의 영웅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러자 범요가 소리쳤다.

"내가 아미파 절학의 가르침을 받겠소!"

이윽고 몸을 튕겨서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한 회색 그림자가 한 번 흔들거리더니 송청서의 앞에 우뚝 섰다. 그러면서 범요에게 말했다.

"범대사, 나에게 양보해 주시겠소?"

이 자는 바로 무당이협 유연주였다. 범요는 그가 교주의 사백이라 다루기가 난처했다.

"범요는 오늘 운이 좋아서 유이협의 무당 신기를 볼 수 있겠구료."

"과찬의 말씀을....."

송청서는 어려서부터 유사숙을 무서워했다. 더구나 그가 병식운기(屛息雲氣) 엄진임적(嚴陣臨敵) 태세를 취한 것을 보자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자기는 다른 기문무공(氣門武功)을 습득하였지만 두려운 생각이 가시지는 않았다.

유연주는 포권하며 말했다.

"송소협, 먼저!"

이처럼 인사를 하며 또 이처럼 칭호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는 송청서를 전혀 멸시하지 않을 뿐더러 반푼의 동정도 없었다. 그러자 송청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구부리며 인사했다. 순간 유연주는 홋! 하며 일장을 송청서의 정면을 향해서 후려쳤다.

유연주가 강호 무림에 이름을 떨친 것은 이미 삽십여 년이 되었지만, 무림에서 그의 무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가 쌍장의 유경(柔勁)으로 벽력뢰화탄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의 공력을 재확인했다.

강호에선 무당파 무공의 요지는 이유극강(以柔克剛)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에도 유연주의 쌍장은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초식이었다. 눈깜짝할 사이에 송청서는 허리와 다리에 각각 일각(一脚)과 일장을 얻어맞았다.

송청서는 깜짝 놀랐다.

'태사부님과 아버님은 모두 날 무당파의 제 삼대 장문으로 인정하셨기에 모든 무공을 나에게 전수했다. 유이숙님의 이 쾌권쾌각(快拳快脚)의 초식은 내가 모두 배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출초(出招)하는 건 본문 무공의 대기(大忌)를 범하는 게 아닌가? 하필이면 또 이처럼 매섭다니.....!'

이윽고 주지약에게 배운 지상무공(指上武功)을 전개하려 했지만 유연주의 빠른 공격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연거푸 뒤로 물러나면서 문호(門戶)만 있는 힘을 다해 수비했다.

군웅들은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유연주가 기선을 잡고 있지만 방금 송청서가 개방이로를 조살(爪殺)한 것은 모두 열세에서 뒤엎은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을 꼭 재현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연주의 공격은 갈수록 빨라졌다. 그러나 그의 일초일식은 빠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정확했다. 마치 가수가 노래할때 비록 빠른 음절에 접어 들었으나 박자, 음정, 가사를 청취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처럼 정확했다. 그러자 군웅들은 어수선하게 웅성거

리며 일어섰다. 뒤에 서 있던 자들은 아예 탁자나 의자 위로 올라가서 구경하는 자도 있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결같이 찬탄(讚嘆)을 금치 못했다.

'무당파 유이협의 명성은 과연 뜬소문이 아니구나. 단숨에 수많은 공격을 퍼부었는데도 초식이 전혀 반복되지 않다니.....'

다행히 송청서는 무당의 적전제자(嫡傳弟子)이기에 유연주 권각중의 경미한 변화는 그가 모두 배웠던 것들이다. 다만 이같은 쾌투(快鬪)는 평생 처음 당한 것이다. 광장에는 황토먼지가 일더니 한 덩어리 짙은 안개로 형성되면서 유,송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쌍장이 서로 부딪치더니 유연주와 송청서는 일제히 뒤로 물러나며 두 덩어리의 황무(黃霧)로 나눠졌다. 유연주는 똑바로 서기도 전에 다시 몸을 비비적 거리면서 앞으로 다가갔다.

은이정은 사형의 안위가 걱정되어 자기도 모르게 광장 옆으로 다가갔다. 손은 검의 손잡이를 쥐고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장중을 지켜보았다.

이때 송청서의 생가는 갈림길에 놓여 있어서 전력으로 대항을 하고 있었다. 이미 문파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개하는 권법은 모두 어려서부터 연마해 온 무당파의 무공이었다.

두 사람의 권각 초식은 은이정도 모두 알고 있었다. 더구나 매일초마다 모두 치명적인 살수라서 초조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다. 다행히 유연주는 갈수록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만약에 송청서가 갑자기 출수하여 오지천동(五指穿洞)하는 음독살수를 염려하지 않았다면 벌써 그를 죽였을 것이다.

장무기는 몹시 염려되어서 손에는 이미 성화령 두 개를 몰래 쥐고 있었다. 만약 유연주에게 정말 생명에 위험이 닥치게 되면 대

회 규칙을 무시하고 그를 구해 줄 심산이었다.

갈수록 흙먼지는 더욱 높이 날렸다. 순간 송청서는 갑자기 다섯 손가락을 뻗어서 유연주의 오른쪽 어깨 쪽으로 찍어갔다. 유연주는 백 초 전부터 그가 이 일초를 전개할 것을 기다려왔다. 송청서가 개방이로를 격패하는 광경은 유연주도 똑똑히 보았다. 만약에 이로가 사전에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설사 죽지는 않는다 해도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선례가 있었기에 그도 대응책을 강구해 놓았다. 송청서는 이 조법을 연마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화가 많지 않았다. 그러자 유연주는 오른쪽 어깨를 비스듬히 피하면서 왼손으로 허공에다 원을 몇 개 그렸다.

조민과 범요는 그만 으잉! 하며 놀라운 비명을 질렀다. 유연주가 돌린 이 두 개의 원은 바로 장무기가 범요에게 가르친 태극권의 난환결이었다.

순간 조민과 범요는 송청서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과연 으잉!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송청서의 오른손 다섯 손가락은 유연주의 목줄기로 찍어갔다. 그러자 장무기는 몹시 화를 내며 욕을 했다.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싸."

개방의 집법장로가 바로 이 일조에 목숨을 잃었는데 송청서는 사숙님에게도 이러한 독수를 가하다니, 실로 죽어도 마땅했다.

이윽고 유연주의 양팔이 하나는 원을 그리고 하나는 돌리면서 육합경(六合勁)중의 찬번(鑽飜), 라선(螺旋), 이경(二勁)을 전개하여 송청서의 양팔을 나꿔챘다. 순간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나더니 송청서의 양팔 골절(骨節)이 절단되었다. 곧이어 유연주가 소리를 쳤다.

"오늘 일곱째 아우의 복수를 할 것이다!"

이윽고 양팔을 합하여 일초의 쌍풍관이(雙風貫耳)를 사용해서

쌍권으로 그의 양쪽 귀를 맹타했다. 이 일초는 면경(綿勁)이 곁들여 있어서 송청서는 즉시 두개골이 파열되었다.

그의 몸이 쓰러지기 전에 유연주는 한 번 더 걷어차서 즉시 그를 죽여 버리려는 찰나 느닷없이 파란 그림자가 번뜩거리더니 긴 채찍 하나가 정면으로 후려쳐 왔다. 유연주는 황급히 뒤로 피했으나 그 긴 채찍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거푸 공격했다. 바로 아미파의 장문인 주지약이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유연주는 급히 뒤로 세 걸음 물러났다. 주지약의 편법(鞭法)은 매우 괴이했다. 삼초 사이에 이미 그를 권주(圈住)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채찍을 거둬들이더니 왼손으로 채찍 끝을 움켜잡고 냉랭하게 말했다.

"지금 네 목숨을 앗아 버리면 넌 패배를 불복할 것이다. 검을 뽑아라!"

그러자 은이정이 장검을 뽑아들더니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내가 주낭자의 고초(高招)를 받아 보겠소!"

주지약은 그를 무섭게 한 번 노려보더니 몸을 돌려서 송청서의 상세(傷勢)를 바라보았다. 이때 그의 두 눈은 밖으로 튀어나왔고 일곱 구멍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힘없이 땅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니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이윽고 아미파의 남제자 세명이 달려와서 그를 들고 내려갔다.

주지약은 고개를 되돌리더니 유연주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를 먼저 죽이고 다시 은가를 죽여도 늦지 않다!"

방금 유연주는 전력으로 그녀의 편권(鞭圈)을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벗어날 길이 없어서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사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잠시 생각했다.

'내가 그녀와 한판 겨뤄서 설령 그녀의 채찍에 죽더라도 여섯째 아우는 최소한 그녀 편법의 실마리를 알아낼 것이다.'

이윽고 손을 내밀어서 은이정 수중의 장검을 받으려 했다. 은이정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형제 두 사람의 무공으로 그녀의 일격을 벗어나가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와 사형은 똑같은 생각을했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모험해서 사형이 그녀 편법의 요지를 관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순간 은이정은 검을 주지 않으며 말했다.

"사형, 제가 먼저 출장하겠소."

유연주는 그를 한번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동문으로서 같이 무예를 배운 정의와, 또 수족처럼 친한 정의가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다. 뇌리에는 마치 번개처럼 유대암의 불구와 장취산의 자살 그리고 막성곡의 참사가 스쳐갔다.

더구나 무당칠협 중에 오직 넷만 남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협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육제(殷六弟)의 무공은 강해도 성격은 아주 연약했다. 만약 자기가 먼저 죽게 되면 그는 심신이 크게 혼란되어 전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여섯째 아우,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버티어라."

은이정은 아내 양불회가 임신한 것을 생각하자 지가도 모르게 고개를 양소와 장무기쪽으로 돌렸다. 그러자 다시 생각을 달리했다.

"내가 죽고 나면 불회와 아이는 자연히 돌봐 줄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남에게 구걸하며 당부할 것 없다."

이윽고 장검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장문인, 공격하시오!"

그의 나이는 주지약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주지약은 지금 아미파의 장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결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유연주는 그가 태극검의 기수식으로 적을 맞이하는 것을 보자

여섯째 아우가 이번에는 사문의 절학으로 강적과 주선(周旋)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주지약이 말했다.
 "당신이 먼저 공격하시죠!"
 은이정은 상대방의 출수가 마치 번개처럼 빠르기 때문에 만약 그녀가 기선을 잡게 되면 뒤엎기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왼발을 내딛으면서 검을 왼손으로 전개했다. 제 일검은 허허실실하며 왼손으로 검을 쥐고 적을 공격했다.
 검 끝은 빛이 반짝거리며 칙칙.....!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러자 방관하는 군웅들은 참다 못해 우뢰같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주지약은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재빨리 피했다. 그러자 은이정도 재빨리 대괴성(大魁星) 연자초수(燕子抄水)로 공격했다.
 장검은 공중에서 큰 원을 그렸고, 오른손은 검결을 연출했는데도 마치 칙칙.....!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주지약은 허리를 살짝 흔들어서 일일이 피하며 말했다.
 "은육협, 내가 당신에게 삼초를 양보한 것은 옛날 무당산의 옛정을 보답하는 것이오."
 말이 끝남에 동시에 부드러운 채찍은 마치 민첩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곧바로 은이정의 흉구로 달려들었다. 은이정이 왼쪽으로 재빨리 피했으나 채찍은 도중에서 꺾어지면서 달려들었다.
 그러자 은이정은 풍파하엽(風擺荷葉) 일초로 응수하면서 장검을 삭출(削出)했다. 채찍과 장검이 맞부딪치자 철썩! 하며 가벼운 소리가 한 번 났다. 순간 은이정이 호구(虎九)가 뜨거워지는 것 같으면서 하마터면 장검을 놓칠 뻔했다. 내신 크게 한 번 놀랐다.
 '난 그녀의 초식만 괴이한 줄 알았는데 내력 또한 나의 적수가 아니구나. 그녀의 내경이 그처럼 기궤(奇詭)하며 예측할 수 없을

줄은 정말 뜻밖이다.'

이윽고 정신을 통일하여 태극검법을 모두 전개하면서 문호를 엄밀하게 방어했다.

주지약 수중의 채찍은 마치 한 가닥 부드러운 실처럼 전혀 아무런 중량이 없는 것 같았다. 몸이 갑자기 동쪽으로 또 갑자기 서쪽으로, 갑자기 전진하고 또 갑자기 후퇴하면서 은이정의 주위를 날아다녔다.

장무기는 바라볼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이처럼 채찍을 사용하는 것은 도액, 도난, 도겁 세 분 고승과 비교하면 아주 또 다르구나.'

처음에 그는 아미파에 또 다른 사문 무공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치 귀신 같은 신수(身手)를 보게되자 실로 멸절사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내심 두려운 생각이 은근히 생겼다.

범요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장무기의 허를 찌르는 말이었다. 장무기는 그만 몸을 부르르 한 번 떨었다. 만약에 광장에 햇빛이 눈에 부시지 않고 또 사방에 온통 사람들이 서 있지 않았다면, 정말로 주지약은 이미 죽었고 그 혼백이 채찍을 들고 은이정과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는 평생 수많은 괴이한 무공을 보았지만 주지약의 이러한 신법과 편법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와 흐르는 물의 부평초 같았다. 실로 인간의 기상은 아니었다. 잠깐 동안 그는 마치 꿈 속에 있는 듯 하면서 내심 섬 했다.

'진정 그녀에게 요법(妖法)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무슨 괴물이 몸에 부착되어 있단 말인가?'

주지약의 신법은 실로 괴이했다. 그러나 태극검법 또한 장삼봉이 만년에 태극권을 이어서 창작한 것이라 실로 근세에서는 등봉

조극(登峯造極)의 검술이었다.
 은이정은 공경(功勁)을 한꺼번에 끊임없이 전개했다. 비록 상대방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자기를 방어하는 데에는 전혀 빈틈이 없었다.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괴상한 소리를 외치는 게 들렸다.
 "아이구! 송청서의 숨이 끊어지려고 한다. 주대장문, 당신은 부군의 임종을 보지 못하면 과부가 되더라도 창피한 일이오."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바로 주전이었다. 그는 무당파 제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양기조식(養氣調息)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을 맞이하여 접전을 벌일 때 모두 태산이 눈앞에서 붕괴되더라도 전혀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수위(修爲)가 있다. 그가 외친 것은 은이정을 도와주고 주지약의 심신을 교란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그는 다시 소리쳤다.
 "이봐요, 아미파의 주지약 낭자, 당신 부군의 숨이 끊어지려 하네. 당신에게 몇 마디 당부할 말이 있다고 하는군. 그의 말에의하면 그는 밖에 삼십 이십일, 사칠 이십 팔 명의 사생아가 있는데, 그가 죽고 나면 당신이 잘 좀 부양해 줘야만 눈을 감을 수 있다는군. 당신은 도대체 승낙하는 건가, 아니면 승낙하지 않는 것인가?"
 군웅들은 그가 멋대로 지껄이는 것을 듣고 어떤 자는 참다 못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주지약은 마치 듣지 못한 듯 태연했다. 그러자 주전은 다시 소리쳤다.
 "아이구, 야단났군! 멸절 노사태님, 그래와서 어른신네께선 안녕하십니까? 오랫 동안 뵙지 못했는데 어르신네는 점점 더 경랑(硬朗)하셨구료. 당신의 혼백이 주낭자 몸에 씌워지더니 채찍의 놀림이 아주 보기 좋구료."

순간 갑자기 주지약의 몸이 두 번 휘청하더니 재빨리 뒤로 수장(數丈) 물러나며 긴 채찍을 오른쪽 어깨 위에서 뒤로 급히 던졌다.

그러자 채찍의 끝이 주전의 면문(面門)으로 날아갔다. 그녀와 명교의 목붕 사이는 열 장도 더 떨어져 있었는데 그녀의 채찍은 마치 하늘에 날으는 용처럼 곧바로 날아갔다.

마침 주전은 침을 사방으로 튀기며 즐겁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 주지약이 한창 접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갑자기 채찍을 던져서 자기에게 기습할 줄 알았겠는가! 그가 멍하는 사이에 채찍은 이미 면문에 날아왔다. 주지약은 마치 등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채찍의 끝은 그의 콧날을 가리켰다.

주지약은 채찍을 뒤로 던지면서도 왼손의 식,중 이지(二指)는 은이정에게 연거푸 찍어갔다. 계속해서 일곱 번을 찍었는데 모두가 그의 머리, 얼굴, 앞가슴 쪽의 중요한 혈도였다. 은이정은 이어 적을 공격할 틈도 없을 뿐더러 장검을 휘둘러서 그녀의 팔을 후려칠 수도 없었다. 다만 봉점두(鳳點頭)란 초식을 사용하여 몸을 움추리고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때 명교의 목붕 안에는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당당탕! 하며 요란한 소리가 한 차례 들렸다. 이건 양소가 주전의 옆에 서 있다가 재빠르게 장풍으로 앞에 있는 나무 탁자를 끌어올려서 주지약의 일편(一鞭)을 막은 것이다. 긴 채찍이 나무 탁자를 후려치자 즉시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날리면서 탁자 위에 있던 주전자와 찻잔이 사방으로 날렸다. 군웅들의 몸에는 많은 사기 조각과 뜨거운 차가 묻어 버렸다.

주지약은 일격이 명중되지 않자 주전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채찍이 돌아서 되돌아오자 질풍 폭우처럼 은이정에게 공격했다.

유연주는 검을 들고 옆에서 한동안 관망하였으나 끝내 그녀의

편법 요지를 알아낼 수 없었다.
'내가 다시 출수하더라도 이 태극검법은 여섯째 아우보다 더 이상 좋게 전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랫 동안 접전을 벌이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는 내력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승리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는 은이정의 검법이 탄토개합(呑吐開合) 음양동정(陰陽動靜)한 것을 보자 실로 은사 장삼봉이 평소에 지적한 절예에 이미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제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이처럼 고명한 검술을 전개하지 않았다. 오늘 생사의 갈림길에서 검법 중의 최고 정요(精要)한 것을 모두 아낌없이 발휘하는구나. 무당파의 무공은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진다.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패하지 않을 희망은 그만큼 더 있는 것이다.'
순간 주지약은 갑자기 긴 채찍을 휘둘더니 크고 작은 원을 수없이 만들면서 은이정을 그 안으로 감싸 버렸다. 태극권과 태극검만이 경력을 운용하여 원을 만드는 것인데, 주지약도 긴 채찍을 휘둘러서 원을 만들었다. 게다가 채찍이 원을 그린 방향과 은이정의 검이 원을 그린 방향은 똑같았다. 다만 몇 배가 더 빨랐다.
그러자 은이정 검의 경력이 그녀에게 한 번 이끌리더니, 즉시 몸이 자기도 모르게 몇 바퀴 돌면서 파란 빛이 한 번 번뜩거리고 장검이 손에서 벗어나며 위로 날아갔다. 순간 주지약은 긴 채찍을 반대로 거두어들이면서 채찍의 끝을 은이정의 천령개를 겨냥해서 내리찍었다.
그러자 유연주는 몸을 위로 솟구쳐서 오른손으로 채찍을 나꿔챘다. 순간 주지약은 치마 밑에서 일각을 날려 유연주의 요협(腰脅)을 걷어찼다. 유연주는 계속 주지약의 괴이한 편법(鞭法)의 정요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그녀가 채찍을 휘둘러서 원을 그리며 은이정의 장검을 빼앗는 순간 즉시 깨우치는 바가 있

었다.

'그녀의 공력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녀가 채찍을 휘둘러서 원을 그리는 건 우리의 태극권에 비교하면 실로 한참 뒤떨어졌다.'

채찍을 움켜잡자 허리는 그녀의 일각에 걷어채이면서도 왼손을 뻗어냈다. 바로 호조절호수(虎爪絶戶手)의 일초였다. 유연주는 곧바로 주지약의 하복부로 찍어갔다. 주지약은 막을수가 없었다. 순간 뇌리에는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오늘 유이숙님의 손에 죽어 버리자.'

그러자 오른손의 채찍을 놓으면서 다섯 손가락은 유연주의 머리위를 찍어갔다. 그와 동귀어진(同歸於盡)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유연주는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서 피하려 했지만, 허리가 채이는 바람에 혈도가 봉쇄되어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지약의 왼손은 여전히 무섭게 다가왔다.

바로 이 천균일발(千鈞一髮)의 순간에 한 사람이 옆에서 달려들더니, 오른손으로 유연주의 호조절호수를 막아내고 왼손으로 주지약의 다섯 손가락을 밀어냈다. 바로 장무기가 출수하여 두 사람을 구한 것이다.

그러자 주지약은 쌍장으로 재빨리 장무기의 가슴을 후려쳤다. 장무기가 만약 피한다면 이 쌍장의 힘은 마침 은이정의 얼굴에 강타될 것이다. 오직 좌장을 후려쳐서 막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쌍장이 맞부딪친 순간 장무기는 주지약의 쌍장에 전혀 경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몹시 놀랐다.

'아이구, 야단났다! 그녀와 육숙이 고투(苦鬪) 이백여 초를 하더니 이미 유진등고(油盡등枯)의 경지에 도달했구나. 나의 이 경력이 앞으로 뻗게 되면 당장 그녀의 목숨을 상할 게 아닌가!'

그러자 황급히 수경(手勁)을 거둬들였다.

그가 처음에 좌장을 후려칠 때 주지약의 무공과 자기의 무공은

이미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크나큰 강적으로 간주하여 털끝 만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단장(單掌)으로 쌍장을 맞이했으니 이 일장은 곧 십성(十成)의 경력을 발출한 것이다. 그러나 경력을 밖으로 발출하자마자 즉시 상대방이 역진(力盡)한 것을 눈치채고 급히 그대로 거두어 들인 것이다.

물론 이것이 무학의 대기(大忌)를 범한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 더구나 그 간발의 차이에서 갑자기 거둬들이니 힘이 더 한층 강맹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내력을 자유자재로 수발(收發)할 수 있기에 이 강력한 힘이 되돌아와서 부딪쳐 봤자 잠시 숨이 막힐 뿐 절대로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장력이 되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상대방의 장력은 마치 호수가 방죽을 무너뜨리고 밀려오는 듯했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면서 이미 상대방의 암계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지약의 쌍장은 그의 흉구에 적중되었다. 이건 그 자신의 장력과 주지약의 장력이 합쳐진 것이다. 그의 호체(護體)하는 구양신공이 제아무리 두텁다 해도 양대 고수가 합력한 장력은 견딜 수 없었다. 더구나 주지약의 장력은 그가 구력이진(舊力已盡) 신력미생(神力未生)할 때 틈을 타서 후려친 것이다.

이러한 무공은 바로 아미파의 적전(嫡傳)이다. 옛날에 멸절사태도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그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했던 것이다. 다만 옛날에는 그가 방비책을 전혀 몰라서 당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오로지 인(仁) 때문에 기만되어 당한 것이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 냈다.

주지약은 도습이 성공되자 바로 왼손을 앞으로 뻗어서 다섯 손가락으로 그의 흉구로 찍어갔다. 비록 장무기는 중상을 입었어도 심신은 혼란되지 않았다. 그는 이 일조(一爪)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억지로 뒤로 몇 걸음 이동했다. 순간 주지약의 다섯 손가락에 옷이 찢겨지고 앞가슴이 드러났다.

주지약의 오른손 다섯 손가락이 바로 잇따라 공격하려 했다. 그때 유연주는 그녀에게 혈도가 채여서 움직일 수 없었고 은이정도 덮쳐가서 구출하려 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

순간 장무기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졌다. 그러나 주지약이 한번 흘낏 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흉구에 있는 상처자국을 보게 되었다. 바로 전에 광명정 위에서 자기가 의천검으로 찌른 상처자국이었다. 다섯 손가락이 그의 가슴에서 반치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자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더 이상 공격을 가하지 못했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위일소, 은이정, 양소, 범요 네 사람이 이미 일제히 덮쳐갔다. 위일소는 몸을 날려서 장무기의 몸 앞을 막았고 양,범 두 사람은 각각 주지약의 좌우를 공격했다. 그 사이 은이정은 장무기를 안아들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장중은 삽시간에 크게 혼란되었다. 아미파의 제자들과 소림승은 모두 호통치면서 병기를 들고 장중으로 달려들었다. 양소, 범요와 주지약은 서로 몇 초씩을 주고받자 더 이상 연전하지 않았다. 위일소가 유연주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일제히 목붕으로 되돌아갔다. 아미, 소림 양파의 사람들도 장중의 접전이 끝난 것을 보고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조민도 달려가서 구조하려 했으나 신법이 위,양 보다 못하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다. 도중에서 장무기의 입가에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자 그만 놀라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러자 장무기는 억지 웃음을 하며 말했다.

"괜찮소. 잠시 운기조식하면 좋아질 것이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여 목붕 안의 땅바닥에 좌정시켰다. 그러자 장무기는 천천히 구양신공을 끌어내며 내상을 조리했다.

주지약이 외쳤다.

"어느분 영웅께서 저와 겨루겠습니까?"

그러자 범요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장무기가 말했다.

"범우사님, 이건 제 명령입니다. 출전하지 마세요. 우리..... 우리가 패한 것을 인정....."

한 모금 기(氣)가 엇갈리자 다시 두 모금의 선혈을 토해 냈다. 범요는 교주의 명령을 감히 어기지 못했다. 만약에 출전하길 고집하면 필시 장무기의 상세가 더욱 악화될 것 같았다. 더구나 출전하는 건 단지 진심갈력(盡心竭力)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뿐 본교에게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지약은 광장 중심에 서서 다시 두 번 되풀이하여 말했다.

방금 장무기의 회력자상(廻力自傷)한 일은 오직 그와 주지약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방관하는 사람들 눈에는 모두 주지약의 장력이 괴이해서 장무기가 역부족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가 한낱 젊은 여자로서 은이정, 유연주, 장무기 등 세 분 같은 당세의 일류급 고수를 연패시키는 것을 보자 무공의 괴이함은 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비록 군웅 중에 절학을 지닌 자들은 많았지만 유,은,장 세 사람에 비하면 절대로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구태여 출전해서 목숨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지약은 잠시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도전해 오는 자는 없었다. 그러자 그 달마당의 노승이 걸어나오더니 합장하며 말했다.

"아미파 장문인 송부인께서 무공이 천하 제일입니다. 불복하는 영웅이 계십니까?"

주전이 외쳤다.

"나 주전은 불복하오."

"그렇다면 주영웅께서 겨뤄 보시오."

"난 그녀에게 이길 수 없는데 뭣 때문에 겨룹니까?"

"주영웅께선 자신이 적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 굴복해야 할 게 아니오!"

"적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불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오?"

그 노승은 더 이상 그와 시비하지 않고 다시 되물었다.

"이분 주영웅 말고 또 불복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윽고 연거푸 세 번 물었으나 주전만 세 번 대답할 뿐 아무도 불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겨룰 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영웅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약정한 대로 금모사왕 사손을 아미파의 송부인에게 넘겨드려서 처치하도록 합시다. 도룡보도는 어느 분의 수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내놓으셔서 송부인께서 수관하도록 합시다. 이건 군웅들이 공결(公決)한 것이니 어느 누구도 군말해선 안 됩니다."

장무기는 마침 내식(內息)을 조절해 놓고 구양진기로 내상을 치료하면서 차츰 무아지경에 이르는 찰나, 불쑥 그 노승이 금모사왕 사손을 아미파의 장문인 송부인에게 넘겨서 처치한다는 말을 듣자 충격을 받아서 하마터면 또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할 뻔했다.

조민은 옆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의 몸이 갑자기 떨리고 안색이 몹시 변하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장교주, 당신의 의부를 주낭자에게 넘겨 주는 건 아주 잘 된 일입니다. 그녀가 방금 당신에게 손을 쓰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당신에게 깊은 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당신의 의부를 해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처나 치료하세요."

장무기가 생각해 보니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러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 때 태양은 서서히 뒷산으로 지고 있었다. 광장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자 그 노승이 다시 말했다.

"금모사왕 사손은 뒷산 모처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처럼 늦었으니 여러분들도 시장하실 겁니다. 내일 정오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이면 노납(老衲)이 송부인을 인도해서 죄인을 석방하게 할 것이오. 그 때 가서 우리는 송부인의 신묘한 무공을 다시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양소, 범요 등 명교 사람들은 모두 조민을 바라보았다.

'과연 당신의 예측대로군. 소림파에겐 또 다른 음모가 있었구나. 아무리 주지약의 무공이 강해도 절대로 도액 등 세 분 노승을 이기지 못한다. 어쩌면 그녀는 소실봉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결국엔 소림파가 칭웅정강(稱雄정强)할 것이다.'

이때 주지약은 아미파의 위세를 떨치고 이미 목붕으로 돌아갔다. 제자들은 장문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한결같이 조용히 일어나서 인사했다. 군웅들은 비록 주지약이 이미 <무공 천하제일>이란 명칭을 취득한 것을 보았지만 대사가 마무리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하산하지 않았다.

그 노승이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 영웅분들께서 본사에 오셨으니 모두가 소림파의 귀빈입니다. 여러분들 상호간에 설사 은원이 있다 해도 폐파의 체면을 봐서 잠시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실산(小室山)에서 해결하려 하면 그건 소림파를 얕잡아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앞산에는 얼마든지 유람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뒷산은 폐파의 장경수예(藏經授藝)하는 곳이니 여러분께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범요는 장무기를 안아들고 명교 자체에서 만든 목붕으로

돌아갔다. 비록 장무기의 장상이 아주 심했으나 그가 평소에 만든 영단을 아홉 알 복용하고 다시 구양진기로 악의 힘을 분산시키자 심야의 이경쯤 되어 세 모금의 어혈(於血)을 토해내면서 내상이 모두 치료되었다.

양소, 범요, 유연주, 은이정 등은 모두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모두가 그의 심후한 내공에 찬사를 보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이 정도의 중상을 입게 되면 고수가조치해 준다 해도 최소한 일,이개월 정도 걸려야만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완쾌 되었으니, 만약에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장무기는 밥 두 그릇을 먹고 잠시 더 휴식을 취하고 난 후,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오겠소."

그는 교주의 신분이라 무슨 일이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은이정이 말했다.

"방금 중상이 완쾌되었으니 각별히 조심해라."

"네."

장무기는 대답하고 나서 조민의 얼굴을 바라보니몹시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그녀에게 살짝 웃어 보였다. 안심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목붕을 나와서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는 밝은 달과 작은 별이 몇 점 떠 있었다. 깊이 한 모금의 숨을 들여마시자 체내의 진기가 유전되면서 정신이 바짝 났다. 이윽고 소림사 밖으로 가서 지객승인에게 말했다.

"아미파의 장문인을 만나고 싶은데, 수고스럽지만 안내해 주겠소?"

그 지객승은 그가 명교의 교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내심 매우 두려워했다. 얼른 마주 공손하게 말했다.

"네, 네. 소승이 인도해 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지객승은 조심스럽게 그를 안내하며 서쪽으로 갔다. 약 일리(一里)쯤 가더니 손으로 앞에 있는 작은 집 몇 칸을 가리켰다.

그 지객승이 말했다.

"아미파는 모두 저기에 있습니다. 승니(僧尼)는 유별해서 소승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장무기와 주지약이 다시 싸워서 행여나 자기가 옆에 있다가 다칠까 봐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돌아가서 이 일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매우 놀랄 것이오. 그러니 내가 당신의 혈도를 찍어놓을 테니 여기서 날 기다리는 게 어떻겠소?"

그 지객승이 얼른 말했다.

"소승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주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황급히 돌아갔다. 장무기는 천천히 작은 집 쪽으로 걸어갔다. 십여 장쯤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자 비구니 두 명이 몸을 날려서 다가왔다. 장검을 몸 앞에 쳐들고 호통쳤다.

"누구냐!"

장무기는 포권하며 말했다.

"명교의 장무기가 귀파의 장문인 송부인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자 비구니 두 명은 대경실색했다. 이윽고 나이가 많은 한 비구니가 말했다.

"장.....장교주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제가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진정해 보았으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바로 죽소(竹소)를 꺼내어 불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즉시 이십여 명이 뛰어 나왔다. 검광을 번뜩거리며 각처에 분산했다. 장무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뒷짐을 지으며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비구니가 작은 집 안으로 보고하러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나오면서 말했다.

"폐파의 장문인께서는 남녀가 유별해서 밤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장교주님은 걸음을 돌리시지요."

"나는 의술이 매우 정통하여 송청서 소협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을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비구니는 멈칫하더니 다시 들어가서 보고했다. 한참 지난 뒤에 나와서 말했다.

"장문인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장무기는 허리 사이를 두드려 보이며 병기가 없다는 것을 보이며 그 비구니를 따라서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주지약은 손으로 턱을 괸 채 멍하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들어온 것을 들었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비구니는 청차(淸茶) 한 잔을 따라서 탁자에 올려놓고 바로 물러갔다. 살며시 문을 닫아 버리자 대청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한 자루 하얀 촛불이 갑자기 밝게 또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주지약이 입고 있는 담청색 옷을 비추었다. 몹시 처량한 정경이었다.

장무기는 마음이 찡하여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송사형의 상처가 어떠한지 내가 살펴보아도 괜찮겠소?"

주지약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냉랭하게 말했다.

"그는 머리뼈가 부서지는 바람에 상세가 몹시 심해서 살아날 것 같지 않소. 아마 오늘 밤도 넘기지 못할 것 같소."

"당신은 내 의술을 잘 알지 않소. 내가 힘껏 구해 보겠소."

그러자 주지약은 되물었다.

"당신은 뭣 때문에 그를 구하려 하죠?"

장무기는 멈칫하며 말했다.

"난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마음이 몹시 괴롭소. 게다가 오늘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소? 송사형의 상처는 내가 있

는 힘을 다해 보겠소."

"당신이 먼저 수저류정(手底留情)한 것을 내 어찌 모르겠어요. 당신이 만약에 송대형을 살려낸다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목숨과 목숨을 바꾸는 것이오. 내 의부에게 수하류정(手下留情)하시오."

주지약은 손으로 내당 쪽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안에 있습니다."

장무기가 방문 앞으로 걸어가 보니 방 안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전혀 불빛이 없었다. 그는 촛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장무기는 청사(靑紗) 휘장을 열고 촛불을 비춰서 송청서를 보니 두 눈은 돌출되어 있었고 오관이 비뚤어진 게 몹시 무서운 얼굴이었다. 호흡은 미약하며 벌써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목을 눌러보니 맥식(脈息)이 갑자기 빨랐다가 또 갑자기 느리면서 매우 혼란되어 있었다. 체온도 얼음처럼 차가왔다. 만약에 즉시 손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다시 살며시 그의 두개골을 만져 보니 앞이마와 뒷골뼈가 모두 네 개가 부서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속으로는 유이숙의 쌍권의 힘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송청서의 내공이 상당한 수준이 아니었더라면 쌍풍관이를 십성(十成) 내력으로 후려친 것을 맞았으니 당장에 즉사했을 것이다.

그는 휘장을 내려놓고 촛대를 탁자에 올려놓으며 대나무 의자에 앉아서 치료할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다. 송청서가 당한 상처는 실로 치명적인 중상이라 그의 생명을 구하는 건 삼성(三成)의 자신밖에 없었다.

그는 밥 한 끼 먹을 정도의 시간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외실로 나가서 주지약에 말했다.

"송부인, 송사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는 단언(斷言)하기 힘

들지만 내가 한번 시험해 보아도 괜찮겠소?"

"만약 당신이 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그를 구할 수 있겠어요?"

"설사 그의 생명을 구한다 해도 용모와 무공은 옛날처럼 되기가 힘들 것이오. 그의 뇌도 이미 고장나서 아마.....아마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오."

"필경 당신은 신선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당신이 꼭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살려 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아무런 죄책감없이 조정의 군마(群馬)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자 장무기는 아찔했다. 그러나 이 일을 당장 논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장무기는 송청서가 덮고 있던 얇은 이불을 걷고, 그의 여덟 군데의 혈도를 찍었다. 그리고 나서 열 손가락을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한줄기의 힘으로 그의 부서진 머리뼈를 하나하나 똑바로 일으켜 세웠다. 다음에 품에서 금합(金盒) 한 개를 꺼내었다. 세끼 손가락으로 한 덩어리 검은 고약을 찍어서 양손으로 비벼 대더니 살며시 송청서의 머리뼈가 깨진 곳에 발라 주었다. 이 검은 고약은 바로 <흑옥단속고(黑玉斷續膏)>였다. 이는 서역 소림파가 상처 치료나 접골에 쓰는 묘약이다. 옛날에 그가 조민에게 구걸하여 얻어서 유대암과 은이정 두 사람을 치료해 주고 남은 것이다.

그는 장내의 구양진기를 끊임없이 송출하여 약의 힘을 송청서의 부서진 뼈에다 투입시켰다.

약 한 자루의 향을 태우는 시간이 지나자 장무기는 약의 힘을 모두 투입시켰다. 송청서의 얼굴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자 몹시 기뻐했다. 그를 살려낼 수 있는 확신이 더 한층 확고해졌다.

그는 자신이 부상이 좀전에 완쾌되었는데 이처럼 내경을 운용하

자 그만 다시 가슴이 뛰고 숨을 헐떡거렸다. 잠시 침상 앞에 선 채로 내식(內息)을 고루 조절하고 나서 그제야 대청으로 돌아가서 촛대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주지약의 안색은 몹시 창백했다. 문밖에서는 가벼운 발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아미파의 제자들이 순찰하고 있는 중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송사형의 생명을 구해낼지도 모르겠소. 당신은 이제 마음을 놓으시오."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나도 사대협을 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을 굴렸다.

'내일 그녀가 금강복마권을 공격하러 가면 아미파에서 한,두 명의 고수가 돕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십중팔구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도리어 그녀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당신은 의부가 감금되어 있는 곳의 정세를 알고 있소?"

"모릅니다. 혹 소림파에서 어떤 무서운 매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자 장무기는 사손이 산정의 지하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또 소림의 세 노승이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가 두 차례나 공격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게다가 은천정이 그 일 때문에 죽었다는 일들을 간단하게 말해 주었다.

주지약은 묵묵히 듣고 나서 말했다.

"당신도 실패했으니 난 더욱 불가능하겠군요."

장무기는 갑자기 마음이 동요되더니 기뻐하며 말했다.

"지약,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성공하게 될것이오. 나는 순양지강(純陽至剛)의 힘으로 세 분 고승의 장편(長鞭)을 맡고, 당신은 음유(陰柔)의 힘으로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요. 일단 복마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외로 협공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오."
 주지약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전에 혼인지약이 있었고, 또 지금은 내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오늘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줘서 다른 사람들이 필시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미련이 남아 있다고 말할 것이오. 만약에 다시 당신을 도와주게 되면 천하의 영웅들은 모두 날 욕하게 될 것이오."
 그러자 장무기가 얼른 말했다.
 "우리가 양심에 가책이 없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소!"
 "만약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어쩌겠소?"
 장무기는 멍해지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당신....!"
 "장교주님, 우리 두 사람은 고남과녀(孤男寡女)입니다. 야밤중에 같이 있게 되면 물의를 빚게 됩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러자 장무기는 일어나서 포권의 예로 인사하며 말했다.
 "송부인, 당신은 어려서부터 나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소. 당신이 다시 한 번 은덕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장무기가 살아 생전에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주지약은 묵묵히 있을 뿐 승낙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장무기는 그녀의 안색을 볼 수 없었다. 다시 머리를 숙여서 구원을 청하려 했는데 주지약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정혜사저, 손님께서 가십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렸다. 정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장검을 들고 얼굴에는 노기를 띄우며 그를 노려보았다. 장무기는 의부의 생가가 이 일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자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었다. 설령 자기의 체면이 깎이게 되더라도 무슨 상관 있겠

는가! 그는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는 주지약에게 절을 네 번하며 말했다.

"송부인, 제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지약은 마치 돌부처처럼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혜가 소리쳤다.

"장무기, 장문인께서 당신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냐? 진정 나야말로 무림의 패류(敗類), 무치지우(無恥之尤)로다."

그녀는 송청서가 죽어가는 틈을 타서 장무기가 다시 와서 주지약에게 청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자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가 명교의 목붕 앞으로 돌아가자 조민이 마중하며 말했다.

"송청서의 상처는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나의 흑옥단속고를 사용해서 좋은 사람 노릇을 하셨군요."

"아니, 당신은 정말 귀신처럼 아는구료. 그의 상세를 구할 수 있을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소."

그러자 조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송청서의 생명을 구해서 사대협을 바꾸려 했군요. 장공자, 당신은 남의 속도 모르고 점점 더 멍청해지는군요."

장무기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뭣 때문이오? 이거야말로 난정말 모르겠소?"

"당신이 온 정성으로 송청서를 구하는 건 바로 주낭자가 당신에게 대한 정의를 하나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 그녀가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장무기는 깜짝 놀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조민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송청서의 생명을 구해 준 것이 지금 와서 또 후회가 되죠? 그렇죠?"

조민은 장무기가 대답도 하기 전에 빙그레 웃더니 옷자락을 펄럭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장무기는 바위에 앉아서 차거운 초생달을 바라보며 주지약과 처음 만났던 일부터 이것저것 회상해 보았다. 특히 방금 본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옛날의 그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월 초 엿새의 아침이 밝아오자 소림사의 종소리는 탕탕.....! 하며 울렸다. 그러자 군웅들은 다시 광장에 집결되었다. 그 달마당의 노승은 이번엔 공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영웅 여러분들, 밤새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예를 겨룬 끝에 아미파의 장문 송부인께서 예관군웅(藝冠群雄)하셨습니다. 그러니 송부인께서는 뒷산에 가셔서 파관(破關)하여 금모사왕 사손을 끌어낼 겁니다. 자, 노승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말을 끝나자 즉시 앞장서서 걸어갔다.

여덟 명의 아미파 비구니 대제자가 그의 뒤를 따랐고, 주지약과 아미의 제자들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갔다. 수많은 영웅들은 멀찌감치 뒤를 따라서 일제히 뒷산으로 걸어갔다.

장무기는 주지약의 옷차림이 어제와 똑같은 것을 보자 송청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어젯밤을 무사히 넘겼으니 어쩌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보니 세 분 노승은 가부좌를 틀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 달마당 노승이 말했다.

"금모사왕은 저 세 그루 울창한 소나무 사이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을 지키고 계신 분은 폐파의 세 분 장로님입니다. 송부인께선 무공이 천하무쌍하시니 폐파의 이 세 분 장로님만 이긴다면 즉시 감옥을 부수고 사람을 꺼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송부인의 신수(身手)를 관전하겠습니다."

양소는 장무기의 안색이 불안정하게 보이자 그의 귀에다 대고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교주님,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위복왕, 설불득 두 분은 이미 오행기 사람들을 통솔하여 산봉우리 밑에 매복했습니다. 아미파에서 만약 사사왕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무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장무기는 이마를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건 대회의 규칙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오."

"전 다만 송부인이 도검으로 사사왕의 목을 겨누고 있으면 우리가 싸울 때 투서기기(投鼠忌器)할까 봐 걱정입니다. 신의 같은 건 신경쓸 겨를도 없습니다."

조민은 나직하게 말했다.

"사사왕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 숲에서 암기로 도습하는 자를 방어해야 합니다."

양소가 말했다.

"범우사, 철관도장, 주형, 팽대사 등 네 분께선 이미 사방에 나뉘어 도습하는 자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조민이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암기를 발사하여 도습하려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틈을 타서 사사왕을 구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의 영웅들도 우리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나무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조용하면..... 오히려..... 음, 양좌사님, 수고스럽지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사사왕을 습격하는 것처럼 가장해 주십시오. 혼란한 틈을 이용해 우리는 혼수모어(混水摸魚)하듯 사사왕을 구출하겠어요."

그러자 양소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묘책입니다."

이윽고 즉시 사람을 파견했다. 장무기는 이러한 행동이 정정당

당한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의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기로 했다. 속으로는 조민에게 매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매와 양좌사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큰 재질을 지니고 그들 두사람이 서로 의논하면 잘 통하는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재주가 없으니.....'

그러자 주지약의 말소리가 들렸다.

"세 분 고승이 소림파의 장로라면 무학도 자연히 깊을 것이 아닙니까? 본좌가 일 대 삼으로 하면 비단 공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윗사람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 달마당의 노승이 말했다.

"송부인께서 한, 두 사람 보태서 돕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좌는 천하의 영웅들께서 양보하신 바람에 요행탈괴(僥倖奪魁)했지만, 모두가 선사 멸절사태께서 비전(秘傳)한 본파의 무공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삼 대 삼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도 선사께서 옛날에 본좌에게 정성껏 가르치신 것을 과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 대 삼으로 싸운다면 그건 또 주인에게 실례를 범하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제 본좌에게 상처를 입어 미처 완쾌되지 않은 한 녀석을 불러서 연수(聯手)하겠습니다. 그 녀석은 옛날에 선사에게 세 장을 얻어맞고 입에서 선혈을 토했던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사의 위명은 깎이지 않을 겁니다."

장무기는 그 말을 듣자 내심 매우 기뻤다.

'천지신명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과연 내 부탁을 들어주었군.'

곧이어 주지약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 이리 나오너라!"

명교의 군호 중에 양소 등 극소수 외에는 모두 내막을 몰랐다. 자연히 주지약이 이녀석 저녀석 하며 본교 교주를 모욕하는 언사를 듣자 한결같이 격분했다. 그런데 장무기는 얼굴에 희색을 띄우며 앞으로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하면서 말했다.

"어제 송부인께서 수하류정(手下留情)하여 이 녀석의 목숨을 살려 주셔서 대단히 고마왔습니다."

그는 이미 속으로 마음을 굳혔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한 것은 아미파의 체면을 살려주고 또 혼례식날 신랑이 달아난 수치감을 보복하는 것뿐이다. 의부를 위한 일이라면 난 끝까지 참고 견딜 것이다.'

주지약이 말했다.

"넌 어제 중상을 입어서 피를 토했기 때문에 지금 난 너를 진짜 원조자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흉내만 내주기 바란다."

"네, 모든 것을 명령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절대로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지약은 연편(軟鞭)을 꺼내서 오른손으로 한 번 휘둘자, 채찍은 즉시 십여 개의 크고 작은 원이 형성되는 것이 매우 아름다웠다. 다시 왼손을 뒤집자 파란 빛이 번뜩거리면서 한자루 단도가 손에 쥐어졌다.

군웅들은 어제 이미 그녀의 연편의 위력을 보았지만 그녀가 왼손으로 단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곤 정말 뜻밖이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것이었다. 또 하나는 부드러운 것이고 하나는 강한 것이니, 이 두가지 병기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었다. 군웅들은 놀라움과 탄복을 보내며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품에서 성화령 두 개를 꺼내어 앞으로 두 발자국 걸어갔다. 갑자기 다리를 휘청하더니 일부러 또 큰 소리로 몇 번 기침을 했다. 중상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야만 나중에 만약 소림 삼승을 이기게 되더라도 모두 주지약의 공로라

며 군웅이 말할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였다. 주지약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전에 당신의 사촌누이의 복수를 해준다고 맹세한 바 있는데, 만약 그녀를 해친 범인이 당신의 의부라면 당신은 그래도 그를 구출할 겁니까?"

순간 장무기는 놀라며 말했다.

"의부께선 정신착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서 그 자신이 한 일을 모르고 있소."

도액이 말했다.

"장교주께서 오늘 또 오셨군요."

"세 분 대사님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별 말씀을..... 이분 아미파의 장문께서 어제 무예로 천하의 군웅을 제압했다는데 그녀의 무공이 장교주의 위에 있단 말입니까?"

"틀림 없습니다. 후배는 어제 주장문인의 손에 중상을 입어 피를 토했습니다."

도난이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그러자 세 노승은 긴 채찍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 내었다.

바로 이때였다. 산등성이에서 갑자기 거문고와 퉁소가 뒤섞인 소리가 몇 번 살며시 들렸다. 장무기는 내심 기뻐했다. 이윽고 요금(瑤琴) 소리가 연거푸 세 번 울리더니 백의 소녀 네 명이 옷자락을 펄럭이며 산봉우리로 올라왔다. 손에는 각각 단금(短琴) 하나씩을 안고 있었다. 곧이어 퉁소소리가 울리더니 흑의 소녀 네 명이 손에 장소(長簫)를 들고 산봉우리로 올라왔다. 흑백 소녀 여덟 명은 각각 팔개 방위(方位)를 차지하고 거문고와 퉁소를 함께 연주했다. 매우 운치가 있었다. 그러자 담황경사(淡黃經紗)를 몸에 걸친 한 미녀가 음악소리를 들으며 느린 걸음으로 산봉

우리로 올라왔다. 바로 전에 장무기가 노룡의 개방에서 만났던 여인이었다.

개방의 여동방주 사홍석이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녀의 품에 덥석 안기며 소리쳤다.

"양언니, 양언니! 우리의 장로와 용두는 모두 남의 손에 죽었어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주지약을 가리켰다.

"바로 그녀의 아미파와 소림파가 가한 독수예요."

그 황삼 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흥! 구음백골조(九陰白骨爪)가 천하 최강의 무공이라 장담할 수 없다!"

이때 군웅의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 두 마디는 더욱 똑똑히 모두의 귀에 전달되었다.

'아미파의 그 조법(爪法)이 바로 백 년 전 강호에서 이름을 날렸던 음독 무공 <구음백골조>란 말인가?'

그들은 구음백골조란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무공은 너무나 음독하기에 이미 오래 전부터 실전(失傳)되어서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황삼 미녀는 사홍석의 손을 잡으며 개방이 몰려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바위 위에 앉았다. 주지약은 안색이 약간 변하면서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는 누구죠?"

"난 그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소. 그러나 그녀의 이름과 내력은 모르오. 단지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오."

그러자 주지약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싸우겠어요."

그리고는 긴 채찍을 앞으로 뻗어서 도난의 채찍으로 감아갔다. 이윽고 몸도 덩달아 솟구쳐서 세 그루 늙은 소나무 사이로 내려

앉았다.

그녀는 제 일초부터 곧장 적의 중앙을 공격했다. 그 초수의 매서움과 신속함, 그리고 담식(膽識)이 강함은 설령 일류급 강호의 노수(老手)들도 미치지 못했다. 군웅의 눈에는 그녀가 허공에서 마치 한 마리 청학처럼 위로 높이 솟았다가 아래로 덮쳐가며 공격했다. 신법은 만묘(曼妙)하여 비할 바가 없었다. 그녀의 오른손의 연편(軟鞭)과 도난의 장편(長鞭)을 서로 얽어 놓고 도난이 병기를 잠시 사용할 수 없게 말들었다. 그러자 도액과 도겁은 쌍편을 일제히 휘둘러서 각각 좌우를 공격했다.

장무기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면서 발을 한 번 헛딛더니 갑자기 한 번 데굴데굴 굴러서 다가갔다. 그러자 군웅들 사이에 으잉!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 그가 중상을 입은 후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장무기의 이 일초는 바로 성화령 위에 기재되어 있는 옛 파사국의 무공이었다. 신법의 괴이함은 실로 극에 달했다. 그는 마치 앞으로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양손의 성화령은 이미 도난의 흉구로 후려쳐 갔다. 그 때 도난의 채찍은 마침 주지약의 채찍과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을 돌려서 막을 수가 없었다. 도액과 도겁은 도난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자 즉시 주지약을 버려두고 두 채찍을 장무기에게 공격해 갔다. 두 개의 긴 채찍의 예민한 움직임과 강맹한 위력은 실로 한 쌍의 오룡(烏龍) 같았다.

장무기는 열세에 놓여지자 느닷없이 땅에서 한 번 구르더니 몹시 낭패한 꼴로 도액의 곁으로 굴러갔다. 그러자 도액은 왼손으로 그의 어깨를 찍어내렸다. 장무기는 좌장을 건곤이위신공의 힘으로 막으며 몸을 한 번 흔들어 내니 어깨는 이미 도겁에게 박으러 가는 꼴이 되었다.

그는 오늘 주지약의 명성을 떨쳐 주겠다는 일념으로 임전하였기

에 소림 세 고승을 격패한 수훈은 모두 아미의 장문에게 돌리고, 자기는 오직 사손만을 구출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무공도 전부 옛 파사국의 무공이라, 동쪽으로 한 번 굴렀다가 서쪽으로 한 번 넘어지는 게 실로 너무나 보기 흉했다.

물론 방관하는 군웅들 중에는 탁월한 인물을 식별하는 안목은 있었지만, 이 옛 파사국 무공이 너무나 괴상하고 또 아무도 중토에서 사용했던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어제 장무기가 중상을 입은 것을 모두들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 진의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명교의 적들은 모두 속으로 즐거워했고 명교의 친구들은 모두 걱정하면서 혹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수십 초를 서로 주고받자 주지약의 신형(身形)은 갑자기 위 아래로 날아다니며 더욱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점점 더 막아내지 못하는 듯 수족이 망난하였다. 마치 무공을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더 어설펐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형세에 놓여 있어도 항상 그는 상대방의 무서운 살수를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 방관하는 영웅들 중에 심지(心智)가 남달리 예민한 사람은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무공은 어찌 보면 취팔선(醉八仙) 같은 종류의 무공이라 보기엔 뒤죽박죽하며 아주 무질서하지만 사실은 기묘한 변화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로(正路)의 무공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들 나름대로 하기도 했다.

만약에 이 옛 파사국 무공으로 세 고승 중의 아무나 한 사람만 상대했더라면 상대방은 필시 장무기가 풍운삼사를 처음 만났던 그 때처럼 허둥지둥하며 몹시 낭패한 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림의 세 분 고승은 수십 년 동안 고선(苦禪)하였기에 심의(心意)가 상통해서 어느 한 승의 초수에 빈틈이 보이게 되면 나머지 이승은 즉시 그 빈틈을 메꿔 주었다.

그러니 장무기가 어떠한 괴이한 심법을 구사해도 삼승의 솜털 한 가닥도 상하게 할 수 없었다. 막상 백초에 가까와지자 그는 삼승 채찍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고 자기의 심법은 도리어 천천히 둔해지면서 이미 처음 결투할 때의 예민함은 찾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기가 사용한 무공이 이미 마도(魔道)에 돌입했고 그 삼승의 금강마권이 바로 불력복마(佛力伏魔)하는 정묘대법(精妙大法)인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싸울수록 힘이 솟구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의 심령에는 마두(魔頭)가 점점 자라고 있어서 앞으로 백 초만 더 싸우게 되면 그는 삼승의 불문상승 무공에 극제(克制)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쳐 날뛰게 될 것이다. 세 고승이 출수하지 않아도 그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이다.

명교가 세인들에게 마교라 불리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 옛 파사국 무공의 창시자인 산중노인(山中老人)이 바로 사람을 죽여도 눈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대악마였다.

장무기가 처음에 그 무공을 연마할 때는 별로 느낀 게 없었지만 막상 경적(勁敵)을 만나서 그 무공의 정묘한 곳을 모두 발휘하게 되자 무엇인가가 심령에 차츰 와 닿으면서 느닷없이 하하하! 하며 앙천대소했다. 웃음소리에는 사악간사(邪惡奸詐)의 뜻이 충만되어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끝나자 갑자기 세 그루 소나무 사이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불경을 낭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의부 사손의 소리였다. 그는 창로(蒼老)한 음성으로 금강경을 천천히 낭송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싸우면서 듣고 있었다. 그러나 사손이 불경을 낭송하자 소림 삼승의 긴 채찍의 위력도 즉시 감소되었다.

사손은 이 몇 개월 동안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밤낮으로 삼승이 낭송하는 금강경을 들어 왔기에 경의(經義)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다. 이때 갑자기 장무기의 궤괴(詭怪)한 웃음소리를 듣게 되자 마치 심마대성(心魔大盛)하여 차츰 위험한 경지에 돌입하는 것 같아서 즉시 금강경을 낭송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 속의 마두를 파탈(擺脫)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장무기는 사손이 낭송하는 불경을 들으면서도 출수하는 초수는 전혀 멈추지 않았다. 마음 속으로 경문에 내장된 뜻을 깨닫게 되자 심마가 즉시 사라졌다. 그러자 이 옛 파사국 무공을 순식간에 연관시킬 수 없게 되었다. 순간 휙! 하며 소리가 나더니 도겹의 자편이 그의 왼쪽 어깨를 후려쳐 왔다.

장무기는 재빨리 어깨를 피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하며 구양신공을 배합하여 순식간에 공격해 온 경력을 물리쳤다. 그는 곁눈으로 주지약을 쳐다보니 그녀도 이미 패한 기색이 나타나 있었다.

'오늘의 기세로는 두 가지 일을 성사하기 어렵구나. 내가 만약에 전력으로 싸우지 않아서 일단 지약이 패하게 되면 의부를 구출하는 일은 전혀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윽고 대갈일성하며 성화령 두 매를 휘둘러서 맹렬히 공격했다.

사손의 독경소리는 이때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무기는 신경을 곤두세워서 건곤이위심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가 읽고 있는 경문은 이미 들은 체하지도 않았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삼승의 장편이 자기에게 공격하도록 유인하면서 주지약이 권내(圈內)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격을 퍼부었다.

그가 전력으로 공격을 가하자 삼승은 즉시 채찍에서 전해오는 압력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는 수 없이 그들도 각자 내력을 운용하여 상대방에게 대항했다. 장무기가 무공의 초수를 고쳐버리자 세 그루 소나무 사이의 쟁투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삼승의 머리 위에는 차츰 한 덩어리의 연한 수기(水氣)가 나타났다. 이건 이마와 정문(頂門)의 땀이 내력에 핍박되어 증기(蒸氣)로 변한 것이다. 그러니 다섯 사람은 이미 각자의 내력으로 서로 싸우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장무기의 머리위에도 수기가 나타났지만 그의 것은 반듯하게 일직선이 되었고 가늘면서도 길게 모아져서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그의 내력은 삼승보다 더욱 심후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어제 군호들은 그가 중상을 입은 것을 모두 보았는데 그는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회복될 줄이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의 심후한 내력은 실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주지약은 삼승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권외(圈外)에서 유투(遊鬪)하다가 금강복마권에 빈틈이 엿보이면 바로 몸을 날려서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나 막상 채찍의 저지를 받으면 즉시 놀란 기러기처럼 재빨리 몸을 피했다.

이렇게 되자 장무기와 그녀의 무공 차이는 순식간에 판명되었다. 그러자 방관하는 군웅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요 몇 년 동안 무림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명교 장교주의 무공이 당금독보(當今獨步)하다더니, 과연 뜬소문이 아니구나. 어제 그는 일부러 져 송부인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걸 호남불여여투(好男不與女鬪)라 하지."

"그게 아니라 송부인은 본래 장교주의 처자였네. 당신은 그것도 모르나? 그걸 고척정심(故尺情深)이라 하지."

"떽! 고검정심(故劍情深)이란 말은 있어도 고척정심이란 말은 없다네."

"당신은 장교주가 사용하는 두 자루의 철척(鐵尺)이 안 보이나?"

"나중에 송부인도 장교주에게 독수를 가하여 죽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수정심(故手情深)이 아니면 무엇이냐?"

소림 삼승과 장무기의 초수가 점점 느려지면서 변화도 차츰 정묘해졌다. 이때 장무기와 소림 삼승은 각자 최대한의 실력으로 싸우고 있는 터라 전혀 잔재주를 부릴 수 없었다. 주지약의 내공은 유연주, 은이정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녀가 간간이 앞으로 다가가서 공격해 보았지만, 네 사람의 내경에 부딪치자마자 즉시 튕겨서 되돌아왔다. 그러니 그녀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시 반 시간 정도 지나자 장무기 체내의 구양신공이 급속히 유동되면서 성화령이 칙칙....! 하며 소리를 발출하였다. 소림 삼승의 안색은 본래 각각 달랐지만 이때는 모두 피빛처럼 빨갛게 되면서 승포(僧袍)도 덩달아 부풀어졌다. 마치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무기의 옷은 전혀 아무 이상도 없었다.

만약 그가 일 대 일 혹은 일 대 이로 싸웠으면 이미 벌써 이겼을 것이다. 그가 연마한 구양진기는 본시 혼후(渾厚)하였으며 또 장삼봉에게 태극권 중의 연기법(練氣法)을 배웠으니 싸울수록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다. 게다가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두 시간 싸워서 적이 기진맥진하길 기다릴 수 있을 정도였다.

소림 삼승은 지금까지 겨뤄 본 것으로 미루어 오래 접전을 벌이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러자 갑자기 일제히 소리를 외치며 세 채찍을 급속히 휘둘러 대면서 장무기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장무기는 적의 공격을 주시하면서 일일이 막아냈지만 내심 혼자 초조해 하고 있었다.

'비록 지약의 무공이 괴이하지만 아무래도 배운 지 오래되지 않아서 위력이 강하지 않구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버티기 힘드니 오늘도 역시 패하게 되는구나. 이번에도 의부를 구출하지 못하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마음이 조급해지자 즉시 내력이 감소되었다. 그러자 삼승은 그 틈을 타서 진격했다. 순간 그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장무기의 뇌리에는 옛날 빙화도에서 사손이 자기에게 대해준 애정이 전광석화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사손이 장님이 된 후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강호에 돌아온 것은 모두 자기 때문이니, 만약 오늘 그를 구하지 못하면 자기도 혼자는 정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윽고 도난의 장편이 몸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생사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왼손을 재빨리 들어올려서 그 채찍에 팔이 적중되도록 했다. 단지 건곤이위심법으로 편력(鞭力)을 감소시켰다. 오른손은 성화령으로 도액과 도겁의 양편(兩鞭)이 공격하는 것을 막았고, 몸은 갑자기 큰 새처럼 왼쪽으로 덮쳐가더니 공중에서 한 번 회전하자 도난의 그 긴 채찍을 그가 앉아 있던 소나무에 한 바퀴 감아 버렸다.

이 일초는 실로 눈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장무기는 왼팔에 힘을 가하여 뒤로 급히 끌어당겨서 긴 채찍을 소나무 줄기에 깊숙히 끼워서 박아 버렸다. 도난은 깜짝 놀라면서 얼른 뒤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장무기는 재빨리 초수를 변형해서 그가 채찍을 뽑아가지 못하게 했다.

소나무의 줄기는 매우 굵었다. 그러나 뿌리 부분에 이미 반 이상은 삼승이 파내서 비바람을 피하는 피신처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때 말할 수 없이 견인한 긴 채찍에 장무기와 도난의 두 줄기 내경이 동시에 작용하자 우지직! 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리더니 소나무의 파헤친 곳이 절단되면서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쓰러져 내렸다.

장무기는 도액, 도겁 이승이 경악하여 어쩔 줄 모르는 틈을 포

착하여 대갈일성하면서 쌍장을 도액이 몸 담고 있던 소나무로 후려쳤다. 이 쌍 의 장력은 그가 필생의 공력을 모은 것이므로 그 소나무는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즉시 절단되어 버렸다. 절단된 두 그루의 소나무는 일제히 도겁이 몸담고 있었던 소나무로 쓰러져 갔다.

 쌍송(雙松)이 넘어질 때 이미 수천 근에 달하는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무기는 몸을 날려서 양팔로 세 번째 소나무를 힘껏 한 번 후려쳤다. 그러자 그 소나무도 바로 절단되어 공중에서 몇 번 흔들거리더니 천천히 쓰러지고 말았다.

 그 때 소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와 군웅이 놀라서 지르는 소리가 뒤섞여서 몹시 소란스러웠다. 장무기는 손에 쥐고 있던 성화령 두 매를 힘껏 도액과 도겁에게 던졌다. 그러자 양승(兩僧)은 공중에서 쓰러져 내리는 소나무도 피해야 하고 또 날아오는 성화령도 막아야 하니 순시간에 수족이 망난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무기는 몸을 살짝 낮추더니 미처 땅에 닿지 않은 나무 줄기의 옆으로 빠져나가서 금강복마권의 중심으로 돌입했다. 이윽고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하여 쌍장을 일추일전(一推一轉)하더니 즉시 지하 감옥을 덮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면서 소리쳤다.

 "의부님, 빨리 나오세요!"

 그는 사손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봐 사손의 대답도 듣지 않고 손을 밑으로 뻗어서 그의 후심(後心)을 움켜잡고 위로 들어올렸다.

 바로 이때였다. 도액과 도겁의 쌍편이 일제히 공격해 왔다. 그러자 장무기는 하는 수 없이 사손을 내려놓고 품에서 성화령 두 매를 꺼내어 이승(二僧)에게 던지며 양손은 번개처럼 두 채찍의 편초(鞭梢)를 휘어잡았다.

 도액과 도겁은 각각 내력은 운용하여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성화령이 이미 면문(面門)으로 날아왔다. 그러자 양승은 하는 수

없이 채찍을 버리고 급히 뒤로 몸을 튕겨서 성화령을 피했다. 그때 도난은 이미 좌장을 가슴으로 후려쳐 왔다. 그러자 장무기가 소리쳤다.

"지약, 빨리 그를 맡으시오!"

그러면서 몸을 재빨리 비스듬히 날리며 사손을 안아들었다. 장무기의 생각은 사손을 세 그루 소나무 사이에서 구출하기만 하면 소림파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주지약이 흥! 하며 코웃음을 치며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도난의 장풍이 바로 연이어 공격해 왔다. 그러자 장무기는 몸을 한 번 돌려서 배심(背心)의 급소를 피하고 그 일장이 어깨에 적중되게 하였다.

그는 사손을 안아들고 부러진 세 그루 소나무 사이에서 나오려 했다. 그러자 사손이 말했다.

"무기야, 난 평생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 이곳에서 불경을 들으며 참회하는 것도 퍽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데 넌 뭣 때문에 날 구출하려 하느냐?"

말을 하면서 땅으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장무기는 의부의 무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만약에 밖으로 나가기를 결사 반대하면 그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의부님,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이윽고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그의 대퇴부와 흉복간의 혈도를 몇 군데 재빨리 찍어서 잠시 그가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이처럼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소림 삼승은 수장을 동시에 후려치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사손은 남겨 놓으시지!"

장력은 사면팔방으로 장무기를 덮어서 감싸 버렸다. 수장이 와 닿기도 전에 장풍은 이미 다가와서 억누르고 있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사손을 다시 내려놓고 출장하여 막으며 소리쳤다.

"지약, 어서 의부님을 안고 밖으로 나가시오!"

그는 쌍장에 장력을 끌어모아서 원을 그리며 휘둘렀다. 삼승 중 어느 누구도 주지약에게 다가가서 저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건곤이위심법 중에서 제일 깊은 무공중의 하나다. 장력의 움직임이 일정치 않아서 허허실실하며 삼승의 장력은 동시에 찰싹 달라붙고 말았다.

주지약은 권(圈) 안으로 들어가서 사손의 곁으로 갔다. 그러자 사손이 호통쳤다.

"천한 인간이.....!"

그러자 주지약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아혈(啞穴)을 찍으며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다.

"사가야. 난 좋은 뜻으로 널 구하러 왔는데 뭣 때문에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냐? 네가 지은 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많으며, 게다가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는 판국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이윽고 오른손을 들어올리더니 다섯 손가락을 반듯이 세워서 사손의 천령개를 찍어내리려고 했다. 그러자 장무기가 급히 소리쳤다.

"지약, 아니 되오!"

이때 그와 삼승은 각자 평생의 공력으로 서로 대항하고 있었다. 물론 삼승은 그를 죽여 버릴 뜻은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생사가 순식간에 결정되는 시점에선 적이 죽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죽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장무기는 입을 열어 버리자 진기가 점점 새어나갔다. 그러자 삼승의 장력은 마치 배산도해(排山倒海)하듯 밀어닥쳤다. 하는 수 없이 다시 힘을 끌어서 저항했다. 쌍방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놓여진 것이다. 일단 <점>자결을 운용하게 되면 승패를 가리지 않고서는 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주지약은 수조(手爪)를 공중으로 들어올렸지만 밑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니 곁눈으로 장무기를 차갑게 흘겨보면서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무기, 그날 호주성에서 넌 혼례식을 하는 도중에 날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어찌 오늘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러자 장무기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설령 그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삼승을 대항해도 결국은 패하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처럼 심신이 혼란해지자 더욱 그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되었다. 이윽고 그는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니 삽시간에 앞가슴과 뒷잔등의 옷이 모두 흠뻑 젖어 버렸다.

양소, 범요, 위일소, 설불득, 유연주, 은이정 등은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모두 대경실색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장무기를 구할 수 있다면 설령 자기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공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설령 자기들이 다가가서 소림 삼승에게 습격을 하더라도 삼승은 가볍게 외력(外力)을 장무기의 몸으로 옮겨서 그로 하여금 더욱 중력을 부담하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공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세 분 사숙님, 장교주는 여러 차례에 본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부디 수하류정(手下留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네 사람은 이미 난해난분(難解難分)한 처지에 돌입되었다. 비록 쌍방이 모두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미 기호난하(騎虎難下)의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위일소가 몸을 한 번 흔들자 마치 한 줄기 가벼운 연기처럼 잘라진 소나무의 사이로 번개처럼 들어가면서 주지약에게 덮치려

했다. 그러나 주지약의 오른손이 자세를 취하여 공중에 쳐들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가 만약에 덮쳐가면 그녀의 수조세(手爪勢)는 즉시 사손의 머리 위를 찍어내릴 것 같았다. 사손이 만약에 죽어 버리면 장무기는 크게 슬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즉시 삼승의 장력에 죽게 될 것이다.

위일소와 주지약이 떨어진 거리는 불과 일 장 정도였지만 감히 다가가서 출수하지 못하고 멍청히 서 있기만 했다. 잠시 동안 산봉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도 돌부처처럼 굳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또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주전이 하하.....! 하며 웃음을 터뜨리면서 앞으로 다가갔다. 양소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주형, 경거망동해선 안 됩니다."

주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림 삼승의 앞으로 다가갔다."

"대화상 세 분은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윽고 품에서 삶은 개다리를 한 짝 꺼내더니 도액의 면전에다 흔들어 보였다. 그러나 삼승은 못 본 척하면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전은 개다리를 한 입 뜯어 먹으며 말했다.

"정말 향기롭고 맛있구나. 대화상 세 분도 한 입씩 잡수시지!"

그는 삼승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을 보자 개다리를 도액의 입가로 갖다 대며 그의 입 안으로 쑤셔넣으려 했다. 그러자 방관하던 소림승이 호통쳤다.

"저런 미친 놈 같으니, 빨리 물러서라!"

주전이 개다리를 앞으로 내밀자 마침 도액의 입술에 부딪쳤다. 갑자기 팔목이 한 번 울리면서 상반신이 쑤시고 마비되었다. 순간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개다리는 땅으로 떨어졌다. 이때 도액의 온몸은 내력으로 휘감겨 있어서 이미 승충불능락(蠅蟲不能落)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지백해(四肢白該)에 외력을 받게 되자 즉시 튕겨서 되돌려 나온 것이다. 그러자 주전이 소리쳤다.

"아이구, 정말 대단하구나! 개고기를 안 먹으면 그만이지 구태여 내 개다리를 땅바닥에 튕겨서 나까지 못 먹게 할 건 없지 않느냐? 어서 배상해라! 어서 배상해라!"

그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외쳐 댔다. 그러나 뜻밖에도 삼승의 수양이 너무나 깊어서 전혀 외마의 간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주전은 품에서 단도 한 자루를 꺼내며 소리쳤다.

"내 개다리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노자(老子)는 오늘 너하고 사생결단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단도로 자기 얼굴에다 한 번 그어대자 즉시 피가 흥건했다. 군웅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주전은 다시 단도로 자기의 얼굴에다 한 번 그었다. 순간 그의 얼굴은 피가 범벅되면서 몹시 무섭게 변했다. 이러한 광경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놀라서 마음이 동요되기 마련인데, 소림 삼승은 마치 눈, 귀, 코, 혀 등 모든 기능이 상실한 것 같았다. 그러니 주전이 자해하는 광경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가 자기들 곁에 나타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전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중놈아, 내 개다리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난 너의 면전에서 죽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단도를 들어올리더니 자기의 가슴으로 찔러갔다. 그는 교주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보게 되자 자살을 하여 삼승의 심신을 교란시켜 보겠다는 결의였다.

순간 느닷없이 노란 그림자가 번뜩거리더니 한 사람이 몸을 날려서 다가갔다. 협수(夾手)로 그의 단도를 뺏고 나서 바로 몸을 비스듬히 하면서 앞으로 다가가더니 다섯 손가락을 반듯이 뻗어 주지약의 머리 위에서부터 찍어내렸다. 사용한 수법은 송청서가 개방의 장로를 죽일 때와 똑같았다.

주지약의 다섯 손가락은 사손의 정문(頂門)에 불과 한 치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상대방의 심법이 실로 너무나 빨라서 하는 수 없이 손을 위로 되돌려서 이 일초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장무기는 내심 기쁨이 넘치자 내경도 바로 살아나서 삼승이 공격해 온 경력을 하나 하나 와해시켰다.
 도난은 비록 외계의 사물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상대방의 내력이 크게 살아났어도 공격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쌍방의 위난을 제거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다. 삼승의 심의가 상통되자 즉시 내경을 살짝 거두었다. 그러자 장무기도 따라서 경력을 조금 거두어 들였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거둬들이자 잠깐 사이에 쌍방의 경력을 모두 거둬들이게 되었다. 네 사람은 동시에 하하.....! 웃으며 일제히 일어섰다.
 장무기는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읍을 했다. 그러자 도액, 도겁, 도난 삼승은 합장하며 답례했다. 네 사람은 일제히 말을 했다.
 "정말 탄복했소! 정말 탄복했소!"
 장무기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 황삼 여자와 주지약은 한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황삼 여자는 빈 손이고 주지약은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왼손엔 단도를 들었지만 여전히 열세에 몰려 있었다. 황삼 여인의 무공은 마치 주지약과 일로(一路)에 속해 있는 듯 했다. 만약 주지약을 귀매(鬼魅)로 비유한다면 그 황삼 여인은 바로 신선이었다.
 도액이 말했다.
 "장교주님, 당신이 비록 우리 셋을 이길 수 없었지만 우리 셋도 당신을 이길 수 없었소. 사거사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가더니 사손의 혈도를 풀어 주며 말했다.
 "사거사님, 방하도도 입지성불(放下度刀 立地成佛)하시오. 우리 불문의 문호는 광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넘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 산봉우리에서 여러 날을 같이 지낸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인연입니다."

그러자 사손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아불자비(我佛慈悲), 세 대사님께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손은 평생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이윽고 그 황삼 여인의 맑은 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왼손으로 주지약의 수중에 있는 장편(長鞭)을 빼앗으면서 팔꿈치로 그녀의 흉구 혈도를 찍었다. 그러한 뒤 오른손을 키처럼 뻗어서 다섯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도 구음백골조(九陰白骨爪)의 맛을 보겠느냐?"

주지약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눈을 감아 죽음을 기다렸다.

사손의 두 눈은 비록 사물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가서 포권의 예로 인사하며 말했다.

"낭자께서 우리 부자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주낭자가 회개하지 않고 불의(不義)를 많이 행한다면 언젠가는 보복을 받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낭자께선 오늘은 잠시 그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모사왕께선 너무나도 빨리 회개하셨군요."

그러면서 몸을 한 번 흔들더니 바로 뒤로 물러섰다.

제 3 장 불문(佛門)에 귀의(歸依)한 마성(魔性)

장무기가 사손의 손을 잡고 막 떠나려는데 사손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는 많은 소림 승려 중에 한 노승을 가리키며 싸늘하게 외쳤다.

"성곤, 일어나라! 천하 영웅들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우여곡절을 분명하게 밝혀라!"

군호들은 깜짝 놀랐다. 그가 가리킨 노승은 등이 굽고 꾀죄죄하게 생겨 성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장무기는 그가 성곤이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사손이 다시 소리쳤다.

"성곤, 넌 용모를 바꿀 수 있을 망정 음성마저 바꾸진 못했다. 너의 기침소리를 듣고 난 대번에 네가 누군지 알아냈다.

그 노승은 징그럽게 웃었다.

"지금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냐? 네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입을 열자 장무기는 즉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 그날 광명정에서 그는 건곤일기대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곤의 얼굴을 대하기 앞서 그의 음성부터 들었기 때문에 유난히 그 음성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다. 지금 성곤이 비록 일부러 음성마저 변성시켰지만 외모와는 달리 역시 빈틈이 남아 있었다.

장무기는 대뜸 앞으로 뛰쳐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원진대사, 아니 성곤 선배님, 대장부라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이젠 자신의 진면목을 밝히시오!"

성곤은 변장을 하여 사람 틈바구니에 섞여 있었으므로 좀처럼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황삼 여인이 주지약을 제압하는 순간 너무나 뜻밖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게 된 것이다.

사손은 실명한 후 청각이 유난히 예민해졌다. 게다가 성곤에 대한 원한이 뼈속 깊이 사무쳐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다. 사손에게 있어 성곤의 기침소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으며 즉시 그를 알아낼 수 있었다.

성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곧 싸늘하게 외쳤다.

"소림의 승려들은 들어라! 마교가 불문성지를 어지럽히고 본파를 멸시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모두들 그들과 대항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 버려라!"

공지는 사형 공문이 본사의 반도들에게 위협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오랫 동안 분노를 억제해 왔다. 지금 원진이 명교와 정면 대결을 벌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듣자 안색이 크게 변했다. 만약 혼전이 벌어진다면 본사의 승려들은 엄청난 손상을 입을 게 뻔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그도 즉시 목청을 높여 외쳤다.

"공문방장께선 이미 저 반도인 원진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 모든 제자들은 우선 저 반도를 제압하고 다시 장문인을 구하도록 해라!"

삽시간에 주위에 큰 혼란이 일었다. 장무기는 주지약이 땅에 쓰러진 채 실의에 잠겨 있는 것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어 곧 앞으로 다가가 혈도를 풀어주고 부축해 일으켰다. 주지약은 그의 손을 뿌리치더니 아무 소리없이 아미파 제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때 사손의 낭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 일은 나하고 성곤 두 사람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니만치, 모든 은원을 우리 두 사람이 해결할 것이오. 사부, 당신은 나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었소. 그러나 성곤, 너는 나의 혈육을 죽였다. 당신은 은혜와 나의 원한을 이번 기회에 깨끗이 청산하겠다!"

성곤은 공지가 뜻밖의 명령을 내린 것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소림 승려들 중에는 비록 자기에게 포섭된 자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 공지의 명령에 따르는 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었다. 일단 정면 충돌이 벌어지면 자기가 이끄는 세력이 불리할 게 뻔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성곤은 소림 장문인의 자리를 넘보는 야욕마저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사손은 잔악무도한 놈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만약 놈을 제압한다면 모든 죄목을 그에게 뒤지어 씌울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서 무공을 배웠고 또한 앞을 볼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저울질해 본 연후에 결정을 내렸다.

"사손,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강호의 영웅 철검들이 네 손에 희생을 당했는지 아느냐? 넌 그 엄청난 죄과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늘 명교의 마두들을 앞세워 소림의 불문성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천하의 영웅과 적대시하려 들다니! 내 일찌기 너에게 무공을 전수해 준 것이 후회막급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무림의 협의도를 위해 기사멸조(欺師滅祖)의 역도인 네놈을 처단하고 말리라!"

그는 의연하게 말하며 성큼성큼 사손에게 다가갔다.

사손은 소리 높여 외쳤다.

"천하의 영웅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나 사손의 무공은 이 성곤 사부로부터 전수받은 게 틀림없소. 다시말해 그가 나의 사부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나의 아내를 겁탈하고 나의 부모와 자식을 살해한 흉수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성곤이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오. 물론 스승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무림인의 본분이지만 멸족을 당한 원한을 갚아야 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소? 스승이 존귀한들 어찌 나를 낳아준 부모만 하겠소? 여러분, 내가 그에게 복수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소이까?"

사방에서 군호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히 복수를 해야 하오!"

"성곤을 죽여라!"

성곤은 아무 말 없이 사손의 가슴을 향해 일장을 뻗어냈다. 사손의 입을 봉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사손은 살짝 몸을 옆으로 틀며 급소를 피했으나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성곤의 일장이 어깨쭉지에 적중되었다. 사손은 흥! 하고

냉소를 날릴 뿐 반격을 하지 않았다.

"성곤, 왕년에 네가 나한테 장홍경천(長紅經天)의 초식을 전개해 주었을 때 그 초식이 상대의 몸에 적중되는 순간 즉시 혼원일기공(混元一氣功)을 끌어올려야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혼원일기공을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나이가 늙어 이제 공력을 끌어올릴 힘조차 잃었단 말이냐?"

알고보니, 성곤이 전개한 첫 번째 초식은 허초(虛招)였다. 그는 상대방이 피하지 않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단지 사손의 입을 막기 위해 일초를 전개했기 때문에 공력을 주입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사손도 전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성곤은 이번엔 왼손으로 원을 그리며 오른손을 쭉 밀어냈다. 사손은 옆으로 미끄러져 피하며 여전히 반격을 하지 않았다.

성곤은 즉시 세 번째 공격을 연결시켰다. 세 번째 공격은 연환퇴(連環腿)로서 사손의 옆구리를 노린 것이다. 이번에도 사손은 그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성곤의 발이 정확히 옆구리를 강타했다. 제아무리 철탑처럼 건장한 몸을 지니고 있는 사손이라 할지라도 옆구리를 걷어채이자 즉시 허리가 꺾이며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냈다.

그것을 본 장무기가 다급히 외쳤다.

"의부님! 어서 반격하세요. 왜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손은 비틀거리며간신히 몸을 고정시키고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한때 나의 사부였다. 내가 그에게 삼 초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을 내뱉기 무섭게 포효하듯 기합을 길게 토하며 성곤에게 질풍같이 쌍장을 떨쳐냈다.

성곤은 내심 아뿔싸를 토했다.

'빌어먹을 놈이 나에게 깊은 원한을 갖고 있어 싸움이 시작되자

마자 미친 개처럼 덤벼들 줄 알았는데..... 진작 녀석이 삼초를 양보할 줄 알았다면 일찌감치 살수를 전개하는 건데.....'

그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게 후회스러웠다. 그는 사손의 장력이 매우 위력적인 것을 보자 왼손으로 막으며 반원을 그려 재빨리 사손의 등 뒤로 돌아갔다. 사손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약점잡아 소리없이 그의 등 뒤를 향해 일장을 밀어냈다. 그러나 사손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뒤쪽을 향해 발로 걷어차냈다.

성곤은 살짝 위로 몸을 솟구쳐 허공에서 거대한 독수리처럼 덮쳐내렸다. 그의 나이는 고희를 넘겼지만 젊은이 못지 않게 몸놀림이 민첩했다. 사손이 청각으로 그의 위치를 간파해 쌍장을 위로 뻗쳐내자 성곤은 재차 허공으로 튕겨져 정묘하게 회전하며 두번째 공중 공격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쾌속한 타법을 구사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칠, 팔십 초식을 교환했다.

사손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성곤으로부터 무공을 전수받았으므로 그의 모든 무공 초식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는 눈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일장을 전개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잇따라 어떤 변화를 구사할 것인지 십중팔구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손은 성곤보다 십여 세 어리며 빙화도에서 혹한과 무더위를 견뎌가며 부단히 내공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진력(眞力)면에선 오히려 한 수 위였다.

장무기는 한쪽에선 긴장된 표정으로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는 사손이 성곤에게 얼마나 깊은 원한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손이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 따위는 도외시한 양패구상의 타법을 구사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손은 일초일식을 매우 신중하게 전개할 뿐 아니라 공격못지 않게 수비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장무기는 그의 예상 밖의 행동에 처음에는 의아해 했으나 곧 그 까닭을 깨닫게 되었다. 성곤의 무공은 상상 외로 고강하여 도액,

도난 등 소림 삼승과 견줄 만했다. 그러니 만약 사손이 처음부터 혈기를 앞세워 무리한 공력을 전개한다면 필경 삼백 초식을 넘기지 못한 채 스스로 지쳐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수는 커녕 오히려 개죽음을 당하게 될 판이니, 이 점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신중한 공격을 전개하는 게 분명하리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슬아슬한 장면이 속출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또 이십여 초식을 겨루었다.

"앗!"

순간 사손의 입에서 싸늘한 기합이 토해지며 일권을 뻗어냈다.

획!

거기에 따라 예리한 파공음이 일며 그 경풍이 회오리가 되어 사방으로 비껴나갔다. 싸움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던 군호들 중에 공동파의 관능(關能)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졌다.

"칠상장(七傷掌)!"

사손은 좌우 쌍권을 연속적으로 격출해 냈다. 그 위력은 실로 광풍노도와도 같았다.

공동파의 고수들은 이 광경에 모두 아연실색을 금치 못했다. 칠상장은 공동파의 진산지학(鎭山之學)이지만 사손의 손을 빌려 전개되는 위력이 자기네들보다 더 위맹하다는 걸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곤은 삼권을 피하더니 네 번째 주먹이 뻗쳐오는 찰나 오른손을 수평으로 밀어냈다.

팍!

권과 장이 맞닥뜨려지자 사손은 머리카락이 고슴도치처럼 곤두서며 제자리에 뿌리가 박힌 듯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반면, 성곤은 비칠거리며 세 걸음 뒤로 밀려났다. 관전을 하고 있는 군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사손에게 갈채를 보냈다.

이제 사손과 성곤이 원한을 맺게 된 원인이 적나라하게 밝혀졌

다. 군호들은 사손의 수단이 너무 악랄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의 처절한 입장에 대해 동정심이가기도 했다. 아울러 성곤의 간교함에 모두 치를 떨었다. 하여 사손에 의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군호들이 성곤보다 사손이 이기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사손은 즉시 앞으로 세 걸음 내딛으며 다시 쌍권을 연거푸 떨쳐냈다. 그러자 성곤은 장풍으로 맞서며 재차 뒤로 세 걸음 물러났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손이 기선을 잡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무기는 그 반대로 내심 큰일났다고 생각했다.

'맙소사, 성곤이 지금 전개하는 장법은 소림의 구양공(九陽功)이다! 이 구양공은 그가 공견신승을 스승으로 모신 후에 배운 것이므로 의부님께선 전수받지 못했다!'

사손은 칠상권을 연마할 당시 하루속히 성곤을 꺾기 위해 무리한 욕심을 부렸었다. 그래서 연마하는 도중 내상을 입어 권력(拳力)을 펼치는데 결함이 있었다. 성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뒤로 물러나며 소림의 구양공을 전개한 것이다. 사손이 일권을 떨쳐낼 때마다 성곤은 그 권력의 칠성(七成)을 구양공으로 와해시키는 동시에 나머지 삼성(三成)을 반탄시켜 냈다. 즉, 구양공의 차력타력(借力打力) 수법을 암암리에 펼친 것이다.

사손은 단숨에 십이 권을 격출했고, 성곤은 수십 보 뒤로 물러나 언뜻 보기에는 사손이 크게 우위를 차지한 것 같지만 사실 내상이 갈수록 심해졌다.

장무기는 다급해졌다. 당장 앞으로 나서서 의부님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의부님이 꿈에서까지 몽매불망 벼루어오던 복수의 기회가 아닌가! 장무기는 도저히 나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의부님은 필경

피를 토하며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했다.
이때 공지가 갑자기 냉랭하게 소리쳤다.
"원진, 나의 사형이 왕년에 너에게 구양공을 전수해 준 것은 협의를 위해 이바지하라는 뜻이었지, 너더러 간교한 살인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성곤은 냉소를 날렸다.
"나의 은사께선 칠상장에 목숨을 잃었으니 난 오늘 은사를 위해 복수를 하려는 거다!"
난데없이 여인의 음성이 터져나온 것은 바로 이때였다.
"공견신승의 구양공은 너보다 훨씬 심후한 경지를 이룩했을 텐데, 어째서 칠상장을 막아내지 못했겠느냐? 공견신승은 바로 간교한 네 손에 죽은 것이다! 너는 공견신승을 충동질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이다. 사대협은 단지 희생물에 불과했다. 앗! 저기를 좀 봐라! 네 뒤에 서 있는 자가 누군지 똑똑히 확인해 봐라! 얼굴이 온통 피로 물들어지고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너의 뒷통수를 노려보고 있는 자가 바로 공견신승이 아니냐?"
이렇게 엉뚱한 말을 내뱉은 장본인은 다름아닌 조민이었다.
성곤은 그녀의 허황된 말을 믿을 리 만무였다. 그러나 그도 양심을 지닌 인간이기에 공견신승의 죽음에 대해 다소나마 죄책감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었다. 하여 조민의 저주가 섞인 외침소리를 듣자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바로 이때 사손이 다시 일권을 전개해 왔다. 성곤은 즉시 장풍으로 맞이했고 단지 몸이 약간 휘청거렸을 뿐 뒤로 물러나진 않았다. 고수끼리 대결하는데 있어 어느 한쪽도 눈꼽만치의 방심을 해선 안 된다.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 성곤의 집중력이 약간 흩어지는 순간 가슴에 일권을 맞자

혈기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신법을 전개해 사손 주위를 맴돌며 끓어오는 혈기를 가라앉히는데 급급했다.
조민은 그가 정신 통일을 하지 못하게끔 다시 소리쳤다.
"공견신승, 그에게 바싹 따라 붙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의 뒷덜미에다 차가운 입김을 부세요. 당신은 제자로 인해 죽음을 당했으니 그도 제자의 손에 죽게 될게 분명해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因果應報)가 아니겠어요!"
성곤은 그녀의 계속되는 외침에 짜증을 느끼는 한편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의식적으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할수록 더욱 진하게 그를 억눌러왔다. 그러자 정말 차가운 입김이 뒷덜미로 뻗쳐오는 것 같았다. 사실 이곳은 절봉 위이므로 늘 차가운 바람이 일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계속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어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민은 그가 움찔하는 것을 보자 다시 소리쳤다.
"앗! 성곤, 고개를 돌려 등 뒤 좀 봐라! 고개를 도릴 용기가 없느냐? 그럼 땅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를 보아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어찌 그림자가 셋이냐?"
성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아래로 떨구어졌다. 과연 조민이 말한 대로 두 사람 그림자 사이에 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성곤이 흠칫 놀라는 순간 사손의 주먹이 다시 날아왔다. 성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역시 주먹을 뻗어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순간, 펑! 하는 굉음이 터지며 두 사람의 진력이 허공에서 충돌되어 각기 비칠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성곤은 그제서야 땅에 드리워진 제 삼의 그림자를 똑똑히 확인할수 있었다. 그것은 허리가 잘려져 나간 소나무의 그림자였다.
성곤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초조해졌다.

'저 늙은 나의 제자는 눈까지 멀었는데 내가 계속 고전을 한다면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심복들이 우선 나를 달리 평가할 것이다. 현음지신공만 살아 있다면 이까짓 녀석쯤은 쉽게 처치할 수 있을 텐데..... 그날 장무기 놈의 순양내력에 의해 파괴됐으니..... 어쨌든 이 녀석을 빨리 처치해야지만 명교의 기를 꺾어 그들과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최악의 경우 이곳을 무사히 빠져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재빨리 생각을 굴리며 서서히 위치를 옮겨 그 부러진 소나무로 접근해 갔다.

사손이 연거푸 삼권을 전개하는 사이에 그는 자연스럽게 두 걸음 물러나자 사손은 다시 두 걸음 내딛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곤이 재차 두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 부러진 소나무 뒤로 살짝 비켜섰다. 사손이 다시 두 걸음 정도 따라붙는다면 소나무에 걸려 쓰러질 판이었다.

사손이 걸음을 내딛는 순간 장무기가 소리쳤다.

"의부님! 앞을 조심하세요!"

사손은 반응이 빨라 즉시 옆으로 미끄러졌다. 일단 위기를 모면했지만 성곤은 그 틈을 타서 소리없이 일장을 밀어내 정확하게 사손의 가슴을 적중시켰다.

"윽!"

사손은 나직한 신음을 토하며 뒤로 쓰러졌다. 성곤은 그에게 숨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다짜고짜 머리를 겨냥해 밟아갔다. 사손은 반사적으로 뒹굴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가에서 계속 선혈이 흘러내렸다. 성곤은 제자리에 서서 잠시 돌처럼 굳어져 있다가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다.

사손이 그와 삼백 여 초식을 겨루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상대방의 초식을 환히 알고 있

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바람소리로 상대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성곤의 출수는 그 두 가지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는 사손의 생각에서 훨씬 벗어난 타법을 구사했을 뿐 아니라 소리없이 느릿느릿하게 손을 밀어내 난데없이 어깨를 후려쳤다.사손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고정시켰다. 이 광경을 본 군호들 중에서 즉시 야유를 터뜨리는 자가 있었다.

"비겁하다!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그러나 성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숨을 죽은 채 느릿하게 손을 밀어냈다. 사손은 청각을 곤두세웠으나 상대가 상대인만치 좀처럼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찰싹!

이번에는 뺨을 얻어맞아 입가에서 더욱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손은 영락없이 죽게 될 것이다.

장무기는 안타까왔다. 설령 자기가 나서서 성곤을 죽인다해도 의부님은 자신의 도움을 평생의 한으로 생각할 것이다. 장무기는 다급한 나머지 덥석 조민의 손을 잡았다.

"어서 무슨 수를 생각해 내야겠소!"

조민은 나직하게 물었다.

"몰래 암기를 발출해 성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나요?"

장무기는 고개를 내둘렀다.

"의부님께선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망정 내가 그런 암습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오."

이때 성곤이 다시 일장을 천천히 밀어내자 조민이 소리쳤다.

"가슴!"

사손은 즉시 오른손을 가슴 앞으로 곧장 뻗어냈다. 성곤은 그와 정면대결을 할 필요가 없어 이내 손을 거두었다. 그는 계속하여 소리없이 손을 밀어내 암습을 기도했으나 번번히 조민의 외침으

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성곤은 다른 꾀를 썼다. 그는 눈동자를 교활하게 굴리며 사손의 어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밀어냈다. 조민은 다시 소리쳤다.

"우견(右肩)!"

그와 때를 같이하여 성곤의 왼쪽 어깨가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장무기는 대뜸 그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외쳤다.

"등심!"

사손은 조민의 외침이 떨어지는 순간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호위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성곤의 그 일장은 허초(虛招)에 불과했다. 오히려 조민의 외침을 빌려 사손의 주의력을 오른쪽 어깨에 쏠리게 한 후 그 허를 찔러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등심을 강타했다.

장무기가 비록 적시에 소리쳐 귀띔해 주었으나, 성곤의 변초가 워낙 빨라 사손이 다음 동작을 취하기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의 놀란 외침이 터지는 가운데 사손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며 마치 오장육부를 입으로 쏟아내듯 붉은 핏줄기를 토해냈다. 그 피가 온통 성곤의 얼굴에 뿌려졌다.

"앗!"

성곤은 절로 짤막한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의 피를 닦았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사손은 땅에 쓰러져 짐승이 포효하듯 괴성을 지르며 뒹구는가 싶더니 별안간 두 사람 모두 중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실로 갑작스런 변화였다.

알고보니, 사손은 땅에서 뒹굴며 성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기자 두 사람 모두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사손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지하 감옥은 물이 목까지 차 있는데다가 칠흑처럼 캄캄했다. 그 속에 빠진 성곤은 즉시 눈뜬장님으로 변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뒤쪽을 향해 몸을 솟구쳤다. 일단 상대방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볼 심산이었다.

그러나 지하 감옥 안은 너무 비좁아 몸을 튕기자 등이 호되게 석벽에 부딪쳤다. 그가 재차 몸을 솟구치려는 순간 사손의 칠상권이 정확하게 아랫배를 강타해 왔다.

"으윽....."

오장육부가 파열되는 듯한 통증에 성곤은 허리가 꺾이며 신음을 토했다. 성곤은 이번에 맞은 일권으로 심한 내상을 입었음을 알았다. 그가 다시 신법을 전개한다면 어둠 속에서 상대방의 무서운 공격이 다시 뻗쳐올 게 뻔했다. 성곤은 곧 생각을 달리해 소금나수법(小擒拿手法)을 전개했다. 소금나수법은 상대방과 몸을 밀착시킨 상황에서 전개하는 가장 적절한 공격 수법이었다.

소금나수법의 특징은 신속한 변초(變招)에 있었다. 설령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일단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 어느 부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몸에 닿기만 하면 즉시 나꿔잡거나 후려치거나 갈고리처럼 긁거나 송곳처럼 후비는 공격으로 직결시킬 수 있었다.

사물이 보이지 않는 칠흑 속에서 성곤이 소금나수법을 펼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손도 그와 마찬가지로 소금나수법으로 대결했다.

밖에 있는 군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나 지하 감옥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싸늘한 기합과 고함소리로 그 처절한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오히려 직접 싸움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욱 손에 땀을 쥐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긴장되어 있는 자는 장무기였다. 이제는 최악의 경우 의부님을 성곤의 살수에서 구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어졌다. 지하 감옥으로 뛰어들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장무기는 다급해진 나머지 등줄기에서 계속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과연, 군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지하 감옥 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손이 일방적으로 당하던 지하 감옥 위에서의 싸움과는 양상이 달랐다.

사손은 실명한 지 이십여 년이 되어 이전 충분히 청각으로서 눈을 대신할 수 있었다. 그 반면 성곤은 물에 잠긴 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자 당황함이 앞서 닥치는 대로 공격을 전개할 뿐이었다. 이러니 쌍방의 전세가 이내 역전되었다.

성곤은 갈수록 당황함이 눈덩어리처럼 커졌다. 그는 광풍폭우처럼 양팔을 떨쳐 쾌속무비하게 소금나수법 중에서도 악랄한 초식을 펼치며 속으로 외쳤다.

'너의 일장을 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지하 감옥 위로 몸을 솟구치고 봐야겠다.'

군호들은 차츰 지하 감옥 가까이 접근해 와 주위를 빙 둘러쌌다. 모두들 긴장된 표정이었다. 성곤과 사손의 기합과 고함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으로 미루어 아직도 승부가 판가름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으악!"

갑자기 성곤의 처절한 비명이 들리더니 두 줄기의 인영이 지하 감옥 속에서 곧장 치솟아 올랐다.

군웅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나는 순간 사손과 성곤이 좌우로 갈라지며 지면에 내려섰다. 군웅들은 비로소 두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성곤과 사손의 눈에서 모두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 서서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군호들도 숨을 죽였다. 지하 감옥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기에 두 사람의 눈에서 모두 피가 흘러내리는지 군호들은 궁금했다.

그 까닭인 즉 이러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손이 쌍장을 좌우로 하여 성곤의 양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성곤은 내심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얍!"

그는 짤막하게 기합을 지르며 식지와 중지를 송곳처럼 세워 질풍같이 사손의 두 눈을 찔러갔다.

쌍룡창주(雙龍愴珠).

지극히 평범한 초식이지만 성곤의 손에 의해 펼쳐지자 그 위력은 대단했다.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일단 이 초식을 맞이하게 되면 얼굴의 위치를 옮겨 피해야만 했다.

성곤도 그것을 계산에 넣어 사실은 왼손으로 상대의 태양혈(太陽穴)을 노리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가 강호에서 일찌기 많이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한데그의 계산과는 달리 사손은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성곤의 계산이 빗나가는 순간 사손의 입에서도 싸늘한 기합이 토해졌다.

"이얍!"

그도 똑같은 쌍룡창주의 초식을 전개한 것이다. 물론 그가 노린 것도 상대방의 눈이었다. 성곤의 두 손가락이 사손의 눈을 파고드는 찰나 비로소 전광석화같이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뿔싸!"

이어 자신의 눈에 극심한 통증이 전해져 오며 사손의 손가락이 이미 눈을 후비고 들어온 것이다.

두 사람은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다. 사손은 오래 전에 실명했기 때문에 성곤의 손가락에 눈이 찔렸지만 일종의 외상을 입은 것에 불과했다. 그 반면 성곤은 똑같은 상처를 입었지만 일순간에 맹인으로 변한 것이다.

지하 감옥 위에서 대치하고 있던 두 사람 중에서 먼저 침묵을 깬 자는 사손이었다.

"장님이 된 기분이 어떠냐?"

말을 내뱉기 무섭게 일권을 격출했다. 성곤은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

펑!

칠상권이 여지없이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사손이 왼손으로 다시 일권을 떨쳐내자 성곤은 뒤로 대여섯 걸음 밀려나 나무뿌리에 걸려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울컥울컥 피를 토해 내며 전신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몸이 축 늘어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발했다.

이때 도액의 음성이 들려왔다.

"인과응보로다. 업보야....."

사손은 세 번째 칠상장을 전개하려다가 도액의 음성을 듣자 도중에서 권초를 거두고 냉랭하게 말했다.

"난 원래 너에게 십삼 권의 칠상권을 전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넌 이미 실명한데다가 공력을 모두 상실한 편이나 다름없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십일 장을 생략한다."

장무기 등은 사손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 모두 환호성을 치며 좋아했다. 사손이 갑자기 땅에 주저앉더니 전신 뼈마디에서 부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손이 내력을 역으로 끌어올려 스스로 자신의 공력을 폐지시키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즉시 소리쳤다.

"의부님! 안 됩니다!"

그는 쏜살같이 달려가 사손의 등에 손을 붙여 구양신공으로 제지하려 했다. 그러자 사손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다짜고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호되게 내리치더니 한 모금의 검붉은 피를

뱉어 버렸다.

장무기가 얼른 그의 팔을 잡았을 때는 팔에 전혀 힘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느꼈다. 이미 공력이 완전히 상실된 게 분명했다.

사손은 성곤 쪽을 향해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성곤, 너는 나의 혈육을 죽였기 때문에 난 오늘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무공을 폐지시킴으로써 복수를 했다. 사부님, 당신은 나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었지만 난 오늘 스스로 그 무공을 전부 폐지시킴으로써 당신에게 돌려주었소. 이제 나와 너는 서로 은혜도 없고 원한도 없어졌다. 당신은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곤은 계속 고통스럽게 신음만 한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군호들은 서로 마주 보며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사도(師徒)간에 얽힌 은은원원이 이렇게 결말이 지어질 줄이야 어디 생각이나 했겠는가!

사손은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낭랑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나 사손은 온갖 악행을 일삼아 왔소. 오늘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도 하늘이 내리신 복이라 생각하오. 여러분들 중에 친지 혹은 혈육이 이 몹쓸 놈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가 있을 것이오.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 누구라도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장무기에게 위엄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무기야, 넌 절대 막으면 안 된다. 복수는 더군다나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나의 죄업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장무기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예....."

군호들 중에는 물론 그에게 혈육 혹은 지인이 피살당한 자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도 사손이 성곤에게 취한 행동을 똑똑히 지켜

보았다. 성곤은 불공대천의 원수지만 사손은 그의 무공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일단락지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무공도 폐지시켰다.

이제 사손은 반항할 힘을 상실했다. 그러한 사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일검을 전개하거나 일장을 전개한다면 영웅호걸의 본분에서 어긋날 것이다.

사람들 틈에서 홀연 한 사나이가 걸어나왔다.

"사손, 나의 선천이신 안령비천도(雁翎飛天刀)께선 너에게 목숨을 잃었다. 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성큼성큼 사손 앞으로 걸어왔다.

사손은 울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가 영존을 해친 게 분명하다. 어서 나에게 출수해라."

사나이는 칼을 뽑아쥐고 두 걸음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장무기의 머리에 혼란이 일었다. 만약 나서서 막지 않으면 의부님은 필시 이 사나이에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기가 사나이의 행위를 제지한다면 물론 더 이상 나설 자가 없겠지만 의부님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더욱 큰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게다가 의부님은 눈이 실명된데 이어 무공마저 상실했으니 도저히 그 죄책감을 견뎌내지 못해 언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게 뻔했다.

장무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전신에 심한 진동이 일며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앞으로 두걸음 내딛어 사나이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그 즉시 사손의 싸늘한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무기야, 네가 만약 그 자의 복수를 막는다면 그보다 더한 불효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난 목숨을 끊어야 하며 저승에 가서라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사나이는 칼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는 냅다 사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울부짖었다.

"선친께서 살아 생전 협명을 떨쳐오셨는데, 저승에 계신 그 어르신네께서 내가 무공을 상실한 맹인에게 살수를 전개하는 것을 보시면 필시 비겁한 놈이라 나무랄 것이니....."

그는 칼을 땅에 팽개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 틈바구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어 중년 부인이 앞으로 걸어나왔다.

"사손, 죽은 나의 남편 음양판관(陰陽判官) 윤대지(尹大地)를 위해 복수를 하겠다!"

그녀도 앞으로 바싹 걸어와 사손의 얼굴에 침을 뱉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물러갔다.

장무기는 의부님이 계속 수모를 당하면서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무림인이라면 생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 어떤 경우에서도 수모를 참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가살이불가욕(士可殺而不可辱)이라 하지 않았던가!

복수를 하겠다고 앞으로 나선 두 사람은 모두 사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이것은 실로 참기 어려운 모독이었다. 그러나 사손은 그러한 수모를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과를 철저하게 통한해 하며 참회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 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다. 이번에는 뺨을 때렸다. 다시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욕설을 퍼붓는 자도 있었다. 사손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다. 그는 피하지도 원망의 소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사손은 삽십여 명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했다. 나중에 수염이 긴 도인이 앞으로 나섰다.

"빈도는 태허자(太虛子)라 하오. 나의 두 사형이 사대협과 겨루어 목숨을 잃었소이다. 빈도는 오늘 사대협의 의연한 풍도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바이오. 빈도 역시 흑백 양도의 무수한 호걸들을 죽였소. 내가 만약 사대협에게 복수의 명분을 빌려 모독적인 행위를 행한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수모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오."

말을 끝낸 그가 장검을 뽑아 왼손 손가락으로 검신을 살짝 튕기자 맑은 금속성과 함께 장검이 두 동강으로 부러졌다. 그는 부러진 검을 땅바닥에 팽개치더니 사손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다.

그의 뜻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군호들은 제각기 수군거렸다. 태허자의 명성은 강호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가 방금 검을 부러뜨린 무공은 실로 대단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넓은 흉금이었다. 그가 오히려 자책을 하고 물러나자 더 이상 나설 자가 없었다.

한데 뜻밖에도 아미파 제자 중에 한 중년 여승이 사손 앞으로 걸어나왔다.

"살부지구(殺夫之仇)를 갚기 위해 나도 당신에게 침을 뱉어야겠어요!"

그녀는 말을 끝내기 무섭게 퉤! 하고 사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그런데 침이 날아오는 순간 예리한 파공음이 곁들여 있었다.

사손은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으나 이미 죽음을 각오한 터였으므로 오히려 홀가분했다.

'난 벌써 죽어야 할 몸, 너무 늦은 감이 있구나.'

아미파 여승의 입에서 못처럼 생긴 작은 암기가 뱉어진 것이다. 그 암기는 사손의 급소를 노렸으나 사손은 전혀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결과가 뻔했다.

이 아슬아슬한 순간, 갑자기 한 줄기의 황색 인영이 번뜩이며 전광석화같이 허공을 수놓았다. 바로 황삼 여인이었다.

황삼 여인이 신속무비하게 소매를 떨치자 사손을 향해 날아가던 암기가 소매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황삼 여인의 입에서 위엄있는 호통이 터졌다.

"사태의 법명은 무엇이오?"

여승은 기습이 실패로 돌아가자 크게 당황해 했다.

"정조(靜照)라 해요."

황삼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음..... 정조라..... 그대가 속세를 떠나가 전에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대협에게 살해되었는지 자세히 말해 주겠어요?"

황삼 여인의 음성은 크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짓누르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나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대협이 스스로의 죄과를 참회하기로 작심했으니 그와 원한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복수를 할 수 있소. 거기에 대해선 나도 참견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사대협도 원치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복수를 빙자해 살인멸구를 하려는 자가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정조는 즉시 반발하듯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나는 사손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 살인멸구를....."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자신도 모르게 주지약을 힐끗 쳐다보았다.

황삼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맞아요. 그대는 사대협과 하등의 원한이 없는데 왜 그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죠? 아미파 정(靜)자 배분의 제자가 모두 열 둘이

며 그 중 정형, 정허, 정공, 정혜, 정가, 정조가 불문에 귀의했지만, 어느 누구도 속세를 떠나기 전에 가정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어요."

정조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물러나려 했다.

그러자 황삼 여인이 냉랭하게 외쳤다.

"그렇게 쉽게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몸을 번뜩이는가 싶더니 이미 정조의 어깨를 향해 나꿔채 갔다. 정조가 황급히 옆으로 피하자 황삼 여인은 초식을 변화시켜 오른손 식지로 그녀의 옆구리를 찍는 동시에 발로 그녀의 다리 부위 환조혈(環조穴)을 걷어찼다.

정조는 그 자리에서 신음을 토하며 쓰러졌다.

황삼 여인은 냉소를 날렸다.

"주낭자, 이 살인멸구의 수법은 실로 악랄하군."

주지약은 냉랭하게 그녀의 말을 받았다.

"정조사저는 사손에게 복수를 하려던 것뿐인데, 살인멸구라니 대관절 무슨 소리죠?"

그녀는 황삼 여인이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음성을 높여 다음 말을 이었다.

"여기에 무수한 정파제자들이 있지만 정사(正邪)를 분별못하고 요마들과 어울려 있으니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 아미파는 그들과 같은 대열에 끼고 싶지 않으니 이만 떠나야겠어요!"

그녀는 곧 아미파의 제자들을 이끌고 서둘러 하산했다. 두 명의 제자가 정조를 부축해 허겁지겁 뒤를 따랐다.

장무기는 황삼 여인 앞으로 다가가 정중히 몸을 숙였다.

"여협의 도움에 뭐라고 감사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성함이라도 밝혀 주신다면 가슴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황삼 여인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입에서 알듯모를 듯한 말이 내뱉어졌다.

"종남산(終南山) 이후 무상한 세월이 흘러 신조협려(神조俠侶)는 영원히 강호에서 자취를 감추도다."
이렇게 말하며 공수로서 장무기에게 답례를 하고는 곧 흑삼, 백삼을 입은 여덟 명의 소녀를 이끌고 표연히 떠나갔다.
장무기는 얼른 한 발짝 쫓아가며 소리쳤다.
"여협, 잠깐만!"
그 황삼 여인은 그의 외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산봉우리 아래로 차츰 멀어져 갔다.
그러자 개방의 소방주인 사홍석이 소리쳤다.
"양(陽)언니! 양언니!"
그제서야 산중턱으로부터 황삼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개방의 일은 장교주께 부탁드려 도와달라고 하려무나."
장무기는 즉시 대답을 했다.
"분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삼 여인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왔다.
"미리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어요."
그녀의 음성은 분명 멀리서 들려왔지만 마치 지척에 있는 듯 뚜렷했다. 장무기는 그녀가 사라진 쪽을 응시하며 무엇을 잃은 듯한 적막함에 젖었다.
공지가 성곤 앞으로 다가갔다.
"어서 장문인을 풀어 주라고 명해라. 만약 장문인께 변고라도 생겼다면 너의 죄업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성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된 이상 동귀어진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설령 이 시각에 공문화상을 풀어준다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 너는 장님이 아닐 테니 지금쯤 불길이 이는 게 보일 텐데."
공지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고개를 돌렸다. 과연 사찰쪽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게 아닌가!

공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달마당에서 불이 났다! 어서! 어서 불을 꺼라!"

군승들은 우왕좌왕하더니 곧 앞을 다투어 산 아래로 달려갔다.

공지는 비통한 표정으로 합장을 했다.

"아미타불..... 소림 고찰이 겁난을 면치 못하겠군....."

불길이 워낙 거세게 일고 있어 도저히 잡을 길이 없음을 알았다. 그런데 얼마 후 두 승려가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를 했다.

"사숙께 아뢰옵니다. 원진의 수하 반도들이 달마당에 불을 질렀으나 다행하게도 명교 홍수기의 영웅들이 나서서 쉽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지는 너무나 감격하여 장무기에게 걸어가 다시 합장을 했다.

"소림 천 년 고찰이 화겁(火劫)을 면하게 된 것은 모두 장교주의 은덕이니 빈승이 소림 중승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장무기도 포권의 예로 답례하며 정중하게 말했다.

"너무 겸손하십니다. 우리로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공문사형께서 반도들에 의해 달마원에 갇혀 있소. 비록 불길이 잡혔다 하나 사형의 안위를 알 길이 없으니 장교주와 여러 영웅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빈승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소이다."

한쪽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성곤이 갑자기 광소를 터뜨렸다.

"하핫.....! 공문의 몸에 쇠기름과 돼지기름을 잔뜩 부어 놓았기 때문에 불길이 일자마자 이미 저승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홍수기가 달마당의 불길을 잡았다고 하나 절대 공문 노화상을 구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달려가 그의 안위를 살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성곤은 끝까지 자신의 음흉한 성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공지는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뿜어졌다. 불심이 깊은 그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드문 살기였다.

성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터라 오히려 여유작작한 면을 보였다. 아니, 최후의 발악일지도 모른다. 한데 성곤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중턱에서 한 사람의 낭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홍수기는 불을 끄는데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는 반면, 후토기는 땅을 파서 사람을 구하는 재주가 있지!"

이것은 범요의 음성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곧이어 후토기의 장기사 안원과 범요가 한 노승을 부축해 절봉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승은 다름아닌 장문인 공문선사였다.

세 사람의 옷은 모두 군데군데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고, 심지어 머리카락, 수염, 눈썹마저도 불에 그을러서 낭패한 모습들이었다.

공지는 즉시 앞으로 달려가 공문을 끌어안았다. 그는 격동된 음성으로 외쳤다.

"사형, 무사했군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이 사제가 무능해 사형이 이런 고초를 당하게 했으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공문의 보기 흉한 얼굴에 담담한 미소가 띄어졌다.

"이 범시주와 안시주의 도움을 받아 지하 통로를 뚫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네. 그렇지 않았다면 사제 자네를 영원히 보지 못할 뻔했네."

공지는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명교 후토기가 땅굴을 파는데 일가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그 신통력을 분명히 깨달았소."

그는 범요와 안원에게 정중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말했다.

"범시주, 노승이 앞서 무례한 언동을 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

를 드리는 바이오. 대도 만안사의 약정을 취소할 것을 아울러 밝히는 바이오."

그의 말은 실로 뜻밖이었다. 무림인은 약조를 생명처럼 여긴다. 게다가 그것이 무공을 겨루기로 한 약정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 만치 약정을 스스로 취소한다는 것은 무공을 겨루어 패배하는 것보다 백 배나 더 불미스러운 일로 여겨왔다.

그런데 공지는 범요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형을 구해 준 은덕에 감격하여 스스로 약정을 취소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더욱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적대감정을 풀고 지기가 되었다.

한편, 성곤은 자신의 계획이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자 마지막 남은 광기마저 꺾여 아무 말 없이 그저 송장처럼 누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소림 공문대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것일까?

알고보니, 성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영웅대회 전날 밤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공문의 혈도를 찍어 달마원에 감금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달마원 주위에 가름과 유황 등 인화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심복을 시켜 단단히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나서 성곤은 공지를 찾아가 자기의 분부에 따라 움직이도록 협박을 했다. 만약 자기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 당장 심복을 시켜 공문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다. 공지는 사형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그가 하라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성곤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심복에게 신호를 하여 달마원에 불을 지르게 한 것이다. 그것은 성곤이 던진 마지막 주사위였다. 일단 달마당에 불길이 번지면 군호와 중승들이 불길을 잡는데 급급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심복들이 자기를 구출할 것이란 철저한 사전 계산에 의해 행해진 일이었다. 한데 뜻밖에도

그 마지막 탈출구까지 봉쇄당하고 말았다.

사실 양소는 명교의 제자들이 떼지어 소실산에 오기 며칠 전부터 후토기에게 명하여 먼저 소림사로 통하는 지하 땅굴을 파도록 했다. 그것은 사손을 구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손이 사내에 갇혀 있지 않았으므로 후토기는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 대신 열 여섯 개의 나한상 등에 새겨진 글을 전부 지워버릴 수 있었다.

나중에 장무기와 주지약이 손을 잡고 금강복마권을 공격하고, 성곤의 정체가 드러나 공지와 대립하게 되자 조민과 양소는 곧 짚이는 바가 있었다. 조민과 양소는 암암리에 상의한 결과 범요로 하여금 홍수, 후토 양기의 형제들을 이끌고 소림사로 잠입해 불을 끄고 공문을 구출하게끔 한 것이다.

그런데 성곤의 계획이 워낙 치밀하고 악랄해 일단 달마당밖에 쌓아두었던 인화물질에 불이 붙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후토기의 형제 다섯 명이 희생당했다. 범요와 안원이 즉시 불길을 뚫고 달마원 안으로 뛰어들어가 공문을 구출했지만 눈썹과 수염이 모두 불에 그을렸다.

만약 미리 파 놓은 지하 땅굴이 없었다면 그들도 불기에 휩싸여 목숨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달마원과 이웃하고 있는 몇 채의 승사(僧舍)도 불에 타 버렸지만,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아 대웅보전과 장경각, 나한당 등 요지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공문과 공지는 잠시 상의하더니, 곧 명을 내려 성곤의 심복과 일당을 모두 사로잡아 후전(後殿)에 무릎을 꿇리고 대기 시키도록 했다.

성곤은 소림사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심복을 포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괴수가 제압되고 장문인이 위험에서 벗어나자 성곤 일당은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감히 반항을 하지 못했

다. 그래서 나한당의 수좌가 중승들을 이끌고 그들을 색출하자 모두 풀이 죽은 채 순순히 굴복했다.
 장무기는 사손 앞으로 다가가 외쳤다.
 "의부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사손은 오히려 환하게 웃었다.
 "얘야, 이 의부는 세 분 고승으로부터 감화를 받고 크게 깨달음을 받아 일생 동안 저질러온 죄업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씻을 수가 있었다. 난 여지껏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다. 너도 이 의부를 위해 기뻐해야 당연하거늘 어찌 슬퍼하는지 모르겠구나."
 장무기는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좋을지 몰라 다시 목메인 소리로 외쳤다.
 "의부님!"
 사손은 공문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제자의 죄업이 너무 깊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불문에 귀의하고 싶으니, 부디 불쌍하게 여기시어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공문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도액이 입을 열었다.
 "이리 오너라. 널 제자로 거두겠다."
 사손은 얼른 대답했다.
 "제자가 어찌 감히 그런 복연(福緣)을 바라겠습니까?"
 그가 공문을 스승으로 모시면 원(圓)자 배분의 제자가 되지만, 도액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면 공(空)자 배분으로서 공문, 공지와 사형제로 호칭하게 된다. 사손은 스스로 그것이 과분한 일이라 생각했다.
 도액이 호통을 치듯 다시 입을 열었다.
 "공(空)은 공(空)이듯이 원(圓)도 공(空)이로다. 속세의 모든

것이 바로 공(空)이 아니더냐!"

사손은 처음에 멍해졌으나 곧 그 참뜻을 깨달았다. 사부와 제자, 배분과 법명, 그 모든 것이 불가(佛家)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손은 즉시 진지하게 말했다.

"사부님께서 공(空)이시니 제자도 공(空)입니다. 이 순간부터 무죄무업(無罪無業), 무덕무공(無德無功)의 일념으로 오직 부처님을 섬기겠습니다."

도액은 껄껄 웃었다.

"좋을씨구! 너는 내 문하가 되더라도 여전히 사손일 뿐이다. 내 말의 뜻을 알겠느냐?"

사손은 정중히 머리를 숙여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돌맹이처럼 굴러온 사손은 한낱 허상(虛像)에 불과했습니다. 무심무물(無心無物)일진대 어찌 이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손은 문무를 겸비하여 도액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자 이내 불가의 심오한 정의(精義)를 성오(性悟)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불문에 귀의해 결국 일대 고승이 되니........

도액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가자, 사바세계에서 발을 떼자꾸나."

그는 사손의 손을 잡고 도겁, 도난과 함께 천천히 하산했다. 공문, 공지, 장무기 등은 일제히 몸을 숙여 전송했다.

금모사왕 사손, 그는 삼십 년 전에 강호에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으며 무수한 경세지사(驚世之事)를 저질러왔다. 그러한 그가 오늘날 속세의 은원을 청산하고 불문에 귀의하자 군웅들은 모두 새로운 감회에 젖었다.

장무기는 기뻐하는 한편 가슴 밑바닥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공문이 그에게 넌지시 말했다.

"여러분들께서 소림을 찾아주셨는데 뜻하지 않은 변고로 인해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오.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실 기회가 많지 않을 테니 모두 사내로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누심이 어떻겠소?"

군호들은 그의 청을 받아들여 소림사로 향했다. 공문은 제자들을 시켜 그들을 융숭히 대접했다. 아울러 공문, 공지가 앞장서 제자들을 이끌고 불행하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초도(超度)를 해주었다.

군호들도 그 자리를 빌어 일일이 향을 피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제 4 장 어둠 속의 열기(熱氣)

일단 한 가지 큰 일이 마무리된 셈이다. 사손은 삼십 년이란 긴 방황 끝에 귀처(歸處)를 찾은 것이다.

이제 그에게서는 증오와 불타는 복수심이 사라졌다. 그는 증오와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자아학대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 증오를 포용할 수 있는 게 관용의 사랑이라는 것을 뒤늦게 통감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 그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셈이다.

장무기는 그의 앞날에 편안함과 광명이 함께 하길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원했다.

장무기의 마음 속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의 의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손이거늘, 사손이 총총히 떠나는 바람에 미처 그 의문을 물을 새가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어렴풋이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이 필경 주지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한때 주지약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

다. 주지약도 자기에게 은혜를 여러 번 베푼 게 사실이다. 장무기는 그녀와의 옛정을 생각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을 덮어두기로 했다.

일단 의문이 한 꺼풀씩 벗겨지면 아무래도 주지약의 명예에 손상이 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잠재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장무기는 의문을 밝히고 싶으면서도 그것을 밝혀서는 안될 것 같은 상반된 모순에 빠져 버렸다.

소림사의 식사는 매우 담백했다. 육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장무기는 사홍석을 비롯한 개방 장로들과 서쪽 객청에 둘러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주로 개방의 앞날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장무기는 힘닿는데까지 개방을 돕고 싶었다. 그것은 황삼 여인의 부탁이기도 했다.

그들이 한창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명교의 제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교주님, 무당파의 장사협께서 뵙자고 합니다. 아마 긴히 상의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무기는 웬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태사부님께서 심상치 않은 일이라도.....'

그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 버리려는 듯 세차게 고개를 내두르며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가 대전 안으로 들어가자 장송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먼저 장송계의 표정을 살펴보고,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장무기는 장송계에게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태사부님께선 편안하시죠?"

장송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르신네께선 편안하시다. 무당산에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

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밤을 세워가며 달려온 것이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원병(元兵) 이만 명이 소림사를 향해 진발해 오고 있다. 그들은 이번 영웅대회를 기해 모종의 행동을 취하려는 게 분명하다."

장무기는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속히 소림 장문인께 알려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곧 후원으로 가서 공문에게 알렸다. 공문은 잠시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만 명이라면 엄청난 병역이오. 그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중원 무림의 원기를 꺽으려는 것 같소. 모든 무림인의 안위에 관계되니 만큼 군웅들과 상의하여 대책을 결정짓는 게 좋을 것 같소."

장무기와 장송계도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소림사의 경종이 우렁차게 울려퍼졌고, 얼마 안 되어 군웅들이 대웅보전에 운집했다.

군호들은 공문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자 모두 놀라는 한편 제각기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대웅보전 안은 곧 술렁거렸다. 그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혈기가 왕성한 군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천하 영웅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이번 기회에 그들을 맞이하여 미리 선제공격을 취해 한바탕 통쾌하게 해치웁시다."

비교적 생각이 온건한 사람들은 의견이 달랐다.

"원병이 이동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 이번에 우리를 겨냥해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오. 그러니 구태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소?"

그러자 장송계가 나섰다.

"나는 몽고어를 알아듣는데, 그들 군관이 소림사를 겨냥해 진군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몽고가 중원을 점령한 지 백 년이 넘은 때라 한인 중에 몽고어를 알아듣는 자가 적지 않았다. 장송계는 본디 영특하여 각 지방의 방언에 능통할 뿐 아니라 몽고어도 유창했다.

공문이 그의 말을 받았다.

"여러분들, 보아하니 우리가 이곳에서 회합을 갖는 것을 안 조정이 필시 조정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 판단해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려는 것 같소. 우린 무림인으로서 무공을 지니고 있어 오랑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정면대결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곳곳에서 <옳소>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가 적지 않았다.

공문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강호의 호걸들은 줄곧 일 대 일의 싸움을 해 왔으며, 그 숫자가 많은 경우라도 몇 십명에 불과했소. 이번처럼 수천, 수만 명이 떼지어 대교전(大交戰)을 벌이는 것은 전혀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소. 모름지기 이러한 대교전은 무공보다 병법(兵法)에 능통해야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텐데, 빈승으로선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오. 그러니 차라리 그들을 피해 여러분들이 본사를 떠나심이 어떨지....."

군호들은 서로 마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장무기가 나섰다.

"우리가 이대로 떠나가면 오랑캐들이 두려워 도망친 결과가 될 것이니, 오히려 그들의 기세만 높여 줄 것입니다. 게다가 소림사의 승려분들만 그들의 말발굽 아래 희생당하게 될지도 모르잖습니까?"

공문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원병이 이곳에 당도해 강호 영걸들이 모두 떠난 것을 보면 도에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소."

군호들은 공문의 호의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이번 영웅대회를 개최한 것이 바로 소림이므로, 공문은 소림으로 인해 군호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군호들은 모두 뜨거운 피가 끓어올라 이대로 떠나려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조정에서 이미 대규모의 군사들을 출동시켰는데 헛탕을 치고 돌아갈 리도 만무했다. 필시 소림만이라도 살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소림 승려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생포될 것이고, 소림 고찰마저 잿더미로 변할 게 분명한 것이다.

몽고 병사들은 워낙 잔악하여 살인방화를 예사로 여기고 있었다.

양소가 앙연히 나섰다.

"오랑캐들은 여지껏 숱한 잔악 행위를 저질러 왔으니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과 대항해 싸울 책임이 있소. 본인의 생각으로는 소림의 천 년 고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랑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생사결단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소."

군호들은 분분히 그의 의견에 찬동했다.

"옳소!"

군호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사이에 사문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소리가 들려오더니 두 필의 준마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이어 지객승의 안내하에 두 사람이 대전 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나타난 두 사람의 복장으로 보아 명교의 교도임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곧장 장무기 앞으로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나서 그 중 한 사람이 아뢰었다.

"교주께 아뢰옵니다. 오랑캐 병사 오천 명이 선발대로 소림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소림 승려들이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소림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중....."

공문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중놈이라고 말하려는 모양인데, 개의치 않을 것이니 어서 말해 보게."

사나이는 입술에 침을 바르며 말을 이어갔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중은 물론이거니와 무기를 휴대한 무림인이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벌써 여러 명의 화상이 그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교 교도의 보고를 들은 군호들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당장 오랑캐놈들과 생사결단을 냅시다. 그 동안 짓밟혀온 원한을 이번 기회에 갚읍시다!"

몽고가 중원 땅을 거머쥐고 송나라가 패망한 지 백 년이 되었지만 무림에서 활약하는 군호들은 계속 몽고 관병들과 적대시해 왔다. 지금 몽고 병졸들이 대거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자 한결같이 피가 끓어올라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장무기는 그 걷잡을 수 없는 혈기를 막을 수 없어 낭랑한 음성으로 외쳤다.

"여러분들, 오늘이야말로 사내 대장부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소림사 영웅대회가 천추에 빛나도록 모두 힘을 합쳐 싸웁시다!"

대전 곳곳에서 곧 우뢰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다. 군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장무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공문방장께서 명령만 내려 주시면

우리 명교의 모든 형제들도 그 명령에 따를 겁니다."

공문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장교주,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오. 본사의 승려들은 다소간의 무공을 배웠지만 큰 규모의 전투에 임하는 병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소이다. 근래에 와서 명교가 천하 방방곡곡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것을 모르는 자가 없소. 오직 명교만이 오랑캐를 맞이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 장교주께서 명령을 내려 주시오. 우리 모두 장교주의 명에 따라 오랑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겠소."

장무기가 사양을 하려는데 이미 곳곳에서 찬성하는 갈채가 터져나왔다.

장무기는 비록 나이가 젊지만 혼자서 소림 삼승과 겨룬 것을 모두 보았으므로 그의 무학이 천하 제일이라는데 대해 의심할 자가 없었다. 게다가 명교 산하에 있는 한산동, 서수휘, 주원장 등이 도처에서 원군과 싸워 승리를 거둔 것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앞서 오행기가 광장에서 보인 솜씨만 하더라도 군호들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자리에 각 문파의 고수들이 모여 있지만 군호들은 명교 교주를 제외하고 이번 싸움을 이끌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장무기는 군호들의 뜻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용병술은 별도의 학문으로서 본인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적절한 인물을 내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사양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산 아래에서 고함소리가 크게 들려오더니 소림 승려 두 명이 대전 안으로 달려 들어와 보고했다.

"방장께 아뢰옵니다. 몽고병이 산 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장무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예금, 홍수 양기(兩旗)가 선발대로 그들을 맞이하시오. 그리고 주전 선생과 철관 도장께서 각기 일기(一旗)를 돕도록 하십시오."
주전과 철관도인은 곧 대답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 장무기는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설불득 대사께선 나의 성화령을 갖고 가까이 있는 본교의 형제들을 소집해 속히 소림으로 모이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설불득은 명을 받들고 떠나갔다.
대전 안에 모여 있던 군호들은 원병의 고함소리가 갈수록 고조되자 제각기 무기를 뽑아 쥐고는 벌떼처럼 몰려나갔다.
그러자 양소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교주께서 확실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자중지란이 일어나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산중턱에 이르러 전세를 살펴보았다.
몽고병의 선봉대는 예금기와 맞닥뜨려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니 몽고병은 무리를 지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역시 징기스칸의 후예들답게 막강한 군사들이었다.
이때였다. 홀연 우측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장무기의 시선이 자연히 그쪽으로 쏠렸다. 많은 여승과 남녀가 몽고병에 쫓겨 산 위로 도망쳐오고 있었다. 바로 앞서 떠났던 아미파 일행이었다. 아마 도중에서 몽고 관병들의 공격을 받아 다시 쫓겨온 모양이었다.
아미파 제자들 중에 십여 명의 사나이가 들것에 부상자들을 실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몽고병들이 그들 주위를 빙 둘러싸고 공격을 퍼부었다.

주지약은 정현, 정소를 이끌고 거듭 공격을 전개했으나 수십 명의 몽고병졸만 죽였을 뿐 동문을 포위망에서 구출하지 못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무기는 문득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아뿔싸! 저 들것에 송사형이 실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곧 소리 높여 외쳤다.

"홍수, 열화 양기는 엄호를 해라! 좌우이사(左右二使)와 위형(韋兄)은 나와 함께 사람을 구하려 갑시다!"

그는 앞장서 몸을 날렸다.

두 명의 몽고병이 즉시 긴 창을 휘두르며 그의 앞을 가로 막았다.

장무기는 날렵한 동작으로 긴 창을 좌우 양손에 나꿔잡고 살짝 떨치자 두 명의 몽고병은 줄이 끊어진 연처럼 산 아래로 날아갔다.

"으악!"

그들이 지르는 비명이 허공에 길게 울려퍼졌다.

장무기는 창 끝을 돌려 한 마리의 신룡(神龍)처럼 원병 틈을 뚫고 들어갔다. 양소, 범요, 위일소, 팽화상 등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스쳐가는 곳에 원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다. 그들은 삽시간에 아미파 제자들에게 접근해갔다.

범요가 주먹을 격출해 원병의 포위망을 뚫고 들것에 실려 있는 부상자를 나꿔채더니 즉시 몸을 돌려 후퇴했다. 그 순간 장무기는 들것에 실려 있는 부상자를 살펴보았으나 몸집이 뚱뚱한 것이 송청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한편 주지약은 온몸에 피가 묻은 채 좌충우돌 계속 몽고병에게 닥치는 대로 살수를 전개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지약! 송사형은 어디에 있소?"

그러나 주지약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채찍을 떨치며 계속 공격을 전개할 뿐이었다. 그녀가 위치해 있는 좁은 산길에 많은 원병이 몰려 있어 죽이고 또 죽여도 끝이 없었다.

장무기가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미파의 제자 두 명이 제각기 한 손으로 들것을 들고 원병에게 포위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장무기는 눈에서 섬광이 번뜩였다.

"보아하니 송사형은 저 들것에 있는 모양이군."

그는 즉시 창 끝으로 땅을 찍으며 그 반탄력을 이용해 시위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몸을 날렸다.

순간,

"으악!"

"악!"

들것을 들고 있던 아미파의 제자들은 거의 동시에 화살을 맞아 비명과 함께 쓰러져 산 아래로 데굴데굴 굴러내렸다.

장무기는 허공에서 창을 던졌다.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창이 땅에 꽂히면서 들것이 아래로 굴러내리는 것을 막았다. 이어 장무기는 사뿐히 들것 옆에 내려섰다. 들것에 있는 자는 온몸이 흰 붕대에 똘똘 감겨져 있고 얼굴만 노출돼 있었다. 바로 송청서였다.

장무기는 얼른 그를 안아올렸다.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무척 무거웠다. 흰 붕대가 불룩한 것으로 미루어 몸과 다른 물체를 함께 감아 놓은 것 같았다.

주위에서 원병들이 계속 공격을 해왔다. 장무기는 자세한 생각을 굴릴 겨를이 없었다.

그는 송청서의 뼈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우로 몸을 번뜩여 원병의 공격을 피하며 옆으로 뚫고 나갔다.

이때 공동파의 당문량과 종유쌍협이 달려와 그를 호위했다. 그

들이 검을 떨치자 원병들이 분분히 쓰러졌다. 장무기는 송청서를 안고 무사히 산 위로 올라왔다.

이 무렵 수백 명의 원병이 떼를 지어 밀려오자 팽영옥이 소리쳤다.

"열화기, 공격해라!"

열화기에 속한 교도들은 일제히 원통(圓筒)을 꺼내 기름을 뿜어냈다. 잇따라 불화살이 빗발치듯 날아가자 거센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으앗!"

"악!"

곳곳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앞장서 진격해 오던 이십여 명의 원병은 불길에 휩싸여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옷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땅에서 뒹굴며 아비규환을 했다.

자연히 원병 진영에 큰 혼란이 일었다.

한데, 비참한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홍수기가 뒤따라 독수(毒水)를 뿜어냈다. 다시 수백 명의 원병이 독수 세례를 받아 연신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삽시간에 원병 주위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원병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생지옥을 연출했다.

원병을 이끌고 있는 만부장(萬夫長)은 황급히 후퇴 명령을 내렸다. 거기에 따라 후퇴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길게 울려퍼지며 원병들은 앞을 다투어 후퇴했다. 뒤쪽에 있던 원병들은 방패를 앞세워 앞쪽으로 달려와 방패막을 구축해 동료들의 후퇴를 도왔다.

열화기 쪽에선 계속 화살을 쏘아댔으나 더 이상의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병은 비록 커다란 손실을 입었지만 질서를 유지하면서 후퇴하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팽영옥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패배를 당해 후퇴하면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는 것만 보아도 오랑캐의 병졸이 천하의 정병(精兵)이라는 걸 알 수 있겠군."

산 아래로 물러난 원병은 부채꼴로 흩어졌다. 그들의 상황으로 보아 당분간은 공격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장무기는 적시에 명령을 하달했다.

"예금, 홍수, 열화 삼기는 산중턱 중요 길목을 지켜라! 거목, 후토 양기는 신속하게 나무와 흙을 옮겨 방위벽을 구축하라!"

오행기는 그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군호들은 앞서 원병들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게 사실이었다. 단지 혈기만 믿고 그들을 상대하려 했었다. 물론 승리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교전을 해보니 비로소 원병의 위력이 상상외로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울러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이는 것이 무림에서 일 대 일로 무공을 겨루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공격해 오자 그 기세는 성난 파도와 같았다. 주지약 같이 무공이 뛰어난 고수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군사들 틈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사면팔방에서 칼과 창이 난무하고 언제 어느 방향에서 화살이 날아들지 알 수 없어 평상시에 사용하던 무공 초식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만약 명교의 오행기가 진법을 펼쳐 원병의 질서정연한 진법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군호 쪽이 처절한 패배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군호들 중에서 소림의 승려만이 그런대로 질서를 유지했을 뿐 나머지는 마구잡이로 공격을 펼쳐 오히려 자중지란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소림의 승려들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주로 나한진법(羅漢陣法)

으로 원병들을 상대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승려가 희생되었다. 원병이 물러간 뒤에 군호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보다 경각심을 높였다.

송(宋) 말년에 조정 장수들 중에도 무림 출신의 고수들이 많았는데, 결국 몽고인에게 강산을 빼앗겼으니 병법과 무공이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군호들은 비로소 실감했다.

장무기는 송청서를 천천히 땅에 내려놓았다. 그의 맥을 짚어보니 다행하게도 맥박이 뛰고 있었다.

장무기는 주지약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다.

"송부인은 어디에 있소?"

장무기가 물었으나 정확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원병과 맞서 싸우느라 주지약이 어디로 갔는지 눈여겨 보지 않았다.

아미파의 제자들은 이제 명교에 대한 적개심이 다소 풀렸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장문인이 갑자기 사라진데 대하여 어리둥절했다.

장무기는 혼란 중에 송청서가 다시 부상을 입었을까 봐 염려가 되어 일단 붕대를 풀어 살펴보기로 했다. 붕대는 세 겹으로 되어 있었다. 세 번째 붕대가 풀어지는 순간 날카로운 금속성과 함께 부러진 검과 칼이 떨어졌다. 역시 장무기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다른 물체가 몸과 함께 붕대에 싸여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부러진 검과 칼일 줄이야 실로 뜻밖이었다.

한데, 그 검과 칼을 확인한 장무기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앗! 도룡도, 의천검!"

그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져나왔다. 군호들도 분분히 달려와 주위를 에워쌌다. 틀림없는 도룡도와 의천검이었다. 단지 그 두

가지 신병이기가 모두 반 토막으로 부러져 있었다.

이 뜻하지 않은 사실 앞에 군호들은 모두 아연실색했다.

장무기는 부러진 도룡도를 집었다. 역시 육중한 무게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부러진 도룡도를 손에 쥔 채 만감이 교차됐다. 도룡도.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칼이다. 이 칼로 인해 근 이십 년간 강호에서 풍파가 끊이지 않았다. 군호들이 소림에 모이게 된 것도 사실은 이 한 자루의 보도 때문이었다.

파란만장한 보도가 드디어 군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두 토막으로 부러진 것일까? 이로 인해 보도의 위력이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장무기가 부러진 보도를 유심히 살펴보니 중간이 비어 있음을 알았다. 무엇을 숨겨 놓았던 것이 분명했다. 의천검을 살펴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검 속에 무엇을 숨겨 놓았다면 아마 누가 그것을 갖고 갔을 것이다. 그 자가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양소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주낭자의 무공이 갑자기 고강해진 것은 바로 이 도검 속에 숨겨져 있던 비급을 얻은 게 분명할 것이오."

장무기의 생각도 그와 같았다. 아울러 장무기는 확연히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알고보니, 무인도에서 그날 밤 도검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조민의 소행이 아니라 주지약이 저지른 것이었다. 그녀가 무슨 수법으로 조민을 쫓아 버리고 은리(=주아)를 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주지약은 도검 속에 숨겨 있는 비급을 손에 넣기 위해 두 가지의 신병이기를 부러뜨린 게 분명했다. 비급을 얻은 주지약은 암암리에 무공연마를 해왔을 것이다.

장무기는 생각을 굴릴수록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렸다.

'맞아. 당시 무인도에서 그녀의 체내에 있는 독을 제거해 주기 위해 구양신공을 펼쳤을 때.....'

그렇다. 당시 주지약의 체내에서 괴이한 힘이 뻗쳐 장무기의 구양신공에 저항하지 않았던가. 그 힘이 갈수록 강해져 장무기는 그녀의 내력(內力)이 날로 증진돼 가는 것이라 생각 했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주지약은 속성을 꾀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여, 그녀는 목적한 대로 짧은 기일 내에 음독한 무공을 연성했지만 그것이 상승 무학의 경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주지약이 무당의 육이협과 은육협을 격패한 것은, 그 괴이하기 이를데 없는 초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것은 장무기가 총교 풍운 삼사에게 패했던 것과 같은 이치였다.

주지약의 진정한 무공은 육이협 등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다. 차후 다시 겨루게 된다면 주지약이 무당 제협에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장무기가 혼자서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예금기의 장기사 오경초가 엉뚱한 제의를 해왔다.

"교주님, 속하는 장인(匠人) 출신으로 주검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러진 검과 보도를 이어보고 싶으니 윤허해 주십시오."

양소가 얼른 나섰다.

"오기사의 주검술은 천하무쌍이니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십시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두 자루의 신병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니 좋을 대로 해 보시오."

오경초는 열화기 장기사 신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주검술은 화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치 신형께서 도와주셔야겠어. 오랑캐들은 당분간 재진격을 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가 언제쯤 일을 착수하면 좋을것 같나?"

신연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불을 지피는 일은 소제의 특기이니 만치 지금 당장이라도 일을 착수할 수 있소이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부하들을 지휘해 놓은 화로를 쌓게 했다. 화로의 불구멍은 직경 한 자에 불과했다. 오경초는 도룡도의 자루 쪽 반 토막을 집어 끊어진 부분을 불구멍을 겨냥해 고정시켰다.

열화기는 늘 연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불을 지피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순식간에 화로의 불길이 훨훨 타올랐다.

오경초는 오른팔이 끊어져 왼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미 십여 가지의 병기가 준비돼 있었다. 그는 처음서부터 계속 뚫어지게 노화(爐火)를 응시했다. 노화의 색깔이 변할 때마다 준비해 놓은 무기를 집어 화력(火力)을 시험해 보았다.

노화가 차츰 푸른 빛에서 흰 빛으로 변해 갔다. 거기에 다라 오경초의 표정도 차츰 긴장되었다.

오경초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더니 드디어 집게로 나머지 반 토막의 도룡도를 집어 화구(火口)에 고정시킨 자루 쪽의 반 토막에 갖다 붙였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 토막난 도룡도가 서로 연결된 채 달구어지기 시작했다.

오경초는 웃통을 벗고 있어 불꽃이 몸에 튀었다. 상당한 고통일 것이다. 그런데도 오경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도룡도를 달구는데만 온 정신이 집중돼 있었다. 그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한쪽에 떨어져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무기는 내심 새로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

'예전엔 주검술(鑄劍術)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그 나름대로 대단한 기술과 학문을 요하는군. 화력의 강열을 조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만약 평범한 장인이라면 단지 저 엄청난 열을 견뎌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갑자기,

"앗!"

"저런.....!"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호들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져나왔다. 장무기도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알고보니 풀무질을 하던 열화기의 두 교도가 열을 견뎌내지 못해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진 것이다. 그 즉시 신연과 열화기의 장기부사가 앞으로 뛰쳐나가 까무라친 두 사람을 끌어내고 직접 풀무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 두 사람의 내공은 모두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어 일단 풀무질을 하자 노화가 치솟았다. 화염이 일 장 가량 솟구쳐 오르자 장관을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기대와 긴장속에서 향 한 자루가 타는 시간이 경과되었을까, 오경초의 입에서 별안간 짤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앗!"

비명과 함께 그는 뒤로 몸을 솟구쳤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좌절의 빛이 역력했다.

중인은 흠칫 놀라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순강으로 된 집게는 이미 불에 달구어져 쭈글쭈글했다. 그러나 반 토막의 도룡도는 원래 상태에서 전혀 변한 데가 없었다. 아무리 강한 불길에도 달구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증명된 셈이다.

오경초는 장탄식과 함께 고개를 절래절래 내둘렀다.

"속하가 무능하여 도저히 보도를 복원시킬 수가 없군요. 이 도

룡보도는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신연과 열화기의 장기부사도 풀무질을 멈추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물 속에 첨벙 빠졌다.

도룡도를 원상 복귀시키는 일이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듯했다.그런데 줄곧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조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장상공, 이 세상에 도룡도를 달굴 만한 집게가 없을 테니, 그 성화령으로 시험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도룡보도가 성화령을 손상시킬 수 없었잖아요?"

장무기는 무릎을 탁 쳤다.

"아! 그렇군!"

여섯 매의 성화령 중에 하나를 설불득에게 주어 교도들을 소집케 했으니 아직 다섯 매가 남아 있었다.

장무기는 품 속에서 성화령을 꺼내 오경초에게 내주었다.

"도검을 복원시키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성화령은 본교의 신물(信物)이니 만치 파손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오경초는 힘주어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공손하게 성화령을 받았다.

다섯 매의 성화령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금(金)도 아니며 강철도 아니었다. 그러나 견고무비했다.

오경초는 성화령을 유심히 살피고 고개를 저울질해 보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무기는 은근히 염려가 되었다.

"자신이 없으면 구태여 모험을 할 필요는 없소."

오경초는 생각을 골똘히 하느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는 비로소 깊은 생각에 깨어나 정중하게 말했다.

"속하가 물음에 신속히 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화령은 백금, 현철(玄鐵)에다 금강사(金剛砂) 등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서 절대 불에 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애당초 이 성화령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불가사의합니다.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느라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조민이 곁눈질로 장무기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나중에 교주님께서 파사국으로 한 중요한 인물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 때 당신도 함께 따라가 성화령을 만든 장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수수께끼가 풀릴 거예요."

장무기는 멋적게 말했다.

"내가 무엇하러 파사국에 가야 한단 말이오?"

조민은 짓궂게 웃었다.

"그야 교주님께서 더 잘 아실 게 아니겠어요?"

조민은 다시 오경초에게 말했다.

"성화령을 보면 꽃무늬와 줄이 새겨져 있는데, 도룡도와 의천검으로서도 손상을 입지 않는 성화령에다 어떻게 꽃무늬와 글을 새겼는지 모르겠군요."

오경초가 곧 대답했다.

"꽃무늬와 글을 새겨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화령에다 백랍(白臘)을 칠한 후 그 백랍 위에 꽃무늬와 글을 새겨 다시 강렬한 산액(酸液)으로 몇 달간 천천히 부식시켜 나중에 백랍을 긁어내면 꽃무늬와 글이 고스란히 새겨지게 됩니다. 소인이 알 수 없는 것은 용주(鎔鑄)하는 방법입니다."

신연은 한쪽에서 기다리다 못해 은근히 짜증이 났는지 큰소리로 물었다.

"이봐, 대관절 할 건가, 안 할 건가?"

오경초는 결심을 내린 듯 아랫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그리고는 장무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교주님, 안심하십시오. 신형제의 열화가 제아무리 거세다 해도 성화령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을 겁니다."

신연은 그의 말에 약간 망설여졌다.

"내가 최선을 다해 불길을 키워 만약 본교의 신물을 손상시킨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 낼지 걱정이 되는구먼."

오경초는 빙긋이 웃었다.

"염려 붙들어 매고 이번 기회에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네."

이리하여 도룡도를 연결시키는 일이 다시 착수되었다.

오경초는 우성 두 매의 성화령으로 반 토막의 도룡도를 앞뒤로 끼어 다시 새 집게로 그 성화령을 집어 화로에 넣어 달구기 시작했다. 용광로가 녹아내리듯 뜨거운 불길이 화구 위로 치솟아 올랐다. 엄청난 열량이었다.

중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경초와 신연, 열화기 장기부사는 지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다.

어느덧 반 시진이 흘렀다. 이제 오경초 등 세 사람은 힘이 완전히 고갈되어 곧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는 게 무리였다.

이때 철관도인이 주전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약속한 듯 앞으로 달려나가 신연과 열화기 장기부사를 대신해 풀무를 가동했다.

이들 두 사람의 무공은 신연보다 한 수 위이므로 일단 풀무를 가동하자 화로 속에서 한 줄기의 백색 화염이 곧장 허공 높이 치솟아 올랐다. 그 열기로 인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마저 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오경초의 표정은 극도로 긴장되어 갔다.

홀연, 오경초의 입에서 짤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고형제, 어서 출수하게!"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금기의 장기부사가 예리한 칼을 쥐고 화로 옆으로 뛰쳐나갔다.

중인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와 오경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순간, 한 줄기의 싸늘한 도광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예금기의 장기부사가 다짜고짜 칼 끝으로 오경초의 가슴을 찔렀다.

"앗!"

군호들의 입에서 자연히 놀란 외침이 터져나왔다. 대경실색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예금기 장기부사의 행동은 실로 뜻밖이었다. 군호들이 놀라는 가운데 오경초의 가슴에서 선혈이 뿜어졌다. 그 선혈이 도룡도에 뚝뚝 떨어졌다. 핏방울이 열에 닿자 뿌지지 하는 소리와 함께 파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경초의 입에서 다시 짤막한 외침이 터졌다.

"됐다!"

그는 비칠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더니 무너지듯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됐다. 그의 손에는 한 자루의 거무스름한 대도(大刀)가 쥐어져 있었다. 바로 두 토막의 도신(刀身)이 붙은 도룡보도였다.

중인은 비로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알고보니, 검과 칼을 주조하는 대장인들은 왕왕 자신의 피를 주물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옛날 간장(干將), 막사(莫邪) 부부도 자신들의 몸을 화로 속에 던져 천고의 신검(神劍)을 탄생시키지 않았던가! 오직 신검을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미련없이 버리는 것이 바로 고대(古代)의 장인정신(匠人精神)이었다.

지금 오경초의 행동도 그 장인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장무기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오경초를 부축해 일으켜 상처를 살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상처가 깊지 않았다.

장무기는 금창약을 바르고 붕대로 가슴을 감싸주었다.

"오장기사,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소? 도룡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이로 인해 오장기사가 너무나 고생이 많았소."

오경초는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이 정도의 상처는 별것 아닙니다. 공연히 교주님께 염려를 끼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도룡도를 살펴보았다. 장무기도 그제서야 시선을 도룡도로 돌렸다.

도신의 연결 부분은 거의 완벽했다. 단지 어렴풋이 한 줄기의 혈흔이 나 있을 뿐이었다. 이것을 확인한 오경초는 매우 만족했다.

장무기는 다시 두 매의 성화령을 살펴보았다. 과연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장무기는 오경초로부터 도룡도를 받아 원병으로부터 빼앗은 대도(大刀)를 향해 내리찍었다.

뚝!

대도가 여지없이 두 동강이 났다. 도룡보도의 위력은 역시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군호들 사이에서 절로 환호성이 터졌다.

"와! 보도다! 보도야!"

오경초는 두 동강이가 난 의천검을 집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우울하게 변했다. 예금기의 전임 장기사와 예금기 산하의 형제 수십 명이 이 의천검에 목숨을 잃지 않았던가! 그 생각을 하니 오경초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의천검을 손에 받쳐든 채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장무기에

게 말했다.

"교주님, 나의 장대가(莊大哥)와 여러 형제들이 이 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속하는 이 검에 대한 원한이 뼈속 깊이 맺혀 있습니다. 이 검만큼은 잇고 싶지 않으니 교주님께서 달리 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장무기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것은 오장기사의 의리이며 또한 인지상정이거늘 내 어찌 나무랄 수 있겠소?"

그는 부러진 의천검을 받아 아미파의 제자 정현 앞으로 걸어갔다.

"이 검은 귀파의 소유였으니 사태가 보관하셨다가 주..... 송부인에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소."

정현은 아무 말 없이 단검을 받았다.

장무기는 다시 도룡도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더니 소림 장문인 공문대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장문인, 이 보도는 나의 의부님께서 소유하셨던 것인데, 지금 의부님께선 일문에 귀의해 소림제자에 속하니 이 보도를 의당히 소림에서 맡아야 할 겁니다."

공문은 당치도 않다는 듯 연신 손을 내둘렀다.

"그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어 마지막으로 장교주께서 어렵게 수중에 넣지 않았소이까? 그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더구나 귀교의 오장기사가 그 부러진 보도를 잇는데 성공하지 않았소. 그보다도 장교주가 그 보도를 지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소. 당금 무림에서 모두 장교주를 지존(至尊)으로 받들고 있을 뿐 아니라, 재덕(才德)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역시 장교주가 그 보도를 관장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오."

군호들도 공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옳은 말이오! 모든 무림인의 뜻이니 장교주께서 더 이상 사양할 필요가 없소!"

장무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내심 생각했다.

'만일 이 보도로 천하 호걸들을 호령해 오랑캐를 중원에서 몰아낸다면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군호들은 입을 모아 우렁차게 외쳤다.

"무림지존 도룡보도, 호령천하 막감불종!"

그 아래 원래 두 귀절이 더 있었다.

----- 의천불출 수여쟁봉! -----

그러나 의천검은 절단되어 다시 이일 수 없으니 구태여 더 이상 의천검을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의천검은 영원히 강호에서 모습을 감추게 될 것이다.

명교 예금기 산하의 사람들은 의천검에 대한 원한이 매우 컸었다. 이제 도룡도가 옛 모습을 되찾고, 의천검이 여전히 두 동강이가 된 채 무용지물로 사장되자 그들은 모두 후련해 했다.

반나절 동안 분주하게 움직인 탓인지 군호들은 모두 시장기를 느꼈다.

명교 오행기와 소림의 일부 승려들은 제각기 나누어 중요한 길목을 지키는 한편, 나머지 사람들은 승려들의 안내로 소림사로 들어가 요기를 채웠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마루로 기울자 차츰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 산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원병들은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산기슭 부근에 흩어져 있고,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역시 저녁 식사를 할 분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위일소에게 웃으며 말했다.

"위형, 날이 어두워진 뒤에 혹시 적이 야습을 해올지도 모르니 수고스럽지만 그들의 동태를 살펴봐 주시오."
위일소는 명을 받들고 물러갔다.
그러자 양소가 넌지시 장무기에게 말했다.
"교주, 내가 보기에 놈들은 앞서 혼쭐이 났기 때문에 섣불리 재공격을 해오지 않을 것이오.만약 다시 공격을 해온다면 정면 공격보다 산기슭 뒤로 돌아가 기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짙을 것이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보니 그렇군요. 그럼 양좌사와 범우사가 이곳을 지켜 주시오. 나는 산 저편으로 가서 살펴보겠소."
그가 떠나려 하자 조민이 얼른 뒤를 따라갔다.
"나도 함께 가겠어요."
장무기는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어 그녀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사손이 갇혔던 산봉우리 쪽으로 와서 뒷산을 살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무기는 세 그루의 부러진 소나무와 시꺼먼 지뢰(地牢) 입구를 바라보며 오늘 낮에 있었던 치열한 싸움을 생각하니 아직도 등줄기가 오싹해지며 한의(寒意)를 느꼈다. 실로 아슬아슬한 장면의 연속이었다.
문득 장무기의 뇌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의부님이 나더라 지뢰 석벽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깜박 잊을 뻔했군.'
그는 곧 조민에게 말했다.
"난 지뢰 아래로 내려가 살펴볼 것이 있으니 잠시만 위에서 기다려 주시오."
그는 조민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땅굴 속으로 뛰어내렸다. 땅굴 속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장무기는 부싯돌로 불을 밝혔다. 어

느새 물이 빠졌는지 바닥만 약간 질퍽할 뿐 벽 아랫쪽은 빙둘러 대리석을 깔아놓아 건조했다.

장무기의 시선이 먼저 사면 벽에 쏠렸다. 그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장무기는 대리석 위로 올라 그림을 자세히 살폈다. 뾰족한 돌로 새긴 듯 간단한 필획이지만 생동감이 넘쳤다. 동쪽 첫 번째 그림에는 세 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한 여인이 땅에 누워 있는데, 다른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보살펴주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오른손을 내밀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의 품 속을 더듬는 모습이었다. 이 그림 옆에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 취약(取藥). -----

남쪽 벽 두 번째 그림은 큼지막한 해선(海船) 한 척이었다. 한 여인이 다른 한 여인을 배 위로 던지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 옆에도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 추방(追放). -----

여기까지 살펴본 장무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예측했던 상황이 명확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었다.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장무기는 이마에서 어느덧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장무기는 속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대로군. 지약은 조민이 나의 사촌누이를 보살펴주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의 품 속에서 십향연근산을 훔쳐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그림에서 밝힌 취약(取藥)이다.....'

그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지약은 십향연근산을 몰래 음식에 풀어 모두 정신을 잃은 사이에 조민을 안아 파사국의 해선 위에다 던져 배를 몰아 떠나게끔 했을 것이다.....'

그렇다. 사손의 그림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주지약은 조민을 일

단 무인도에서 몰아내 버린 것이다.

장무기는 생각을 굴리다 말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지약은 왜 조민 낭자를 추방한 것일까? 차라리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장무기는 의문에 봉착됐지만 곧 그 의문이 해답을 찾아냈다.

'맞아..... 만약 섬에서 조민 낭자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그녀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진 못했겠지.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누이동생을 해친 것도 역시 지약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무기는 절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시 주지약이 주아(=은리) 시신 앞에서 눈물까지 뿌린 생각을 하면 그 가증스러움에 치가 떨렸다.

장무기는 다음 그림으로 시선을 옮겼다.

두 명의 남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한 명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하고 한 명은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본 장무기는 내심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이제보니 의부님께선 지약이 천리(天理)에 위배되는 짓을 행하는 것을 예민한 청각으로 모두 감지하고 있었군. 그런데 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을까?'

장무기의 두 번째 의문도 곧 풀렸다.

'그렇다. 의부님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십향연근산에 중독된 후였을 것이다. 이미 공력이 상실되어 만약 내색을 한다면 지약의 손에 죽게 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의부님은 한 술 더 떠 그 당시 조민 낭자의 소행이라고 단언하며 일부러 매우 분개해 했던 것이 분명하다. 내가 침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부님은 행여나 무의식중에 기밀을 누설할까 봐 나에게까지 숨겼던 것이다.'

그림에는 군데군데 선혈이 묻어 있었다. 낮에 사손과 성곤이 혈

투를 벌이면서 뿌린 피였다. 그 선혈로 인해 그림의 내용이 더욱 처절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장무기는 다음 그림을 살펴보았다. 이 그림에는 사손이 단정히 앉아 있고 주지약이 그의 등 뒤에서 기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바깥 쪽에서 개방 제자들로 여겨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뛰쳐들어오는 것도 그려놓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민이 대도(大都)에서 벌어진 유황성(遊皇城)놀이에서 사람들을 시켜 분장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장무기가 그 다음 그림으로 시선을 돌리려는데 손에 쥐고 있던 불씨가 다 타버려 별안간 꺼져 버렸다.

장무기는 즉시 땅굴 위쪽을 향해 소리쳤다.

"조낭자, 이리 내려와 보시오. 부싯돌이 필요하오!"

조민은 곧 불을 밝혀 들고 땅굴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그림을 훑어보자 이내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장무기는 불빛을 빌려 마지막 그림을 살펴보았다. 이 그림에는 몇 명의 사나이가 사손을 들고 걸어가는데, 멀리서 한 소녀가 나무 뒤에 숨어 훔쳐보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제 장무기는 모든 그림을 살펴보고 그 내용도 확연하게 알았다.

그림의 필법은 모두 훌륭했으나 사손 한 사람의 모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용모는 뚜렷하지가 않아, 내심 짚이는 바가 없었다면 누가 누군지 전혀 알아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손이 실명했을 때 장무기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사손은 장무기와 주지약, 조민, 주아의 음성만 들었을 뿐 용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당연히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그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장무기는 마지막 그림 중에 나무 뒤에서 훔쳐보는 소녀를 가리

키며 조민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낭자요? 아니면 주지약이요?"

조민은 생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예요. 성곤이 개방으로 가서 사대협을 납치해 소림으로 보낸 뒤 스스로 길목에다 명교의 암호를 남겨 당신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한 거예요. 난 사대협을 빼앗아 오려고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장무기는 새삼 조민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그녀를 의심해 온 것도 죄스러웠다.

장무기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몇 달 동안 자기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은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다.

장무기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격정이 끓어올라 왈칵 그녀를 품안에 껴안았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낭자, 내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소."

그가 갑자기 조민을 껴안는 바람에 불씨가 꺼지고 말았다. 주위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장무기는 자신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 낭자가 총명하고 지혜롭지 못했다면, 이 어리석은 장무기가 경솔하게 낭자의 목숨을 앗아가 천추의 한을 남길 뻔했소."

조민은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당신이 과연 나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당신은 내가 흉수라고 단정했는데 왜 마음을 모질게 먹고 살수를 전개하지 않았죠?"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낭자, 낭자에 대한 나의 감정은 진실한 것이었소. 난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늘 그 감정에 지배되어 온 게 사실이오. 만약 낭자가 나의 누이동생을 죽였다면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을 거요. 그 동안 그 일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해왔소. 이제 진상이 밝혀지니 마음이 홀가분하구료."

조민이 이렇게 가까이서 장무기의 마음을 읽기는 처음이었다. 장무기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조민은 그의 뜨거운 마음이 직접 가슴에 와닿았다.

조민은 짜릿한 희열을 느끼며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웬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행복에 겨워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장무기의 입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거짓없는 감정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려 왔던가.

조민은 장무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 왔다. 부귀영화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혈육의 정마저도 뒷전으로 미루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언승유언(無言勝有言)이란 말이 있듯이 이런 분위기에선 차라리 무언이 더 많은 의미를 대신해 주었다.

어느덧 달이 위치를 바꾸어감에 따라 땅굴의 좁은 입구 위로 그 교교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 희미한 달빛이 두 사람 머리 위로 뿌려지자 비로소 조민은 고개를 쳐들었다.

주위는 죽은 듯 고요했다. 조민이 접한 장무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그 강렬한 눈빛 속으로 자신이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자 조민은 웬지 불안하고 당황해졌다.

그녀는 당황함을 숨기기 위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처음 녹류산장에서 만났을 때 함께 지하로 떨어졌는데 그 상황이 오늘과 비슷하죠?"

장무기의 입가에 한 가닥의 엷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녹류산장 지뢰(地牢)에서, 미륵묘의 북 속에서 있었던 일이 픽픽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장무기는 그녀의 앙증스러운 맨발을 잊을 수 없었다. 본연의 욕망이 다시 그의 가슴 한 구석에서 꿈틀거렸다.

그는 조민의 맨발을 다시 한 번 손에 쥐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젠 망설일 것이 없었다. 장무기는 자신의 욕망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조민의 왼발을 움켜잡고 신을 벗겼다.

조민은 도리질을 했지만 형식에 불과했다. 그녀는 장무기에게 자신의 발을 맡겼다.

장무기는 곧 그녀를 맨발로 만들었다. 손 끝에 닿는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 그의 가슴을 마구 뛰게 만들었다. 옹립(擁立)한 엄지발가락에서부터 발등을 타고 이어진 부드러운 곡선, 오목하게 패인 발바닥, 달걀같이 매끄러운 발뒤꿈치,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조민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연약한 여자라고 해서 멋대로 다루려는 거죠?"

장무기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대꾸했다.

"그대가 연약한 여자란 말이오? 모름지기 열 명의 남자를 합쳐 놓은 것보다 더 무서울 것이오."

조민은 입을 삐쭉거렸다.

"장대교주님의 칭찬에 소녀는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그녀가 장난투로 말하자 두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들이 처음 녹류산장에서 만났을 때도 이와 유사한 말을 주고 받은 기억이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은 적의를 갖고 한 말이지만 지금은 무한한 유정(有情)이 깃들어 있어 금석지감을 느끼게 했다.

장무기는 이제 쑥스러운 감정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는 농이 섞인 투로 말했다.

"내가 다시 발바닥을 간지럽혀도 겁나지 않소?"

조민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겁나지 않아요."

장무기는 즉시 한 손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바닥을 간지럽혔다. 그러자 조민은 간드러지게 웃으며 그의 손에서 발을 빼려 했다.

"호호호..... 간지러워요."

장무기는 그녀가 간지러워 발버둥치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간지럽혔다.

"겁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겠소."

조민은 선 채로 그의 어깨를 밀었다.

"호호..... 이제..... 그만 하세요. 호호.....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녀는 발버둥치다가 그만 대리석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장무기도 그녀의 발을 쥔 채로 쓰러졌다.

이제 조민의 발이 바로 장무기의 코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발바닥을 간지럽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발목을 쥐고 있었다. 조민도 뒤로 쓰러져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되는 것 같았다. 웬지 모르게 이 갑작스러운 침묵이 두 사람은 묘한 감정의 회오리로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정적 속에서 서로 상대방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민은 팔을 뒤로 뻗어 상체를 지탱한 채 다른 한 쪽 발로 그를 밀어내려 했다. 순간, 장무기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며 그녀의 맨발에 얼굴을 묻었다. 조민은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발등에 닿자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조민은 장무기를 안 후로부터 야성(野性)을 지닌 몽고의 여인이 아닌 한인(漢人)의 규녀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왔다. 물론 그녀는 한인의 규방 처녀가 오직 자기가 흠모하는 남자에게만 발을 맡긴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밀폐된 침

실에서 부부만이 행할 수 있는 유희이며 즐거움이기도 했다.

원래 옛부터 여인의 발에 관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은밀한 방사(房事)가 많았다.

청(聽)이라 하여 여인의 발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간(看)이라 하는 여인의 발을 바라보는 행위, 흡(吸)은 여인의 발 냄새를 깊이 들여마시는 것을 뜻한다.

그밖에도 발가락을 아프지 않게 잘근잘근 깨무는 교(咬), 발 전체를 혀로 골고루 핥는 첨(舔), 앙증스러운 발을 통째로 입 안에 넣었다가 뱉으며 그 행위를 반복하는 탄(呑).

그 외에도 기상천외한 유희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발가락 사이에 대추 혹은 기름에 볶은 수박씨를 끼워 놓고 그것을 혀로 밀어내어 먹는 식(食), 발을 따뜻하게 녹여 주는 온(穩), 발을 양 어깨에 얹는 견(肩).

아무튼 여인의 발은 남정네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가장 강렬한 신체 부위로 인식되어 왔다.

유난히 예쁘장한 조민의 발을 접한 장무기의 이성이 차츰 무너져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입술은 발등에서 잠시 머물다가 자리바꿈을 해 갔다. 거기에 따라 조민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다. 장무기의 혀가 발가락 사이를 누비자 그녀는 온몸이 오무라드는 것 같았다.

장무기의 입술은 결코 한 군데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는 본능에 따라 입술을 움직여 갔다. 그 본능은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올라 그의 몸을 불사르고 조민의 몸을 뜨겁게 만들었다.

조민의 신음은 차츰 고조되었다. 간지럽기도 하고 감미롭기도 한 묘한 기분을 무엇이라 형용할 수가 없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기분임엔 분명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는데 따라 옷자락이 흐트러지면서 백옥같은 각선이 드러났다. 살결이 너무 고왔다. 절대적인 힘을 지닌 본능이란 마군(魔君)에 이끌려 장무기는 그녀의 동그스름한 발뒤꿈치를 거쳐 한 치씩 위쪽으로 탐닉해 갔다.

그를 주체해 오던 이성(理性)이 벌써 무너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제 그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본능적 감정뿐이었다.

땅굴 위에서 뿌려지던 희미한 달빛이 갑자기 구름에 가려지자 주위가 칠흑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은 장무기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의 입에서 계속 뜨거운 열기가 뿜어졌다. 그 열기가 땅굴 안을 온통 휘저어 놓았다.

제 5 장 늙은 마두(魔頭)의 음욕(淫慾)

한편, 군호들 사이에서 훌쩍 떠나가 버린 주지약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혼란을 틈타 뒷산 쪽으로 달려갔다. 장무기에 의해 도룡도와 의천검의 의문이 밝혀지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므로 그녀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비록 임종을 앞둔 스승님의 엄한 유명(遺命)이고, 자신이 스승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실천에 옮긴 것이지만 장무기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장무기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기에 그녀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 동안 멸절사태의 유명에 따라 의천검과 도룡도에 숨겨진 비급을 찾아내 새로운 음공(陰功)을 연마하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장무기에 대한 죄의식을 잊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마당에 또 그 망각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려 그녀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간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후회도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스승님의 유명이란 지상과제를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 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음의 부담이 말끔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만하고 적대시해야만 하는 자신이 미웠다.

그렇다고 해서 스승인 멸절사태를 배반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멸절사태는 스승인 동시에 어버이며 은인이었다. 임종을 앞둔 멸절사태의 그 처절하리 만치 강렬한 당부를 생각할 때마다 주지약은 등골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오싹함을 느꼈다. 아울러 멸절사태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당부가 귓전에 되살아났다.

----- 절대 장무기와 혼례를 해선 안된다. 너의 미색으로 그를 유혹해 의천검과 도룡도를 동시에 손에 넣어 본문의 무학을 천추에 빛내야 한다. -----

그것은 주지약에게 있어 더 없는 괴로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승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녀의 진심과는 거리가 먼 약속이지만 한번 한 맹세는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스승님과의 약속을 이행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그 죄의 댓가를 받게 되리라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주아를 죽게 한 일이었다. 그일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언제쯤 자신의 죄상이 밝혀지게 될 것인지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이제 막상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더불어 홀가분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차라리 허탈이었다.

사문(師門), 스승님의 은혜, 자신을 속박해 온 그 모든 것이 일이 이 지경이 된 마당에 자신에게 아무런 위안도 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의 희생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인적이 없는 산길을 홀로 힘없이 걸으며 주지약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당장 장무기에게 다시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또한 이미 작고한 스승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도 느껴졌다.

그녀는 계속 걸음을 내딛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막막한 사막에 자기만이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라온 그녀지만 이렇게 짙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젠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가슴도 구멍이 난 듯 텅 비어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홀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왜소한 그림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허탈상태에서 걷고 있던 주지약은 갑자기 사람을 발견하자 흠칫 놀랐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이미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해 있었다. 평상시라면 주지약의 예민한 감각으로 이런 황산에서 사람이 나타난 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었다.

그녀가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보니 왜소한 사람의 그림자는 추악하게 생긴 꼽추 노인이었다.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턱 밑이 헐어 진물이 흐르며 한 쪽 눈마저 흰자위뿐인 애꾸였다.

인적이 없는 산길에서 추악한 노인이 불쑥 나타나자 주지약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꼽추 노인은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다. 주지약은 웬지 불안을 느끼며 걸음을 멈춘 채 몸을 돌려 꼽추 노인을 지켜보았다. 그녀 앞에 다가온 꼽추 노인은 뜻밖에도 공수의 예를 취했다. 그리고 자갈을 입에 문 듯한 까칠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주낭자가 아니십니까?"

주지약은 멍해졌다.

"그렇습니다만, 노인장은 뉘시기에 저를....."

꼽추 노인은 왼눈으로 그녀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낭자를 찾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구료. 노부는 명교 장교주의 수하로서 주낭자에게 전할 서찰이 있어 황급히 뒤를 쫓아온 것이오."

주지약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상대방이 정말 명교의 제자인지 자세히 생각을 굴릴 겨를도 없었다. 하기야 명교의 교도가 워낙 많으므로 세심을 기울인다 해도 상대방의 진위를 가려내지 못할 것이다.

표정이 굳어지는 주지약에게 꼽추 노인은 징그럽게 웃으며 품속에서 서찰 한 통을 꺼내 건네 주었다.

주지약은 약간 망설이다가 그 서찰을 받았다. 서찰 겉장에 틀림없이 용등호약하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교주가 이 서찰을 나에게 전해 주라고 했단 말인가요?"

꼽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에 제삼자가 없는데도 다소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장교주께서 낭자와 은밀히 나눌 얘기가 있는 모양이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 금방 낭자의 뒤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늙은이더러 미리 서찰을 전해 주라고 분부한 것이오."

주지약은 전신에 한 차례 진동이 일었다. 자기는 분명 아무도 모르게 떠났는데 장무기가 어떻게 자기가 떠난 방향을 알고 사람을 시켜 서찰을 보낸 것일까? 그리고 서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주지약이 속으로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에 꼽추 노인은 다시 공수의 예를 취했다.

"그럼 본인은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만 떠나야겠소."

이 말을 남기고 꼽추 노인은 즉시 신법을 전개해 오던 방향으로 사라졌다. 비록 등이 굽은 꼽추지만 그의 신법을 신속무비했다.

주지약은 명교에 알려지지 않은 고수가 많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며 잠시 제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었다.

그러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뜯어보았다. 서찰에는 겉봉과 똑같은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 금만신시 소실산후 천룡암견 (金晩辛時 少室山後 天龍庵見) -----

오늘밤 신시 소실산 뒤편 천룡암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아래쪽에 천룡암으로 가는 약도와 장무기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천룡사라면 바로 지금 그녀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주지약은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장무기가 자기를 만나려 하는 것은 불문가지, 무인도에서 있었던 일을 문책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장무기는 마주치기가 두려운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설령 장무기가 자기에게 살수를 전개한다 해도 어차피 부딪쳐야 할 사람이다.

장무기가 직접 뒤쫓아오지 않고 수하를 시켜 만날 장소를 약속한 것을 보면 단둘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심산임을 알 수 있었다.

주지약의 망설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을 내렸다.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더라도 장무기와 만나 은원을 해결 하리라고.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키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해왔던가. 하지만 막상 그 각오가 현실로 나타나자 서글픔이 앞섰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힘이 없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머지않아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어둠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다.

물론 그녀는 지금쯤 장무기가 오경초의 주검술을 지켜보고 있으며 서찰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가짜 서찰을 전해 준 꼽추노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를 천룡암으로 유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게 분명했다.

핏빛 놀이 서편 하늘을 붉게 물들인 가운데 주지약은 천룡암 앞에 당도했다.

그녀는 아직도 장무기의 서찰이 가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물론 커다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이왕 부딪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차라리 한시 바삐 장무기를 만나고 싶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장무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신시에 만나자고 했으니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룡암 앞 돌계단을 올랐다. 천룡암은 작은 암자로서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 되었음이 분명했다. 대문은 아미 무너졌고 담벽도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암자 안은 더욱 황량했다. 무성한 잡초가 무릎을 넘고 어디선가 들쥐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음씨년스럽기만 했다.

뜨락 안으로 들어서며 보니, 돌로 세운 병풍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무너져내려 단지 아랫 부분에 새겨진 불(佛)자만이 어렴풋이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돌병풍의 뒤쪽이 바로 암자의 대전(大殿)이었다.

대전 안에서 뜻밖에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비록 등잔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 황폐된 암자의 분위기가 워낙 침침

하여 일찍 등불을 밝힌 것 같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주지약은 당연히 장무기가 먼저 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음..... 벌써 당도해 날 기다리고 있었군.'
주지약은 마음을 굳게 다지며 성큼성큼 대전 안을 향해 걸음을 떼어놓았다. 잡초가 무성한 곳을 지나가자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사삭!
다른 여자라면 질겁을 할 정도로 기분이 나쁜 소리였다. 독사가 풀밭 사이로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이 해골을 파먹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라서, 웬만큼 담이 큰 남자라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것이다.
'날 이곳까지 오게 하고서 어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
주지약은 다소 의혹을 느꼈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바로 이때였다.
푸다닥!
잡초가 무성한 대전 앞쪽에서 난데없이 몇 줄기의 시꺼먼 물체가 허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닌가!
이번에 주지약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몇 마리의 박쥐였다.
'어두운 동굴에 사는 박쥐가 어떻게 이곳에.....'
주지약은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몸을 솟구쳐 사뿐히 대전 앞에 내려섰다. 그 순간 또다시 푸드득 거리며 몇 마리의 박쥐가 잡초 틈에서 날아올랐다.
주지약은 대전 앞에 서서 소리쳤다.
"장교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곳에 왔는데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그녀의 외침소리는 조용한 주위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으나 대

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주지약은 주춤하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대전 안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대전 복판에 놓여 있는 탁자 위에 콩알 만한 등잔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 뒤쪽으로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고, 곳곳에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주지약은 더 이상 자세한 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낡은 탁자 위에 종이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기 대문이다.
 쪽지 위에는 분명 무엇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주위가 어둑어둑하여 무슨 글인지 식별할 수가 없었다.
 '대관절 무슨 속셈으로 이런.....'
 그녀가 생각해 온 장무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이 계속 일어나자 은근히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녀는 천천히 탁자 앞으로 걸어갔다.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쪽지에 적힌 글이 등잔불에 비쳐 똑똑히 시야에 들어왔다. 앞서 받은 서찰과 똑같은 필체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한 번 주지약을 멍하게 만들 만큼 엉뚱한 것이었다.
 ----- 후원(後園)에서 기다리겠소. -----
 주지약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랫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처음부터 나의 기를 꺾으려는 모양이군. 구태여 이럴 필요는 없을 텐데.....'
 그녀는 등잔을 손에 들고 후원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후원으로 가려면 좁고 긴 복도를 지나야만 했다. 복도에도 거미줄과 먼지가 뒤덮혀 있었다. 그런데 먼지가 쌓인 복도에 한 줄기의 발자국이 길게 연결돼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장무기가 남긴 발자국이라 생각했다.
 등잔을 앞세우고 그녀는 복도를 지나 뒷편 뜨락으로 들어섰다. 이곳에도 잡초가 무성했다. 모든 건물이 낡을 대로 낡아 폭삭 주

저앉을 것만 같았다. 눈에 뜨이는 것은 오직 폐허뿐이었다.

후전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주지약은 대전 밖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무도 눈에 띄지 않자 소리쳐 장무기를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입 밖으로 튀쳐나오려던 말을 삼켜 버렸다. 비록 죄를 짓고 있는 입장이지만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

장무기가 대전 안에 있다면 응당히 밖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주지약은 잠시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주지약은 어쩔 수 없이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소리쳤다.

"이봐요 장교주! 대관절 무슨 꿍꿍이속인가요?"

하지만 후전 안은 조용할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주지약은 오기가 생겼다.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어 조심스럽게 후전 안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후전 안쪽 기둥에 제각기 등잔불이 걸려 있어 주위를 환하게 밝혀 주었다.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한복판에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술병과 잔 두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술병 아래에 또 하나의 쪽지가 눌려져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주지약은 발끈했다. 설령 장무기에게 문책을 받아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수모는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부아가 치밀어 앞으로 달려가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 똑같은 필체로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 안주를 구해 올 테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시오 -----

주지약은 울지도 웃을 수도 없었다. 장무기가 이런 장난에 가까운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녀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후전 안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지만 탁자 주위만은 예외였다.

주지약은 끓어오르는 울화를 억제하기 위해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술병의 마개를 열자 그윽한 주향(酒香)이 코 끝에 풍겨왔다. 주지약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심정에선 한 잔 마시고 싶었다. 자신의 불안감을 삭히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이때 그녀의 뇌리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떠올랐다.

'왜 하필이면 날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것일까?'

그러나 그녀는 불길한 생각을 이내 떨쳐 버렸다. 이미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는데 아무려면 어떠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장무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술잔에 술을 가득 따루었다. 술의 빛깔은 벽록(碧綠)색으로 향기가 진했다. 한 잔 마셔보니 입 안 가득히 향기가 감도는 것이 마실 만했다.

주지약이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어두어졌다.

뜨락을 할퀴는 바람이 제법 차가왔다. 갑자기 바람결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주지약은 얼른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다. 과연 어둠을 뚫고 한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주지약은 표정이 굳어졌다. 상대방은 멀리 떨어져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장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흡사 바람에 실리듯 눈깜짝할 사이에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장무기가 아닌 현명이로 중의 한 사람인 녹장객이었다. 실로 뜻밖이었다.

주지약은 대경실색했다. 그녀가 쪽지를 건네받을 때부터 느꼈던 많은 의문이 일시에 풀렸다. 비로소 자신이 함정에 걸려든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녹장객은 그녀를 뚫어지게 주시하며 입가에 징그러운 웃음을 띄었다.

"주낭자, 그 장무기라는 음적이 아니라 이 늙은이가 나타나니

무척 실망하는 눈치군."

주지약은 의자에서 일어난 채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녹장객의 강렬한 눈빛에서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날 이곳으로 유인해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녀가 싸늘하게 다그치자 녹장객은 느긋하게 대꾸했다.

"네가 절세의 무공비급을 수중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서 순순히 그 비급을 내놓아라."

주지약은 어림도 없다는 듯 냉소를 날렸다.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녹장객은 히죽 웃었다.

"네가 신공을 어설프게 배웠다고 해서 우리 형제를 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흐흐...."

그는 징그럽게 웃으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거기에 따라 주지약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오늘의 일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귓전에 녹장객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원래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왜 너를 일부러 이곳으로 유인해 왔는지 아느냐?"

주지약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녹장객이 스스로 말을 이었다.

"그것은 너를 다치게 하지 않고 일단 소유하고 싶어서였다. 계집은 옥과 같은 것이라 티끌만한 하자가 생겨도 그 값어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 말뜻을 알겠느냐?"

주지약은 다소 당황해졌다. 녹장객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게다가 학필옹마저 부근에 도사리고 있을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비급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런데 주지약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녹장객의 다음 말이었다.

"겁낼 것 없다. 너는 이미 합환주(合歡酒)를 마셨을 것이다. 그

술 속에 미약(迷藥)을 풀어놓은 사실을 넌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일단 그 약효가 온몸으로 퍼지면 제아무리 정절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계집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탕녀(蕩女)로 변하게 된다. 하하핫....."

그는 양양하게 광소를 터뜨리며 눈에서는 욕정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주지약은 황급히 진력을 끌어올려 보았다. 별로 막히는 데가 없었다. 그러나 음호혈(陰戶穴)로부터 미미하게나마 한 갈래의 뜨거운 기류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행하게도 그녀가 새로 연마한 무공이 음유(陰)柔한 기운을 위주로 한 것이므로 그 뜨거운 기류를 스스로 억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언제 발작하게 될지 그녀로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단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을 결정했다. 그러기 위해선 기습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냉정하기만 하던 얼굴에 한 가닥의 엷은 미소가 피어오른 것은 바로 이때였다.

"술에다 미약을 풀어넣었을 줄이야 정말 뜻밖이군요. 그 약효가 언제쯤 발작할 것인지 말해 줄 수 있나요?"

녹장객은 본디 남달리 여색을 탐했다. 그는 주지약으로부터 신공 비급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학필옹의 양해를 얻어 내친 김에 자신의 욕심까지 채우려 했던 것이다.

앞서 꼽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가 바로 학필옹이 위장한 것이다.

녹장객은 주지약에게 억지로 미약을 복용시킬 수 없음을 알고, 일부러 이런 과정을 거쳐 주지약으로 하여금 홧김에 스스로 술을 마시게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늙은 생각이 맵다는 말이 있듯이 실로 음흉한 마두였다.

녹장객은 지금 주지약의 반응이 갑자기 부드러워지자 속으로 침

을 꿀꺽 삼켰다. 슬슬 약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했다.
 주지약은 그의 성급한 마음을 부채질하듯 이번에는 눈웃음을 쳤다.
 "당신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격이군요. 당신이 노리는 것이 다 여기에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녀는 마치 상대방을 맞아들이는 듯한 자세로 양팔을 벌렸다.
 녹장객은 앞으로 걸음을 내딛으려다가 주춤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흥분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역시 그는 세심했다. 이제 주지약은 독안에 갇힌 쥐나 다를 바 없으니 구태여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상대방은 미약을 복용했으므로 그 미약의 약호가 나타나면 자연히 자기의 품 안에 안길 것이다. 그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오히려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학필옹이었다. 그는 무의식중에 고개를 돌려 문밖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순간, 팔을 벌리고 있던 주지약이 갑자기 용수철에서 튕겨진 듯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펑! 녹장객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요란한 굉음이 들리며 주지약의 몸이 천장 지붕을 뚫고 나갔다. 역시 그녀의 생각이 적중되었다. 그녀가 서 있던 후전은 건물이 낡을 대로 낡아 몸을 솟구치며 쌍장을 펼쳐내자 지붕이 뻥 뚫리며 기왓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녹장객으로선 실로 뜻밖의 변화였다. 그는 자신이 문 입구 쪽을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에 주지약이 절대 달아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 생각이 빗나간 것이다.
 녹장객은 손아귀에 들어온 떡을 놓칠 리 만무했다. 그는 즉시 뒤따라 그 뚫려진 지붕 위로 몸을 솟구치며 소리쳤다.
 "사제, 계집을 잡아라!"
 지붕을 뚫고 나온 주지약은 생각을 굴릴 겨를도 없이 어둠 속을

향해 몸을 날렸다. 뒤에서 녹장객의 싸늘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힐끗 고개를 돌려본 주지약은 녹장객 외에 또 한줄기의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학필옹임이 분명한 것이라 생각했다.

주지약은 신법을 최고 경지로 전개해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가 달리는 방향은 공교롭게도 장무기와 조민이 함께 있는 그 지뢰(地牢)쪽이었다.

한편, 한창 열기에 싸여 있던 장무기와 조민.

장무기는 그녀의 입술을 빼앗고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이성이 무너지려는 순간, 홀연 서북쪽에서 고함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자 흠칫하며 현실로 되돌아왔다.

조민도 찬물 세례를 받은 듯 활활 타오르던 열화가 순식간에 식어 버리며 벌떡 몸을 일으켜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그녀는 장무기를 쳐다보기가 부끄러웠다.

이때 고함소리가 차츰 가까이 들려왔다.

잠시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던 장무기가 덥석 조민의 손을 잡았다.

"어서 밖으로 나가 살펴봅시다."

그는 조민의 손을 잡은 채 땅굴 위로 솟구쳤다. 고함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살펴보니 세 줄기의 그림자가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그들의 신법은 모두 전광석화같이 빨라 일류 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무기가 언뜻 보기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쫓는 각축전이었다. 두 사람 중의 하나가 갑자기 손을 떨치자 한 줄기의 싸늘한 광채가 앞쪽에서 도망치는 자의 등을 향해 뻗쳐나갔다. 앞서 달리는 자는 즉시 옆으로 피하며 장검을 떨쳤다.

창!

날카로운 금속성이 들리는 가운데 빛줄기를 그리며 뻗쳐오던 물체가 검에 의해 허공으로 높이 튕겨져 올랐다. 그가 멈칫하는 사이에 추격해 오던 또 한 사람이 바싹 따라붙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구름에 가려졌던 반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장무기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바로 현명이로와 주지약이 아닌가!

녹장객은 가까이 따라붙자마자 재빨리 녹장을 사납게 휘둘렀다. 주지약은 황급히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허공에 검광을 뿌려 녹장을 막았다. 달빛을 빌어 그녀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장무기는 흠칫하며 얼른 조민과 함께 나무 위로 몸을 숨겼다.

앞서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주지약의 장검에 의해 높이 튕겨져 오른 물체는 학필옹의 무기인 학취필이었다. 학필옹은 뒤쫓아와 허공에서 떨어지는 학취필을 나꿔잡더니 주지약의 왼쪽으로 내려서서 녹장객과 더불어 좌우협공을 전개했다.

주지약은 이를 갈며 싸늘하게 외쳤다.

"계속 내 뒤를 쫓아와 대관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녹장객이 공격을 펼치며 소리쳤다.

"오늘 장무기가 도룡도와 의천검을 수중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비급은 이미 사라졌다. 그 비급만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장무기는 내심 아뿔싸를 토했다.

'내가 의천검과 도룡도를 수중에 넣었을 때 저 마두들이 숨어서 지켜보았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니.....'

주지약의 외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가 무공 비급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공을 터득한 후에 이미 태워버렸다."

녹장객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냉소를 날렸다.

"네가 신공을 터득했다고?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도룡도와 의천검은 자고로 무림지존이라 일컬어져 왔는데 그 속에 숨겨진 비급이 예사 무공이겠느냐?....."

녹장객은 학필옹과 서로 위치를 바꾸며 계속 떠들어댔다.

"너의 자질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짧은 시일 내에 그 절세 신공을 완전히 터득하진 못할 것이다. 만약 네가 터득했다면 구태여 도망칠 필요없이 벌써 노부 형제를 죽였을 게 아니겠느냐?"

주지약은 아슬아슬하게 학필옹의 공격을 피하며 악을 쓰듯 외쳤다.

"네가 뭐라고 해도 이미 불태워 없앴다. 설령 나를 죽인다 해도 그 비급을 수중에 넣지는 못할 것이다."

학필옹과 녹장객은 더 이상 입씨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허공으로 솟구쳐 독수리가 먹이를 나꿔채듯 덮쳐내렸다.

주지약도 몸을 급속도로 회전시키며 검을 떨치자 그녀의 주위 다섯 자 안이 온통 싸늘한 검광으로 뒤덮였다. 비록 수세에 몰려 있지만 역시 만만치 않았다.

장무기는 그녀의 검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가 신공을 연마한 후 채찍을 사용하는 것은 보았지만 검을 전개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달빛 아래 은빛 뱀이 난무(亂舞)하듯 검초(劍招)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녀는 이대 고수(二大高手)를 맞이해 그런데로 버텨나갔다. 예전의 주지약이라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지약의 검초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따금씩 연출되는 절묘한 변화였다. 허(虛)와 실(實)이 서로 어우러져 변화를 창출할 때마다 녹장객과 학필옹은 흠칫 놀라는 듯했다. 그 반대로 주지약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숨을 돌릴 계기를 만들곤 했다.

순식간에 쌍방은 삼십여 초식을 주고 받았다.

이제 주지약이 펼쳐낸 검막은 둘레 여섯 자까지 뻗쳤다. 갈수록 검초가 더욱 위력적으로 변한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장무기는 그곳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임을 알고 있었다.

주지약이 이러한 타법(打法)으로 쾌속하게 내력(內力)을 운용하는 것은, 달아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장무기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만약 주지약이 계속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내력이 과도하게 허비되어 스스로 지치게 될 뿐 아니라 무리한 공격을 전개하는 도중에 눈꼽만치의 실수를 보이면 즉시 돌이킬 수 없는 위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장무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지약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 순간 만큼은 그녀에 대한 원한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무기는 손에 땀을 쥐며 무의식중에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나갔다.

만약의 경우 주지약을 도우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갑자기,

"야압!"

주지약의 입에서 날카로운 기합이 토해지며 녹장객을 향해 질풍이 몰아치듯 연거푸 삼검(三劍)을 펼쳐냈다.

녹장객은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답게 비록 놀랐으나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옆으로 몸을 뒤틀며 피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학필옹의 쌍필이 수중에서 벗어나 주지약의 등을 향해 날아갔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를 암기로 삼아 던져내는 것은 강호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다.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불의의 기습을 당하는 것

이므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반면, 기습을 전개하는 쪽도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일단 기습이 실패로 돌아가면 무기를 잃게 되므로 오히려 자신이 위경에 처하게 된다. 그야말로 마지막 주사위를 던져 최후의 승부수를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학필옹의 쌍필을 던져내는 순간 장무기는 흠칫했으나 주지약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주지약의 등을 겨냥해 날아가던 쌍필이 갑자기 도중에서 뜻하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줄이야!

창!

맑은 금속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쌍필이 허공에서 서로 맞부딪치며 방향을 꺾어 주지약의 뒷통수와 허리 뒤쪽을 향해 폭사돼 갔다.

뒷통수와 허리 뒤쪽 요후혈(腰後穴)은 모두 급소로서 일단 적중되면 금강신선(金剛神仙)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주지약은 등 뒤에서 쌍필이 허공을 가르는 예리한 파공음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려 피했으나 쌍필이 갑자기 도중에서 맞닥뜨리며 방향을 전환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차하는 찰나 주지약은 뒤통수로 날아오는 학취필을 피했으나 요후혈을 겨냥해 화살처럼 뻗쳐오는 또 하나의 학취필은 도저히 피할 재간이 없었다.

위기일발!

주지약의 뇌리에 죽음의 암영(暗影)이 드리워지는 것과 동일한 시각에 한 줄기의 그림자가 불가사의한 속도로 날아와 그 죽음을 알리는 학취필을 나꿔챘다. 동시에, 학필옹이 잇따라 떨쳐낸 일장을 맞받아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느닷없이 뛰쳐들어 주지약을 사선(死線)에

서 구해낸 장본인은 장무기였다.

그러나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주지약은 미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사신(死神)의 손짓만 의식할 뿐 뇌리가 백지처럼 텅 비었다.

그 틈을 타서 녹장객이 적시에 일장을 전개해 그녀의 아랫배를 적중시켰다. 녹장객이 전개한 것은 그 무시무시한 현명패천장이었다.

"윽!"

주지약의 입에서 외마디 신음이 터지며 즉시 숨이 막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위기를 틈탄 녹장객의 교활한 출수가 결국 싸움을 마무리지은 것이다.

장무기는 주지약이 쓰러진 것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쥐고 있던 학취필을 팽개치며 얼른 주지약을 안아올려 비스듬히 일장 남짓 솟구쳤다. 그리고 분노에 찬 음성으로 호통쳤다.

"이 비겁한 마두들! 무림 선배랍시고 거드름을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겁하게 둘이서 한 사람을 공격하다니 그러고도 낯짝을 들고 무림 동도를 대할 수 있겠느냐?"

녹장객은 가소롭다는 듯 광소를 날렸다.

"으핫핫핫핫.....! 어느 놈이 감히 이 어른신네들의 일을 방해하는가 했더니, 이제보니 장대교주시군, 마침 잘 만났다. 우리의 군주마마를 꾀어 어디다 숨겨 놨느냐?"

장무기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나무 뒤 어두운 곳에서 조민이 스스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우선 장무기로부터 주지약을 받아 안더니 현명이로를 향해 생긋이 웃으며 말했다.

"녹선생, 아직도 나를 못 잊어 오매불망 찾아 헤매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주책을 부린다면 나의 아버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녹장객은 주지약을 탐하려던 것이 발각된 듯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다. 그 수치심을 감추기라도 하듯 그는 버럭 화를 냈다.

"이 요망한 계집, 여지껏 네가 군주라고 해서 흥이야 항이야 해도 들어 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우리 형제는 네 아비와 벌써 인연을 끊었다. 그러니 여양왕도 앞으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할 것이다!"

여양왕부에 예속돼 있을 때는 그런대로 마성(魔性)을 억제하던 녹장객이 이젠 스스럼 없이 그 마성을 드러냈다.

장무기는 녹장객이 주지약에게 독수를 전개하고 더우기 예전의 상전이었던 조민에게 서슴없이 무례한 언동을 발하자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어렸을 때 그들 두 사람에게 현명패천장을 당해 많은 세월 동안 고생해 온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장무기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눈에서 짙은 살기가 뿜어졌다.

"민매(敏妹), 잠시 뒤로 물러나시오. 오늘 저 두 늙은 마두를 단단히 혼내주겠소."

현명이로는 장무기가 빈손인 것을 보자 즉시 무기를 거두고 만반의 응전태세를 갖추었다.

장무기는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

"받아랏!"

대갈일성과 함께 공작전미(孔雀展尾)라는 초식을 쌍장으로 밀어냈다. 이 초식은 태극권법으로서 장세가 뻗쳐나가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 장무기는 이 초식에다 암암리에 구양신공을 주입시켰다.

태극권법, 이 권법은 후세에 이르러 권법의 태두라 일컬어지며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분리돼 널리 퍼져나갔지만, 당시 장삼봉이 창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림에서도 이 장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녹장객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런 음유무력(陰柔無力)한 장세

(掌勢)를 본 적이 없어 일단 당황했다. 어떤 변화가 숨겨져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장무기를 매우 경원시하고 있었다. 그는 감히 정면으로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비스듬히 옆으로 몸을 피했다.

장무기는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게 몸을 돌리며 학필옹을 겨냥해 왼손을 뻗어냈다.

백사토신(白蛇吐信).

이와 동시에 장무기의 오른손이 왼손 손등에 붙여지며 미미한 떨림을 연출했다. 그의 왼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경기(勁氣)가 분명히 뻗쳐나갔다.

학필옹은 거기에 맞서 왼손 식지로 장무기의 장심(掌心)을 허초로 찍으며 오른손으로 호선(弧線)을 그려 장무기의 아랫배를 노렸다.

장무기는 현명이로와 두 차례나 격출한 바가 있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 자신은 도액 등 소림 삼승과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여 무공이 더 한층 증진되어 현명이로를 여유있게 격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실력을 만만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경솔한 마음을 갖지 않고 태극권법을 위주로 하여 잇따라 원을 그려내며 그 원형의 경기(勁氣) 사이로 구양신공을 간간이 구사했다.

싸움은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현명이로는 자신들의 열세를 풍부한 대적 경험으로 보충했다. 역시 고목의 뿌리는 깊었다.

현명이로는 일초 인식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에게서 뻗쳐오는 양강지기(陽剛之氣)가 거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뜨거운 양기가 자신들이 구사하는 현명신장의 음한지기를 차츰 좀먹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획! 획!

무서운 경기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계속 귓전을 때릴 뿐 쌍방은 침묵 속에서 격전을 치루어갔다.

어느새 쌍방은 백여 초식을 주고 받았다.

순간, 장무기의 몸이 광풍에 쏠리는 한 닢 낙엽인양 허공으로 붕 떠올라 아랫쪽을 향해 쌍장을 교차시키며 떨쳐냈다. 새로운 공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허공에 떠 있는 장무기는 우연히 한쪽에 시선이 쏠리며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현명이로가 좌우로 갈라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사뿐히 당에 내려서면서 방금 시선이 쏠렸던 곳을 유심히 살폈다. 그곳에 두 줄기의 검은 그림자가 몸을 떨고 있었는데, 달빛을 빌어 조민과 주지약이라는 것을 대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장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눈꼬리를 치켜올리자 조민과 주지약의 모습이 보다 확연하게 시야에 잡혔다. 조민은 주지약을 안고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곧 주지약을 놓칠 것만 같았다.

장무기는 이내 그 까닭을 깨달았다.

'맙소사, 지약은 녹장 늙은이의 현명패천장을 맞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 모양이군. 그녀 자신도 음한한 무공을 연마한데다가 다시 천하에서 가장 음한하다는 현명패천장을 맞았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된 셈이다. 그 한기(寒氣)가 민매에게까지 전달된 게 분명하다.'

이러한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뇌리를 스치자 장무기는 공격을 최고 경지로 끌어올려 앙연히 녹장에게 밀어냈다.

녹장객은 그의 권법이 급변한 것을 보자 능구렁이답게 정면 대결을 피하고 미끄러지듯 옆으로 몸을 번뜩였다. 동시에 장무기가 왜 갑자기 공격을 서두르게 되었는지 눈치챘다.

그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즉시 소리쳤다.

"사제, 유투(遊鬪)를 펼치게. 주지약 계집의 한독이 발작한 모양이니 녀석에게 돌봐줄 틈을 줘선 안 되네!"

"알았소!"

그는 일단 뒤로 물러서 학취필을 뽑아쥐더니 장무기를 중심으로 하여 원을 그리며 돌다가 통천철지(通天撤地)의 초식을 전개해 학취필로 장무기의 위아래를 찔러왔다.

그는 녹장객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정면 공격보다 측면 기습을 시작했다.

장무기는 그들의 전술 변화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를 날렸다.

"어떠한 형식으로도 너희들을 상대해 주마!"

장무기가 외침과 함께 광풍노도 같은 일장을 떨쳐내자 학필옹은 휘몰아쳐 오는 무지막지한 경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때 녹장객은 자신의 무기인 녹장을 손에 쥐기 무섭게 장무기의 옆구리를 후리며 뻗어왔다.

장무기는 속전속결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연거푸 권법을 변화시켜 소림신승 공성(空性)으로부터 배운 용조금나수(龍爪檎拿手) 삼십 팔식을 펼쳐냈다.

무금식, 고슬식, 포풍식, 포잔식..... 계속 맹렬한 공격이 이어졌다.

녹장객이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이 용조공의 위력은 대단하군. 잠시 후 이 용조공으로 구덩이를 파면 안성마춤이겠다!"

"사형, 구덩이를 파서 무엇한단 말이오?"

녹장객은 교활하게 웃었다.

"주지약 계집이 죽으면 묻어 줘야잖겠느냐?!"

알고보니, 그는 일부러 장무기의 마음을 흐트려 놓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말을 내뱉은 것이다.

한데, 장무기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도 전에 그 자신이 입을 놀리다가 그만 주의력이 분산돼 장무기가 걷어찬 발에 왼쪽 장단지가 적중되었다. 녹장객은 질겁을 하며 몸이 비틀거렸다. 그러나 백전노장답게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녹장을 물샐틈 없이 펼쳐냈다.

장무기는 힐끗 고개를 돌려 다시 조민과 주지약을 살펴보았다. 두 사람은 좀전보다 더욱 심하게 떨고 있었다.

장무기는 염려가 되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소리 높여 외쳤다.

"어떻소?"

즉시 조민의 음성이 들려왔다.

"몸이 자꾸만 차가와져 견딜 수가 없어요!"

장무기는 이내 안색이 변했다. 조민의 떨리는 음성을 들어보니 그녀도 음한지기에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모름지기 조민은 주지약을 도와 체내의 음한지기를 몰아내기 위해 공력을 주입시키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음한지기가 체내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의 공력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주지약의 내력(內力)이 워낙 괴이하여 빚은 불행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장무기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는 좌우 쌍장을 떨쳐 맹공을 퍼부으며 한시바삐 싸움을 매듭지으려 애썼다.

그러나 현명이로는 그의 속셈을 읽고 있는 터라 멀찌감치 떨어져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뜩이며, 단지 시간을 끄는데 주력할 뿐 정면 대결을 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안타까왔다. 그는 다시 조민을 향해 소리쳤다.

"민매, 어서 주낭자를 땅에 내려 놓으시오!"

조민은 당황해 하는 음성으로 외쳤다.

"손.....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장무기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째서.....?"

조민의 울먹이는 듯한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 그녀의 등심에 붙인 손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음성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때 녹장객이 다시 엉뚱한 말을 건네왔다.

"장교주, 저 주낭자는 천성이 악랄해 일부러 자신의 음한지독을 군주에게 전해 주고 있으니 군주가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될 게 뻔하다. 그러니 군주를 살리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을 교환하는 게 어떠냐?"

장무기는 조급한 마음에 다그치듯 물었다.

"교환 조건이 무엇이냐?"

녹장객은 느긋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걸로서 싸움을 끝내는 것이다. 나는 주낭자가 갖고 있는 비급을 얻고, 장교주는 군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장무기는 이내 냉소를 날렸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었다. 현명이로의 무공은 지금 상태에서도 적수를 찾아 보기가 어려운데, 만약 주지약으로부터 무공 비급을 얻어 더욱 음독한 무공을 연마한다면 그야말로 온 무림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광분할 게 아니겠는가!

장무기는 속으로 생각을 굴리며 다시 조민 쪽을 바라보았다. 조민의 아리따운 얼굴이 이미 파르스름하게 변색된 채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장무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녹장객의 제의에 가부를 대답할 겨를도 없어 조민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 즉시 왼손으로 조민의 오른손을 잡아 체내의 구양진기를 주입시켜 주었

다.

녹장객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대뜸 소리쳤다.

"맹공을 퍼붓자!"

그 외침을 신호로 하여 현명이로는 녹장과 한쌍의 학취필을 광풍폭우처럼 전개했다.

장무기는 왼손으로 조민의 체내에 구양진기를 주입시키느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쪽 손만으로 현명이로의 맹렬한 공격을 상대해야 한다. 더군다나 진력을 조민에게 빼앗기고 있어서 위험천만의 상황이었다.

과연 그 위기는 즉각 현실로 나타났다.

찍!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장무기의 왼쪽 바지 가랑이가 학취필에 의해 찢겨지며 선혈로 물들었다.

조민은 본디 주지약의 체내에서 역류해 온 음한지기로 인해 전신의 혈액이 응결되는 것 같았는데, 구양진기가 다시 체내로 유입되자 차츰 그 혈기가 누그러졌다. 그러나 장무기가 다른 한 손으로 현명이로를 상대하자 조민의 체내로 유입되던 구양진기가 약해졌다. 그로 인해 조민은 다시 오한에 시달렸다.

녹장객은 연거푸 녹장을 떨쳐내 장무기의 눈을 노렸다.

장무기는 한 손으로 장력을 뻗어내 맞이하자 학필옹이 때를 맞추어 절묘한 자세로 뒹굴며 왼손에 쥐고 있는 학취필로 장무기의 옆구리를 찍어왔다. 장무기는 피할 여유가 없어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해 학취필의 방향을 바꿔 놓으려 했다. 그러나 조민에게 태반의 공력을 빼앗기고 있는 입장에서 학필옹의 전력이 담긴 학취필을 따돌린다는 것은 무리였다.

순간,

창!

뜻밖에도 금속성이 들리며 학취필이 옆구리를 긁고 지나갔다.

장무기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학필옹의 학취필이 마침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도룡도에 적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장무기는 평상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도액 등 소림삼승과 맞붙을 때 성화령을 사용했던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도룡도를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학필옹의 학필이 공교롭게도 도룡도에 적중되자 장무기는 비로소 도룡도에 생각이 미쳤다.

"얍!"

그는 용이 울부짖듯 일성 기합을 발하며 왼발을 쓸어내 학필옹을 뒤로 석 자 가량 물러나게 만들고는 재빨리 도룡도를 뽑았다. 마침 녹장객의 녹장이 뻗쳐왔으므로 장무기는 도룡도를 맞닥뜨려 갔다.

뚝!

그 즉시 가벼운 소리가 들리며 녹장의 녹두(鹿頭) 부분이 싹뚝 잘려져 나갔다.

녹장객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으앗!"

그가 놀란 외침을 발하는 순간 학필의 쌍필이 파공음을 일으키며 휘몰아쳐 왔다.

장무기의 도룡도가 재차 허공에 수놓아지자 한 쌍의 학취필마저 모두 싹뚝싹뚝 네 동강이로 잘라졌다. 도룡도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현명이로는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장무기는 비로소 자신의 진력을 차분히 조민의 체내에 주입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민은 금방 한독이 제거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지약이 당했던 현명한독이 즉시 말끔하게 씻든 듯 제거되었다.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장무기는 물론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계속 조민의 체내에 구양진기를 주입시키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주지약은 비록 한독이 제거됐지만 간접적으로 조민의 손바닥을 통해 구양진기가 계속 체내로 뻗쳐들어왔다. 그녀가 새로 연마한 것은 구음내력(九陰內力)이었는데, 일단 현명한독이 사라지자 막힘없이 뻗쳐들어오는 구양진기로 인해 애써 쌓아올린 구음내력이 파괴되어 갔다.

주지약은 그러한 사실에 놀라고 당황했다.

알고보니, 그녀는 벌써 정신을 되찾았다. 그 즉시 조민이 자신의 체내에 공력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그녀는 조민이 주입시켜 주는 내력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엉뚱한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어차피 조민의 도움을 받아 체내의 한독을 제거하지 못할바에는 거꾸로 자신의 한독을 조민의 체내로 되돌려 주면 자신의 살 길이 열릴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것은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이지만, 배은망덕한 행위임은 부인할 여지가 없었다. 조민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단지 주지약이 당한 음독이 너무나 심해 자기마저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으니, 영특한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구석이 있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었다.

주지약은 사실 무인도에서 의천검 속에 숨겨진 구음진경을 수중에 넣었지만, 행여나 사손 혹은 장무기에게 발각될까 봐 외떨어진 동굴에서 밤에만 몰래 연마하는 바람에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 자연히 구음진경의 진수를 완벽하게 익힐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현명패천장의 한독을 조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 거꾸로 뻗쳐오는 구양진기에 의해 자신의 구음진기가 자꾸만 소멸돼가자 내심 대경실색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등심에 붙여진 조민의 손을 뿌리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체내에 구양진기가 뻗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조민의 체내에 음한지기를 주입시켰기 때문에, 조민이 안간힘을 서도 그녀의 등심에서 손을 뗄 수 없었지만 이젠 입장이 바뀌어 조민의 손이 구양진기의 강한 점력(黏力)에 의해 등에 밀착돼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기 위해 소리칠 수 없었다. 일단 입을 열면 진기가 흩어져 피를 토하며 숨이 끊어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조민은 차츰 체내의 한기가 사라지며 혈액이 원만하게 유통되자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젠 됐어요. 내 걱정 말고 어서 전력을 다해 현명이로를 상대하세요."

장무기는 그녀가 회복되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그는 곧 구양신공을 거두었다.

주지약은 비로소 강한 점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자 자신이 당한 현명패천장의 음독은 말끔히 씻어졌지만 구음내력이 많이 손실되었다.

그녀는 장무기가 도룡도를 떨치며 현명이로를 상대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을 보자 또 다시 뇌리에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져 오른손 다섯 손가락을 갈퀴처럼 구부려 다짜고짜 조민의 정소리를 향해 내리꽂았다. 뜻밖에도 불의의 살수(殺手)를 펼친 것이다.

이것은 극도의 미움이 자아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 차라리 발악이었다. 장무기가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마음 한 구석엔 그에 대한 미련이 더욱 간절하게 응어리져, 그 고통이 조민에 대한 마음으로 변해 비뚤어진 행동으로 분출된 것이다. 조민을 극

진히 생각해 주는 장무기의 노골적인 행동에서 심한 심적인 자극을 받은 영향도 없지 않았다.

어쨌든 조민은 또 한 차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피할 새도 없었다.

"앗!"

그녀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내질렀다. 정수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목숨을 잃게 되는 줄 알았다.

그 순간 뼈마디가 어긋나듯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며 주지약의 입에서도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오더니 이내 몸을 퉁겨 어둠 속으로 질주해 갔다.

장무기는 조민의 비명에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려 물었다.

"무슨 일이오?"

조민은 자신의 정수리를 만져보더니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장무기는 그녀가 구음백골조(九陰白骨爪)에 의해 심한 상처를 입은 것인 줄 알고 역시 대경실색했다. 그는 도룡도를 떨쳐 현명이로를 막으며 조민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그녀의 정수리를 만져보았다. 손에 축축한 물기가 느껴졌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두개골이 손상되지는 않았다.

장무기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민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위로해 주었다.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니 괜찮을 것이오."

하지만 장무기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주지약이 의도적으로 조민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을 리는 만무했다. 그런데 어째서 찰과상만 입은 것일까?

물론 장무기가 곰곰히 생각하면 의문이 금방 풀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명이로를 상대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다.

사실 조민이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긴 것은 체내에 주입된 구양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주지약은 내력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서 공격한 것이라,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구양진기의 반탄지력에 의해 손목뼈가 삐걱하며 손마디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음을 내뱉었던 것이다.

장무기가 약산 주춤하는 사이에 현명이로가 다시 공격해 왔다.

주지약이 떠나 버리고 조민의 한독이 퇴치된 지금의 상황하에서 장무기는 더 이상 마음의 부담을 느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구태여 도룡도의 위력을 빌려 현명이로를 꺾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진정한 무공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다.

장무기는 즉시 도룡도를 조민에게 건네주고 체내의 진기를 일주천(一周天)시켜 전신에 골고루 퍼지게 하더니 왼손으로 학필옹이 떨쳐온 일장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 놓았다. 드디어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한 것이다.

상대가 상대인 만치 장무기는 건곤이위신공을 제칠단계인 최고경지로 전개하는 한편 구양신공마저 잔뜩 주입시켰다. 이것은 장무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공격인 동시에 내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타법이기도 했다. 모든 일에 표리(表裏)가 있듯이 이 위력적인 공격도 예외는 아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내력(內力)의 안배가 어긋나게 되면 주화입마(走火入魔)가 되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전 조민과 주지약의 한독을 퇴치해 줄 때는 비록 상황이 위급했지만 감히 이러한 타법을 구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건곤이위신공에 말려든 학필옹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녹장객의 어깨에 일장을 후려쳤다.

녹장객은 깜짝 놀라 성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사제, 무슨 짓인가?"

학필옹은 무공이 고강하지만 생각이 우둔한 편이었다. 왕왕 한 가지 일을 갖고 한참 생각해야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창졸간에 묘한 상황이 벌어지자 그 자신도 어리둥절하며 녹장객이 묻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잠깐 장무기가 수작을 부린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일단 자기가 열심히 장무기를 공격하면 사형도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전력을 다해 장무기를 향해 발을 걷어차냈다.

장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왼손을 떨쳐내자, 이번에도 학필옹의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녹장객의 아랫배를 향해 걷어차 갔다. 녹장객은 황급히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자네 미쳤나?"

한쪽에 있는 조민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즉시 소리쳤다.

"잘 하는구요. 학선생, 맞아요! 어서 저 대역무도하고 음탕한 사형을 사로 잡으세요. 그럼 나의 아버님께서 약속한 대로 후한 상을 내릴 거예요."

장무기는 내심 웃음이 나왔다. 조민의 외침에 따라 녹장객과 학필옹이 당혹해 하는 것이 재미있고도 통쾌했다. 그래서 원래는 건곤이위신공으로 학필옹이 녹장객에게 공격을 전개하게끔 하고 다시 녹장객의 공격이 학필옹에게 쏟아지게끔 할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달리했다.

계속 학필옹에게만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해 녹장객을 당혹하게 만들고, 녹장객에게는 태극권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조민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학필옹에게 외쳤다.

"학선생, 아무 염려 마시오.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 음탕한 늙은이를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이오. 여양왕은 이미 학선생을 대장군에 봉하였소!"

조민이 다시 소리쳤다.

"학선생, 당신에게 봉관(封冠)한다는 공식문서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품 속에서 종이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음..... 대원호국양위대장군(大元護國揚威大將軍)에 봉해졌군요. 어서 힘을 내세요!"

장무기는 오른손을 펼쳐내 녹장객을 왼쪽으로 밀어붙였다. 건곤이위신공의 영향을 받은 학필옹의 좌장(左掌)이 마침 녹장객에게 뻗쳐오자 장무기와 더불어 좌우 협공하는 형태가 되었다.

녹장객은 학필옹과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친형제 이상으로 정이 두터웠다. 그래서 학필옹이 자기를 배신하리라곤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학필옹이 거듭하여 자신의 급소를 겨냥하여 공격해 오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부귀영화가 탐나 정말로 날 배신하려는 게 아닌가?"

그가 의심스럽게 묻자 학필옹은 다급해졌다.

"나는..... 단지....."

그가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조민이 다시소리쳤다.

"맞아요! 학선생은 단지 장래를 생각한 것뿐이에요. 언제까지나 강호에서 풍파를 겪으며 살 수 없으니 호국양위대장군이 되어 말년을 부귀영화 속에서 보내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심이잖아요. 사형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신의 행복과 바꿀 수야 있겠어요?"

장무기는 적시에 건곤이위신공을 펼쳐 녹장객에게 허초를 전개하며 학필옹의 장풍을 유인했다.

펑!

학필옹의 장풍은 장무기의 허초를 피하려는 녹장객의 어깨에 적중되었다. 녹장객은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아 즉시 학필옹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호되게 뺨을 얻어맞은 학필옹은 그 즉시 얼굴이 부어오르며 이빨이 여러 개 부러졌다. 그는 나이가 많아 몇 개 남지 않은 이빨

을 귀하게 여겨 왔는데 이렇게 되자 역시 발끈하여 소리쳤다.
"사형, 이럴 수가..... 있소?"
녹장객은 눈에 쌍심지를 키며 맞섰다.
"네가 먼저 출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는 비록 견식이 넓지만 이런 해괴한 위력을 지닌 건곤이위신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차력타력(借力他力)의 수법인데, 그것도 불가능했다. 장무기의 공력으로 학필옹을 꺾을 수야 있겠지만 차력타력의 수법을 전개해 학필옹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장객은 장무기가 암암리에 엉뚱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
학필옹은 자신의 결백을 표명하는데 다급하여 절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 교활한 놈!"
물론 그는 장무기를 겨냥해 한 욕이었다. 그러나 조민이 그 화살일 엉뚱한 데로 돌려 버렸다.
"맞아요! 그는 이제부터 당신의 사형이 아니라 교활한 놈이에요!"
녹장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여지껏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던 학필옹이 스스로의 부귀영화를 위해 자기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살수까지 전개하니 오장육부가 뒤틀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는 눈이 충혈되어 계속 학필옹에게 공격을 전개했다. 학필옹은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없어 몸을 피하며 반격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장무기는 원병(元兵)들이 야습을 가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할 수 없었다.
"학선생, 그럼 이음탕한 늙은이를 맡기겠소!"

그는 발 끝으로 살짝 지면을 찍으며 뒤로 물러나 조민의 손을 잡고 소림사 방향으로 향했다.

현명이로는 서로 초식을 주고 받으며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이때 어둠을 뚫고 조민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학선생, 그 <교활한 놈>을 사로잡는다면 도룡도의 비급을 한 달간 빌려줄 테니 힘내서 싸우세요. 이런 기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녹장객은 더욱 울화가 치밀어 더욱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 두 사람은 같은 스승 밑에서 무공을 배워 실력이 막상막하였다. 일단 둘이 맞붙어 악투를 벌이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소림사로 돌아온 장무기는 조민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민매, 민매가 적시에 품 속에서 종이를 꺼내 보이지 않았다면 녹장객이 속지 않았을지도 모르오."

조민은 생긋이 웃으며 품 속에서 얄팍한 종이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이게 무엇인지 아나요?"

장무기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고개를 내둘렀다.

"모르겠소. 민매가 알아 맞추라는 것은 도저히 알아맞추지 못하겠소."

조민은 얄팍한 종이 두 장을 장무기의 손에 쥐어 주었다.

장무기가 불빛을 빌려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종이가 아니라 매미 날개처럼 얇은 비단이었다. 그곳에 깨알처럼 작은 글자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첫 번째 바단 첫머리에는 무목유서(武穆遺書)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고, 그 내용은 주로 병법으로서 포진술(布陣術)과 용병술(用兵術)이었다.

두 번째 비단 첫머리엔 구음진경(九陰眞經)이란 글이 적혀 있고, 내용은 모두가 신기하고 괴이한 무공의 구결(口訣)이었다. 맨 마지막에는 구음백골조와 철심장(鐵心掌)도 수록돼 있었다.

장무기는 절로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건..... 주낭자에게서 취해 온 것이오?"

조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녀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슬쩍 훔쳐온 거예요. 나는 이따위 음독한 무공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이 무공을 배워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죠."

장무기는 구음진경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문구가 어렵고 뜻이 깊어 퍼뜩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구음진경이 절대 음독한 무학이 아니라는 것을.

장무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에 수록돼 있는 무공은 지극히 심오하여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연마하면 일, 이십 년 후에 틀림없이 대성할 수 있을 것이오. 반면에 만약 속성하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음독한 무공으로 전락할 것이오."

그는 말 끝을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다.

"그 황삼을 입은 낭자의 무공은 분명 주낭자와 뿌리가 같은 것 같소. 그런데 주낭자와는 정반대로 모든 초식이 광명정대하지 않소? 아마 그것이 바로 구음진경의 진면목일 것이오."

조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는 대관절 어떠한 내력(來歷)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 무슨 <신조협려가 영원히 강호에서 모습을 감추다>하고 읊조렸던 기억이 나는데....."

장무기도 역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중에 태사부님을 뵙게 되면 여쭤봐야겠소. 그 어르신네께선 어쩌면 아시는 게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잠시 한담을 나누다가 원병 쪽에서 별다른 행동을 취할 기미가 없냐는 보고를 받고 제각기 잠자리로 들어갔다.
이날 밤, 조민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무기와 땅굴 속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참만에 잠이 들은 그녀는 오색 무지개를 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제 6 장 막을 내린 혈전(血戰)

이튿날 장무기는 일찍 잠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간밤에 원병들은 아무런 거동도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아군의 진영을 살펴보고 나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산 아래를 살펴보았다.
산 아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원병들은 형형색색의 깃발을 펼쳐들고 떼지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끔 진영안에서 호각소리가 잇따라 들려오기도 했다. 권토중래할 새로운 진법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자 마침 조민이 가까이 걸어왔다. 장무기는 반색을 하며 그녀를 불렀다.
"민매!"
조민은 말쑥한 모습이었다. 간밤에 영롱한 꿈이 아직도 가슴에 여울지고 있는지 입가에 달콤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네. 왜 그러죠?"
장무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내둘렀다.
"아.....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불러 보고 싶었소."
사실 그는 조민과 더불어 원병을 퇴치할 방안을 상의할 생각이었다. 조민의 명석한 두뇌에서 묘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녀를 불러놓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조민은 몽고의 귀족이 아닌가. 그녀는 부친과 오라버니와 등을 진 채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 다시 그로 하여금 동족을 죽이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장무기는 주춤하다가 말을 얼버무린 것이다.

조민은 그의 표정에서 생각을 읽을 수 있어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제 고충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어요. 사실 도움이 될 말을 해줄게 없어요."

장무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안에 껴 앉았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어디선가 이름 모를 산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조민에게서 신선한 아침 공기보다 더욱 싱그러운 내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장무기는 조민과 헤어져 공문대사가 따로 마련해 준 자기의 거처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 나무 위에서 살펴본 원병들의 동태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그들은 비록 고강한 무공을 지니지 못했지만 오랜 훈련을 쌓아올린 질서정연한 군기가 있었다.

한데, 군호들에게는 그러한 면이 부족했다.

원병은 어제 첫 번째 공격을 시도하다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쳐 일단 패주했지만 새로운 진용을 구축해 진격해 올 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어제와 똑같은 술책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도저히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방안을 배회하다가 어젯밤에 조민이 준 구음진경을 훑어보았다. 난해한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장무기는 다시 무목유서를 읽어 내려갔다. 몇 줄 읽어 내려가자

우연히 병곤우두산(兵困右頭山)이란 다섯 글자가 눈에 쏙 들어왔다.

병곤우두산(兵困右頭山), 병사들이 우두산에 갇혔다는 뜻이 아닌가. 장무기는 퍼뜩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어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악비(岳飛)가 왕년에 금병(金兵)에게 포위되어 어떻게 위기를 넘겼으며 어떻게 용병술을 전개해 불리했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소상히 적혀 있었다.

장무기는 절로 무릎을 내리치며 소리질렀다.

"하늘이 날 돕는구나!"

그는 곧 무목유서를 갈무리하고 조용히 깊은 사색에 잠겼다. 지금 군호들이 모여 있는 소실산의 상황은 왕년에 악비가 우두산에 갇혔을 때와 틀리지만 불리한 싸움을 승리로 이끈 병법과 묘책은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었다.

악비의 전술은 실로 절묘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의 용병술을 읽고 난 장무기는 내심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묘책이 많았다.

장무기는 곧 손가락으로 찻잔의 물을 찍어 도형을 그리며 악비의 전술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법을 구상해 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의 숫자가 워낙 많으므로 정정당당한 진법으로 승리를 쟁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변칙적인 포진을 하기로 작심한 것이다.

장무기는 곧 대웅보전으로 옮겨가 공문대사로 하여금 군호들을 모두 불러모으게 했다. 삽시간에 각 문파의 인물들이 모두 대웅보전에 모이게 됐다.

장무기는 한복판에 우뚝 서서 주위를 한 차례 둘러보고 난 후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오랑캐 병마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에 다시 대대적인 공세를 펴올 게 분명합니다. 우린 비록 어제 작은 승리를 거두어 오랑캐들의 예봉을 꺾었지만 그들이 만약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벌떼처럼 몰려온다면 막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셔서 염치 불구하고 당분간 통솔권을 쥐게 되었으니, 오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몇 가지 명령을 내려야겠습니다."

군웅들은 일제히 호응을 했다.

"분부에 따를 것이니 어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장무기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좋습니다. 오장기사는 명을 받으시오."

예금기의 장기사 오경초는 즉시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몸을 숙였다.

"분부를 내려 주십시오."

그는 가벼운 흥분마저 느끼고 있었다. 교주께서 자기를 첫 번째 발령(發令) 대상으로 꼽아주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리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있었다. 교주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분부해도 목숨을 걸고 이행하겠다고!

장무기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오장기사는 들으시오. 이 순간부터 본교 예금기 형제들을 이끌고 군기(軍紀)를 맡아 주시오. 어느 영웅호걸을 막론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예금기의 칼과 도끼로 징벌해 주시오. 설령 본교의 원로와 무림에 명망 높은 선배님이시더라도 예외일 순 없소."

오경초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그는 곧 품 속에서 작은 깃발을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받쳐 들었다.

오경초는 강호에서 크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두들 처음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광장에서 오행기가 유감없이 위력을 펼쳐 보인 후로부터 군호들의 생각은 달라졌다.

그들은 오경초의 깃발에 따라 오백 자루의 화살과 장창, 그리고 오백 자루의 단부(短斧=짧은 도끼)가 동시에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아무리 하늘을 날으는 재주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삽시간에 묵사발로 변할 것이니 오경초가 깃발을 펼친 것을 보자 모두 등골이 서늘했다.

장무기가 오경초에게 군기를 맡긴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는 무목유서에서 공감이 가는 한 귀절을 읽었기 때문이다.

치군지도(治軍之道) 엄령위선(嚴令爲先), 군을 다스리는데 있어 지엄한 명령 계통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장무기는 소림에 모인 군호들이 여지껏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자존심을 내세워 타인과 공동협력하는 것을 쑥스러워 했으며 심지어 굴욕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니 개개인이 비록 고강한 무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의 무리로 형성되었을 때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만약 강력한 명령 계통을 확립하지 않으면 그들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훈련이 잘된 몽고병과 겨룰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장무기는 무엇보다도 예금기 장기사로 하여금 군기를 맡으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하달한 것이다.

장무기는 군호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는 대전 앞에 높이 쌓아올린 돌병풍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 돌병풍을 단순에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있으시면 지금 직접 솜씨를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군호들 중에 이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나타냈다.

'빌어먹을, 이런 긴박한 마당에 우리들더러 아무 상관없는 높이뛰기를 하라하니, 장난도 아닐 테고.....'

이때 장송계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뛰어넘을 수 있네."

그는 곧 대전밖으로 나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당파 제운종의 신법을 전개해 돌병풍을 뛰어넘었다. 돌병풍은 이장 남짓쯤 되었다. 장송계의 실력으로선 그 정도의 높이를 뛰어넘는 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뛰어넘지 않아도 그의 경공을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송계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장무기의 요구대로 돌병풍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어 유연주, 은이정, 양소, 위일소, 은야왕 등 일류 고수들도 일일이 장무기의 요구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자 자존심 따위를 내세워 언짢은 기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돌병풍을 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에는 경공술을 과시하기 위해 허공에서 절묘한 변화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백여 명이 돌병풍을 뛰어넘은 후 더 이상 나설 자가 없었다.

군호들은 제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권법과 장법에 뛰어났거나 무기를 잘 사용하는 인물 중에서도 경공이 평범한 자가 있었다. 그들은 이 장 남짓한 돌병풍을 단숨에 뛰어 넘기엔 벅찼다. 그들은 스스로의 단점을 알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돌병풍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았다.

장무기가 대충 파악해 보니 돌병풍을 뛰어넘은 사백여 명 중에

는 소림 승려가 태반을 차지했다.

'소림은 무림 제일 문파로 알려졌는데 과연 소문대로군. 단지 경공술 한 가지만 보아도 다른 문파보다 고수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군.'

장무기는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유이백님과 장사백님, 그리고 은육숙님께선 경공술이 뛰어난 여러 영웅들을 이끌고 우리 전체가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게끔 허장성세(虛張聲勢)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적을 뒷산으로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뒷산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하면....."

이어 장무기는 자세한 전략을 얘기해 주었다.

유연주 등은 입을 모아 알겠노라고 대답하며 그의 명을 받들었다.

장무기의 지시에 따라 유연주 등은 매복과 퇴로 차단, 정면공격, 측면기습을 할 자들을 안배했다.

양소 등은 장무기의 절묘한 계책에 탄복했다. 동시에 빈틈없는 명령 하달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물론 그들은 장무기가 무목유서에 수록된 병법을 응용한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

장무기는 안배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공문방장과 공지신승 두 분께서는, 아미파의 여러분들을 이끌고 사상자를 돌보는 일을 맡아 주십시오."

주지약이 떠나갔기 때문에 아미파의 제자들은 통솔할 자가 없었다. 장무기는 그들이 자기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공문, 공지의 휘하에 귀속시킨 것이다.

과연 장무기의 명령이 하달되자 아미파의 제자들은 묵묵히 명을 받아들이며 이의를 표하는 자가 없었다.

장무기가 다시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의 음성에 웅후한 진

력이 담겨져 있어 마치 거종(巨鍾)을 치듯 찌렁찌렁 울려퍼졌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벼르어 오던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중원의 협사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 오랑캐를 무찌릅시다."
군호들은 일제히 함성을 올렸다. 그들은 장무기의 치밀한 안배와 진지한 격려에 사기가 충천하였다.
곧 이어 열화기의 교도들이 짚단과 장작 따위를 소림사 앞 넓은 공터에 쌓아 올려 불을 질렀다. 삽시간에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후토기는 미리 흙으로 불길을 차단하는 흙벽을 만들어 놓아 불길이 각처 불전에 만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자 수백 칸이 되는 불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라 마치 소림사 전체에 불길이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
한편, 산 아래서 새로운 공격을 서두르고 있던 원병들은 소림사가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자 입을 모아 소리쳤다.
"놈들이 절을 태우고 달아나려 한다!"
"어서 놈들의 퇴로를 차단해라!"
이와 때를 맞추어 유연주가 백 오십여 명의 경공이 탁월한 군호들을 이끌고 소실산 좌측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들이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원병이 이미 요란한 북소리와 더불어 겹겹이 대열을 형성해 추격해 왔다.
군호들은 즉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날아오는 원병의 화살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어 장송계가 이끄는 두 번째 군호들이 산중턱으로 달려 내려오는가 싶더니 사면팔방으로 흩어졌다. 은이정은 군호들을 이끌고 세 번째로 그 역할에 충실했다.
군호들은 모두 등에 큼지막한 봇짐을 둘러메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는 헌 옷가지와 이불, 나무 토막 등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봇짐을 챙겨 달아나는 것처럼 원병의 눈을 속이는 방편인 동시에

화살막이 역할도 톡톡히 해주었다.
 주위에 짙은 연기가 깔려 있어 원병들은 달아나는 군호들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만(二萬) 병력중에 만 명은 추격을 하고 나머지 만 명은 본 진영에 남아 변화에 대비했다.
 이것을 확인한 장무기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양좌사, 역시 오랑캐 장군은 병법에 능통한가 봅니다. 온 병력을 동원해 추격하지 않고 절반 가량이 산 아래 좌진(坐鎭)하고 있으니 일이 복잡하게 되는군요....."
 양소도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글쎄..... 우리의 술책을 눈치챈 게 아닐지....."
 그도 전략이 엉뚱한 결과를 빚어 장무기가 원망의 대상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 모양이었다.
 이때 산 아래서 호각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두 패의 원병 천인대(天人隊)가 좌우로 갈라지며 새로운 공격을 전개했다. 그들은 산 위를 향해 좌우협공을 펼친 것이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르지만 원병들이 몰고 있는 몽고마(蒙古馬)는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쳤다. 게다가 장창철갑(長槍鐵甲)으로 무장한 군사들이라서 그 기세가 호호탕탕했다.
 이 이천(二千)명의 철갑기(鐵甲騎)가 산 중턱까지 진격해 오자 장무기의 손짓에 따라 열화기의 교도들이 부채꼴로 흩어져 잡초속에 잠복했다.
 이천 명의 철갑기가 다시 앞으로 백여 장 가량 전진해 오자 신연(辛然)의 휘파람을 신호로 하여 분통(噴筒)에서 기름이 분출되고 잇따라 불화살이 날아가자 원병들은 이내 불길에 휩싸였다.
 "으앗!"
 몸에 불길이 붙은 원병들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져 뒹굴고 말들도 놀라 길게 울부짖자 삽시간에 아수라장을 연출

했다.

원군은 군기가 엄해 비록 선발대가 실패했지만 후속대는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그들은 호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번에는 삼 개 천인대가 말을 타지 않고 보무도 당당하게 진격해 왔다.

열화기가 화염을 뿜어내자 다시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나머지 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목숨을 걸고 몰려왔다.

그러자 홍수기의 장기사 당양(唐洋)이 흑기(黑旗)를 힘차게 떨쳤다. 순간 독수가 분출되었다. 잇따라 후토기가 독사를 뿌리자 원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비록 수백 명이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 산봉우리까지 진격해 왔으나 예금, 거목 양기에 의해 섬멸되었다.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산 아래서 요란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오 개의 천인대가 거대한 방패를 앞세워 횡대(横隊)로 편성해 천천히 진격해 왔다. 산 위에서 바라보면 흡사 거대한 철성(鐵城)이 이동해 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자 열화, 독수, 독사의 공격으로선 별로 신통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장무기는 거목기로 하여금 거목을 굴려 공격을 시도케 했지만, 몇 차례 구멍이 뚫릴 뿐 역시 원병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공문대사는 그것을 보자 당황해졌다.

"장교주, 군호들을 이끌고 속히 떠나도록 하시오. 중원 무림의 훗날을 위해서라도 원기(元氣)를 보존해야 하오. 오늘 비록 패할지언정 머지 않은 장래에 권토중래를 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당황해 하는 것이 어디 공문대사뿐이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당황해 하고 있는 사이에 홀연 산 아래서 새로운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한 자루의 불화살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이어 산채가 울릴 듯한 함성이 들려왔다.
양소는 크게 기뻐했다.
"교주, 우리의 구원 병력이 당도한 모양이오!"
산 위에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흙먼지가 하늘을 가릴 듯 크게 일고 말굽소리가 뇌성처럼 들리는 것으로 미루어 구원군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장무기가 즉시 소리 높여 외쳤다.
"구원군이 당도했다. 총공격을 합시다!"
산 위에 있는 군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제각기 무기를 떨쳐 아래로 쳐들어갔다.
장무기가 다시 소리쳤다.
"여러분들, 오랑캐의 우두머리부터 노리시오!"
즉시 군호들의 함성이 뒤따랐다.
"오랑캐의 우두머리부터 노려라!"
몽고군은 열 명을 최소 단위로 하여 십인대(十人隊)라 일컬었다. 이들을 지휘하는 자는 십장(十長)이었다. 그 위로 백인대(白人隊), 천인대(千人隊), 만인대(萬人隊)로 편성되어 철저히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것은 곧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질서이기도 했다. 장무기는 그 질서부터 파괴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만약 양쪽 진영이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면 장무기의 의도가 실천에 옮겨지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겹겹의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병이 산비탈길에 흩어져 싸움을 펼치고 있어 한결 수월했다.
원병이 비록 강하다고 하지만 무공에 있어서는 무림 호걸들에 미치지 못했다. 삽시간에 백부장(白夫長)과 천부장(千夫長) 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원군들은 명령을 하달하는 우두머리를 잃자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빚기 시작했다.
장무기 등이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산 아래서 펄럭이는 깃발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남쪽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에는 서(徐)자가 크게 수놓아져 있고, 북쪽 깃발은 상(常)자였다.

서달과 상우춘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본디 회서(淮西)에 있었는데 마침 예남(豫南)으로 돌아왔다가 포대화상 설불득의 전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은 교주가 소실산에 갇히게 된 사실을 알자 즉각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밤을 세워가며 달려온 것이다.

이 무렵 예남 일대는 명교 의군(義軍)과 원군(元軍)이 여러해에 걸쳐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에 땅덩어리를 서로 나누어 갖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서달, 상우춘의 행군이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틀도 채 안 되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서달과 상우춘이 이끌고 있는 교도들은 대부분 많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가 숫적으로도 우세해 달려오자마자 원병을 서쪽으로 몰아붙여 패주케 했다. 실로 엄청난 기세였다. 흡사 밀물이 밀려오듯 원병들의 숫자를 잠식해 갔다.

한편,유연주 등이 이끄는 별동대를 추격해 간 만 명의 원군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유연주, 장송계, 은이정은 경공이 뛰어난 고수들을 이끌고 미리 계획한 대로 서쪽 산곡(山谷)을 향해 질주해 갔다. 물론 중간중간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

골짜기 안으로 원병을 유인한 군호들은 미리 절벽 위에서 드리워 놓은 밧줄을 타고 질서있게 위로 올라갔다. 이제 골짜기 입구만 봉쇄하면 원병은 독 안에 갇힌 쥐나 다름없었다.

이때 원병의 만부장은 비로소 군호의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군호들을 추격하는데만 전념하다가 뒤늦게 주위의 지세를 살펴보니 온통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우르르, 꽝!

마치 천둥번개인양 요란한 소리가 들리며 골짜기 입구 쪽에서 거목과 바윗돌이 굴러떨어져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잇따라 절벽 위에서 열화와 독모래, 독수, 그리고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패주하던 원군 제 이진이 골짜기 앞까지 밀려왔다. 그들은 골짜기가 봉쇄된 것을 보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장무기와 서달이 뒤쫓아와 이 광경을 보고는 모두 안타까와했다. 만약 사전에 연락이 닿았다면 원군 제 이진마저 골짜기 안으로 몰아넣어 한꺼번에 섬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장무기는 원병이 반으로 나뉘어져 군호들을 추격하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구원 병력이 이렇게 빨리 당도 하리라고는 실로 뜻밖이었다.

역시 병법은 쉬운 게 아니었다. 항상 다각도의 가능성까지 참고로 하여 작전을 세워야만 했다. 무목유서에 수록돼 있는 전법은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그 위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었다.

만약 서달과 상우춘이 적시에 당도하지 않았다면 소림이 겁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며, 골짜기 안에 갇힌 원병 제 일진도 제 이진에 의해 구출되었을 것이다.

서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원병을 계속 추격하는 한편 수하들을 시켜 바윗돌을 옮겨오게 하여 골짜기 입구를 더욱 단단하게 봉쇄시켰다. 이어 궁수(弓手)들을 시켜 절벽 위로 올라가 골짜기 안을 향해 화살을 집중 발사하도록 명하였다.

원군들은 절지에 갇혀 반격할 재간이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화살과 독물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몸을 숨기는 게 고작이었다.

얼마 후 상우춘도 수하들을 이끌고 당도했다. 오랜만에 재회를 하는 장무기와 상우춘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상우춘은 상황을 대충 듣고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바윗돌을 치우고 골짜기 안으로 쳐들어가 오랑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게 좋겠소!"

서달은 웃으며 말했다.

"골짜기 안은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니 놈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니, 구태여 우리가 수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오."

상우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찬동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모양이었다.

"직접 쳐들어가 죽이는 게 속시원할 텐데....."

그는 비록 서달보다 나이가 많지만 평상시 서달의 뛰어난 지략에 탄복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장무기는 명령권을 서달과 상우춘에게 맡기고 뒷전으로 물러났다. 서달과 상우춘은 오랜 전투 경험을 살려 적시에 적절한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명령에 따라 명교의 교도들은 달아나는 원병을 추격했다.

이날 밤 소실산 아래에서는 환호성이 진동했다. 명교의 의군과 각 문파의 호걸들은 통쾌한 승리를 자축했다.

군호들은 소림사에서 계속 채식만 해왔기 때문에 자축을 핑계로 하여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오랜만에 오장제(五臟祭)를 치루었다.

술좌석에서 장무기는 상우춘의 건강을 물었다.

"내가 일러준 약방문대로 약을 계속 복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우춘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교주, 염려할 필요 없소이다. 보다시피 이 상우춘은 황소처럼 건강하지 않소이까? 한 끼에 고기 세 근과 밥 여섯 그릇 정도는

간단하게 해치울 수가 있소. 그리고 일단 싸움이 붙으면 사흘 밤낮을 자지 않아도 끄떡없소이다."

그의 말은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무기는 호청우가 왕년에 한 말이 늘 마음의 부담이 되어 그에게 꼭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했다. 그러자 상우춘은 겉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뿐 속으로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서달은 잔에 술을 가득 따루어 장무기에게 권했다.

"교주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 올리겠습니다."

장무기는 단숨에 술잔을 비워 버렸다.

서달이 다시 말했다.

"속하는 평상시에 교주님의 전륜한 무공과 빼어난 인품을 존경해 왔는데, 병법에 있어서도 깊은 견해를 갖고 있을 줄이야..... 실로 본교의 홍복(洪福)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온 한민족의 홍복입니다."

"그것은 너무 과찬의 말씀이오. 오늘의 대승은 두 분의 공로이며 또한 송대(宋代) 충신인 악비가 남긴 무목유서 때문이오. 본인은 아무런 공도 내세울 것이 없소이다."

서달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무목유서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무기는 품 속에서 그 얇은 비단을 꺼냈다. 바로 도룡도에 숨겨져 있던 무목유서였다. 그는 서달에게 건네주며 <병곤우두산> 귀절을 가리켰다.

"한 번 읽어보면 내 말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오."

서달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진지해졌다. 결국 그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무목유서에 수록된 용병술은 실로 우리 같은 범인(凡人)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 심오한 것이군요. 만약 악비 무목공(武穆

公)께서 오늘날까지 살아계셨다면 몽고 오랑캐들은 벌써 중원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목유서를 공손하게 돌려 주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무림지존 도룡보도, 호령천하 막감불종이란 열 여섯 글자에 담긴 참뜻을 난 오늘에서야 깨달았소. 소위 <무림지존>은 도룡도 그 자체의 위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소장된 무목유서를 가리키는 것이었소. 이 병법으로 적을 상대하면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니 결국은 호령천하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룡도의 예리함만으로 어떻게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겠소? 서대형(徐大兄), 이 병법기서(兵法奇書)를 드릴 테니 부디 무목공의 유지에 다라 오랑캐를 몰아내고 한민족의 금수강산을 다시 되찾아 주시오."

서달은 다른 생각을 할 엄두도 없이 놀라움이 앞섰다. 그는 황급히 사양을 했다.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어디서나 발에 채일 돌맹이 만큼이나 하찮은 속하가 어찌 감히 교주님의 이러한 후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무기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서대형,사양하지 마시오. 나는 한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이 병서를 드리는 것이오."

서달은 두 손으로 병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떨렸다.

장무기는 여전히 정색을 하고 말을 계속했다.

"항간에 나도는 말 중에서 <의천불출, 수여쟁봉>이란 두 귀절이 더 있는데 그 또한 깊은 진의가 담겨져 있소. 지금 의천검은 비록 절단되었지만 언젠가는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오. 의천검에도 절세의 무공비급이 담겨져 있기 대문에 그 의천신공(倚天

神功)과 의천검의 위력이 합쳐지면 가히 천하무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오. 도룡도에 숨겨진 병서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되 만약 대권을 잡은 후 국태민안을 돌보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여 폭정(暴政)을 한다면 필시 의천검을 쥔 영웅이 나타나 그 자의 수급을 취할 것이오. 백만 웅병(雄兵)을 거느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해도 의천검의 일격을 피하진 못할 것이오. 서대형, 내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리라 믿소."

서달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감히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다.

"속하, 교주님의 금언을 가슴깊이 새겨 무목유서에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목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공손하게 큰 절을 네 번 올렸다. 무목유서를 남긴 악비 무목공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이어 장무기에게도 재삼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다.

훗날 서달은 과연 빼어난 용병술로 원군을 상대하여 연전연승을 거두어 결국 몽고인을 새외(塞外)로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냄으로써, 대막(大漠)에 위명을 떨치고 일대 공업(功業)을 세웠다.

그리고 소림대첩이 있은 후로부터 중원의 영웅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명교에 귀속하여 장무기의 호령에 따라 움직였다.

명교는 수백 년 동안 사교(邪教)로 멸시와 질타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장무기의 출현으로 인해 중원 군웅들을 호령하는 용(龍)머리의 위치로 부각되었다. 동시에 그것이 한족(漢族)을 중흥하고 대하강산(大河江山)을 되찾는 기틀이 된 것이다.

최종에 이르러 주원장(朱元璋)이 야심을 품고 간교한 음모를 전개해 장무기를 밀어내고 용좌(龍座)에 앉을 때까지 명교의 역할이 지대했다.

주원장은 비록 자신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타인의 공로를

말살하려 했지만 명교의 공로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하여 다른 것은 고사하고 국호를 명(明)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명조(明朝).

명태조(明太祖) 홍무(洪武) 원년(元年)에서 시작하여 숭정(崇禎) 황제가 누루하치의 막강한 세력에 밀려 목매달아 죽을 때 까지 모두 이백 이십 칠년간 중국 대륙을 다스려 왔다.

명교가 없었다면 명조도 없었을 것이다.

군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실컷 마시고 그 동안 쌓인 긴장을 모조리 풀어 버렸다. 이날 오후가 되자 군호들은 공문, 공지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했다. 만약 원군이 보복을 하기 위해 다시 소림을 대거 침공해 올 시에는 군호들이 미리 그들의 동태를 파악해 일제히 소림사로 달려와 돕기로 약속했다.

서달과 상우춘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소규모의 공격쯤은 소림 자체에서도 충분히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유지해 온 소림은 무학의 본산지로서 차츰 그 위치가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무공연마에 더욱 박차를 가해 무학 중흥의 디딤돌로 삼았다.

군호들이 선후로 하여 소실산을 떠났지만 아미파의 제자들은 장문인 주지약의 행방이 묘연하므로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마치 미아(迷兒)처럼 우왕좌왕했다.

장무기는 그들이 측은하게 여겨졌다. 또한 송청서가 들것에 누워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자 앞으로 다가가 정혜사태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송사형의 상세를 살펴봐도 되겠소?"

정혜사태는 냉랭하게 쏘아부쳤다.

"마음에도 없는 자비는 바라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던 주전이 보다못해 욕설을 터뜨렸다.

"빌어먹을! 우리 교주님께서는 너희들 장문인과의 옛정을 생각해 이 송가의 상세를 보살펴 주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문을 배반한 파렴치한 녀석을 누가 거들떠 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고맙다고 생각하기는 커녕 주둥아리를 한 발 정도나 내밀어 심통을 부리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정혜사태는 그의 지독한 욕설에 발끈하여 당장 꾸지람을 주고 싶었으나, 주전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자 또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내뱉을지 은근히 겁이 났다. 입씨름을 벌여 보았자 손해보는 것은 자기일 것이라 판단한 정혜사태는 분노를 억제하며 냉소를 날렸다.

"흥! 우리 아미파의 역대 장문인은 모두 청결한 몸을 끝까지 간직했어요. 주 장문인이 만약 청결을 잃었다면 어떻게 여지껏 장문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어요. 흥! 송청서가 본파에 남아 있으면 주 장문인의 명예를 더럽히게 될 것이니 당장 무당파로 돌려보내라!"

송청서의 들것을 들고 있던 아미파의 두 제자는 즉시 대답을 하고 들것을 유연주 앞으로 들고 가 내려놓았다.

주위에 남아 있는 군호들은 정혜의 말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놀란 것은 역시 유연주였다.

"뭐.....뭣이? 그럼 송청서가 아미파 장문인의 부군이 아니란 말이오?"

정혜사태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흥! 우리 장문인이 이런 파렴치한 자를 반려자로 삼을 리가 있겠어요! 장문인께선 단지 장무기가 변심하여 혼례를 파기하자 홧김에 이 송청서 녀석을 남편으로 삼겠다고 무림에 공포했지만, 흥!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리 장문인께서는 애당초...."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소 흥분한 탓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한쪽에 서서 정혜사태의 말을 듣고 있던 장무기는 넋빠진 사람처럼 잠시 멍해져 있다가 마른침을 삼키며 정혜사태에게 물었다.

"그럼..... 송부인..... 아니 귀파 장문인이 송사형과 부부가 아니란 말이오?"

그는 확실한 것을 알고 싶었다. 주지약과 송청서, 그는 어느 한쪽도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소!"

이때 들것에 누워 있는 송청서가 몸을 한 차례 뒤척거리더니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 장무기 녀석은..... 죽었소?"

정혜사태는 냉소를 날렸다.

"잠꼬대를 하는구나! 그렇게도 장무기를 죽이고 싶으면 죽어 귀신이 된 후에나 방법을 물색해 봐라!"

정혜는 주전에게 당한 것을 공연히 송청서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았다.

은이정은 정혜가 흥분하여 말을 두서없이 내뱉자 아미파의 다른 제자인 패금의에게 나직이 물었다.

"패사매,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 줄 수 있겠소?"

패금의는 왕년에 기효부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그녀는 은이정이 물어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우선 정혜사태의 양해부터 구했다.

"정혜사저, 은육협은 본문과 인연이 깊은 분이니 자세한 얘기를 해드려도 괜찮겠죠?"

정혜는 코를 벌름거리며 상기된 음성으로 말했다.

"인연은 무슨 인연이냐? 인연이 없어도 얘기해 줘야 하고 인연이 있어도 얘기해 줘야 한다. 우리 장문인은 청청백백한 몸이야! 저 송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너희들도 장문인 팔에 순결을 상징하는 수궁사(守宮砂)가 찍혀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모든 무림인에게 알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미의
백 년 전통이 손상될 거야....."

은이정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이 정혜사태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횡설수설하
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

그는 다시 패금의에게 말했다.

"패사매, 정혜사태께서도 윤허를 했으니 어서 소상히 얘기해 주
시오. 나의 송사질이 어떻게 해서 귀파에 투신하게 되었으며 귀
장문인과 어떤 관계가 얽혀 있는지 자세한 것을 알아야 문중으로
돌아가 스승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겠소? 이번 일은 귀파와 무당
의 공동사이니 만치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양파의 우호가 손상되
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오."

패금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송소협의 인품과 무공은 뛰어나 강호에서 찾아보기 드문 인
재임을 잘 알고 있는 바예요. 그는 단지 한 순간 그릇된 생각으
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우리 장문인께선
그가 장무기를 죽여 파혼의 치욕을 설욕해 준다면 정식으로 그와
혼례를 올리겠다고 약속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본파에 투신하여
장문인으로부터 새로운 기공(奇功)을 전수받았어요. 일전 영웅대
회에서 장문인이 갑자기 자신을 <송부인>으로 칭하여 송소협의
아내로 자처하자 본파의 제자들은 모두 매우 의아해 했어요. 그
날 장문인께선 각 문파의 고수들을 굴복시키고....."

주전이 즉시 끼어들었다.

"그것은 우리 교주께서 일부러 양보한 것인데 허풍을 떨고 있
군!"

패금의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본파의 제자들은 그날 밤에야 궁금증을 풀 수 있었어요. 장문
인께서 <송부인>이라 자처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장문인께서

직접 왼팔을 드러내고 팔에 찍혀 있는 수궁사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 수궁사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이 붉었어요. 청결한 저자(妻子)의 몸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장문인께선 일부러 장교주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 송부인이라 자처한 것이라 했어요. 장교주의 무공이 워낙 고강해 자신의 실력으로 당해낼 수 없기 대문에 비상수단을 쓴 것이죠. 그녀는 본파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감수했어요."

패금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낭랑한 음성으로 말을 이어갔다.

"본파의 제자는 남녀로 구성돼 있으며 혼례를 금한다는 문구는 없어요. 하지만 창파조사이신 곽조사 이래 청결을 지키는 처자에게만 가장 심오한 무공을 전수해 주는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가 입문할 때 스승님이 직접 팔뚝에다 수궁사를 찍어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어요. 매년 곽조사의 탄일이면 스승님께서 수궁사를 검사하시곤 했어요. 왕년에 기사저께선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말한 패금의는 아랫 말을 얼버무렸다.

은이정은 그녀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왕년에 기효부는 양소에게 몸을 잃었기 때문에 처녀의 상징인 수궁사가 사라져, 마침내 멸절사태에게 발각당한 것이다.

은이정은 양불회와 부부의 연을 맺은 후 날이 갈수록 정이 두터웠다. 그러나 아직도 기효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맺혀 있었다.

은이정은 자신도 모르게 양소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양소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고개를 돌린 채 소매로 눈물을 찍어 내고 있었다.

패금의는 입술에 침을 바르며 다시 말했다.

"은육협님, 우리 장문인께선 명교 장교주에게 심적인 타격을 주

기 위해 뜻하지 않은 물의를 빚은 것이니 우리로선 송소협의 몸이 하루속히 완쾌되길 바랄 뿐이예요. 은육협께서 문중으로 돌아가시면 장진인과 송소협에게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잘 드려주세요. 저 역시 이번 일로 인해 양파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은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나의 이 사질은 하극상의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 백 번 죽어 마땅하오. 본파에 이러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더 없는 수치요. 그가 일찌감치 죽었으면 오히려 속이 시원하겠소."

은이정은 본디 마음이 여리어 극단적인 말을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데, 송청서가 막성곡을 살해한 죄행이 워낙 통한스러워 저주의 말도 서슴치 않은 것이다.

이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주지약의 비명임에 분명했다. 그 비명에는 극도의 공포가 담겨져 있었다.

창졸간에 들려온 비명소리로 인해 군호들은 절로 모골이 송연해졌다. 대낮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데도 그 비명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진 것은, 그만치 비명소리가 자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주지약은 모름지기 모종의 흉험무비한 변고를 당한 게 틀림없었다. 중인은 비명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장무기와 정혜사태, 패금의는 이미 신법을 전개해 비명이 들려온 쪽으로 달려갔다.

장무기는 주지약의 안위가 무척 염려되었다. 그는 신법을 최고경지로 전개해 숲을 뚫고 나가니, 한 줄기의 청색 그림자가 미친듯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바로 주지약이었다.

장무기는 얼른 그녀에게 달려가며 물었다.

"지약, 어떻게 된 일이오?"

주지약의 얼굴은 짙은 공포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자지러지는

소리로 외쳤다.

"귀신..... 귀신이 날 쫓아왔어요!"

그녀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앞뒤 분간할 겨를도 없이 장무기의 품안으로 뛰어들어 바들바들 떨었다.

장무기는 혼비백산해 하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등을 토닥거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소. 귀신이 있을 리 만무이니 마음을 가라 앉히고 무엇을 봤는지 자세히 말해 보시오."

주지약의 옷은 가시덩굴에 걸려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얼굴과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장무기는 그녀의 찢겨져 나간 소매 사이로 수궁사가 찍혀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워낙 살결이 백옥 같은데다가 수궁사의 붉은 색깔이 선명해 금방 눈에 띄었다. 장무기는 의술에 능통해 처녀의 팔에 수궁사를 찍은 후 순결을 잃지 않는 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수궁사(守宮砂). 바로 처녀성의 상징이었다.

앞서 정혜사태와 패금의의 말을 들었을 때 장무기는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나 지금 직접 그 수궁사를 확인하자 오만가지 생각이 일시에 뇌리를 어지럽혔다.

'송사협의 아내가 됐다고 운운한 것은 사실 무근한 일이었군. 그녀는 무엇 대문에 나를 속였을까? 정말 나의 심기를 흐트러 놓아 천하제일 고수의 명예를 안을 욕심 때문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시험할 생각에서 였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무기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장무기야, 장무기! 이 여자는 너의 누이동생을 살해한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가 처녀든 남의 아내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그러나 주지약이 겁에 질려 떨고 있자 차마 품 안에서 밀어낼 수가 없었다.

주지약은 그의 품안에 안기자 차츰 두려움이 사그라졌다. 현실로 되돌아온 그녀는 장무기의 몸에서 남성의 채취가 풍겨오는 것을 의식했다. 여인의 본능이었다. 장무기의 가슴은 바다처럼 넓고 봄볕처럼 따스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입술을 열었다.

"장교주, 당신이군요."

"그렇소. 나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도 겁에 질려 있소?"

장무기의 말에 그녀는 다시 경황해지며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이때 양소와 위일소, 그리고 정혜사태, 은이정 등도 달려왔다. 그들은 주지약이 장무기의 품에 안겨 흐느껴 오는 것을 보자 서로 눈짓을 하며 슬그머니 물러갔다.

명교와 무당파의 군협들은 모두 장무기가 주지약과 옛정을 되살려 부부로 결합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거기에는 조민에 대한 적대감정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잠재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조민은 지금 그의 곁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몽고의 귀족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장무기가 만약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오랑캐를 몰아내는 지상과제에 차질이 생갈 것이라 생각했다.

주지약은 잠시 흐느끼고 나서 갑자기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날 쫓아온 사람이 없었나요?"

장무기는 멍해지며 대답했다.

"없었소. 대관절 누가 쫓아온다는 거요? 혹시 현명이로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오?"

주지약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날 쫓아오지 않았죠?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요? 날 쫓아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귀신이었으니....."

장무기는 쓴웃음을 지었다.

"청천백일하에 귀신이 있을 리 있겠소? 필시 허깨비를 본게 분명하오."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지약, 며칠 동안 너무 피곤했던 탓일 거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허해지면 허깨비를 보게 된다고들 하오."

주지약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예요. 잘못 볼 리가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라 연달아 세 번이나 봤어요."

그녀는 두려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지 음성이 떨렸다.

장무기는 내심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그녀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도 겁을 집어 먹고 있는지 궁금하여 넌지시 물었다.

"세 번씩이나 무엇을 봤다는 거요?'

주지약은 몸을 가볍게 떨며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고개를 돌려 뒤쪽을 한번 쳐다보았다. 고개를 돌리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장무기를 쳐다보았다. 장무기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온몸에 힘이 쏙 빠져 무너지듯 장무기의 품안에 쓰러졌다.

"나는 나쁜 계집이에요. 모든 게 내가 한 짓이에요. 의천검과 도룡도를 훔치고 은..... 은낭자를 사..... 살해한 것도 나예요. 사대협의 혈도를 찍은 것도 내가 한 짓이었어요. 그러나 송청서에게 몸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내 마음 속엔 오직..... 오직 당신뿐이었어요."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소. 아직도 난 지약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소."

주지약의 양볼을 타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의 스승님이 만안사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선사께서는 도룡도와 의천검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나더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도와 보검을 수중에 넣어 그 속에 담겨진 무학을 연성한 후 본문을 빛내도록 맹세하라고 강요했어요. 나는 추상같은 엄명을 거역할 수 없어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하고 말았어요. 아울러 선사께서는 신검보도를 쟁취하기 위해 당신에게 접근하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나더러 맹세를 하라고 했기에 부득이....."

주지약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한 채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장무기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왕년에 멸절사태가 기효부를 쳐죽인 장면이 새삼 뇌리에 뚜렷이 떠올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멸절사태는 대막에서 명교를 멸망시키겠다고 거의 발악에 가까울 정도로 날뛰었고 직접 의천검으로 얼마나 많은 명교의 교도들을 죽였던가!

심지어 멸절사태는 만안사에서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자신의 도움을 거절했었다. 그것만 보아도 그녀가 명교에 대한 원한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주지약이 그녀의 유명에 다라 장문직을 계승했으니 당시 얼마나 모진 맹세를 강요받았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주지약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여러모로 악랄한 행위를 저질러온 것이다. 스승님의 유명이니 만치 그녀로서는 그 유명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주지약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본디 천성이 너그러워 남의 과실을 쉽게 용서하고 원한을 가슴에 새겨두지 않았다. 더군다나 주지약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바가

있지 않는가!

장무기의 뇌리에 아득한 옛일이 떠올랐다. 처음 한수(漢水)에서 주지약을 만났을 때 자기는 현명패천장의 음독에 의해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어린 주지약은 정성스레 자신을 위해 궂은 시중을 들어주었다. 그 때 주지약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장무기는 잊을 수 없었다. 광명정에서 하태충 부부와 화산파의 고수를 상대해 악전고투할 때도 만약 주지약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벌써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한 은혜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해 온 장무기로선 근래 주지약이 연거푸 취해 온 악랄하고 교활한 행동이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심한 배신감마저 느꼈던 게 사실이었다. 그로 인해 그녀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모질게 다져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움의 감정은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주지약의 본의에서 행한 짓이 아니고, 또한 자기에 대한 깊은 감정 때문에 빚어진 엉뚱한 행동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자기의 품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지약은 한낱 연약한 여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준 여인이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이제 그녀에 대한 원한은 고사하고 장무기는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약, 이제 그대의 진심을 알았소. 내 어찌 그대를 나무랄 수 있겠소? 그런데 무엇을 봤기에 그렇게도 겁에 질렸는지 말해 줄 수 있겠소?'

주지약은 이내 안색이 창백해지며 세차게 고개를 내둘렀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원귀(寃鬼)가 나에게 씌워진 것은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해요. 나의 잘못을 전부 털어놓고 당신에게 용서를 비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산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장무기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원귀가 씌웠다는 걸까? 혹시 개방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귀신으로 위장해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닐까?'
 장무기는 나름대로 생각을 굴리며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주지약은 군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녀는 우선 아미파의 제자들부터 만나보았다. 패금의가 어디서 겉옷을 구해와 그녀의 몸에 걸쳐 주었다. 주지약이 무엇인가 나직하게 당부하자 아미파의 제자들은 일제히 몸을 숙였다.
 이때 산 아래 모여 있는 군호들 중에서 다시 무리를 지어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문과 공지는 정중하게 그들을 전송했다.
 양소와 범요 등은 모두 장무기 곁에 모여 있었다. 장무기도 이곳에 더 남아 있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도 이만 떠나도록 합시다."
 그가 떠나자고 제의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주지약이 공문선사에게 다가가 무엇인가 나직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공문의 안색이 크게 변하며 잠시 굳어져 있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무엇인가 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무엇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기도 했다.
 주지약은 간곡하게 몇 마디 더 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공문선사에게 합장을 했다.
 공문선사는 이내 안색이 엄숙하게 변하며 염불을 외웠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전이 얼른 입을 열었다.
 "교주, 이 일은 아무래도 교주가 나서서 말려야 할 것 같소."
 장무기가 멍해졌다.

"무엇을 말리라는 건지.....?"

주전은 주지약 쪽을 다시 힐끗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주낭자가 속세를 떠나 불문에 귀의하려는 게 분명하오. 만약 그녀가 여승이 된다면 교주는..... 교주는 큰일날 게 아니겠소?"

옆에 있던 양소가 냉소를 날렸다.

"주낭자가 설령 속세를 떠날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소림장문을 스승으로 모실 리가 있겠나? 소림에 여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잘못 짚었네!"

"맞아! 맞아.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주낭자가 소림에 입문할 리가 없지..... 그런데 왜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하는지 모르겠군. 그녀는 아미파의 장문인이니 소림 장문과는 대등한 위치이므로 구태여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을 텐데...."

이때 주지약이 몸을 일으켰다. 공문선사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들었는지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다.

장무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낭자 개인적인 일인 것 같으니 우리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이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조민을 찾았다.

"민매, 이만 떠납시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조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최근 며칠 동안 조민은 늘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붙어다니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한 조민이 갑자기 보이지 않자 장무기는 흠칫 놀라며 물었다.

"조낭자를 보지 못했소?"

순간 그의 뇌리에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뿔싸, 내가 지약을 품안에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한 모양이군. 그래서 내가 지약에 대한 옛정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해 말없이 떠나버린 게 분명하다.'

그는 즉시 사람들을 시켜 조민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자 열화기의 장기사 신연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다.
"교주님, 조낭자가 하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무기는 자신의 생각이 적중된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민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며 오직 나를 위해 숱한 고생을 해 왔는데, 내 어찌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곧 양소에게 말했다.
"양좌사, 나를 대신해 이곳의 일을 처리해 주시오. 아무래도 먼저 떠나야 할 것 같소."
이어 공문, 공지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는 유연주, 장송계, 은이정 등에게도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맨 마지막으로 그는 주지약에게 다가갔다.
"지약, 부디 몸보전하시오.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오."
주지약은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고였던 눈물이 방울방울 굴러 떨어졌다. 장무기는 그녀 곁에 남아 여린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조민을 찾는 일이 더 시급했다. 그는 주지약을 뒤로 한 채 신법을 전개했다.

제 7 장 좌절(挫折)과 세 번째 약속(約束)

장무기는 경공술을 전개해 계속 산 아래로 질주해 갔다. 산길을 따라 줄곧 군호들의 행렬이 보였다. 소림사에서 얼마전에 출발한 각 문파의 사람들이었다.
장무기는 그들과 맞닥뜨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길 옆 숲길을 택해 군호들을 추월했다. 장무기는 갈수록 초

조해졌다.

약 삼십 리 가량 달렸을까, 찾고자 하는 조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느덧 주위에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행인의 모습도 이젠 찾아보기 드물었다. 장무기는 문득 생각을 굴렸다.

'민매는 심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날 피할 생각이라면 필시 큰 대로보다는 으슥한 산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지껏 달려 왔는데도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리가 없다. 아니야..... 혹시 소실산 근방에 숨어 있다가 내가 떠난 후에 반대편으로 간 게 아닐까?'

장무기는 마음이 조급하여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는 허기도 잊은 채 이번에는 가까운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따금씩 높은 나무에 올라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지만 까마귀 떼가 삼삼오오 귀소하는 것만 보일 뿐 사람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장무기는 다시 소실산 뒤쪽으로 돌아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민매,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에 대한 나의 마음은 바윗돌만큼이나 단단하오. 설령 하늘 끝을 뒤져서라도 기필코 그대를 찾아내겠소.'

스스로 마음의 다짐을 확고히 하자 울적했던 기분이 다소 가셨다. 하루종일 뛰어다닌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머지 않은 곳에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나란히 솟아 있는 것을 보고 곧 신법을 전개해 나무 위에 올랐다. 그는 가지가 교차된 곳을 골라 다시 여러 개의 나뭇 가지를 꺾어 가로 세로 얽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었다. 일단 눕자 눈꺼풀이 감기며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어둠 속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달이 중천으로 옮겨갔을 즈음 장무기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이내 잠에서 깨어났다. 분명 수십 장 밖에서 걸음을 옮기는 미약한 소리가 들려왔

다.

장무기는 신경을 곤두세워 시선을 한 곳에 모았다. 달빛을 빌어 한 사람이 날렵한 신법으로 남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왜소한 그림자였다. 아니, 잘룩한 허리와 가냘픈 몸의 곡선으로 미루어 여자임에 분명했다.

장무기는 뛸 듯이 반가와 하마터면 <민매>하고 소리를 지를 뻔 했다. 그는 즉시 뒤쫓아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어 주춤했다.

상대방은 여자임에 틀림없지만 자세히 보니 조민보다 키가 크고 경공신법도 판이하게 달랐다. 분명 조민보다 날렵한 신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혹시 주지약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야밤에 웬 낭자가.... .'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주지약 같지도 않았다. 주지약에 비해서는 신법이 뒤떨어졌다.

장무기는 은근히 호기심이 생겼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야심한데 혼자서 숲속을 뚫고 가는 것일까?'

본디,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장무기였다. 더우기 상대는 여인이 아닌가? 사사로운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어쩌면 저 여인을 통해 민매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민매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면 슬그머니 떠나 버리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민매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단서도 놓쳐서는 아니 된다.'

달빛에 잠겨 있는 울창한 숲은 나무 위에서 넓은 시야로 살펴본 것과 달리 달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어둑어둑했다. 그래도 장무기는 행여나 상대방에게 발각돼 공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까 봐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생면부지의 낭자를 한밤중에 미행하는 것은 결코 떳떳한 일이 못 되었다.
 상대방은 일신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소림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것을 확인하고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저 낭자가 설령 민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도 소림으로 향하는 것으로 미루어 무림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소림을 겨냥해 엉뚱한 짓을 하려는 것이라면 수수방관만 할수 없지.'
 장무기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일단 걸음을 멈추고 주위에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흑의 낭자 외에 혹시 다른 야행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아무런 이상한 소리도 그의 예민한 청각에 잡히지 않았다. 흑의 낭자가 단신 홀몸으로 야행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경과되도록 흑의 낭자는 시종 고개를 돌린 적이 없었다. 장무기는 상대방의 뒷모습이 눈에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 전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혹시 무청영 낭자가 아닐까? 아니면 아미파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다시 몇 리 가량 가자 소림사가 멀리 시야에 들어왔다. 흑의 낭자는 산모퉁이를 돌아 소림사 옆쪽으로 접근해 갔다.
 장무기는 그의 일거일동을 놓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흑의 낭자는 신법을 늦추어 나무와 바윗돌 사이로 몸을 은폐한 채 소림사와 거리를 좁혀가는 것으로 미루어 누구에게 발각될까 봐 매우 조심하는 것 같았다.
 이때 소림사 안쪽에서 목탁소리에 이어 염불 외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모름지기 수백 명의 승인이 일제히 염불을 외는 것 같았다. 주위가 조용한데다가 수백 명의 승인이 동시에 염불

을 외자 가히 천승만기(千乘萬騎)와 같은 장엄함을 연출했다.
장무기는 크게 의아해 했다.
'소림 승인들이 야밤중에 염불을 외우다니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일까? 게다가 수백 명의 승려가 일제히..... 갑자기 무슨 대법사(大法事)를 집례하게 된 걸까?'
흑의 낭자는 날렵한 신법으로 몸을 은폐한 채 다시 십여 장 가량 접근해 가자 대전 옆에 이르렀다. 순간 흑의 낭자가 별안간 대전 아래 돌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네 명의 소림 승려가 손에 계도와 선장을 들고 순시를 하기 위해 다가왔다.
흑의 낭자는 네 명의 승려가 지나간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대전 밖 창문 아래로 사뿐히 몸을 솟구쳤다. 날렵한 신법이었다. 이 신법만 보아도 그녀의 무공이 강호 일류 고수대열에 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혼자서 소림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란을 부리려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가 가장 궁금한 것은 흑의 낭자의 정체였다.
장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숙인채 대전 서북쪽으로 빙 돌아갔다. 그는 아주 묘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명교 교주의 신분으로서 몰래 소림사로 잠입해 들어온 것이 발각된다면 설령 상대방이 눈감아 준다 해도 체면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그래서 유난히 행동에 신중을 기했다.
이때 대전 안에서 염불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장무기는 조심스레 창문 틈을 통해 안을 살펴보았다. 대전 안에는 수백 명의 승인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황색 승포에다 붉은 가사를 걸치고 있었다. 손에 법기(法器)를 들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목탁을 두드리는 자, 합장을 한 채 염불을 외우는 자, 바로 망혼(亡魂)을 초도(超度)하는 법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장무기는 이내 깨닫는 바가 있었다.

'이번 영웅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상돼 그들의 영혼이 극락왕생하도록 법사를 올리고 있는 중이군.'

그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한데 이상하게도 법사를 직접 주재하고 있는 공문대사 옆에 한 낭자가 서 있었다.

순간 장무기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 낭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주지약, 뜻밖에도 그녀였다.

주지약은 눈살을 찌푸린 채 몹시 어두운 표정이었다. 장무기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맞아. 낮에 지약이 공문대사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법사를 간청한 것이군. 아마 자신의 검에 죽은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망혼제를 올리는 모양이군.'

장무기는 천천히 공탁(供卓)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자 또 한번 놀라고 말았다. 공탁에 모셔놓은 영패에 뜻밖에도 <여협은리지영위(女俠殷離之靈位)>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불행한 삶을 살아오다가 끝내 불행하게 생을 마친 은리(주아)를 생각할 때마다 장무기는 가슴이 아팠다. 지금 그녀의 영위를 보자 장무기는 다시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슬픔이 복받쳐 올랐다.

목탁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주지약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나직이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장무기는 신공을 끌어올려 청각을 곤두세우자 그녀의 음성이 어렴풋이나마 들려왔다.

"은낭자..... 저승에서나마 편히 눈을 감으세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그 동안 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장무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주지약은 죄책감으로 인해 몹시 괴로와해 왔던 것 같았다.

삶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꽃봉오리인 채 시들어간 은리, 스승의

유명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혼자 몸부림쳐 온 주지약. 모두가 불행한 여인이었다.

장무기의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날 광명정에서 명교의 교도들이 읊조렸던 노래가 메아리가 되어 다시 뇌리에 되살아난 것이다.

----- 삶의 환희가 무엇이며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가? 모든 게 부질 없는 것 -----

이때 주지약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다가 우연히 시선이 동쪽 창문에 닿자 대경실색하며 소리쳤다.

"앗! 그.....그녀가..... 또 나타났어요!"

그녀의 자지러지는 외침은 비명에 가까왔으므로 주위에 있는 소림 승려들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엄하게 울려퍼지던 목탁소리가 일시에 멎었다.

장무기는 재빨리 그녀의 시선을 따라 바라 보았다. 창호지가 찢어진 그곳에 뜻밖에도 상처투성이의 얼굴이 삐끔히 드러나 있었다. 장무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절초풍하여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얼굴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부종기가 빠진 은리의 얼굴임에 틀림없었다. 이미 목숨이 끊어져 자기 손으로 묻은 은리가 이곳에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으니 장무기가 기절초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무기는 당장 달려가 그녀를 잡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그 상처투성이 얼굴은 이내 사라졌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주지약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되로 쓰러졌다.

장무기는 자신의 행각이 노출되어 소림 승려들로부터 무슨 오해를 사게 되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리 높여 외쳤다.

"주아! 주아!"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더니 즉시 대전을 끼고 돌아 은리가 나타났던 방향으로 신법을 전개했다. 하지만 차가운 달빛에 나뭇 가지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진 채 주위는 조용하기만 할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비록 귀신을 믿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절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넋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주아임에 분명해. 처음부터 뒷모습이 눈에 익다 했더니.... 주아였군. 그렇다면 소림에서 망혼제를 올린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혼백이 나타난 거란 말인가? 정말 그녀는 죽어 원귀가 되어 이승을 떠돌아다니고 있단 말인가?"

소림 승려들이 이때 대전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장무기를 확인하자 모두 표정이 굳어졌다. 그 중에 나이가 많은 노승이 앞으로 다가와 합장을 하며 입을 열었다.

"장교주께서 왕림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해 마중을 하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장무기는 더욱 송구스러워했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소란을 피워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는 곧 대전 안으로 들어갔다. 주지약은 눈을 감은 채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땅에 쓰러져 있는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였다.

장무기가 얼른 그녀에게 다가가 인중혈을 누르고 등을 쓸어주자 비로소 천천히 깨어났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장무기를 보더니 품 안으로 파고들며 소리쳤다.

"귀신! 귀신이에요!"

장무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글쎄.....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소. 이곳에 고승들이 많으시니 필시 원혼을 위로해 줄 것이오."

주지약은 늘 몸가짐이 단정했다. 지금은 너무나 심한 충격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장무기의 품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위의 이목을 의식하자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장무기에게서 떨어지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몸이 계속 떨리는 탓으로 장무기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다.

장무기는 공문 등과 인사를 나눈 후 조금 전에 창밖에 누가 나타났다는 말을 거론하자, 공문 등은 보지 못했으므로 어리둥절해 했다. 그러나 창호지가 찢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주지약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틀림없이 그녀였어요. 이번에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보았소."

주지약의 안색이 더욱 창백하게 변했다.

"정말..... 당신도 보았단 말인가요?"

장무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분명히 나의 사촌 누이동생 은리 은낭자였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지약은 나직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번에는 장무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쓰러지지는 않았다.

주지약은 곧 깨어났다. 장무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그녀를 본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실지 살아 있는 은리를 본 것이오."

주지약은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고개를 내둘렀다.

"아니에요. 그녀는 귀.....귀신이 됐어요."

장무기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줄곧 그녀의 뒤를 다라 이곳 소림사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녀의 걸음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절대 귀신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소."

그는 주지약을 안심시키기 위해 단호히 은리가 귀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자신도 마음 속으로 확신하기가 어려웠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나타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주지약이 확인을 하듯 그에게 물었다.

"정말 그녀의 걸음은 보통 사람과 같았나요? 정말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란 말인가요?"

장무기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처음 흑의 낭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녀가 소림사로 잠입해 창문 틈으로 대전 안을 엿볼 때까지 그 일거일동이 날렵하여 절세 무공을 지닌 고수라는 사실 이외에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다.

장무기는 주지약의 물음에 답하기 앞서 공문대사에게 물었다.

"장문인, 한 가지 알고 싶은 일이 있으니 가르침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정말 그 영혼이 귀신으로 변합니까?"

공문은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다.

"장교주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불(我佛)은 윤회를 중요시하오. 흔히 전생의 업(業)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중생은 지은 바 업에 따라 받게 되는 과보인데, 즉 육도(六道)라고 하오. 천상(天上), 인간(人間), 아수라(阿修羅),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地獄)이 바로 그것이오....."

장무기가 일단 불법에서 말하는 피안(彼岸)의 세계에 대하여 묻자 공문선사는 장황하게 불리(佛理)를 늘어놓았다.

"천상이란 곳은 지혜가 밝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며, 아수라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귀로 태어났던 중생이 불법을 극호한 선행을 쌓은 공덕으로 신통력을 얻어 허공을 자유자재로 다니는 귀신 아수라와 하늘에 있다가 복이 다함으로 아수라로 떨어진 사람 아수라와 기운이 세고 두려움이 없어 싸움을 즐겨하는 아수라와 바다 속에 있다가 아침에 허공을 날아다니다 해가 지면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축생 아수라가 바로 그것이오. 아귀는 본디 죽은 사람이란 뜻이오. 사람이 죽어서 다른 계(界)에 환생하지 못하고 귀계(鬼界)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함이오. 아귀로 태어남은 탐욕을 부리고 질투를 일삼는다든가, 진실을 파괴하거나 불법을 비방한 여러 가지 업으로 아귀보를 받게 되는 것이오. 아귀의 업보가 끝나면 다시 여러 종류의 귀신이 되는데, 그 이전에 업이 다하고 망상을 쉬면 보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오....."

공문선사는 장무기가 명교의 교주라는 것을 감안하여 심오한 불리를 조심스레 들려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무기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승에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오. 그 마음에 따라 귀신도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소."

장무기는 진지하게 공문의 불리를 받아들이며 다시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법사를 행함으로써 유혼(幽魂)을 천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공문은 조용히 합장을 했다.

"좋은 질문이오. 유혼은 초도(超度)가 필요치 않소. 이승에서 심은 업이 저승에서 보를 받게 되므로 선유선보(善有善報), 악유악보(惡有惡報)일 뿐이오. 본문에서 법사를 행하는 것은 생인(生人) 즉 이승에 남이 있는 자의 심안(心眼)을 구함이니 초도를 받

는 것은 바로 생인이라 할 수 있소."

장무기는 이내 깨달음을 얻고 공수의 예를 취했다.

"깊은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야심한데 불청객으로 귀사에 어지러움을 끼쳐 죄스럽습니다."

공문선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장교주는 본사의 대은인으로서 여러 차례 겁난을 구해 주었는데 언제 왕림하여도 결코 불청객이라 할 수 없을 것이오."

장무기는 군승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주지약에게 고개를 돌렸다.

"우린 이만 떠나도록 합시다."

주지약은 망설였다. 불전을 벗어나면 다시 은리의 원귀에 시달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앞섰다.

장무기는 동요하지 않고 그녀에게도 공수의 예를 취했다.

"그럼 내가 먼저 실례해야겠소."

말을 끝낸 그는 대전 밖으로 걸어나갔다. 주지약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다시는 나를 보지 않을 생각인가요? 나도.....함께 가겠어요!"

그녀는 즉시 앞으로 달려나가 장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공문선사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미타불..... 아불의 자비가 있기를....."

소림사에서 멀리 벗어나자 주지약은 장무기에게 바싹 붙어서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아직도 겁에 질려 있음을 알고 손을 꼭 쥐어 주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다. 게다가 몸에서 유향이 은은하게 풍겨왔다. 장무기는 묘한 감정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걸어나가다가 주지약이 장탄식과 함께 먼저 입을 열었다.

"공문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생의 업보를 받고 있나봐요. 우리가 처음 한수에서 만났을 때 장진인의 도움을 받아 목숨

을 부지했는데,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때 알았다면 차라리 한수에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장무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명교 교도들의 노래가 다시 되살아났다.

"삶의 환희가 무엇이며 죽음의 고통은 무엇인지 모든 게 부질없는 것, 애환은 마음에서 생겨나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읊조렸다. 주지약은 힘주어 그의 손을 쥐었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음을 장무기는 느낄 수 있었다.

주지약이 다시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장진인께선 나의 장래를 생각하셔서 아미로 보냈겠지만, 차라리 무당산에 남겨 나를 무당의 제자로 거두어 주셨다면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를 거예요....."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은사께서도 나를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나.....그러나 그 어르신네께선 나더러 명교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당신을 미워하도록 맹세를 강요한 것은..... 도저히.....도저히....."

그녀는 울먹이는 음성으로 변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장무기는 그녀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다. 여지껏 그녀가 행해 온 일은 그 진심과는 상관없는 멸절사태의 유명일 뿐이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괴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장무기는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이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계속 달빛을 받으며 걸었다. 바람결에 짙은 꽃내음이 실려오며 어디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더없이 좋은 밤이었다.

이 좋은 밤에 장무기는 미모의 낭자와 산길을 걸으며 그녀로부터 깊은 정이 담긴 하소연을 듣고 있으니 어찌 가슴 속에 뜨거운 감정이 여울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무인도에서 한독을

제거해 주기 위해 그녀의 몸에 손길이 닿은 바도 있지 않은가. 당시까지만 해도 장무기는 그녀에게 깊은 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으며 일생의 반려자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달랐다. 장무기는 마음이 착잡했다.

주지약은 걸으면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날 호주에서 나하고 혼례를 올렸을 때 무엇 때문에 조낭자가 부르자마자 그녀를 따라 훌쩍 떠나가 버렸죠? 그렇게도 그녀에 대한 감정이 깊은가요?"

장무기는 그녀와 차분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려 했소. 우리 이곳에 앉아 잠시 쉬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말하며 길 한쪽에 보이는 평퍼짐한 바윗돌을 가리켰다.

주지약은 고개를 좌우로 내둘렀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마음이 어지러워 무슨 말이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잠시 걷다가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듣기로 하겠어요."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은채 꽃향기 그윽한 산길을 걸어나갔다. 얼마 정도 걷자 주지약은 그의 손을 잡고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다시 사, 오리 가량 걷자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됐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세요."

그녀는 향나무가 우거진 쪽에서 평평한 바윗돌을 골라 장무기와 나란히 앉았다.

잠시 후 장무기는 조민이 사손의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녀를 따라가게 된 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었다. 주지약은 그의 말에 귀를 귀울이며 침묵을 지킬 뿐 이었다.

장무기는 그녀를 쳐다보며 넌지시 물었다.

"지약,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소?"

주지약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거듭 말하지만 난 죄가 많은 계집이에요. 모든 게 내 운명이에요. 난 자신을 원망할 뿐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장무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사는 복잡미묘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태반인 것 같소.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우린 달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소. 그리고 불행 뒤에는 다시 예기치 않은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 지약,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주지약은 고개를 들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장무기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주지약은 그 맑은 눈망울로 그의 마음에 동요를 불러일으키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진실을 말해 준다고 약속할 수 있겠죠?"

장무기는 힘주어 대답했다.

"좋소. 내 숨김없이 대답해 드리리다."

주지약은 서편으로 기울어가는 달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세상에서 네 명의 여인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은 파사로 간 소조이고, 한 사람은 조낭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그....."

그녀는 마음 속으로 은리를 꼽고 있었으나 은낭자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을 입 밖에 내면 다시 그 원귀가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앞서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 끝을 멈칫하더니 이어갔다.

"만약 우리 네 사람이 모두 무사히 이 땅에 남아 당신 곁에 있다면, 당신은 그 중에 어느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겠어요?"

장무기는 마음에 혼란이 왔다.

"그건..... 그건....."

그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주지약과 조민, 은리, 소조와 함께 배를 타고 출해(出海)할 당시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곰곰히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네 명의 낭자는 모두 나에게 깊은 정을 베풀고 있다. 난 어떻게 해야 옳단 말인가? 내가 그들 중에 어느 누구와 혼례를 올려도 나머지 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 깊숙히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일까?'

그는 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오랑캐를 중원에서 몰아내고 산하를 되찾는 대업을 이룩하기 전에 내 어찌 한 몸 편하기 위해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지금으로선 남녀간의 사사로운 정따위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했다.

'나는 명교의 교주이다. 나의 일거일동은 본교와 무림의 흥망과 모두 관련이 있다. 난 여지껏 하늘을 우러러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여색에 정신이 팔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천하영웅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본교의 명예도 크게 손상을 입힐 것이다.'

그의 생각은 다른 각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어머님은 임종을 앞두시고 분명 나에게 신신당부를 한 바가 있다.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속임수에 능통하니 평생을 두고 경계하라고, 내 어찌 어머님의 유언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의 질문을 회피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기만에 불과했다. 그가 정말로 한 여인을 점찍어 한눈을 팔지 않고 온 마음을 쏟아 사랑했다면 산하를 되찾는 대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명교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자기에게 진심을 보여 준 네 여인 중 어느 누구도 모질게 외면할 수가 없다. 이 여인도 버릴 수 없고, 저 여인도 마음을 써 주어야만 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데만 급급했다.

그는 비록 무공이 고강하지만 사실 성격이 우유부단했다. 모든 일을 모나지 않게 무리없이 해결하려 했다.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건곤이위신공을 연마하게 된 것은 소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명교 교주가 된 것도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은천정, 은야왕 등의 의사에 다른 피동적인 것이었고, 주지약과 무인도에서 혼례를 언약한 것도 사손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혼례를 파기한 것도 또한 조민의 강요에 좌우된 것이다. 만약 왕년에 금화파파와 은리가 무력을 앞세워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빙화도로 함께 가지고 청했다면 십중팔구 그 청을 수락했을 것이다.

그는 때로 엉뚱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다.

'만약 네 낭자와 더불어 화목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시는 원나라 말엽으로써 농공병상(農工兵商) 혹은 선비나 강호 호객, 어느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처사첩(三妻四妾)을 거느리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오히려 조강지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찾아보기 드물 정도였다. 단지 명교는 파사국에서 뿌리가 유래되었듯이 교도들은 근면절약을 생활신조로 삼아 정실 이외에 첩을 거느린 경우가 드물었다.

장무기는 명교의 교주이기 이전에 원래 천성이 착하여 어느 낭자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이면, 그것을 자신의 더없는 큰 복이라 여기며 다시 첩을 맞이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갖는 즉시 지워 버렸다. 아울러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자신을 책망했다.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에게 그런 과욕이 잠재해 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나중에 소조가 파사국으로 떠나 버리고 은리가 세상을 뜨자, 그는 차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은리를 해친 원흉이 조민이라 단정했기 때문에 순리대로 주지약과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데, 하늘의 풍운은 예측할 수 없듯이 인간사도 변화무쌍하여 진상이 밝혀짐에 따라 마음의 결정이 다시 변하게 됐다.

조민과 주지약, 장무기가 그녀들에게 느끼고 있던 선악의 관념이 뒤바뀌어진 것이다. 그는 주지약과 혼례를 올리지 않은 것을 큰 다행이라 생각했다. 만약 혼례를 마쳤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일 것이다.

조민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 혈육과도 등을 돌렸다. 그러한 조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조민이 훌쩍 떠나가 버린 지금 주지약으로부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장무기는 선뜻 단호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주지약은 그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자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묻는 것은 만약의 경우예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겠죠. 소조가 파사국 명교의 처녀 교주가 되었고, 나 또한 은..... 은낭자를 살해했으니 네 명의 여인 중에 조낭자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네 명의 여인이 모두 아무런 변화없이 당신의 곁에 남아 있을 경우에요. 그 때는 누구를 택하겠어요?"

장무기는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변했다.

"지약, 사실 나도 이 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고심해 왔소. 그동안 줄곧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한 게 누구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소."

"그게 누구죠? 조낭자인가요?"

장무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소. 오늘 그녀가 홀연히 내 곁을 떠나 버리자 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충격을 받았소. 그녀가 없는 세상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소. 소조가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난 매우 가슴이 아팠소. 누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슬펐소. 그리고 지약의 일로도 난...... 깊은 충격을 받았소. 그러나 지약,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숨기겠소. 만약 앞으로 다시 조낭자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소. 이런 강렬한 감정은 여지껏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오."

그는 애당초 은리, 주지약, 소조, 조민, 네 사람에 대한 감정이 비슷했었다. 그러나 조민이 훌쩍 떠나 버린 이제서야 그녀가 자기 마음 속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세 여자와 다른 감정이었다.

주지약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대도에서 당신이 조낭자와 주막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한 순간부터 당신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불안했어요. 나는 당신과 혼례를 올림으로써 그녀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하니 그 때 혼례를 올렸다 해도 역시 당신의 마음을 독차지하진 못했을 것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장무기는 웬지 그녀에게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다.

"지약, 난 항상 그대를 존중해 왔소. 은리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꼈고 소조에게는 연민의 정을 가졌었소. 그러나 조낭자에 대한 감정이 가슴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소."

주지약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슴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이라....."

그녀는 장무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역시 당신에게 사무치는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녀의 음성은 격정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껴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약, 나도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소. 당신의 그 고마운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난..... 그저 죄스러울 뿐이오."

주지약은 울적한 심정을 떨쳐 버리려는 듯 길게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나한테 잘 대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어요. 만약 조낭자가 영영 떠나 버려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든가, 누구에 의해 살해되든가, 아니면 변심하여 당신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죠?"

장무기는 그렇지 않아도 조민이 혹시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지약의 말을 듣자 크게 당황해졌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내고 말겠소."

주지약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한 마음이 변할 리가 없겠죠. 당신이 그렇게도 그녀를 간절하게 찾고 싶다면 쉽게 찾아줄 수도 있어요."

장무기는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오? 어서 말해 주시오!"

주지약은 그의 얼굴을 잠시 뚫어지게 주시했다. 장무기의 얼굴에는 조민을 찾을 수 있다는 벅찬 환희가 넘실거렸다. 주지약의 입에서 다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당신은 아마 영원히 나에게는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도 조낭자의 행방을 알고 싶으면 나의 요구를 한 가지 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나더러 무슨 요구를 들어 주라는 거요?"

"지금은 뚜렷이 요구할 게 없지만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어요. 아무튼 협의도에 어긋나지 않고 산하를 되찾는 대업에도 지장이 없으며, 당신과 명교의 명예에도 손상이 없는 일일 테니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장무기는 멍해졌다. 그는 내심 생각했다.

'예전에 민매도 나에게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해 왔다. 역시 협의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난 그녀의 요구를 두 가지 들어주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약까지 그녀를 흉내내어 이런.....'

주지약이 그의 생각을 끊어 버렸다.

"승낙을 하기 싫으면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 승낙을 한다면 대장부답게 때가 오면 그 요구를 응해야 해요."

장무기는 생각을 굴리며 물었다.

"정말 협의도에 어긋나지 않고 오랑캐를 몰아내는데 지장이 없으며, 나와 본교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일이란 말이오?"

주지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장무기는 한시바삐 조민을 만나고 싶은 심정에서 당장 약속을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을 느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주지약이 비록 겉으로 온순해 보이지만 일을 행함에 있어 심지가 깊고 때에 따라 수단이 악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주지약이 나중에 어떤 요구를 해 올지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주지약은 그가 망설이자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보아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이군요. 승낙만 하면 바로 조낭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장무기는 결정을 내렸다.
"좋소. 어서 그녀의 행방을 말해 보시오."
주지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걸어가 무성한 나뭇잎을 헤치자 그곳에 한 소녀가 앉아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바로 조민이었다.
장무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민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주지약과 장무기의 등 뒤 수십여 장쯤 떨어진 곳에서 지극히 나직한 인기척이 들렸다.
"아니.....?!"
분명 여인의 음성인데, 조민의 뜻하지 않은 출현으로 인해 놀란 것 같았다. 그녀는 대관절 누구일까? 장무기는 그녀의 놀란 외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일순 표정이 굳어졌으나 재빨리 생각을 굴리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조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경직돼 있었다.
장무기는 비로소 깨닫는 바가 있었다. 낮에 조민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스스로 떠나간 게 아니라 주지약에 의해 납치된 것이었다.
주지약은 그녀의 혈도를 찍어 이곳에 은폐해 놓은 후 일부러 자기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다. 만약 자기가 주지약의 간절한 마음에 이끌려 그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뜨거운 행동을 취했다면, 조민이 모든 것을 듣고 느꼈을 테니 정말 영영 떠나 버렸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무기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조민의 맥을 짚어보니 기혈이 순조롭게 유통되는 것이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음을 알았다. 장무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달빛 아래 조민은 만면에 행복에 겨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이 한없이 요염하게 느껴졌다. 자기와 주지약의 대화를 그녀는 한 마디도 빠짐없이 들었을 것이다.

장무기가 조민의 혈도를 풀어 주려는데 주지약이 몸을 숙여 그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속삭였다. 그러자 장무기는 나직이 한 마디 대답했다.

순간, 주지약의 입에서 성난 호통이 터져 나왔다.

"장무기, 이제 와서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자세히 보세요! 조낭자는 이미 중독되어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실로 뜻밖의 호통이었다. 장무기는 몹시 놀라며,

"그게..... 사실이오? 정말 독을 당했단 말이오?"

하고 조민의 맥을 다시 짚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주지약이 그의 등을 향해 지풍을 날렸다.

"윽!"

그 즉시 장무기의 입에서 신음이 내뱉어지며 쓰러지고 말았다. 주지약은 다시 장검을 뽑아쥐고 그의 목을 겨냥하며 소리쳤다.

"이렇게 된 이상 당신의 목숨도 살려둘 수 없어요! 나 역시 은리의 원귀로부터 시달림을 받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우리 모두 함께 죽기로 해요!"

이렇게 외치며 다짜고짜 장무기의 목을 겨냥해 찍어갔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변화였다.

이때, 뒤쪽에서 여인의 뾰족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주지약, 은리는 죽지 않았다!"

주지약이 고개를 돌려보니 흑의 여인이 질풍처럼 나무 뒤에서 뛰쳐나오며 장풍을 떨쳐냈다.

주지약은 재빨리 한쪽으로 미끄러지며 몸을 돌렸다. 난데없이

나타난 흑의 여인은 다름아닌 은리였다. 비록 얼굴에 상흔이 얼룩져 있지만 부종기가 빠진 원래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주지약은 뒤로 두 걸음 물러나 검 끝으로 장무기의 가슴을 겨냥하며 소리쳤다.
 "더 이상 접근해 오면 우선 이 사람부터 죽이겠다!"
 은리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그녀는 당황해 하며 말했다.
 "여지껏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냐?"
 주지약은 그녀를 뚫어지게 주시했다.
 "넌 대관절 사람이냐, 귀신이냐?"
 은리는 힘주어 대꾸했다.
 "물론 사람이다!"
 그녀가 자신이 사람이라고 시인하기 무섭게 장무기의 입에서 격동에 찬 일성이 터졌다.
 "주아!"
 그는 펄쩍 몸을 솟구쳐 은리를 껴안았다.
 "주아,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가?"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은리는 흠칫 놀랐다. 그녀는 장무기의 팔을 뿌리치려 했으나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주지약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겠지?"
 그녀는 몸을 돌려 조민의 혈도를 풀어 주고 추혈과궁 수법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유통하게끔 해 주었다.
 조민은 그녀에게 혈도가 찍혀 한참동안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하여 처음에는 짜증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장무기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말을 실토하는 것을 듣자 그 분노가 환희로 바뀌어졌다.
 한편 은리는 눈을 곱게 흘겼다.
 "어서 손을 놓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추

태예요?"

장무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주아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 기쁨을 어떻게 형용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그런데..... 대관절 어찌 된 일인지.....?"

은리는 대답을 하기 앞서 장무기의 얼굴을 뜯어보듯 이리저리 유심히 살피고 나서 갑자기 귓바퀴를 꼬집었다.

장무기는 고통으로 인해 하마터면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은리는 앙칼지게 말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못난이, 나를 땅 속에 생매장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아나요?"

이렇게 말한 그녀는 장무기의 가슴을 주먹으로 호되게 때렸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으로 몸을 호위하지 않고 연거푸 삼권을 맞았다. 가슴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으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주아, 난 정말 주아가 죽은 줄만 알았어.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알아? 어쨌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으니 정말 기쁘군. 오직 하늘에 감사할 뿐이야."

은리는 여전히 토라진 음성으로 말했다.

"하늘은 당신처럼 무심하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숨이 끊어졌는지 똑똑히 확인도 하지 않고..... 당신은 내가 추하게 생겨 진작부터 죽여 없어지길 바랬겠죠? 그래서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땅 속에 묻은 거죠? 이 양심없는 못난이, 비겁장이!"

그녀는 계속 억지를 쓰고 욕을 섞어가며 장무기를 몰아부치는 게 예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장무기는 헤벌쭉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욕을 들어도 마땅하지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다니..... 당시 주아의 얼굴이 피투성인데다가 호흡이 멎었기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어....."

은리는 펄쩍 뛰며 다시 그의 귀를 잡아 비틀려 했다. 장무기는 얼른 몸을 피하며 공수의 예를 취해 용서를 빌었다.

"주아,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줘."

은리는 냉랭하게 말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날 땅 속에서 깨어나 보니 주위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돌에 깔려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생매장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돌로 덮어 놓았죠? 흙으로 덮었다면 숨이 막혀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죽었다면 이렇게 당신 앞에 나타나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 좋았을 게 아니겠어요?"

장무기는 후 하고 한숨을 불어냈다.

"다시 하늘에 감사를 드려야겠어. 당시 흙으로 덮지 않고 돌을 올려 놓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군."

그는 감격을 금치 못하며 한 쪽에 있는 주지약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은리는 냉소를 날렸다.

"당신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흥! 저 여인을 쳐다보지 말아요!"

"왜 쳐다보지 말라는 거지?"

"그녀는 나를 죽인 흉수인데 왜 쳐다보는 거죠?"

잠자코 있던 조민이 이때 불쑥 입을 열었다.

"죽지 않고 이렇게 정정히 살아 있는데 어떻게 흉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은리는 차갑게 쏘아붙이듯 말했다.

"난 이미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 그녀는 한 차례 살인 흉수가 되었던 거예요!"

장무기가 나섰다.

"주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야. 자, 여기 편히 앉아 죽음에서 되살아난 경과를 자세히 얘기해 주

지 않겠어?"
 은리는 눈을 흘겼다.
 "우리라뇨? 내가 묻겠는데, 당신이 말한 <우리>는 대관절 몇 사람이 포함돼 있는 거죠?"
 장무기는 멋적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곳에 네 사람밖에 없으니 물론 나와 주낭자, 조낭자를 포함해서 말한 거야."
 은리는 다시 코웃음을 쳤다.
 "흥!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쩌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주낭자나 조낭자도 진심으로 기뻐할까요?"
 주지약이 얼른 그녀의 말을 받았다.
 "은낭자, 그날 난 나쁜 마음을 먹고 낭자를 해쳤지만, 그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매일 밤 꿈에도 당신의 혼백이 나타나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나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낭자가 이렇게 무사한 것을 보니 기쁨을 뭘로 형용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한 걸로 생각하고 싶어요."
 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는군요. 난 원래 당신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정녕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만 두겠어요."
 주지약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흐느꼈다.
 "나..... 나는 낭자에게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은리는 원래 고집이 대단해 한 번 마음먹은 일을 좀처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자존심이 매우 강한 주지약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마음이 누그러져 얼른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주언니, 이미 지난 일이니 나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겠어요. 어쨌든 난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주 언니가 내 얼굴에 상처를 내는 바람에 부종기가 독혈(毒血)에 섞여 모두 흘러나와 이렇게 멀쩡해지기도 했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주지약은 그저 죄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장무기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와 의부님, 그리고 주낭자는 섬에 오래 머물렀는데 주아는 무덤에서 나온 후 어째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

은리는 다시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꼴이 보기 싫었어요. 당신이 주낭자와 밀어를 속삭이는 것을 듣고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아나요? 흥! <앞으로 난 모든 걸 바쳐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는데.....>"

은리는 장무기의 말투를 흉내내더니 다시 주지약의 음성을 모방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당신은 나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진 않겠죠?>"

은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남자의 음성을 흉내내었다.

"<지약, 당신같이 온순하고 현숙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저지를 리가 있겠소? 설령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난 좋게 타이르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손으로 서편의 달을 가리켰다.

"<하늘의 달님이 우리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 줄 거예요.>"

알고보니, 그날 밤 장무기와 주지약이 정답게 밀어를 나누는 것을 은리가 전부 엿들은 모양이다. 은리가 당시 두 사람이 나누었던 말을 일일이 들추어 내자 주지약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장무기는 멋적어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장무기가 조민을 힐

끗 쳐다보니 그녀는 화가 치밀어 얼굴이 푸르락누르락했다.

장무기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간 조민은 손을 젖히며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세게 꼬집었다. 장무기는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은리는 품 속에 손을 넣어 길쭉한 나무 조각을 꺼냈다. 그것을 장무기에게 내보이며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장무기는 물론 알고 있었다. 그 나무 앞면에 <애처은리지묘>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그 당시 자기가 은리의 무덤 앞에 세워놓았던 나무 묘비의 일부분이었다.

은리가 한스럽게 말했다.

"나는 무덤 속에서 나와 이 나무 조각을 보고 어리둥절해졌어요. 묘비 아래 장무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당신과 주낭자의 대화를 듣고 비로소 증아우가 바로 장무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교활하고 비겁한 사람! 그 동안 용케도 나를 속여왔군요!"

이렇게 말하며 나무토막으로 다짜고짜 장무기의 머리를 내리쳤다. 탁! 하는 소리가 들리며 나무조각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사방으로 튕겼다.

조민이 성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왜 걸핏하면 이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죠?"

은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내가 그를 때리니까 가슴이 아픈 모양이군."

조민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 사람은 계속 양보하고 참고 있는 것이니 자중을 하세요."

은리는 코웃음을 쳤다.

"자중하라고? 흥! 자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방금 묘비에 새겨진 글을 보지 못했나요? 분명히 애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그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난 당신과 이 못난이를 놓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 호접곡에서 내 손등을 깨물은 작은 장무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못난이의 이름이 증아우든 장무기든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그 장무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장무기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우 오빠, 당신은 줄곧 나에게 잘해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난 마음을 이미 그 쌀쌀맞고 흉악한 작은 장무기에게 주었어요. 당신은 그가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요.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무기는 멍해졌다.

"내가 분명 장무기이거늘, 어째서..... 어째서....."

은리는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우 오빠, 당신은 몰라요. 서역 대막에서 우리 둘은 공생공사, 동고동락을 했고, 해외 작은 섬에서 당신은 인으로서 나를 대해 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만큼은 분명히 명심해 주세요. 난 이미 그 작은 장무기에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를 찾아가야겠어요. 기어코 그를 찾아내고 말겠어요.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 예전과 같이 나를 때리고 욕하고 깨물까요?"

이렇게 혼잣말처럼 씨부렁거리더니 장무기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나갔다.

장무기는 문득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어렸을 때 가슴 속에 새겨놓은 장무기의 환영(幻影)일 뿐 이미 어른으로 성장한 장무기가 아니었다.

장무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착

잡했다. 슬픔, 아쉬움, 적막함이 한데 어우러져 그의 심저(心底)에 여울져 퍼졌다. 그는 은리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은리는 호접곡의 그 어린 소년을 영원히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 소년을 찾아나선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벌써 그 소년을 찾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 소년은 바로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 속에 고이 간직한 사랑, 그것은 어쩌면 실지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랑보다 더욱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주지약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나 때문에 그녀가 넋빠진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장무기는 달리 생각했다.

'그녀가 환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신이 맑은 사람보다 그녀처럼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모르지.....'

한편 조민의 생각은 각도가 달랐다. 은리는 떠났지만 주지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은리는 죽지 않고 사손도 무사하며, 의천검과 도룡도에 숨겨졌던 비급도 도룡도와 함께 장무기에게 되돌아갔다. 이제 주지약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물론 송청서는 그녀로 인해 막성곡을 죽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송청서가 저지른 죄악일 뿐, 주지약은 사전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한 사주한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무기가 이미 그녀와 혼례를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장무기는 신의를 중시하는 위인이므로 주지약에게 큰 잘못이 없는 한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지약이 몸을 일으켰다.

"우리도 이제 떠나요."
조민이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주지약이 답했다.
"조금 전 내가 소림사에 있을 때 팽화상이 교주를 찾아온 것을 보았어요. 명교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장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내심 다급해졌다.
'내가 남녀간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교내의 대사를 그릇치는 게 아닐까?'
그는 서둘렀다.
"어서 가 봅시다."
세 사람은 곧 신법을 전개해 얼마 후 명교 교도들이 야영을 하고 있는 곳에 당도했다.
양소, 범요, 팽화상 등은 사람을 시켜 도처로 교주를 찾아 다녔는데, 그가 돌아온 것을 보자 내심 의아해 하기도 했다.
장무기는 얼른 물었다.
"팽대사, 나를 찾아다닌 모양인데, 교내에 무슨 일이 생겼소?"
팽화상은 주지약과 조민의 눈치를 살피며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주지약은 얼른 조민의 손을 잡았다.
"우린 저쪽으로 가죠."
조민도 자리를 피할 필요성을 느껴 그녀와 함께 한쪽으로 물러갔다.
팽영옥은 그녀들이 멀어지자 비로소 입을 열었다.
"교주께 보고하오. 우리가 호주에서 참패를 당해 한산동 한형이 순직했소."
장무기는 이 말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맙소사!"
그는 통한을 금치 못했다. 팽영옥이 다시 말했다.

"지금 회서(淮西)의 의군을 주원장 형제가 지휘하고 있소. 서달, 상우춘 두 형제는 소식을 전해 듣는 즉시 대군을 이끌고 후원하기 위해 달려갔소. 한림아도 역시 함께 갔소. 화급을 다투는 일이므로 교주의 명을 기다릴 겨를이 없었소."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한 일이오."

이들이 군정(軍情)을 상의하고 있는 사이에 은야왕이 달려 들어왔다.

"개방에서 방금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진우량 녀석의 행방이 밝혀졌다고 하오."

장무기가 물었다.

"그가 어디에 있소?"

은야왕이 대답했다.

"그 놈은 본교 서수휘 형제의 휘하로 잠입하여 상당히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하오."

장무기는 잠시 생각을 굴리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다.

"정녕 그렇다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소. 삼촌, 수고스럽지만 사람을 시켜 진우량의 정체를 서형에게 알리도록 하세요. 진우량은 워낙 교활하여 곁에 두면 언젠가는 화근이 될 거라고."

은야왕은 대답을 하고 나서 말했다.

"차라리 내가 직접 찾아가 단칼에 죽여 버리는 게 어떨는지?"

장무기가 그의 제의에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교조 한 명이 서수휘의 긴급 문서를 갖고 들어왔다. 양소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큰일났군. 아무래도 녀석이 선수를 친 모양인데....."

장무기는 급히 문서를 펼쳐보았다. 서수휘의 친필 서한이었다. 그 내용은 진우량이 한때 교주에게 죄를 지었지만, 지금 그 죄를

참회하고 본교에 투신해 성심껏 이바지하고 있으니 교주께서 그에게 개과천선할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간청이 담겨져 있었다.

장무기는 서찰을 양소와 은야왕 등에게도 보여 주었다. 은야왕은 심려를 했다.

"서형은 이미 그 녀석의 간교한 술책에 현혹된 모양인데. 필시 후환이 있을 것이오."

양소도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량이 교활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서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으니 경솔하게 죽인다면 서형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우려가 있소. 게다가 진우량은 겉으로 개과천선하는 흉내를 내고 있을 테니, 우리가 그를 받아 주지 않으면 천하 영웅들로부터 우리의 아량이 좁다고 손가락질 받게 될지도 모르오."

장무기는 심각하게 말했다.

"양좌사의 말도 일리가 있소. 팽대사, 대사는 서형과 남달리 친분이 두터우니 진우량을 항상 경계하고 충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소. 만약 진우량의 손에 병권이 넘어간다면 우린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오."

팽영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서수휘는 결코 팽영옥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우량을 신임한 나머지 그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된다. 나중에 진우량은 명교 서로의군(西路義軍)을 이끌고 자칭 한왕(漢王)이라 하며 명교 동로의군(東路義軍)과 천하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파양대전(播陽大戰)에서 패배를 당해 죽고 만다. 그 수년 동안 진우량으로 인해 명교의 영웅호걸들이 숱하게 죽어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날 밤, 장무기는 양소, 팽영옥 등과 상의하며 교대 형제들을 각처에 있는 의군에게 보내 후원하도록 결정했다. 협의를 마치자 그들은 잠시나마 눈을 붙였다.

이튿날 아침 조민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 언니는 어젯밤에 떠나갔어요. 미처 작별을 고할 새가 없었기 때문에 나더러 대신 전해 달라고 했어요."

장무기는 잠시 적막함에 잠겼다.

얼마 뒤,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장삼봉과 헤어진지 오래되어 한번 찾아뵙고 싶었다. 그래서 조민, 송청서, 유연주 등과 곧장 무당산으로 향했다.

소실산과 무당산은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다. 며칠 후 장무기 일행은 무당산에 당도해 장삼봉을 배견하고 송원교와 유대암에게도 인사를 올렸다. 송원교는 아들이 대전에 와 있다는 말을 듣자 안색이 파랗게 상기되어 당장 검을 뽑아쥐고 뛰쳐나갔다. 장무기 등이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모두 대전에 모이게 되었다. 장삼봉도 따라나왔다.

송원교는 흥분하여 소리쳤다.

"대역무도한 그 짐승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송청서가 한쪽 침상에 누워 흰 붕대로 온몸을 칭칭감고 있는 것을 보자 다짜고짜 장검을 떨쳐 찔러갔다. 그러나 검 끝이 송청서의 몸에 닿으려는 순간 손목에 힘이 쭉 빠져 그만 검을 내리고 말았다. 일순 부자지정(父子之情)과 동문지의(同門之義), 만감이 교차되어 몸을 가볍게 떨더니 갑자기 검 끝을 돌려 자신의 아랫배를 향해 찔러갔다.

위기일발의 순간 장무기가 황급히 그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었다.

"대사부님,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태사부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삼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무당 문하에 이런 몹쓸 제자가 배출됐다는 것은 원교 한 사람만의 불행이 아니다. 이 대역무도한 이놈은 차라리 없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말을 내뱉기 무섭게 송청서의 가슴에 일장을 뻗어냈다. 송청서는 즉시 오장육부가 파열되어 숨이 끊어졌다.

송원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제자가 자식놈을 제대로 관속하지 못해 칠제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무기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번 일은 너에게 책임이 있다. 오늘부터 본파 장문제자의 자리를 유연주에게 내주도록 해라. 너는 태극권법을 연구하는데 전념하고 다시는 장문의 업무를 관여하지 않도록 해라."

송원교는 다시 무릎을 꿇고 그의 명을 받들었다.

유연주는 한사코 사양을 했으나 장삼봉의 확고한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중인은 장삼봉이 송청서를 직접 죽이고 송원교를 장문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엄한 문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삼봉은 영웅대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물으며 장무기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조민은 장삼봉에게 무릎을 꿇고 예전에 무례했던 죄를 용서 빌었다. 장삼봉은 호탕하게 웃어 넘기며 별로 개의치 않았다. 유대암이 불구가 되고 장취산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 모두 조민의 수하였던 아대, 아이 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 당시 조민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직접 그 죄를 결부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혈육과 등을 돌린 채 장무기를 따르고 있다는 말을 듣자 가상하게 여겼다.

"하핫..... 어려운 인연이로다."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며칠간 머문 후 조민과 함께 호주로 향했다.

도중에서 그는 명교의 의군들의 전승보를 계속 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도처에서 새로운 의군들이 궐기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다. 고소(姑蘇)에서 장사성(張士城), 태주(台州)에서는 방국진(方國珍), 그들은 비록 명교의 소속이 아니지만 오랑캐를 몰아내겠다는 뜻은 같았다.

장무기는 내심 기뻐했다. 하루속히 산하를 되찾아 태평천하가 되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바랄게 없었다. 아울러 자기가 그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동분서주해 온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장무기는 떠들썩한 것을 원치 않아 도중에서 명교 의군 수령들을 상면하지 않았다. 단지 암암리에 그들의 동태를 관찰할 뿐이었다. 명교의 의군은 군기가 엄해 백성에게 피해를 입하는 사례가 없었다. 장무기가 가는 곳마다 주원장(朱元璋) 원수(元帥)와 서달 대장군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장무기는 흐뭇했다.

이날 호주성에 당도하자, 주원장이 소식을 전해 듣고 탕화(湯和), 등유(鄧愈) 두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장무기를 영접케 했다. 장무기는 빈관(賓館)으로 안내되었다.

탕화가 아뢰었다.

"주원수와 서대장군, 상장군께선 긴요한 군무(軍務)를 상의하느라 친히 교주님을 영접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점 속하들로 하여금 미리 교주님께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장무기는 웃음을 머금고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린 모두 한 핏줄을 나눈 형제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긴요한 군무를 젖혀놓고 날 영접나왔다면 오히려 나무랐을 것이오."

이날 밤 빈관에서 주연을 베풀어 탕화와 등유가 장무기를 접대했다. 술이 세 순배 돌았을 때 주원장이 대장(大將) 화운(花雲)을 대동해 허겁지겁 나타나 땅에 엎드려 장무기에게 큰절을 올렸

다. 장무기는 얼른 그를 부축했다. 주원장은 공손하게 장무기에게 술잔을 받아 모두 단숨에 비워 버렸다. 주원장은 조민에게도 술을 올렸다. 조민은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

주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원장은 그 동안의 전과를 보고하며 매우 양양해 했다. 장무기도 크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대장 요영충(요永忠)이 성큼 대청 안으로 들어와 교주를 배견한 후 주원장에게 귓속말로 보고했다.

"잡았습니다."

주원장은 매우 기뻐했다.

"잘했다!"

이때 대문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억울하다! 난 억울해!"

장무기는 그 외침소리에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바로 한림아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아니.....? 한 형제가 아니오?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오?"

주원장은 힘주어 대답했다.

"교주께 아뢰옵니다. 한림아는 오랑캐와 결탁해 본교를 배신하려 했습니다."

장무기는 흠칫 놀랐다.

"한형제는 누구보다도 충심이 확고한데 그럴 리가 있겠소?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 어서 데리고....."

그는 말을 끝까지 잇기도 전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 손발이 굵은 밧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놀라움은 컸다. 다행하게도 조민도 묶인 채 옆에 있었다.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장무기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내 깨달을 수가 있었다. 필시 주원장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행한 음모일 것이다. 이제 명

교는 도처에서 원병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머지 않아 천하를 움켜쥘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순리에 따라 장무기가 황제 보위에 오르게 될 것이니, 주원장은 장무기를 제거해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술에다 독한 미약을 풀어넣은 게 틀림없었다.

장무기가 운기를 해보니 체내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공력도 상실되지 않았다. 그는 내심 가소롭다고 생각했다.

'이까짓 밧줄로 날 묶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지. 민매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니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갈 필요는 없다. 날이 밝은 후에 모든 교도들 앞에서 주원장의 음모를 폭로해야겠다.'

장무기는 곧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용히 운공조식을 했다.

약 한 시진이 지났을까, 홀연 몇 사람이 옆방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그들은 곧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다름아닌 주원장, 서달, 상우춘이었다.

주원장이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 자가 본교를 배신하고 원조(元朝)에 투항한 증거가 뚜렷하니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네. 두 분 형제의 의견으로 이 일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서달과 상우춘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주원장이 다시 말했다.

"이 자의 심복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 신중을 기하기 위해 우린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

서달이 그의 말을 받았다.

"주대형, 큰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선 아니 되오. 풀을 벨 때 뿌리째 뽑아야 하듯이 속히 놈을 죽여 후환을 없애는 게 현명할 것 같소."

주원장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우리의 두목이 아닌가. 그를 죽인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이 아닐지..... 그가 우리 세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상우춘이 나섰다.

"주대형, 그 녀석을 죽여 군에 변란이 생길 게 우려된다면 우리가 암암리에 살수를 전개하겠소. 자칫 잘못하면 주대형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오."

주원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두 분 형제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나도 더 이상 이의가 없네. 어쨌든 그 녀석은 여지껏 본교에 은덕을 주었고, 두 분 형제 또한 그와 친분이 두터웠으니 이번 일을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하게....."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만부득이한 상황이라지만, 그를 죽인다는 게 실로 가슴 아프네."

서달과 상우춘이 입을 모아 말했다.

"나라를 되찾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친구에 대한 사사로운 감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오."

세 사람은 곧 밖으로 걸어나갔다.

장무기는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으므로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곧 신공을 끌어올려 밧줄을 끊고 조민은 안은 채 빈관을 빠져 나갔다. 그는 오만가지 생각이 겹쳐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장무기는 그들 셋을 모두 죽여 버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들을 없애면 의군이 와해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장무기는 본디 욕심이 없었다. 그는 황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서달과 상우춘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군.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들인데..... 역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맞군.'

장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민을 데리고 떠나가 버렸다.

성 밖에 이른 그는 서찰 한 통을 써서 명교 교주 자리를 양소에게 물려 주었다. 그리고 호주에서 당했던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사실 주원장의 치밀한 술책에 걸려든 것이다. 서달과 상우춘이 죽이자고 한 것은 그가 아니라 한림아였다. 장무기가 호주에 나타난 일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주원장의 음랄한 술수였다. 그는 장무기로 하여금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하여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든 것이다.

장무기는 나라를 되찾는 일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또한 서달, 상우춘과 친형제 이상으로 친분이 두터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필시 자발적으로 물러날 것이라 예측했었다. 그의 예측은 과연 적중했다.

장무기는 비록 무공이 천하무적이지만 심계와 계략에 있어서는 도저히 주원장을 따를 수가 없었다. 하여 끝내 이 일대 효웅(梟雄)의 간계에 걸려든 것이다.

물론 장무기는 애당초 황제가 될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원장의 음모가 그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달과 상우춘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우울해졌다.

한편, 한림아가 오랑캐와 결탁해 명교를 배반했다고 운운한 것도 역시 주원장의 모함이었다. 알고보니, 한산동이 죽은 후 의군들은 한림아를 새로운 통솔자로 꼽아 실지로 주원장, 서달, 상우춘은 그의 속하라 할 수 있었다. 주원장은 한림아가 적과 내통한

친필 서한을 조작하여 다시 후한 조건을 제시해서 한림아의 심복을 매수해 서달, 상우춘에게 그 거짓 사실을 알리게 했다. 서달과 상우춘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한림아를 죽이자고 고집한 것이다. 주원장은 한림아의 공로와 위치를 내세워 마음에도 없는 능청을 떨다가 마치 서달, 상우춘의 확고한 뜻에 못이기는 것처럼 한림아를 죽이는 것을 억지로 승낙했던 것이다.

주원장은 장무기와 조민을 옆방에 가두어 놓았지만 장무기의 무공으로 충분히 스스로 밧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장무기가 밧줄을 끊자마자 복수를 해올까봐 서달, 상우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말을 입 밖에 내게 한 후 즉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나중에 장무기가 떠난 것을 확인한 그는 요영충에게 명하여 한림아를 물에 빠뜨려 죽이게 했다. 이 일석이조의 계책은 실로 악랄하면서도 완벽한 것이었다.

나중에 양소가 비록 명교 교주에 올랐지만 그 때는 주원장이 이미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한 후였다. 양소는 이미 고령인데다가 덕을 쌓은 게 많지 않아 주원장과 황제의 자리를 쟁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원장은 등극한 후 오히려 명교를 핍박하고 교내에서 공을 세웠던 형제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상우춘은 급병을 앓아 일찍 요절했지만, 서달은 결국 주원장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니.....

조민은 장무기가 양소에게 띄우는 서신을 쓰고 나서 붓을 내려놓을 생각을 않고 시무룩해 있는 것을 보자, 생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상공,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한 약속으로 도룡도를 빌려주었고, 혼례를 올리지 않았어요. 이제 세 번째 약속을 이행할 차례예요."

장무기는 안색이 굳어졌다.

'또..... 무슨 엉뚱한 일을 시키려는 건지.....'

장무기는 웬지 가슴이 철렁하며 불안했다. 조민은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 생긋이 웃었다.

"내 눈썹이 너무 엷은 것 같으니 붓으로 좀 그려 주세요. 강호협의도에 위배되는 요구는 아니겠죠?"

화미(畵眉) ----- 여인의 눈썹을 그려 주는 것으로, 정인(情人)이나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낙취(樂趣)이다.

장무기는 굳어졌던 표정이 풀리며 환하게 웃었다.

"앞으로 매일 눈썹을 그려 주겠소."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창 밖에서 여인의 간드러진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요구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았겠죠?"

바로 주지약의 음성이었다. 장무기는 양소에게 띄우는 서신을 쓰느라 정신을 쏟는 바람에 그녀가 어느새 창 밖에 나타났는지조차 몰랐다.

창문이 천천히 열리며 주지약의 달덩어리 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촛불에 비춰진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웃음이 깔려 있었다. 장무기는 다시 표정이 굳어졌다.

"지.....지약은 또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려는 거요?"

주지약의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샛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엇을 요구할는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당신이 민민 동생과 혼례를 올리게 되는 날 생각이 날 거예요."

장무기는 고개를 돌려 조민을 한 번 쳐다보고 나서 다시 주지약을 쳐다보았다. 일순, 여러 가지 생각이 어우러져 그의 심기를 흐트러 놓았다. 기쁨인지 우려인지 알 수 없는 격정으로 인해 손이 가볍게 떨리며 쥐고 있던 붓이 탁자 위에 떨어졌다.

조민과 주지약, 그녀들이 마주보는 미소에서 장무기는 가슴 속에 어우러졌던 여러 가지 감정이 뿌듯한 행복으로 양각(陽刻)되

어 일렁거렸다.

<끝>